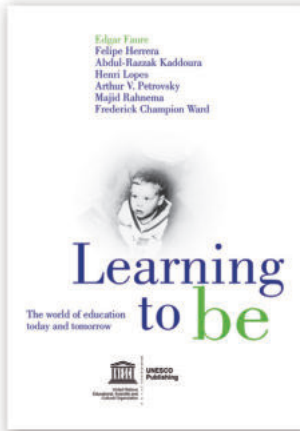


존재하기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위한 학습



에드가르 포르
펠리페 에레라
압둘-라자크 카두라
앙리 로페즈
아더 V. 페트로프스키
마히드 라네마
프레더릭 챔피언 워드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국제교육발전위원회 보고서
유네스코, 파리, 1972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ed.team@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

번역 이현경
감수 및 윤문 한송희
교열 홍보강, 김보람, 권송, 유보람
디자인 정명진

ISBN 979-11-90615-30-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1-BK-4

원제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1972년 최초 발행 유네스코(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및
George G. Harrap & Co. Ltd. (182-184 High Holborn, London
WC1V7AX)

초판 발행 1972년 8월
ISBN 978-92-3-101017-0

2판 발행 2013년 10월
ISBN 978-92-3-104246-1

이 책에 표현된 생각과 의견은 저자들의 것으로 유네스코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이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에 사용된 명칭이나 제시된 자료는 국가, 영토, 도시, 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나 그 권한,
혹은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관한 유네스코 측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유네스코 2013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한국어판

과거를 통해 새로이 내다보는 교육의 미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에 발간된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일명 ‘포르 보고서’의 국문본을 새로이 출간하고자 한다. 50여년이 지난 보고서를 재출간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유네스코의 미래교육보고서 시리즈의 최신판인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최근에 발간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포르보고서가 발간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마다 국제교육계 저명인사가 모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혜를 모으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1970년,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던 르네 마외는 세계 교육의 해(International Education Year; 1970)와 제2차 유엔개발 10년(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1971-1980)을 맞이하여 국제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결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촉진을 통해 전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2년간 펼쳤고, 그 결과 1972년 9월 초 보고서를 발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했다. 원 제목보다 유명한 ‘포르 보고서’란 별명은 당시 위원회 의장이었던 에드가르 포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보고서는 50여 년 전 발간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의 최신 미래 교육 담론과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유네스코는 포르 보고서에서 시작된 미래 교육 담론 촉진의 전통을 이어, 들로르 보고서를 1995년에 출간하고, 2021년 11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일명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출간했다. 새 보고서는 기후위기, 팬데믹,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상황속에서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고 제언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포르 보고서에서 주장한 인권으로서의 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5년에 일조각과 함께 포르 보고서를 “인간화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한 바 있다. 당시 번역은 연세대학교의 오기형 교수님과 훗날 제11·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자님께서 맡아주셨다. “Learning to Be”를 “인간화교육”으로 번역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살펴봐도 충실하게 번역되었고, 그 당시 새로웠던 평생교육의 개념을 국내사회에 전달한 최신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국한문혼용체로 번역되어 오늘날의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래 전부터 절판된 상태라 아쉬움이 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포르 보고서의 새로운 국문본을 출간하여, 50년 전 국제교육발전위원회가 제언했던 미래가 오늘날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되짚어 보며,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포르 보고서에서 태동한 학습사회로의 이행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이번 국문본 출간이 우리 사회에서의 미래교육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새로운 국문번역본이 출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번역을 맡아주신 이현경 박사님, 그리고 감수와 해제를 통해 보고서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제32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포르 보고서가 발간된지 반 세기가 되는 해이다. 발간 5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포르 보고서의 선구안과 의미를 되새기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아이디어의 실험실로서 활발하게 역할하고,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을 새로이 다짐해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포르 보고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2대 위원

1. 배경

에드가르 포르(Edgar Faure)가 의장을 맡았던 유네스코 국제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는 1972년 5월 18일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던 르네 마외(René Maheu)에게 이른바 ‘포르 보고서’로 알려진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근대교육 성립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만을 지향해 온 세계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의미심장한 비판을 가하며 개혁을 촉구한 세기적 선언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미래 지향점으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과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라는 두 가지 핵심적 키워드를 전면에 등장시킨 탁월한 보고서였다.

이후로도 교육 관련 다양한 보고서들이 출간되었지만, 포르 보고서는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출간한 어느 보고서보다도 의미 있고 혁신적인 선언을 담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자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 관련 보고서로 간주하는 것은 대략 네 가지이다. 순서대로 보면, 1972년 발간한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1996년의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Learning, the

Treasure Within)”, 1999년의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 (Seven Complex Lessons in Education for the Future)”, 그리고 2015년의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가?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이다. 이들 중 뒤의 두 가지는 유네스코가 직접 발간한 것이었다. 앞의 두 보고서, 즉 포르 보고서와 들로르 보고서는 국제위원회를 만들어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나 세간에 끼친 영향면에서 단연 압도적인 보고서들이다. 특히 포르 보고서는 세계 교육계를 향해 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포르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1960년대까지의 근대 학교교육체계가 거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근본적이고 대규모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대규모적인 혁신은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내부 개혁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서 “평생교육”과 “학습사회”가 제안되었다. 이제 기존의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 사회는 더 이상 학교사회가 아닌 학습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선포하였다.

포르 보고서가 출간된 지 벌써 50년이 가까워진다. 이를 예전에 출간된 낡은 문헌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겨우 50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회 혁신의 청사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회변화는 기술변화나 과학변화와 달리 그 변화 속도가 느리며, 최소한 한두 세대가 지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석유만 보더라도 그것이 발견된 이후 거의 한두 세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석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변화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을 스펀터는 경제의 학습기간이라고 부른 바 있다.

사회제도 변화는 기술변화보다 훨씬 긴 혁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포르 보고서는 이제 겨우 두 세대를 경과하고 있는 사고틀이며, 그 과정에서 이미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실천 및 교육혁신을 위한 디딤대로 활용

되었다. 학교 시공간의 해체, 원격교육 등 교육공학의 활용, 비형식교육의 전면화, 계속교육과 평생학습의 일상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포르 보고서가 전망한 혁신적 변화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제안한 원리들이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교육체계(educational system) 개혁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포르 보고서는 ‘한물간 보고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비로소 제대로 힘을 받을 시대를 만난, ‘현재 진행형 보고서’인 것이다.

2. 포르가 쓴 서문

포르 보고서 가운데 특히 에드가르 포르가 실명으로 작성한 서문은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이다. 이 서문에서 포르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개혁은 ‘작은 개선’이 아니라 ‘크고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이식당한 과거 피식민지 국가들의 경우에도 교육과 사회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할 뿐더러 그와 동시에 그런 제도를 이식했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간의 교육은 과학 기술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민주주의 확장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경제와 고용 증진을 위한 역할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포르는 교육의 궁극적 가치와 지향점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질서 안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일부에서 주장되던 맬서스(Malthus)적 세계관, 즉 인류 발전은 어떤 수준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인류가 그런 한계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권, 가치, 민주성 등의 일부를 희생하거나 사회계층화를 정당화하는 사회기제를 수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반박한다. 또한 이런 전제에 따라오는 교육에 대한 가정들, 예컨

대 교육은 생존을 위해 경제의 수단이 되거나 계층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아래 인용문은 이러한 포르 보고서의 출발점을 제대로 드러낸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그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하도록(to become himself)’하는 것이며, 직업교육과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을 어떤 특정 지식에 평생토록 얽매이도록 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전문직간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스스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자기훈련하는 과정을 장려해야 한다. 간략히 말해서 교육의 지속적 확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교육의 목표와 방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p.30)”

포르가 볼 때, 교육발전은 “교육의 지속적 확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교육의 목표와 방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p.50)”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가 찾은 해답이 바로 평생교육과 학습사회라는 두 가지 키워드였다. 현재의 형식교육, 즉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교육은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사회는 그런 평생교육을 품어 안는 학습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국제교육발전위원회가 보기에 이미 당시에 “학교 재학 기간이 최적의 나이까지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것과 동시에 순전히 평생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새롭게 생겨나(p.55)”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즉, 평생교육과 학습사회이다. 공부란 더 이상 지적 능력과 연령을 막론하고 성인기 이전의 어린 학생들에게 내주고 거둬들이는 과제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교육 시스템은 본 위원회가 구상한 개념들로 그 전부가 완전히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 학습해야 하는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재고안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면, 교수활동은 그 좁은 범위를 넘어 넓은 의미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다시 더 넓은 의미의 학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학습에 삶의 모든 면이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된다면, 또 사회의 모든 면이 사회적 경제적 자원과 아울러 교육의 자원면에서도 포괄된다면, 이제 우리는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의 교육이 맞게 될 진짜 도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게 될 경제적 정치적 저항에 비해 문화의 본질을 보존하는 일이 더 쉬울지 어쩔지는 결코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투자보다 수익이 크다는 걸 안다면 왜 그 싸움을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p.52)”

3. 보고서의 전체 구조

포르 보고서는 모두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가운데 제1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아울러, 교육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을 들여다본다. 그 가운데 특히 학교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팽창이 갖는 의미와 효과성에 의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교육팽창을 단지 학교팽창으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를 묻고 그 대안을 탐색하는 것으로 마감한다. 이를 제1장 과거의 유산, 제2장 진보와 막다른 지점, 그리고 제3장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사회로 가는 길 등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요컨대 지금까지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제도화되어 온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한 근본적 한계에 질문을 던진다.

제2부는 미래교육을 위해 우리가 이용 가능한 과학기술 및 새로운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 데 할애된다. 당시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던 뇌과학, 유전자학, 인지과학 등의 생물-심리학적 발전이 새로운 교육 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컴퓨터기반 교수방법의 혁신적 실험들이 가진 새로운 기반을 탐색하며,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의 장을 학교로부터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러한 사회를 ‘학습 사회’로 명명하고,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념화한다. 구체적으로 제4장 미래를 향한 도전, 제5장 과학과 연구를 통한

교육의 새 가능성 탐색, 제6장 미래의 교육가치와 목적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술한다.

제3부는 학습사회와 평생교육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21개의 원리와 제언, 그리고 그에 맞는 교육개혁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안된 21개의 새로운 교육원리는 넓게는 교육의 시공간, 주체와 목적, 과정과 원리 등을 혁신하는 것으로서,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폐쇄적 교육체계’를 ‘개방적 교육체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엄격하게 초등, 중등, 고등교육 체계를 구분해 왔던 체계 구성방식의 경계, 혹은 일반계와 전문계를 구분해 왔던 중등교육 트랙의 경계, 그리고 학력과 비학력을 구분해 왔던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경계 등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평생교육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당시로는 너무나도 급진적이어서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서 현실성 있게 다루어지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담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교육은 이 세계의 생산물(product)임과 동시에 이 세계를 구성해가는 생산자(producer)”라는 이중적 존재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그로써 새로운 지구공동체의 교육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제7장에서는 새로운 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루고, 제8장은 이를 위해 교육개혁을 추구할 구체적 전략 21가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4. 학교의 체계화를 넘어서: 총체적이고 개방적인 교육개혁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보고서의 제1부에서 근대교육이 걸어온 길을 분석하는 안목은 그 자체로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타당한 논리구조를 보여준다.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항시적 질문에 대해 잘 구조화된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학교의 가장 큰 문제를 체계화(systematization)에서 찾는다. 제8장에서는 “교육에 대해 전례 없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탈시스템(un-system)이다(p.257)”고 말한다. 또한 근대 학교교육이 형성되기 이전의 고대와 중세의 교육을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형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근대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수 있는 지혜의 샘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지금도 자연적이며 제도화되지 않은 학습양식이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일한 교육 형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수백만 명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교육하고 있다 (p.63)”고 말한다. 또 “이런 생각, 혹은 교수법이라고 하기에는 오래되고 애매한 방식, 학문적 교수법 등이 바로 이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식적 학습사회(consciously learning society)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들이다(p.63)”라고 주장한다. 학교의 현재 양식과 가치를 한계짓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란 바로 학교가 가진 개인학습 중심성, 구어보다 문자에 의존하는 교육내용, 실제보다 이론에 집중하는 지식 양식 등이라고 본다. 이른바 ‘체계화된 교육양식을 가진 학교’의 특성 때문에 오늘날 교육의 화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당연히 이러한 학교의 한계는 해체되어야 하며,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의 개념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교육의 양식은 여러 외부적(사회적) 변화들, 예컨대 실업과 사회격차, 생태계적 위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교육을 내부적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지난

세기 동안 성숙해 온 과학적 발전들, 예컨대 뇌 연구, 학습심리학, 정보와 인공지능 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로 인해 교육은 학교라는 초기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교수법이 도입되고, 인간의 존재성을 해방하는 힘을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평생교육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포르 보고서는 이런 점들을 토대로 교육의 목적을 새롭게 재정의한다. 즉, 교육은 ‘과학적 인본주의’, ‘창조성’, ‘사회적 책임’,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부터 교육은 더 이상 동화(assimilated) 되어야 할 교과목으로만 규정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즉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진적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와 소통하고 질문하는 스스로의 존재를 형성해갈 수 있는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p.224)

이런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교육의 목적과 기능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과학적 인본주의(scientific humanism)’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 축적을 위한 단순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사유와 방법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길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은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다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책무성이 강조된다. 학교는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며 참여하는 시민성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포르 보고서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의 전면에 내세운다. 이른바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인간(A new man for a new world!)(p.246)’을 선언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상정하는 교육의 궁극적 정의와 지향점은 사람이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윤리적 통합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p.249)”이다. 물론 그런 인간은 어느 한 지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완성과 학습의 과정에 있는 것(p.250)”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들이 필요하다.

“관찰하고 실험하며 경험과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체계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읽고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는 능력, 마음속에서 과학적 정신과 시적 감수성을 연결함으로써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등이다.(p.248)”

이쯤에서 포르 보고서는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을 실현시켜줄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학습사회 개념이다 (p.256). 이 보고서에서 학습사회는 학교를 탈체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습사회는 학교 담장을 넘어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맥락이자 그와 동시에 그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다. 학습사회가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조건으로써 사회를 학습사회화 해왔다고 본다.

학습사회는 학습 혹은 학습자의 본질을 다시 의미 규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즉, “미래교육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자를 교육하는 환경은 이제 주체를 교육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p.257).” 이어서 훨씬 강력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육은 비록 가장 최근의 과학적 자료에서 얻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기반하지만, 더 이상 학습자나, 어떤 개인, 그밖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반드시 학습자로부터 나아가야 한다(pp.257-258).”

새로운 개념의 학습 및 학습자를 설정함으로써 교육은 자연스럽게 형식교육의 체계화 양상을 넘어 탈체계화 되며, 다른 한편으로 무형식교육의 장이었던 사회 일반에서 교육의 재체계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학교와 사회의 교육 기능이 서로 연결되고 넘나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교육’의 독점성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명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한 사회 내에서의 교육 기능이 일종의 특권적 영역으로 구획지어져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모든 영역, 즉 공공행정, 산업, 언론과 통신, 교통 등 모든 영역들이 교육 활성화에 참여해야 한다(p.258).”

예컨대 아테네에서 교육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받는 활동이 아니었다. 교육은 도시의 핵심 임무였고, 도시는 시민을 교육했다. 그런 교육의 총체적 문화를 아테네에서는 페다고지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파이데이아(paideia)라고 불렀다. 도시 전체가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의 기능이 지금처럼 ‘사회적 기능’의 일부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상황을 넘어서 일종의 탈제도화로 나가며, 모든 사회적 기능들이 일부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은행도 교육하고, 공원도 교육하고, 예술도 교육하는 식이다. 이런 변화를 촉발하려면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뒤따른다. 학교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 전체에 ‘파이데이아’적 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부분적이거나 작은 변화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포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웅변적 어조로 총체적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선포한다.

“오늘날, 교육 과정(educational process)의 목적과 양식의 ‘총체성’이라는 개념 없이 교육개혁을 짚짚하게 하는 방식은 더 이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 부문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p.272).”

5. 교육의 생명성을 담아내는 평생교육

포르 보고서는 결코 교육이 사회발전의 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교육과 사회, 둘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격차와 ‘비동기성’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개혁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은 단지 사회가 원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 변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르 보고서는 ‘교육’을 ‘사회’에 대해 어떻게 위치짓고 있는가?

“교육은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지만, 그것들의 수동적 놀잇감은 아니다.

교육은 미래를 형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며, 지금 시점에서 특히 그렇다 (p.183).”

“교육은 사회의 생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의 생산자라는 것,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구조 및 방안들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는 것(p.374)”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교육 활동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사이에는 동시적이거나 약간 지연되기도 하지만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 변동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p.127)”.

이와 같이 포르 보고서에서 보는 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기에, “교육도 모든 인간사의 법칙을 따르며, 낡아가고, 죽은 가지가 쌓인다(p.150).” 다시 말해서 교육은 한 사회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급조하거나 갑자기 개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교육 자체에는 자기조직화적 특성이 있는 까닭에 간혹 외부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없는 고정성의 존재,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체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자체가 사회체계로서 피할 수 없는 특성임과 동시에,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궁극적 사명을 우리가 교육체계에 부여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 이로써 교육은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자율적인 사회기제이자,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인간성의 근본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방호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은, 스스로 재생산하고(reproduce) 스스로 개선해 나가지만(renew), 그 고정성으로 인해서 흔히 비난받는다. 교육만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제도인 것은 분명 아니다. 사실 교육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는 반복의 기능으로, 앞 세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반복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에 과거와 같이 전통적 가치를 전수하는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교육 시스템들이 시간과 공간 면에서 폐쇄적인 형태가 되는 이유이고, 대체로 그 자체의 존속과 성공에 주로 관심을 두는 이유다(pp.127-1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사회적 변화의 촉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퇴화하게 마련이다. 중세 대학이 지녔던 스콜라철학적 기초가 근대사회로 이어져 오면서 근대과학과 인문학의 출현을 가로막았으며, 이후 훔볼트 대학 등에서 새로운 대학혁신의 기초를 마련하여 대학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오늘날 학교 체계 안에 갇혀버린 교육의 본류 역시 일정한 체계적 변화를 통해 그 근본적 가능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포르 보고서는 이렇게 요청되는 변화를 한마디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 담고자 하며, 그 출발점을 계속교육의 탄생에서 찾는다. 즉, “초기교육의 아이디어로부터 계속교육의 아이디어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현대교육학의 대표적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다(p.198).” 그러나 포르 보고서는 이런 변화가 오직 현대교육학의 전유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평생교육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 인식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획득되어야 할 교육의 항구적 특성이라고 본다.

“평생교육이란 개념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을 우리 시대의 발견으로 여기는 것은 환상이다. 교육적 발전이 지속된다는 생각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의식하든 안 하든, 인간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삶에 대한 개념 및 지식의 내용을 형성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자연스러운 역동이 우연을 넘어 짜임새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선입견, 즉 공부는 젊은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교육의 정상적인 용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명백한 사실이 세상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똑같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p.223).”

포르 보고서에서 교육은 결코 주어진 교과과정을 그대로 학습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러써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 세상과 소통하고 질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더 생애 전 시기 동안 자신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경제성장을 위한 역량개발, 혹은 노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 등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포르 보고서에서 말하듯 평생교육은 “인간이 미완성의 존재이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만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근거(pp.224-225)”를 실현시키는 일이며, 기존의 여러 심리학 연구들은 이런 측면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교육은 필연적으로 평생에 걸친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존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전체적이고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그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교육기관, 프로그램,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p.225).”

6. 21개의 구체적 정책 개혁안

이러한 방향에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포르 보고서는 21가지의 교육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직접 읽어볼 것을 권한다. 너무나 실제적이면서도 자세하게 그 원리, 철학, 방향, 방법, 사례 등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굳이 그것들을 요약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21가지 개혁안 말미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요약문은 덧붙일 필요 없이 그대로 옮겨도 좋을 만큼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1970년대에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개혁과 변화의 본질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령기’)로 시간 제한을 둔, 그리고 (학교 건물에) 공간적으로 한정된 교육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총체적 교육 활동의 기초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전체 교육 활동에는 제도화된 교육과 학교밖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활동의 일부는 탈-형식화되면서, 유연하고 다양한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교육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계속훈련의 확대를 통해 초기교육의 평균 지속 기간이 짧은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교육은 인생 만큼 길게 가는 실존적 연속체로 생각되어야 한다. 둘째, ‘폐쇄형’ 교육 시스템은 ‘개방형’이 되어야 한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후 교육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점차적으로 없애가야 한다. 교육의 흐름 속에 지름길과 갈래간 접합지점(branch-articulation)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학령전 아동 교육의 강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일에 가족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형태를 선정하고 육성해야 한다.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모든 가능한 수단들이 기초교육의 발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계 교육과 직업계 기술훈련은 서로 협력적이어야 한다. 성격 발달과 지적 훈련은 조화로워야 한다. 교육과 일도 긴밀히 관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용으로나 지도방법으로나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드는 기술교육은 학교밖 직업 훈련으로 보완되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체되어야 한다. 훈련은 잘 조직되어서, 취업 중에도 재전환이 촉진되도록, 최적의 직업 이동을 이루도록,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나 훈련생들의 관점에서나 가능한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선택의 폭이 좁고 너무 이른 전문성 선택은 더불어 사라져야 한다. 다섯째, 더욱더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학교들은 성인과 청년층 모두에 열려 있는 다목적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며, 전문성과 과학적 연구만큼이나 계속훈련과 주기적인 역량 증진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은 최대한 개별화·개성화되어야 하며, 자기학습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수업과 학습의 과정은 그것이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이라면 어디서나 가속화되어야 한다. 교육 자료들을 복제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기법들은, 예상되는 혁신에 대단히 잘 맞는 것들로, 보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을 위한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교육학적 방법의 원천으로(장비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교육 활동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의 운영은 민주화되어야 하며, 일반 대중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정에서 좀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pp.345-346).”

7. 돌아보며

포르 보고서의 내용은 기술면에서 오늘날과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 예컨대 1970년대를 겨냥해서 강조한 라디오의 활용이나 원격교육방법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면 이 보고서는 교육에 대해 놀라울 만큼 현장감과 적합성을 가진 분석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처럼, 교육개혁을 단순히 교과과정의 개편이나 교육공학적 요소들의 도입, 그리고 약간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려는 시도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이 보고서에 담긴 교육개혁의 총체성과 전환적 개념의 도입, 그리고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장기적 변혁의 인내와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가는 깊은 혜안은 우리의 향후 교육개혁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교육개혁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포르 보고서는 출간 후 약 10여 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70-80년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여러 방안들, 예컨대 원격교육, 대안교육 등이 활발하게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0년대 글로벌 보수주의, 즉 레이건과 대처를 잇는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의 보수화, 그에 이은 1990년대의 글로벌 지식경제의 출현은 그와 같이 거대하고 드높았던 교육변혁의 동력을 끊어 놓았다. 오히려 그것을 직업교육 및 훈련 방식의 개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는 동안 포르 보고서가 제안했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즉,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직업계속훈련 차원에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포르 보고서가 제안한 학습사회는 글로벌 학습경제 아래 예측된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고, 과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2006년 국제평생교육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은 “학습사회를 넘어서(Beyond the Learning Society)”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출간하면서 포르 보고서가 제안했던 평생교육

과 학습사회 개념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런 가능성은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에서의 평생교육은 포르 보고서가 제안했던 방향과 유사한 방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국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희귀한 교육개혁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평생교육 개념이 여전히 전면화되어 있으며, 제도 혹은 법령의 명칭도 평생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평생교육은 ‘교육활동’의 일부로, 직업능력개발과 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최근에는 진보적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전체를 평생교육의 한 축으로 확장하고 개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고등교육 보편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교육실천 및 교육이론은 포르 보고서가 지향했던 교육개혁, 즉 평생교육과 학습사회라는 축을 통해 교육체계의 근본을 바꾸고자 했던 시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근대학교교육은 서구 열강세력 혹은 직접적 식민지배자였던 일본에 비해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해방과 독립 이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했고,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기반은 우리의 학교교육에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평생교육체계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될 수 있다. 늘 입시개혁에만 매달려 있던 한국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사회가 학습사회로 전환되고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교육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의 구조와 체계를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건설해 나가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혁신적 가능성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양태를 규정하는 사회체계의 혁신과 개혁이다. 여러분들께 묻는다. 포르 보고서가 제안한 ‘총체적 개혁’ 말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한국 교육문제의 난망함을 치유할 수 있을까?

포르 보고서를 재발간하며

유네스코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을 1972년에 발간했습니다. 프랑스의 전 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이었던 에드가르 포르(Edgar Faure)의 이름이 붙여진 <포르 보고서>는 발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가오는 미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교육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평생교육’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학습이 평생동안 꾸준히 개선되고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인본주의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972년 이래 세계는 변화해 왔습니다. 세계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지만 불평등 또한 심해졌습니다. 신기술은 우리의 소통과 정보 공유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는 날마다 젊어지고 있으며,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은 형평성(equity)과 질(quality), 적합성(relevance)과 관련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맥락이 달라졌더라도 <포르 보고서>의 취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생각에 담긴 지혜로부터 새로운 교육전문가 세대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보고서의 재발간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의 해로 정한 2015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의 형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새롭고 커다란 진전과,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발간사: 포르 보고서를 재발간하며

이러한 이유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모두가 읽고, 또 다시 읽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2013년 9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에드가르 포르 Edgar Faure

펠리페 에레라 Felipe Herrera

압둘-라자크 카두라 Abdul-Razzak Kaddoura

앙리 로페즈 Henri Lopes

아더 V. 페트로프스키 Arthur V. Petrovsky

마히드 라네마 Majid Rahnema

프레더릭 챔피언 워드 Frederick Champion Ward

보고서 제출 서한

에드가르 포르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르네 마외(René Maheu) 유네스코 사무총장께

1972년 5월 18일

친애하는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1971년 초반에 저를 의장으로 임명하셨던 국제교육발전 위원회가 이제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는 이 주제에 대해 쓸 내용이 없다거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심층연구와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보고서가 충분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의 임무는 엄청난 것이었고, 동료들과 저는 이 정도 분량의 보고서를 위해 정말로 세심한 작업들을 수행했지만, 사실 이 연구는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심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총장님께서 원하신 것은 출신과 배경, 지향점이 다른 위원들이 모여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의 교육 발전을 포함한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비판적 성찰을 내놓는 것이지, 지쳐버릴 정도로 방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행동을 위한 성찰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멈출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2차 10개년발전계획(the Second Development Decade)이 진행 중이기도 하여, 이 보고서가 국제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이려면 보고서의 출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무총장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 또 세계 교육의 진보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저로서는 주제넘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가 사무총장님이 위원회에 부여하신 위임 사항의 정신에 전적으로 충신했다고 믿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이었고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데 자유로웠으며, 따라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작업에는 시작부터 네 가지 기본 가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국제 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가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수행했던 과업이 진정으로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열망, 문제와 경향, 그리고 하나의 동질적인 운명을 지향하는 운동성을 담은 국제 공동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근본적 연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신념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그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뜻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은 바로 교육이며, 이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교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방법이 새롭게 혁신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발전(development)이란 곧 인간의 완전한 실현(complete fulfillment of man)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풍부한 인성을 가지며, 성숙하고 세밀한 자기표현을 할 줄 알며, 여러 가지 역할들, 예컨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이자 생산자로서, 기술개발자 혹은 창의적 상상가로서의 역할에 헌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전제는 오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만이 이러한 완전한 인간(complete man)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점점 파편화되고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완전한 인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모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learn to be)’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바라셨듯이, 저희는 1972년 현재의 교육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총체성으로 바라보고,

그 중에서 공통 양상들을 판별해 냈습니다. 이런 공통 양상들은 겉보기에는 여러 국가와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 혹은 역사상 최초로 교육발전을 규정하거나 동반하는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로부터의 유산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보고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른바 ‘막다른 지점(dead ends)’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식들과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새로운 교육 과제와 기능의 습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례없는 요구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예산만 퍼붓는 식의 소심한 반쪽짜리 해결책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시각을 외면하며 미래를 향한 진정한 약속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최근 발전하기 시작한 지적·개념적·기술적 진보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이를 총체적 혁신의 맥락으로 확장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보다 확장된 교육의 궁극적 목적, 즉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과 조응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교육체계에 해당될 수 있는 이 목표는 국가정책에 자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교육 전략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조합되어야 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 정책 계획수립 체계 안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별 교육 전략의 발전에 필요한 방법론적 노력에도 기여하고자 애쓰면서, 방법론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일련의 연속된 순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가 국제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국제적 연대, 다시 말해 국제 협력과 원조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방식을 조사하여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제출하는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구성원들, 즉 펠리페 에레라(Felipe Herrera), 압둘-라자크 카두라(Abdul-Razzak Kaddoura), 앙리 로페즈(Henri Lopes), 아더 V. 페트로프스키(Arthur V. Petrovsky), 마히드 라네마(Majid Rahnema), 프레더릭 챔피언 워드(Frederick Champion Ward), 그리고 저의 폭넓은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몇 가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지 위원회만의 작품이거나 혹은 회의실에서 나눈 빈번

한 토론의 기록일 뿐이라는 인상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천지향적이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가 23개국에서 수행했던 미션 덕분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사무총장님과 관련 정부가 배려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만난 교육의 현실 및 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 보고서의 생생한 현실성 대부분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유네스코가 25년간의 성찰과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풍부한 경험적 자산도 보탬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보고서는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수집된 수많은 자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들 자료를 통해 특히 활동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교육 분야의 탁월한 사상가와 전문가들의 성찰과 독창적인 연구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동료들은 제게 보고서 전반에 대한 소개가 될 수 있는 서문(preamble)을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님께 서문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유네스코 사무국의 수준 높은 역량과 지칠 줄 모르는 수고가 없었다면 저희 위원회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세르 델리온(Aser Deleon)의 지휘 하에, 사무국은 가혹한 일정과 업무 자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해석하는 데 이르기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동료들에게 완전한 지적 독립성을 보장해주신 부분에 대해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대한 신임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건대, 지적 독립성은 우리 작업과정 내내 객관성뿐만 아니라 자제력까지도 보장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당신의 진실한 벗,
에드가르 포르 드림

보고서 제출 서한에 대한 답장

르네 마외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부터
에드가르 포르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장께

1972년 5월 29일

친애하는 의장님,

의장님이 5월18일 국제교육발전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보낸 편지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교육발전위원회가 주어진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빠르고 성공적으로 완수해 낸 모든 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있게 다시 읽어 보겠지만, 우선 일독해 보니 이 보고서는 추구한 목적에 부합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해 보입니다.

의장님의 지도력으로 문화적으로나 전문 분야에서 그 배경이 다르면서도 객관성을 추구하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저명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오늘날의 교육을 설명하고 내일의 교육에 대한 세계적 개념을 지금까지 공식화된 그 어떤 개념보다도 의심의 여지없이 완전하게 정의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이 전 생애로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 발전과 인간 잠재력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봐 왔습니다. 유네스코 활동의 지침이 되어 온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의장님의 성과는 교육에 대한 성찰에 국한되지 않으며 질적으로도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이 보고서가 유네스코와 각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행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할 실천적 권고사항을 이끌어내서 아주 기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결정은 충분히 정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저의 논평과 함께 제9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그리고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일반 대중 및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을 위해 일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이 보고서를 발전에 관심이 있는 여러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기구 및 기관과 다양한 재정 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 보고서를 주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자신과 전세계 사람들 및 여러 기구를 대신하여, 위원회 위원들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의장님께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르네 마외 드림

국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설치한 국제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의 집단적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에드가르 포르(Edgar Faure, 프랑스) 의장. 전 총리 및 교육부장관.

펠리페 에레라(Felipe Herrera, 칠레) 칠레대학교 교수. 전 미주개발은행장.

압둘-라자크 카두라(Abdul-Razzak Kaddoura, 시리아) 다마스쿠스대학교 핵물리학과 교수.

앙리 로페즈(Henri Lopes, 콩고인민공화국) 외무부장관. 전 교육부장관.

아더 V. 페트로프스키(Arthur V. Petrovsky, 소련) 소련교육과학연구원 위원.

마히드 라네마(Majid Rahnema, 이란) 전 고등교육과학부장관.

프레더릭 챔피언 워드(Frederick Champion Ward, 미국) 포드재단 국제교육자문위원.

위원회 지원 사무국:

아세르 델리온(Aser Deleon; 총책임 사무관),

폴 랑그랑(Paul Lengrand),

레 탄 코이(Lê Thành Khôi),

존 마시(John G. Masee), 존 슬레이터(John G. Slater),

피터 윌리엄스(Peter R.C. Williams),

루이스 치글러(Louis Ziegle)

협력: 니콜라 보다르(Nicolas Bodart), 헨리 디유제드(Henri Dieuzeide),
프랑스와 푸레(François Furet), 실뱅 루리에(Sylvain Lourié)

공동편집책임: 마크 길리아드(Marc Gilliard)

영어 번역: 패트릭 볼스(Patrick W. Bowles)

보고서 전반에 있는 각주 및 에필로그 II의 인용구들을 제시하는 주된 목적은 토론 중인 주제에 관련된 여러 의견의 다양성과 경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용문들이 반드시 본 위원회 전체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 각 개인의 견해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보고서 전반에서, 특히 8장에 보이는 ‘사례’들은 위원회의 명제나 제안이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실례로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방안이나, 따라야 할 공식으로 여기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른 나라나 분야의 교육 활동에서도 이들과 똑같이 흥미롭고 중요한 사례가 있었다. 이미 진행 중인 교육 실험과 혁신들이 매우 많고 다양하기에 이 모두를 완전히 대표하거나 만족시킬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례’들이 다른 혁신안 연구를 자극하거나, 혹은 성공적인 혁신적 실험에 대한 정보 확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보고서에서 의도한 목적은 완수될 것이다.

차례

발간사 _ 과거를 통해 새로이 내다보는 교육의 미래 / 한경구	3
해제 _ 포르 보고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한승희	5
발간사 _ 포르 보고서를 재발간하며 / 이리나 보코바	21
보고서 제출 서한	24
보고서 제출 서한에 대한 답장	28
국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30
서문 _ 에드가르 포르	37
1. 교육과 인간의 운명 ... 37	
2. 과학기술혁명: 교육과 민주주의 ... 39	
3. 질적 변화: 동기와 고용 ... 45	
4. 학교와 학습 사회 ... 50	
5. 변화의 도구 ... 52	
6. 국제 협력 ... 55	

제1부: 조사 결과

제1장. 교육의 질문	61
1. 과거의 유산 ... 61	
생물학적 필요로서의 교육 — 사회적 필요로서의 교육 — 원시 사회 — 아프리카 전통 — 학교의 탄생 — 문어체 전통 — 교사와 학생 — 아시아 전통 — 그리스-로마 전통 — 기독교 학교 — 이슬람의 교육 — 중세의 대학교 모형 — 현대의 도래 — 산업혁명 — 이식된 교육 모형 — 현대로의 진입	
2. 현재의 특징 ... 71	
세 가지 새로운 현상 — 교육이 선행한다 — 교육이 예측한다 — 사회가 학교 졸업생들을 거부한다 — 공통적 추세 — 교육 개혁 — 구조적 변혁 — 급진적 비판 — 반발	

제2장. 진보와 막다른 지점	89
1. 요구와 수요 ... 90	
정의 — 네 가지 언급 — 인구학적 요인 — 경제 발전의 요건 —	
정치적 고려 — 국민으로부터 오는 압박의 영향 — 교육 수요의 사회학 —	
수요의 지역적 분포	
2. 확대와 한계 ... 100	
속도를 내는 확대정책 — 보편적 학교 취학을 향해 — 교사의 확보 —	
학교 밖의 잠재력 — 일부 현혹적인 통계수치 — 문해와 비문해 —	
문해 캠페인의 교훈	
3. 자원과 수단 ... 106	
세계 교육비 — 예산 지출 — 교육지출과 GNP — 지출 증가의 비교 —	
학교의 낭비 — 재정 자원의 배정 — 학교를 위한 특별 재정 조치 —	
증가율 둔화 — 기준: 엄격한가 가변적인가 — 지출 구조조정	
4. 불균형과 불평등 ... 114	
지역적 불평등 — 교사의 수급 — 여성 교육 — 정보 매체 — 차질	
제3장. 교육과 사회	125
교육과 사회: 네 가지 학설 ... 126	
1. 전통과 제약요인 ... 127	
교육의 자기영속적 기능 — 시민훈련의 이용과 남용 — 위계질서 —	
엘리트주의 — 막힌 사회 — 이미지로서의 교육 — 교육은 혁신한다	
2. 방법과 내용 ... 132	
문화적 소통 — 구어 — 문어 — 시각자료 — 매체의 오용 —	
교과목의 위계 — 프로그램에 대한 시대착오와 배제 — 구식이 된 교육과정	
— 사회 교육 — 과학 교육 — 기술 교육 — 예술 교육 — 직업 교육 —	
수작업 교육 — 체육 교육	
3. 민주주의로 가는 길 ... 142	
교육민주화의 진보 — 영속되는 특권 — 동등한 접근, 불평등한 기회 —	
대학 수준의 불평등 — 임시방편 — 교육의 내적 장애물 — 점수제도, 선발,	
시험, 졸업장 — 교사-학생 관계 — 공동운영과 자체운영	
[에필로그 I] 오래된 개념과 새로운 요구	158

제2부: 미래

제4장. 도전

165

1. 도약 ... 165
현기증 나는 미래 — 흥미롭고도 무시무시한 전망 — 과학적 사고방식
2. 격차... 171
불균형의 요인들 — 실업 — 최저 수혜 계층 사람들 — 확대되는 격차 — 경제 확대의 요구 — 해결방안의 탐색 — 단일 세계 접근법 — ‘격차’의 새로운 의미 — 교육을 위한 통찰
3. 위협에 처한 환경 ... 178
무질서한 확장 — 생태계의 불균형
4. 위협 ... 180
민주주의의 행운과 불운 — 격변하는 사생활

제5장. 발전

187

1. 새로운 연구 결과 ... 188
두뇌 연구 — 유아기의 영양실조 — 심리학의 공헌 — 행동주의 심리학 — 발생적 인식론 — 인지 과정의 형성 — 알고리즘 — 구조주의 — 심리학 연구의 교육학적 적용 — 일반 및 응용 언어학 — 인류학의 공헌 — 정보 이론 — 기호학 — 사이버네틱스
2. 과학 기술의 새로운 발전 ... 198
교육학, 고대의 기술이자 새로운 과학 — 초기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 교육심리학적 과정 — 유아기 심리학 — 성인기의 교육심리학 — 집단 교수법과 개별화 — 집단 기법 — 제도적 교육학 — 통신 이론과 기술 — 유선 텔레비전 — 라디오 — 위성 통신 — 데이터 처리 — 컴퓨터 지원 교수법 — 지적 혁명 — 인간공학 — 응용 과학 — 시스템 분석 — 다학문 간 연계 — 교육적 행동의 변화 — 시스템에 통합되는 기술 — 중급 기술 — 국민 에너지의 이용
3. 실천에 적용된 새로운 발명들 ... 215
실천에서의 혁신 — 개별화된 교수법 — 새로운 교육참여자 — 교사 역할의 조정 — 변화하는 학교 건물 — 학교와 사회의 연계 —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 해방으로서의 교육 — 기능문제 — 평생교육 개념의 발전 —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

제6장. 목적	237
1. 과학적 인본주의를 향하여 ... 238	
과학적 사고와 언어 — 객관성의 법칙 — 상대성과 변증법적 사고 — 과학 정신의 훈련	
2. 창조성을 위하여 ... 241	
안정과 모험 — 새로운 가치의 탐색 — 사고와 행동	
3. 사회적 책임을 향하여 ... 243	
정치 교육 — 민주주의의 실천 — 학교의 정치학 — 참여 — 경제 교육 — 국제 교육	
4. 완전한 인간을 향하여 ... 246	
인간의 힘 — 분열된 인간 — 완전한 인간의 차원들 — 추상적 인간과 구체적 인간 — 미완성의 인간	
[에필로그 II] 학습사회: 오늘과 내일	256

제3부: 학습사회를 향하여

제7장. 교육 전략의 역할과 기능	265
1. 정책, 전략, 계획수립 ... 265	
선택 — 지향성 — 방법	
2. 교육 전략의 특징 ... 269	
양적 확대 — 특수성 — 상호관련성 — 통합적 교육 목표 — 전반적인 비전	
제8장. 현 시대의 전략적 요소	277
이중적 조치 — 국가적 특징 — 국제적 영감	
1. 개선과 개혁 ... 278	
동기 — 무한한 범위의 내부 조정 방식 — 위로부터의 격려 — 아래로부터의 주도성	
2. 혁신과 대안의 모색 ... 282	
1) 교육정책에 대한 원칙	2) 전반적 전망
3) 교육기관의 형식주의 완화	4) 이동과 선택

- 5) 학령 전 교육
- 6) 기초교육
- 7) 일반교육의 확대
- 8) 직업 이동의 최대화
- 9) 상업과 산업계의 교육적 역할
- 10) 고등교육의 다양화
- 11) 선발 기준
- 12) 성인교육
- 13) 문해
- 14) 자기 학습
- 15) 교육 공학
- 16) 새로운 기법의 적용
- 17) 교사의 지위
- 18) 교사 훈련
- 19) 전통적/비전통적 교육자
- 20) 학교생활에서 학습자의 위치
- 21) 학습자의 책임

3. 방식과 수단 ... 335

교육 시스템 진단 — 불균형 파악 — 방안 선택 — 실험 — 실행 계획의 요소
 —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 대립적으로 보이는 요건들 — 기능적 재조직화
 — 참여 — 재정 — 지출 증가 — 자원의 다양화 — 비용 절감 — 일반적
 방향성과 개별적 적용

제9장. 연대의 길

모든 나라의 연대 — 모든 노력의 결합 — 원조가 필요 없도록 만들기
 — 국제협력의 위기

1. 원인과 이유 ... 352

전통적 형태의 협력 — 원조 범위의 확대 — 국제 원조는 국가 자원을
 보완한다 — 원조는 혁신을 촉진한다

2. 협력과 경험의 교류 ... 354

지적 협력 — 학생과 교사의 이동 — 졸업장의 동등성 인정 — 국제이해
 프로그램 — 전문가 교류 — 해외연수 — 두뇌 유출 — 유네스코

3. 지원의 재원과 양식 ... 367

기술적·재정적 원조 — 교육 차관 — 국제 원조: 분배와 여건 —
 조건부 원조 — 교육 원조와 세계발전전략의 상호관련성 —
 행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 — 발명 정신 — 정치적 결단, 교류, 자원 —
 국제교육혁신 프로그램

부록

서 문

에드가르 포르

1. 교육과 인간의 운명

매우 많은 나라들이 현대인의 교육을 유난히 어려운 문제로 여기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할 때, 교육은 핵심적이고도 보편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유네스코가 국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시의 적절했고, 오늘날 세계의 정치 상황에도 잘 부합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 교육 시스템이 건재했고 미세한 개선이나 자동적인 조정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곳에서는, 기존 교육 전반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제안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교수학습모델과 제도에 다소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이토록 확산된 불만과 저항이 정확히 무엇에서 기인했는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주 최근에 교육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외국의 교육 모델을 이식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 시기를 거쳐 출현한 제3세계 국가들은 전심전력으로 무지(ignorance)와의 싸움을 벌여왔는데, 이는 독립을 유지하고 실질적 발전을 이루는 데 교육이 지극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옳은 결정이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식민 지배자들의 기술적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교육 모델은(이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들에게조차) 너무 구식이 되어 자신들의 요구나 문제에 부합하지 못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정 여력으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국가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일부 부문에서는 실업도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의 수익성을 낮출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균형을 무너트릴 정도로 무척 광범위한 심리적·사회적 손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며 고생스럽게 추구한 근본적 열망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다. 달리 말해 ‘고통스러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보다 부유한 나라들이 나서서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는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대체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할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나라들은 스스로 환상을 갖고 있거나, 이미 심화된 붕괴의 조짐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기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체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하거나 환경의 연속적 변화에 남달리 잘 적응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현대 국가들은 자신들이 위기 발생의 위험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안전하며, 문제나 걱정거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화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제도와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실험을 시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나라들은 최대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최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를 가능케 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 나라들은 과학적 발견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 발전이 진행되므로, 날이 갈수록 그러한 교육요건이 더욱 긴요해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 목표에 도달할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설령 선진국이 자국의 과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체계적으로 자료와 실험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른 진보를 이루며 세계가 함께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국제협력은 아직 미약하고 간헐적이다.

이제 선진국들은 세계의 다른 부분에 대해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선진국이 최고의 지식과 힘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의 술한 지역이 여전히 굶주림과 조기사망, 그리고 캄캄한 무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현대 국가들은 걱정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지적·문화적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과,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복지, 교육, 민주주의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그저 바람직한 일 정도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은 더는 박애주의나 자선, 자비로움, 고결함의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엄청난 변화는 인류의 단합과 미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불평등의 심화, 궁핍, 고난 등에 대한 고통스러운 전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인류의 양극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양극화는 인간을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으로, 주인과 노예로 갈라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할 위험으로는 갈등의 심화나 여타의 재난(대량 살상과 파괴의 수단이 극빈자나 반란 세력의 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비인간화라는 더 근본적인 위험이 있으며, 이는 특권 집단과 피억압 집단에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2. 과학기술혁명: 교육과 민주주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있었기에, 굳이 오늘날 이들을 ‘감상적 드라마’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잘못된 관점이다. 우리가 맞닥뜨린 사태는 전적으로 새롭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껏 되풀이되어 온 단순한 양적 성장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쩌면 재능(genius)을 새롭게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를 거쳐 이루어진 교육 활동의 진보를 살펴보면 교육의 진보는 경제적

진보와 함께, 결과적으로는 생산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복잡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 각각의 원인을 식별하기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안정적인 농업 중심 사회에서 교육은 직업 기술, 전통과 가치의 전수를 의미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문제와 동떨어진 교육 자체의 특수한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았다.

경제 발전이 일정 속도에 이르면, 교육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더욱 많은 양의 지식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경향이 생긴다. 왜냐하면 보다 정교한 생산 과정은 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한편으로는 노동력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 향상을 촉발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은 사회적·정치적 발전과 아울러 기술적·경제적 발전을 자극하고, 동반하며, 승인해 준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시민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이들이 다수가 되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기관을 그저 보수적이고 심지어 억압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 모든 제도는 속성상 현상을 안정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 더욱이 교수활동은 그 자체가 반복의 경향성이 있고, 마치 사법 활동처럼 형식과 공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식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중적 특징은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더욱 눈에 띄게 되며, 이때 교육은 기존 사회에 대항하는 동시에 사회 변화를 자극한다.

이 이중적 진화는 인류 역사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때로는 진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빠르게 중요한 사회 변화를 일으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들이면서 의미심장한 역사의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견줄 만큼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 이루어진 많은 기술적 진보들은 단순한 과학적 관찰과 발견을 통한 것이었지, 자연의 비밀을 파악해내는 특별히 지적인 통찰이 수반

된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근본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이 연구가 매우 빠르게 실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성과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미치게 되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기계로 대체한 18세기 산업혁명과 제1차 기계시대와 견주어 볼 때, 오늘날의 과학기술혁명은 거리에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완벽하고 합리적이고 계산능력이 있는 기계까지 발명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세계까지 점차 정복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경제 확대의 영향은 지역별 혹은 사회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매스미디어와 사이버네틱스 혁명은 모든 사람 혹은 장소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누구든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마이크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고로 복잡한 매커니즘이 수없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하고 중요한 효과가 생성된다. 따라서 과학기술혁명은 지식과 훈련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게 하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 보편적(universal)일 수 있게 해주었다.

바로 이 의사소통적 본질(communicational nature)은, 넓은 의미에서, 특히 우리에게 최대한의 공간과 최소 단위의 시간, 그리고 수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게 해 준다.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혁명은 르네상스나 산업혁명 같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변화들과 다르다. 예전에는 변화 양상이 세계로 퍼져 나갈 때 그 속도가 국가별로 균질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적 계층별로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발전의 초창기에는 — 그것이 느리든 급작스럽든 상관 없이 —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반자동적(semi-automatic) 기제가 (설령 위기라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작동했다. 발전이 더딘 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감지되지 않았고,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적응 기제는 모범사례가 자발적이고 지속

적으로 전파되는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낡은 것이 되었다.

경제와 복지, 생활수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급과 계급을 나누는 불평등이나 국가 전체에 해를 입힐 정도의 좌절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조차 전능한 자연의 질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던 예전 시절과는 다르게 말이다. 또한 사람들은 교육을 발전되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서도 더는 참지 않는데, 이는 교육의 보편화가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고,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는 데 절대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제 민주주의는 경제성장(GNP)이나 교육기회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나라도 진보와 발전의 측면에서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인성 훈련(personality training)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매스컴의 발전으로 개인 —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든 간에 — 을 길들일 수 있는 특별한 도구를 정치적, 경제적 당국자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보다 강박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선전과 홍보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순응 행동에 포함된 인간성 소외의 위험 때문에 자신들의 순수한 요구 및 지적·정서적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와 같은 논리적 작업을 위해 고안된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자유롭던 노동현장에서 축출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혁신은 실제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커다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많은 허드렛 일이나 여러 제약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계는 제대로만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시민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도록 해줄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어간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한때 위대한 진보의 표식이었기에 함부로 조롱할 수

없음에도, 이제는 낡은 것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시민에게 유익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권한위임은 시민을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법적 권한을 보장했다. 하지만 권한위임이 시민들에게 경제 확대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몫을 제공해 주지는 않으며,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 주지도 않는다.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하지도 못한다.

기술 발전이 수많은 혜택과 새롭고 거대한 전망을 열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부정적 측면이 없지는 않다. 지금 과학자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경고는 그간 그럴싸한 환상으로 감춰져 있던 것들을 생생하게 드러내 준다. 그러한 경고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가 몇 배로 늘어나면서 인류의 운명은 위협에 처할 수 있고, 토양과 대지가 황폐화되고, 도시는 시민을 질식시키며, 전력과 식량 자원이 고갈되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또 다른 대홍수가 발생하고, 지성을 파괴하는 화학물질로 대기가 오염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장률을 완전히 멈추는 방안, 즉 ‘제로 성장’을 제안한다. 또 다른 이들은 공개적으로 그런 극단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생태적 정책의 형태로 맬서스주의(Malthusianism, *역자 주: 부족한 식량에 맞춰 인구를 억제하자는 이론)의 부활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해결방안은 국민 간 불평등을 강화하기 쉽고 심지어 오늘날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그 위험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공동체들이 나서서 우선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필수 훈련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관계자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정보를 획득하며,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먼저 가능해져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인간’은 개인 행동이 가져오는 전 지구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며, 인류 전체의 운명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선과제를 인식하고 공동 책임에서 자신의 몫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성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여러 문제를 조정하는 일은 정부만의 과제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관리적 차원의 문제들, 그리고 흔히 고정관념으로 점철된 체제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오직 공공의 여론을 통해서만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적은 결단들 — 가령 핵무기 포기선언이나 복지를 위한 국방 예산의 재배정 등 — 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이를 잘 수행해 내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열정과 힘을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숙명론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구속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기확신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해 줄 유일한 길이며, 인류의 지적 성취에 요구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발전해야 하며, 더는 민주주의가 전통적 자급자족사회에서 시민들을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했던 최소한의 사법적 보장의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교육 불평등이 초래한 양극화된 계급 사이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관계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의 목적과 내용 역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에 기초해서 본 위원회는 교육은 정치적 행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힘에 따른 것이므로, 교육적 실천 역시 반드시 과학적 인본주의와 기술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과학적 인본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공통 개념은 그 목적 자체가 인간과 인간복지에 주로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이다. 동시에 과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의 영역에 새로운 기여를 함으로써 인본주의적 내용이 규정되고 풍부해진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기도 하다.

기술은 과학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응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 인간은 조직화된 지식의 응용을 통해 환경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절차를 더욱 잘 이해하고 모든 인간 활동의 효과를 증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모든 교육 기획에서 과학과 기술은 필수적이며 근본적이고, 항시적으로 동반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 과학과 기술은 필수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교육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자연과 생산력은 물론 사회적 힘을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는 자신 및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마음이며,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인간은 과학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을 위해 과학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3. 질적 변화: 동기(motivation)와 고용(employment)

우리는 교육 문제의 기저에 있는 기본적인 사실들이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교육상황을 별개로 다루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은 아마도 특수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엄중한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언급할 것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계층화된 구분을 하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본 조사 중 주로 양적인 평가나 실제 적용 관련 부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광범위한 범주 구분이 발생했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국가 그룹에 맞추어 범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유사성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각 국가의 특징에 따라 범주를 정의해야 한다)

주요 정책 방안을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할 때는 설령 산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간에 상응할 만한 공통의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산업선진국들의 교육 시스템은 적어도 대다수의 경우에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고등교육의 경우 실시되는 교육은 전-기술적(pre-technological)

방식이지만, 선발방식은 엘리트적이다. 이와 동일한 교육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에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적·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감내해야 했다.

두 국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꼽자면, 교육체계가 ▲전-기술적 단계에서 기술 단계로 이동해야 하며 ▲보다 많은 국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소수만이 주로 교육을 받도록 국한되어 있고 그들에게 경제 및 행정 분야의 고위직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교육체계의 두 가지 변화는 하나의 과정으로 묶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산업선진국들은 대중적 교육제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현대적이고 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 결과 노동자 계층 자녀들 가운데 일부만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사실 여러 국가의 경험 및 신뢰할 만한 과학 연구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만한)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 계층이나 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선진국’들이 내부적으로는 미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은 놀랍다. 이러한 부적응과 실패는, 서민 출신 학생들이 겪는 증상이나 과거 식민지 피지배국 학생들이 통째로 수입된 서구식 교육의 산물이 되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양쪽 모두 교육에서의 동기 및 고용 연계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동기와 고용은 각각 교육의 순환주기에서 본다면 교육으로의 진입 지점(동기)과 학교를 마친 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지점(고용)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유입과 유출, 그리고 성공의 조건 등을 결정한다.

동기에 관한 연구는 모든 현대 교육 정책의 핵심이다.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 동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 (학위가 높을수록 더욱 좋은) 직업 탐색을 위한 궁금증과 배움에 대한 갈증, 즉 지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한편 지적 욕구보다 직업 탐색을 위한 동기가 우선시되고, 심지어 지적 욕구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은 놀랍다.

하지만 지적 호기심(이해하고 알고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히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층동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시킨 방법을 통해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조차 최고의 천재성이 필요한 발견에서 나온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호기심은 잘 활용하면 가장 강력한 학습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야심을 가지도록 자극하고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자극만으로는 산업선진국에서 고등교육 보편화를 이뤄낼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학교 출석률을 유지시키지도 못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든 어린이의 절반만이 학교에 들어갔으며, 그 중 절반은 다시 학교 적응에 실패해 초등교육 단계에서 이미 의욕을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고용 동기만으로는 진정한 민주화를 보장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고용 동기는 모든 학위가 그에 상응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자신이 획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직업을 찾을 수 없게 된 학생은 속은 기분이 들고, 선망 받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기술을 익히느니 실업 상태로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게다가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낮은 수준의 기술은 가르치지도 않는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의 전형적 논리 중 하나는 어떤 특정 수준의 교육을 마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전문직업과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가, 교육은 힘들고 심지어 따분한 일이며, 그 자체의 보상으로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민주적 교육체계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향한 본능적 호기심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어떤 국가의 경제에서도(심지어 산업선진국에서도) 항상 충족시킬 수 없는 전제, 즉 학위와 고용의 매커니즘을 해체해야만 한다.

동기가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핵심 문제들을 재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 개혁의 중심을 중퇴와 유급, 방황을 줄이는 데 맞추고 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문적으로나 삶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교육, 과학 및 기술을 통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습득한 경험이 이후 교육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족의 문화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령 전 교육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어린 시절에 겪는 문화적 이질감, 무엇보다도 언어적 이질감은 신체적 장애와 맞먹는 수준의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 교육의 첫 단계에서는 아동이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추상적 지식이 학교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반응하는 — 보통 초등학교, 때로는 중등학교 — 시기가 되면, 이론과 기술과 실천, 혹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등을 결합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삶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의 인격은 학교와 일상생활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 두 세계가 서로 접촉이 없이, 한 세계에는 몸이 없는 이론만의 존재가 되고, 다른 세계에서는 반교육적인(anti-educational)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과학기술 시대에는 지식이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혁신이 새롭게 일어난다. 이제 교육은 지식을 보급하고 저장하는 데 들이던 노력을 줄이고(그 노력을 과학계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식 획득 방법(learning to learn, 배움을 위한 학습)의 숙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 생애에 걸쳐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업의 기간은 짧아지고, 고등교육 중 기초 이론과 전문적 실천 간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기이한 일은, 이론이란 본질적으로 실천 및 인간 존재와 결합해야 하는데도, 생물학적으로 이미 성숙한 나이임에도 학생들은 25세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을 재면서 일종의 대기실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은 실생활과 생산적인 활동,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날까지도 대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중시되는 학업 모형은, 비록 특정한

사회나 일시적 환경에서는 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개 너무나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는 노동자 계급에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적 모형을 만들어냈던 부르주아 계급의 청소년에게도 쓸모가 없어 보인다. 이 모델은 앞선 세대의 기이함(quirks)을 집요하게 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이론과 기억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전통적이고 문어체적이며 반복적인 표현에 특권적 지위를 주면서 구어체와 즉흥적이고 창조적인 연구를 방해한다. 이 교육 모델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인문학(humanities)을 (인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과학과 독단적으로 분리시키고, ‘과학적 인본주의(scientific humanities)’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 교육 모델은 소위 인문교육과 기술교육을 구분하는데, 마치 플라톤이 기계의 발명가를 비난한 것과 같이, 혹은 실천과 적용을 노예 상태로 간주하던 귀족계급과 같이, 추상성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사회적 편견을 드러낸다. 이 모형은 실천 중심 활동에 유난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이 지닌 심각한 취약점은 사람들을 몇몇 직업에만 적합하도록 훈련시키고, 일자리가 적은 시기에 졸업생들이 (그간 백안시하도록 배웠던)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직업을 일시적으로나마 가질 가능성을 빼앗는다는 점이다.

교육의 민주화는 동기를 자극하고 다기능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절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로부터 혜택을 입을 사람들은 그 수가 많아지더라도, 자신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에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졸업생이든 그 자신의 특별하고 적절한 자격에 상응하는 유형의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졸업생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맡거나 그런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파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이 고용 전망에 긴밀하게 조응해야 한다는 신멜서스주의(Neo-Malthusianism, *역자 주: 한정된 자원에 맞춰 인구역제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관점은 거부될 수 있다. 보편적 입학정원제한(Numerus

Clausus) 제도는 부유한 국가에서는 교육 면에서 기존의 사회적 불공정을 유지하는 장치였고 빈곤한 국가에서는 불충분한 지적 여건을 영속화하는 장치였지만, 적어도 오늘날에는 이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신멜서스주의 이론은 순전히 실용주의적인 가정을 받아들일 때조차 옹호되기 어렵다. 보통교육 수준과 전문 활동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는 가용 일자리의 수와 특질 등을 약간이라도 예측해볼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특별한 전문직 자격을 규정할 수 단도 거의 없으며,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한 지점에 있는 경제를 다룰 때는 더더욱 난감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신멜서스주의의 어떤 경향성이나 교육 발전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기반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교육 정책과 전략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그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하도록(to become himself)'하는 것이며, 직업 교육과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을 어떤 특정 지식에 평생토록 얽매이도록 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전문직간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스스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자기훈련하는 과정을 장려해야 한다. 간략히 말해서 교육의 지속적 확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교육의 목표와 방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4. 학교와 학습 사회

어떤 교육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교육 시스템이 대체로 구식이고 경직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보다는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학교가 삶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저 없애자고도 제안한다. 이런 견해들은 일견 진보적이거나 혁명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

는 어떤 규모로든 확실히 반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마치 ‘제로성장’주의 자들과 관련한 논란처럼 말이다.

과학기술혁명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거대한 마스크 네트워크의 존재 및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은 전통적 교육체제를 상당부분 바꿔왔다. 일부 교수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었고 자기 학습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지식 습득을 위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태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성찰에 기반한 교수활동의 권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성인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생기는 문제 때문에 다원적인 학교 밖 학습 형태를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학교 밖 교육에는 우리가 모르던 광범위한 잠재성이 있으며 모든 국가는 이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밖 교육을 업신여기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유물일 뿐이며, 어떤 진보 교육학도 그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여전히 학교, 다시 말해서 자라나는 세대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공급하고자 고안된 기관들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남아 있을 것이며, 인간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또한 인생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자신의 직업을 위해 적절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수적으로나 다양성에서나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처리하려면 체계적인 지식과 적성, 기술이 필요하다. 과학 지식과 아이디어는 사물과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출해 낸 정수(精髓, distillate)다. 특히 지식과 방법론의 체계는 개인이 강력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해석을 구축해 그것을 긍정적 방식으로 흡수하게 하는 것으로, 언제나 적절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일부 학교와 교수 방식은 강력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 각 나라별로 각기 다른 배경이 있겠지만, 학교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구축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인 학교를 포기하려는 생각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형태 안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투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인간의 문화가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오늘날의 지식은 그

문화의 통합적이고 불가결한 핵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변증법적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한편으로는 기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의 입장은 기존 교육 구조의 틀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의 제한된 접근법과 다르며, 다른 한편에서 일부 급진적이고 구조변혁적인 봉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면서 현실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사람들과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즉, 평생교육과 학습사회이다. 공부란 더 이상 지적 능력과 연령을 막론하고 성인기 이전의 어린 학생들에게 내주고 거둬들이는 과제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교육 시스템은 본 위원회가 구상한 개념들로 그 전부가 완전히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 학습해야 하는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재고안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면, 교수활동은 그 좁은 범위를 넘어 넓은 의미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다시 더 넓은 의미의 학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학습에 삶의 모든 면이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된다면, 또 사회의 모든 면이 사회적 경제적 자원과 아울러 교육의 자원면에서도 포괄된다면, 이제 우리는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의 교육이 맞게 될 진짜 도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게 될 경제적 정치적 저항에 비해 문화의 본질을 보존하는 일이 더 쉬울지 어쩔지는 결코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투자보다 수익이 크다는 걸 안다면 왜 그 싸움을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5. 변화의 도구

‘변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요청해 온 교육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해 왔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도구들

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다.

기술 시대를 특징짓는 두 가지의 위대한 혁신 방식인 대중매체(라디오와 텔레비전)와 사이버네틱스는 모두 정보를 연결하고, 즉각적으로 전송하고, 정보를 코딩하고, 정보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습과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교육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교육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는 더욱 그렇지 못하다.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교육과 만나지 못하고 단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라디오는 흥미거리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서는 아주 미미한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보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교육 당국은 텔레비전을 단지 기존 교육의 실행 과정에 보조적으로 끼워 넣을 뿐,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화해서 이 현대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프로그램화된 교육은 매우 현대적이고 고비용인 교육 방법이며, 대부분의 교육은 그런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는 오해가 팽배해 있다. 이 결과로 발전된 교육학적 기법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 데이터 처리 과정이 고차원적 학습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어린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기계 언어를 가르치도록 계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계 언어인 알고리즘은 그 자체가 탁월한 논리적 방법이며, 이 '신비로운' 힘과 접촉하는 것은 지식을 향한 동기를 엄청나게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이 어떠한 간에, 교육 공학과 기술적인 원리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것, 즉 기계 시대(post-machine-age)의 지적 공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필요하고 불가결한 일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교육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선진국에도 해당된다. 어떤 환경에서든 새로운 교육 방식에 자원 투입을 하면 분명 동일한 투자로부터 선진국이 더 큰 효율성을 얻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틀에 박힌 방식을 깨고,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

며, 무엇보다 교사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교사와의 협력 조건은 매우 중요한데, 국민 일부에서 나타날 거부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려면 교사들이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선진국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 기술이 총체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런 혁신을 통해서만 주어진 기간 안에 만족할 만한 교육적 해결책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문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기능적 문해 차원에서 분명한 진보가 일어나고 는 있지만), 많은 경우 보편적 학교 취학이나 그에 따른 교육 성과도 보장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행과 같은 방식은 성인 훈련의 기회를 창출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점차 적용해 나가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 나라들에 자금이나 원조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뚜렷하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교육의 여러 다른 병목 현상(불충분한 교사 충원 및 교과서 공급 등)을 곧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교육 공학을 적절한 규모로 이용할 수 있고, 듀얼 프로그램화된 교육 방법(이 교육이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교육방식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앞서 강조한 바 있다)을 적용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활용한다면, 그로 인해 적어도 새로운 가능성의 장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 그때 우리는 최저 생존 경제(subsistence-level economy)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로 이행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교육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은 가능한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동시에, 중급 기술과 기술적 원리의 적용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나치게 정교하고 비싼 기술 및 기계의 지원 없이도 교육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소 의문의 여지도 있고 서로 다른 지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통적 교육 시스템의 부분적 변화로부터 어떠한 진전과 교육

비용 감축이 얻어지든 간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려고 한다. 첫째는 학교 재학 기간을 최적의 나이까지 점차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매우 중차대한 요구이며, 둘째는 이런 요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현대 공학이 적절한 규모와 적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전제 아래 주로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6. 국제 협력

만일 교육을 정비할 때가 되었고, 오늘날의 교육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국제 연대와 세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질 것이다.

우선 지적인 면과 운영 면에서 모든 국가 간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산업 선진국들은 서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인구나 언어 및 사회적인 이유로 인접한 나라들끼리도 협력이 필요하다. 각국은 여러 차원에서 교육기관, 과학기관, 문화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그 기관들이 보유한 경험, 혁신적 시도, 미래교육에 대한 성찰 등을 유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우리의 시급한 의무이자 국제협력으로 가는 최선의 방안이다.

또 다른 국제협력의 필수사항은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운영, 기술, 재정 부분에서의 연대다. 교육 개선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가용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경우 공공지출은 이미 그 나라의 경제와 예산이 수용 가능한 최고치에 도달(혹은 초과)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교육 시스템이 가진 모순적 본성은 잠재적 원조 공여국을 고무하기보다 그 의욕을 꺾기 쉽다. 원조 공여국들은 신랄서스주의의 불행한 조언이나 여타 회의주의자들의 견해, 혹은 본 위원회와 마찰을 빚는 주장을 하고 의욕을 꺾는 경고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공감하며 귀를 기울인다.

본 위원회의 일부가 국제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창설을 구상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혁신을 다루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교육 전반의 혁신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학 도입 측면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모든 생산적 투자는 초기 자본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다음 관리 단계에서는 비용은 줄고 수익성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저개발 국가들은 단독으로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새롭고도 특별한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위성의 중계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다.

이에 호응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연대 방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초기 지출은 분할상환될 것이고, 일단 기술 지원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된 후에는 관리 지원이 덜 필요해지면서, 선진국의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연대 의무는 원조 수혜국의 유용성에 기반한 방어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또한 원조는 공여국에도 일종의 피드백 효과를 주며, 국제 사회 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술적 원조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나라에 유익할 것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이며 근본적으로, 덜 발전된(less-advanced) 국가가 가진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국가가 가진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일부 고객에게는 일정 가격으로, 다른 고객에게는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새로 구상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원조라는 틀에서 활동하다 보면 원조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고, 낭비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여국 간 교류와 관계 증진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기도 할 것이다.

제3세계 국민들의 지적인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은 산업선진국에도 여러 면에서 이익이 된다. (때로는 두뇌 유출의 형태로 과도한 이익을 얻기도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최근에 독립한 나라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 양식을 보

존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자신들의 특별하고 고유한 가치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만큼,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다채로운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나라들은 팽창하는 경제 속에서 문명이 이윤 동기로만 해석되고, 세계가 과도하게 획일화된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띠게 되는 문제로부터 스스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현재의 양자·다자 원조도, 원조를 위해 가용한 자원도, 또한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구상들은 오늘날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교육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고 본다. 그와 관련해 교육 담당 기관들의 개선을 과도하게 고려하는 것도 특히 부적절할 것이다. 대신 연대를 넓히고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본 위원회의 분석과 제안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방안들은 차후에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완수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가, 국민, 교육자, 연구자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통해, 또한 국제 기구, 특히 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통해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문화의 전부가 아니다. 본 위원회는 연구 영역을 우리가 원하는 폭과 깊이까지, 즉 교육에서 부차적인 모든 기능들까지 확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 관계, 도시 관계의 전 영역이나, 사회 집단, 전문직 공동체 및 영적 공동체의 전 영역을 포괄해서 다룰 위치에도 있지 않다. 그렇지만 관찰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내적·외적 기능들이 함께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발달 및 사회적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신할 수 있었다. 기술적 수단,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 작용을 재생산하는 기계들이 발전하면서 인간 두뇌에서 어떤 생물학적 돌연변이의 결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인간은 더 커진 이해력 및 힘과, 인간의 감성적·도덕적 인격 구조의 잠재적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현 인류, 슬기로운 인간)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 공작하는 인간)의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인간은 그 자신

과 타인 사이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호모 콩코르스(Homo Concors, 조화로운 인간)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기하급수적 성장률과 물질적 측면의 발전에서 오는 위험 등의 위대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모 콩코르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모순과 불의에 대항하려면 호모 콩코르스가 되어야 한다. 각 개인의 역사 의식과 집단 의식의 작용을 통해, 연구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자각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인류 전체에 완전히 속한다는 각자의 소속감을 통해, 인간은 자기 의식에 내재된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축소될 수 없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한 쌍의 양극이 동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이루며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한한 세계(the finite world)의 시대로 불려왔던 이 시대는 총체적 인간(total man)의 시대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간 전체와 모든 인간(man entire and all of man)의 시대 말이다.

제1부
조사 결과

제1장

교육의 질문

본 보고서를 시작하며 현재에 대한 조사연구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율리시즈(Ulysses)의 아들 텔레마쿠스(Telemachus)가 새로운 여행을 떠나며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잠깐 되돌아보면서 지난 수백 년간의 인간과 교육의 뿌리와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조망은 현재 교육 세계가 어느 차원에 있는지 차후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육 세계에는 너무 많은 시대가 혼합되어 있어서 어떤 기념비는 여전히 웅장하지만 다른 것은 퇴락했고, 새로운 건축물과 거대한 구조물들이 세워지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한 현재의 교육 세계로부터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고자 한다.

역사적 조망을 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쓰듯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역사가 교육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 발전이 그 사회의 역사 발전 중 하나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또 교육에 과거의 흔적이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는 교육이 역사를 준비시키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도울 때가 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따라 다음 몇 페이지에서 우리는 오늘날에 비추어 역사 속의 움직임(movement)과 그 영향에 대해 짧게 서술하고자 한다.

1. 과거의 유산

오래 전 역사의 초창기부터 인간은 언어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개인에서 개인으로, 집단에서 집단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축적된 실천적 경험을

소통하는 한편, 자연현상과 규칙, 의례와 금기사항을 해석하는 코드로 이용해 왔다. 그럼으로써 개인적 기억의 사회화가 종족의 생존에 본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했다.

생물학적 필요로서의 교육

생물학적·생리학적으로 인간은 무방비 상태였고 주어진 환경에 특별히 적합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천성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확고히 이루어 왔다.

환경 조건에 대한 항구적인 투쟁을 하면서 인간은 실존적 삶을 이루고 집단적 노력을 위한 사회를 형성해 왔다. 처음에는 가족과 원시 부족 단위에서 시작해 필수적인 물질적 작업들에 집중하며 점차 지식과 경험을 획득했고, 자신의 욕망과 열망을 알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규정하고 형성했다.

과학적 증거들은 이러한 진화의 배경으로 인간의 생물학적·생리적·본능적 욕구를 지목하는 가운데, 이러한 진화가 — 필연적으로 교육의 형식을 통해 가능해진 것인데 — 어떻게 인류의 생존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인간 종족들은 선사시대 이래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주 최소한의 진화적 변화만 겪었다. 반면 현대인들은 마치 생물학적 적응 능력이 더욱 진화하기라도 한 것처럼 부단히 새로운 환경 조건을 정복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환상일 뿐이다.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오염된 환경에서 해로운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풍성해진 지식, 다시말해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교육 덕분이다.

사회적 필요로서의 교육

교육의 역사를 가능한 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 멀리까지는 되짚을 수

없지만, 교육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특징으로서 출현한다. 교육은 그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교육 자체는 발전을 멈춘 적이 없다. 교육에는 인간다움의 가장 고귀한 이상이 담겨 있었다. 교육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인물과 개인의 업적과 떼어 수 없으며, 그 과정은 역사적으로 강한 시기거나 약한 시기거나, 번영할 때나 절망적일 때나, 조화로울 때나 불일치할 때나 가리지 않고 인간 역사의 과정을 상당히 진실하게 재현해 왔다.

원시 사회

원시 사회에서 교육은 복잡하고 연속적인 것이었다. 교육은 각 개인의 성격, 적성, 능력 및 도덕적 자질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개인은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일종의 공생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교육됐다. 가족이나 씨족 집단에서의 생활, 일이나 놀이, 의례나 의식들은 모두 날마다 학습을 하는 기회였다. 어머니의 돌봄부터 사냥꾼 아버지의 가르침까지, 계절 변화의 관찰부터 친근한 동물들의 관찰까지, 혹은 윗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부족의 샤먼이 읊조리는 찬가를 듣는 것까지 모두 학습의 기회였다. 지금도 자연적이며 제도화되지 않은 학습양식이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¹⁾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일한 교육형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수백만 명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요즘처럼 학교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도 그런 형식의 교육은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 아동이나 성인이 받는 교육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그들의 환경, 가족 및 사회로부터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획득한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교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형식의 교육은 (암기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과 대비해서) 학생이 환경으로부터 얻은 지식에 질서를 부여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혹은 교수법이라고 하기에는 오래되고 애매한 방식, 학문적 교수법 등이 바로 이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식적 학습사회(consciously learning society)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들이다.

아프리카 전통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전통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 오던 교육의 조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식민지 시대 이전의 아프리카에는 (몇몇 부족의 입문식 기간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없었다는 사실은 아동들이 교육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동들은 살며 행동하며 배웠다. (중략) 따라서 교육은 ‘무형식적’이었고, 성인은 정도 차는 있지만 모두 교사 역할을 했다. 형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가 갖는 교육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의 글에서 인용한 이 구절을 통해 전통적인 아프리카 교육이 비록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듯 보이면서도 비형식 교육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험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²⁾

복고적 이상주의의 덫에 걸리는 것만 피할 수 있다면, 교육의 기원을 검토하는 것은 교육적 사고를 비옥하게 하고 오늘날의 교육에서 지나치게 경시되어 온 가치와 경험을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학교의 탄생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역사적 필요성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 구체적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 유사한 단계에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로서 증명될 수 있다. 교육에서 학교라는 구조가 채택된 것은 문어(the written)의 체계화 및 사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글자를 읽는 학습은 자연스럽게 교사와 그를 둘러싼 학생들이 학교의 ‘교실’에 모이는 상황을 초래했다.

문어체 전통

쓰기³⁾ 및 그 이후의 인쇄술이 인간에게 부여한 새로운 힘이나 혜택, 무엇보다도 인쇄된 책이 교육에 기여한 가치는 결코 부정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혁명이 분명히 별로 이롭지 않은 효과도 가져왔음에 주목한다. 구전되는 교육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의례와 금기의 장소를 포함해 어디에서나

사물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 과정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책은 이러한 직접적인 지식 전수 방식을 대체했으며, 그 결과 글자 및 반복되는 음독(oral repetition)만이 지식의 대표적인 구현체이며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교훈들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낳았다.

구어(the spoken)보다 문어(the written)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 체제에 깊게 박혀 있다.

교사와 학생

점차 축적된 지식과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교사에서 학생에게로 전수됐고, 여기에는 완고한 권위주의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며 학문 중심의 훈육방식이 동반됐다. 이 때부터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권위주의적 패턴으로 형성되어, 여전히 세상 대부분의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성직자가 모든 지식의 보관자이자 수호자로서 교육을 관장했으며, 나아가 종교적인 교리의 전수를 통해 필경사와 행정가, 의사와 건축가, 천문학과 수학자를 훈련시켰다.

아시아 전통

아시아의 교육도 유사한 패턴에 따라 발전했다. 문어에 대한 존중은 중국 관료제에서 정점에 달했다. 국가 관료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은 중국 교육 시스템은 처음에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웠으며 사고와 행동의 조화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과도한 형식주의와 엄격한 등급제 및 시험제로 교육시스템이 마비됐다.

세계 최초의 대학은 인도 브라만 계급의 학교였는데, 이 대학들은 철학과 종교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수학, 역사, 천문학, 심지어 경제법칙 연구까지 강조하는 완전한 교육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어서 브라만 계급의 카스트제도와 그들의 교육 독점에 대한 반발로 불교 교육이 나타났지만, 이것도 다시 똑같이 완고한 교육이 됐다.

고대 페르시아의 교육은 평생훈련을 포함하면서, 노령의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한 사람의 모든 활동을 교육에 포괄했다. 이 교육에는 과학 지식, 윤리 도덕, 지적 연마의 전수에 더해, 시민으로서의 훈련과 실생활에서의 도제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로마 전통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학교가 높은 존중을 받았고, 상류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지런한 학생들이었다. 학교의 이상은 지적, 미적, 신체적 발달 면에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지식, 지성, 예술 감상 능력과 영적 덕성은 엘리트층을 위해 고안되고 그들에게 국한됐던 교육의 최고 가치였다. 이러한 귀족주의적 교육 개념은 수 세기 동안 황제와 왕실, 봉건적 귀족 사회를 거쳐 인정되고 채택되면서, 대체로 질적으로 우수한 인물의 선발과 교육방식을 발전시키고, 소수집단에 혜택을 주는 데 구조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일부 교육 시스템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엘리트주의 선언문에 고상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다.

고대 서구 사회에서 교육받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총체는 명확하게 정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7대 인문교양 과목(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으로 오래도록 고전 교육의 흔들림 없는 기초로 남아 있었다.

이 고전교육은 오래도록 특권을 향유하며 현실세계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소위 정밀과학과 사회과학을 마지못해 수용했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가 최고의 지배력을 갖는 시대가 되자 종교는 삶의 모든 면에서 권위를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와 교육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통합된 단일체가 됐다. 이는 당시 교육이 종교적 영향만 흡수하고 통치자, 상인, 서기, 전사 등의 봉건적 목적에 맞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다. 중세 교육은 본질적으로 봉건 사회의 여건과 종교

적 이념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와 남미의 여러 사회 역시 오랫동안 봉건적 발전 단계를 경험하면서 이와 매우 유사한 교육 체제로 엄격한 사회적·문화적 계층에 기반한 제도를 구축했다.

오늘날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 비난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층적 형식과 차별적 관행은 실제로는 과거 사회에 맞도록 고안된 교육의 흔적이다.

이슬람의 교육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이 스스로 부여한 보편적 소명에 따라 고결하고 지대한 영향력⁴⁾을 갖기에 적절한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찾는 데 공을 들였다. 이들 국가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평생교육이라는 아이디어를 관한 최초의 집단으로, 이슬람 신자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스로 교육하도록 촉구했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스스로를 교육하도록 하고, 배운 것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슬람 교육은 과학, 의학, 철학, 수학과 천문학의 학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단과 권위 전복에 대한 두려움 탓에, 회교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은 결국 혁신에 침묵하는 방식으로 움츠러들고 말았다.

중세의 대학교 모형

중세 시기 유럽에서는 대학교라는 야심찬 이름을 내세우며 고등교육을 위한 거대기관이 등장했다. 부유하고 산업이 발달한 상업도시들은 각지에서 나타나는 대학교의 독점적 운영권과 명성에 고무되어 자기 도시 안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흔했는데, 이후 대학들은 도시를 거점으로 하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강력한 지도권 아래로 급속히 편입됐다. 초기에 전 유럽에 퍼져나간 대학은 이후 미국 대륙으로도 전파됐다. 철학과 인문학에 집중했던 대학교의 교수활동은 점차 자연과학을 포괄하면서 확장됐다.⁵⁾ 아랍과 무슬림 세계는 자연과학을 품어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아 마땅하며, 이 세계의 풍요로운 문화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확대됐다.

다양한 진화과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은 개별 학문을 학부 형태로 분리시키는 등 몇 가지 변함없는 규칙을 전반적으로 고수해 왔다. 초창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지식 발전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유산은 현 시대의 요구에 맞춰어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학은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이념의 흐름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하며, 과학과 기술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더욱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건이 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지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대학 기관들은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의 현실과 요구에 보다 역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현대의 도래

종교개혁부터 르네상스까지, 그리고 근대 진입의 초기까지, 중세를 벗어나기 시작한 유럽은 문명발달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인본주의가 재정의됐으며 지식의 광대한 지평이 열렸다. 한편 철학적 사고가 발전하고,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며, 생활용어들이 학문적 지위를 얻으면서 그 지평이 확대되고 여기저기서 활기찬 실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육에서는 이런 변화의 영향력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교육 활동의 물질적 수단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쇄술의 발달로 이제 지식의 저장고인 책을 다수의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더 많이 필요해지면서 교육은 더욱 대중화됐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새로 생겨났다.

산업혁명

산업화의 첫발을 내디딘 나라에서 산업 발전은 교육의 대중화와 매우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산업혁명이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되면서 교육의 확대를 촉발시켰고, 역사적으로 보통선거권의 추구하고 연계되는 보편 교육과 의무

교육의 개념에 이르게 됐다. 계급 갈등이 희미해지기는커녕 더욱 첨예하게 규정되고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사회 질서는 이 지식의 민주화를 좁은 범위에 가두어 두려 했다. 그중 한 가지는 도시와 농촌의 아동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킬 예비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좋은 가문과 부유한 계층의 영역이었던 고전교육과 대학 교육의 장을 일반인들에게 열어젖힌 것이었다.

25년 전에 유엔(UN)은 인간의 교육받을 권리를 선포하며,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이상을 천명했다. 반면, 그 실행과정은 초기 선언 당시에도 만연했던 것과 같은 여건 탓에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방해 받고 있다.

이식된 교육 모형

전체 역사를 되돌아볼 때,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대 경제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 보이더라도, 전 세계에 무엇보다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유럽의 식민지배였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식민지배가 근대 교육에 남긴 자취와 동향은 심대했다.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프랑스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든, 식민지 정부들은 그들 나라에서와 같은 다양한 유럽식 교육 모델을 지구상의 모든 땅에 이식하고 보급했다.⁶⁾

유럽은 아주 최근까지도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정치적·경제적 힘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기관에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국가들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 식민주의의 정치·경제적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 자국의 필요에 맞든 아니든 상관 없이 한때 자신들을 지배한 식민지 모국이나 다른 외부적 체계모니 권력의 유산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현대로의 진입

산업혁명과 현대 과학 기술의 엄청난 변화 이후로, 생활양식과 생산수단, 인간의 희망과 공포, 관심과 기쁨의 내용에는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 교육에

대한 전망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고 확장됐다. 중앙집권화된 사회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훈련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경제 발전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기술자와 고위직 전문가를 훈련할 필요도 생겼다. 노동자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교육받을 권리는 노동자들에게 절실하게 와닿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해방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 여러 사회에서 가속화된 현대화로 초등교육, 직업교육, 일반교육에서 근본적이고 양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더욱 많이 일어났다. 그런 한편 50 여 년 전 10월혁명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과, 10년 전에야 겨우 정점에 다다른 민족해방운동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요구들이 형성됐다.

우리가 이 짙막한 역사 서술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 오늘날에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획일적인 구조인데 비해 과거의 교육은 더 풍성했다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 미국 원주민의 문명, 아프리카의 문화, 아시아의 철학 등 많은 전통들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치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비단 그 나라가 물려받은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적 사고에 필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많은 귀중한 고가치 있는 유산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손실은 식민지 시기 이전에 해당 전통들이 내부적으로 쇠퇴하면서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주로 식민지배의 외부적 힘에 의해 파괴되고 왜곡됨으로써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지금 가장 결의에 차서 독립을 주장하는 몇몇 국가들을 포함해서 외국의 지배를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고난의 시기에 획득한 지식과 소위 고전 문화의 최고 부분들을, 특히 교육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와 관습들이 교육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며, 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 오히려 교육 모형을 수입한 신생국보다

교육 시스템의 시대착오적 문제들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돌아보긴 했지만, 교육의 역사는 미래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즉, 교육의 회복과 쇄신이다. 이 둘은 동시에 한꺼번에 추진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특징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교육은 총지출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활동 영역이 됐다.⁷⁾ 정부 예산상으로 교육은 세계 공공 재정 지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군사 분야 예산에 아주 근접한 2위를 차지한다.⁸⁾ 당연히 교육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하고 복잡한 과제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은 사회 발전과 인간의 진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으며, 개별 국가 및 국제 정책을 구성하는 데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 가지 새로운 현상

현재 원리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 모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괄적 현상이 존재한다.

교육이 선행한다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은 수 세기 동안 교육 발전은 (특히 산업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성장에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마도 인간 역사상 최초로 교육 발전이 경제 발전에 앞서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최초로 일본, 소련, 그리고 미국 등의 나라에서 대담하고도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많은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⁹⁾ 지난 몇 년간 이 길을 따랐다.¹⁰⁾

교육이 예측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교육이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사회에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의 기능이 주로 현재 사회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역할은 교육의 입장에서는 새롭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오늘날의 세계는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설명된다. “지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미지의 세계를 위해”¹¹⁾ 훈련시켜야만 하는 것이 교육의 사명인 지금 시기에, 새로운 환경은 교육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엄중히 숙고하고, 이로써 미래를 잘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중요한 변화 이후 새로운 사회·정치적 지도력에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관찰된다. 충분한 기술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 가운데 급작스런 정치적 격변 없이도 새로운 ‘인간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밖의 나라들은 정치적 상황이나 국내의 어려운 문제 및 갈등으로 인해 이런 변화를 사회적 목표로 만들어내는 데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나 명료한 비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체계와 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교육의 산출물과 사회적 필요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회가 천천히 진화하면서(짧고 급작스럽게 변화한 예외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배출한 사람들을 쉽고 기꺼이 수용해 온 반면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사회가 학교 졸업생들을 거부한다

일부 사회는 역사상 최초로 제도교육이 배출한 졸업생 다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현상은 경제발전과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사이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간극이 심화된 결과다. 이는 교육 체계가 얼마나 쉽게 주류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소수를 위해 마련된 교육 시스템은 지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몇 년이면 충분히 자신의 지적·과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대에는 적합했겠지만, 오늘날에는 급속도로 낡은 것이 됐다. 오늘날 대중교육은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식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성장,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의 불일치, 사회운동과 대항운동 등 복합적인 갈등의 결과는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교육체계는 확대되는 사회의 요구를 따라잡기 어려워진다. 교육받은 사람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고, 교육이 제공하는 자격과 기술(skills)이 사회의 즉각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거부되기도 한다. 이는 불균형 성장, 즉 한쪽을 뒤집음으로써 다른 쪽에서의 평형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속과 정체를 거듭하는 발전 과정에서 반복한 결과이다. 그러한 재조정과 변화가 피곤하고 지칠 만한 것이기는 해도, 이 과정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교육 세계는 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 변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됐고,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이후 더욱 부각됐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그리고 학습자의 바람과 적성에 더욱 부합해야 했다. 동시에 보다 평등한 기회도 보장해야 했다.

공통적 추세

또 다른 현상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교육분야의 경험이 전 세계 차원에서 자주 교류되는 편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현상에 몇 가지 공통적인 추세와 특징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은 다양한 외형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나라마다 문화적·역사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조차 지역 간이나 부문 간에 차이가 있지만, 교육 사업에 세계 공

통의 특성이 있다는 것은 흥미롭고도 위안이 되는 일이다. 이러한 추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육 모델 선택에 대한 관심이다. 제한적 선발 방식과 개방적 입학 허가 방식의 두 가지 기본 방안 중에서는 후자가 더 많이 선호된다. 현재 몇몇 선진국들은 이전 시기의 고도로 선발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이행하느라 씨름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처음에는 개방적 교육 시스템을 선택했으나, 최근에는 자원 부족과 경제 발전의 수요로 인해 대체로 다소 엄격한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계획의 엄격한 규제와 자유방임의 무정부적 위험의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개인 존중과 사회적 요구 사이를 조율하고, 개인화와 사회화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적 경향은 테크노크라트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자격 있는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비록 그런 모형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소수 기반으로 제약하고 선발을 강화하는 성질이 있지만, 많은 경우 전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방적 교육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경향은 상쇄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정책 가운데 보다 최근에 주목되는 추세 하나는 교육이 사회의 폭 넓은 대중이 표현하는 자유에 대한 열망에 공조한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해방 운동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전 국민의 주도성과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특히 활발하게 목격된다.

또 다른 중요한 추세는 교육 활동의 책무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로 전환할 때까지 교육은 주로 가정, 종교기관, 사립학교(subsidized schools), 수공업조합의 도제교육, 그리고 독립적인 고등교육 기관들에 의해 보급됐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은 주로 공교육 기관과 국가가 책임진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기관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경향성, 둘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심지어 사설 교육이 장려되는 나라에서도) 국가만이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위치에 있다는 생각, 셋째, 많은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교육체계의 구조적 발전 가운데 다음의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령 전 교육의 확대는 제한적이며, 대개는 학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교육의 기반은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은 좀 더 이른 나이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지고, 교육개혁으로 흔히 초등교육이 전기 중등교육과 병합된다. 취학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 단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상급학교의 학생수도 늘어나 수직적 확대도 일어났다. 하지만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중퇴자와 유급자도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입학을 통해 교육체계 시스템으로 유입되고, 중간 단계에서 주로 교육 실패로 인해 방출되거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시스템을 나가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을 중도 입학 허가를 통해 시작하는 일은 아직 드물지만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다.¹³⁾ 일부 교육 비평가들은 엄격한 선발지향 교육체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때문에 가장 수혜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은 그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이전에 초등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프로그램의 차이 — 대개 사회적 차별을 반영한 것들이었다 — 는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학교 수업은 점점 더 모국어로 실시된다.¹⁴⁾ 인문계와 직업계 등을 나누는 연령대도 점차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데,¹⁵⁾ 그것이 현대 산업 생산에서 더욱 다양해지는 일자리에 맞는 기술적·전문적 교육의 다양화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교육 유형간의 연계도 증대되면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간의 연계, 다양한 문화교육과 전문 훈련, 그리고 일반교육에서의 인문학, 과학, 기술 간의 연계도 늘었으며, 이러한 연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기관들이 혁신의 과정에 들어섰고, 모든 중등후 교육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화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학부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교육

기관으로 통합되거나 하나의 중앙 행정기구 아래 연합되는 것(멀티-유니버시티)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작아지고 보다 유연하며 보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지향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 맞추는 것이다.¹⁶⁾ 많은 새로운 학문분과가 도입되고, 다학문간 수업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고등교육은 점점 더 과학 연구와 통합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예컨대 대규모 학생집단의 새로운 필요에 맞도록, 연구집단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그리고 대학교가 사회 개혁의 촉매가 되어야 한다는 청원에 맞도록 확장되어 왔다. 새로운 대학구조와 학생 및 교육과정은 학생 선발과 평가 절차의 전면적인 개정을 동반했다.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이제 교사는 가장 중요한 사회-전문가 집단이 되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교사들이 가장 규모가 큰 임금소득 집단을 이룬다.

교육에서 비학교 부문의 확장이 일반적 추세라는 점도 덧붙여 두고자 한다. 성인문해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규 초등교육과 성인문해 프로그램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졌다. 오랫동안 무시됐거나 혹은 최근에야 비로소 등장한 교육 방법들이 학교교육으로 소환되면서 다수의 학교 밖 비정규 교육봉사, 혹은 유사대학 교육활동들이 학교나 대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사회-전문적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다. 이는 모든 범위의 교육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나 여타의 교육기관에서 시민 훈련과 직업교육 향상훈련, 재훈련, 보수교육 등의 강화 형태로 제공하게 됐고, 대학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자격조건 없이 성인들을 수강생으로 받게 됐다. 둘째는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변화로, 더 자유롭고 유연한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상호협동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교육자료, 수많은 레저 활동, 혹은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다.

교육 발전과 여타 사회 경제 발전 간 연계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¹⁷⁾

지난 10년 동안 많은 정부들이 교육 계획수립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는데,

이는 주로 형식교육, 즉 학교와 대학 교육에 국한된 것이었다. 효과의 정도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 때로는 마법의 해결책처럼 보이는 — 교육 계획수립 방법론은 가용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 데 전반적으로 기여했다. 결국 교육은 전반적으로 그저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인간 능력의 완전한 개화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¹⁸⁾

물론 위에서 검토한 현상들 가운데 일부는 단지 일종의 추세일 뿐, 실제로 광범위하게 실천된 것은 아니었다. 그 형태도 다양했다. 본질적인 사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 변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곳, 혹은 실제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극히 이질적이거나 심지어 상반된 개혁 동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 발전은 유기적인 경로를 따른다. 어떤 나라들은 중앙집중화와 국가 통제 및 전지구적 시스템을¹⁹⁾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나라들은 탈중앙화하면서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대한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많은 교육 발전이 매우 이질적인 이념과 비판, 또는 저항 운동으로부터 촉발됐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네 가지 주요 추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 개혁

이 중 첫 번째는 기존 교육 구조의 개혁과 재조직, 그리고 교수 방법의 현대화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있든 없든, 이러한 유형의 개혁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의제로 올라와 있다. 과학 기구나 개별적인 교육자뿐만 아니라 공교육 당국에 의해 실행되는 수단과 방안들에 의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는 몇몇 나라에서 주요한 혁신의 길이 마련됐다.²⁰⁾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시도됐는데,²¹⁾ 그 대부분은 중앙 정부가 시도한 결과였다. 다만 수단이 미흡하고 때로는 관료주의적 타성으로 인해 혁신에 대한 열정이 꺾이기도 했으며, 타지의 실험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마어마한 지적·재정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의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과 무게감으

로 인해 (그리고 때에 맞춰 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런 식의 단편적인 대책들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며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조적 변혁

비교적 최근에 사회적·정치적 봉기를 겪었던 나라에서는 교육 세계에 심대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학생층 구조, 단계별 입학 방식,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미약하지만 교육 방법 현대화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²²⁾ 학교와 그 환경 간에 긴밀한 연관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을 거대한 대중 운동의 하나로 보는 나라에서는 최우선 과제이며, 교육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시민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²³⁾ 비슷한 입장에서 교육을 국가로부터 분리시켜 사회화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책임하에 두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었다.²⁴⁾ 구조적 변혁의 문제는 교육이 완전히 혁명화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뚜렷하다.²⁵⁾ 여기서는 교육과 생산적 작업이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며, 학생들을 별도의 사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험에서 우리는 현재의 정치구조 및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하게 결정되는 측면, 그리고 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측면을 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급진적 비판

세 번째 운동에 속하는 것은 ‘탈제도화’ 교육과 ‘탈학교’ 사회의 옹호자들이다. 이러한 방안은 아직 실험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지적인 구상에 머물고 있다.²⁶⁾ 이들은 ‘제도화된’ 교육을 전면적으로 규탄하는 기반 위에서, ‘탈학교’를 중간 수준 혹은 전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급진적인 계획을 이끌어낸다. 이 극단적인 논의는 교육이 각 사회에서 독립변수를 구성하며 사회모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견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²⁷⁾ 이들은 사회 내에서

학교의 지위와 학교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 때문에 학교가 인류에 봉사하는 참교육의 도구도, 인류의 ‘공환성(conviviality)’²⁸⁾을 증진하는 도구도 되지 못한다고 본다. 오히려 학교는 억압적이고, 소외되고, 비인간화된 사회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일리치(Illich)는 교육기관은 ‘전복되어야’ 하고, 학교는 억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간은 학교교육제도가 빼앗아간 자유를 사회에서 되찾아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교육에서 자신의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철저한 신념에서 나온 개념들은 오늘날 세계의 어떤 사회적·정치적 범주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들(authors)은 탈학교 사회가 조만간 사회 질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그럼으로써 오늘날 덮여 있는 교육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젊은이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배우며 실천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형태가 어떤 종류의 배움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젊은 지식인들의 여러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난 이 새로운 이론은 두 가지 측면 — 즉, 이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과 유희가 이루어지는 측면, 그리고 교육 문제를 제기하는 생동감 있는 방식이라는 측면 — 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논의들은 다른 사회 시스템들이 설령 아주 다르더라도 그것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발

네 번째 운동은 학습자들의 반발이 쏟아 올린 공으로, 교육이 점점 정치가, 교육학자, 연구자 및 철학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 대중 자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났다.

경직된 교육 시스템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경우,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의 부모, 혹은 자신들이 가진 교육 기회의 가치를 회의적으로 보는 학생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반응을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학교 체제를 만들고 그것의 규칙과 도덕적 가치를 계속 강제하는 지적

엘리트와 부르주아 계급의 산물을 학교 체제가 배타적으로 고수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시대에 뒤쳐진 교육과 자신들을 둘러싼 현실 세계의 간극에 혼란을 겪는다. 학생들은 좌절하게 되고, 에너지가 분산되며, 지루해지고, 다른 것으로부터 희망을 찾는다.

학생들의 반발은 철통같이 방어되던 교육이라는 요새가 광범위한 비판의 침투를 받는 역사적 시기에 모종의 의미 있는 변화의 틈새를 만들어 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학생들의 저항은 양날의 급진주의로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었다.²⁹⁾ 학생들의 무관심조차 그 자체로 또 다른 반발의 형태가 됐다.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 사이에 보이는 불만족과 열정의 결핍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구식의 교육 시스템을 거부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큰 적은 없었다. 정당 간에, 세대 간에, 혹은 사회집단 간에, 교육은 종종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전쟁의 차원에서 선호되는 경험적 혹은 과학적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공인들이 자신의 권위가 도전 받을 때 당황스러워 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소수의 지식인들로부터 정중하게 비판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성나고 심지어 반항적이기까지 한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신 연구로 도출한 결론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데, 이는 그 결론이 예전에는 불변으로 간주됐던 가정들의 기초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수십 년을 향한 교육 정책과 전략의 지형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모든 형태의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든 깊이 숙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개혁적이든 급진적이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이와 동일성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런 추세, 다양한 방법, 넘쳐나는 아이디어, 혹은 좋은 의도로 반짝이는 별자리의 어디쯤에서 현재 순간을 특징짓는 좌표를 찾아낼 수 있는가?

지난 20년 이상 몇 가지 질문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즉, 어떻게 교육에서 양적 확대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교육 민주화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교육 구조를 다양화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몇 년 전에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는 틀이 만들어졌는데,³⁰⁾ 이는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됐다. 학교 체제가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학교에 필요한 방대한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길을 따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속도로 교육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당연한 질문들 외에도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여러 차원들을 완전히 조망해 볼 수 있다.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의 세계를 위해 교육의 심대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고 탐구해야 한다. 내일을 대비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세대에 대해 교육의 책임을 재평가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힘과 신화, 그리고 전망과 목적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으로 이 장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교육을 책임지는 각국의 당국자들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하고, 교육 문제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다룰 근본적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바란다 —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교육 장치들이 과연 우리 시대의 인간과 사회가 가진 요구와 열망을 진정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가?

주석

- 1) “그러나 모든 사회에서는 원시 사회와 고도 문명사회를 다 포함해 아주 최근까지도 아동 대부분이 교육을 목적으로 마련된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형태로 교육을 받았다. 어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 임무를 수행할 때 아이들은 그러한 어른들의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다. 어른은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였고, 아이는 어른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웠다.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여러 가지 성인들의 제도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이 그 제도가 가진 기능의 본질적 일부로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런 제도들은 예를 들면 가정이나 또래 집단, 공동체 노동, 장인·도제 관계, 게임과 놀이, 성매매와 성적 입문식, 종교 의례 등이다. 그리스의 파이데이아(paideia)에서는 모든 제도의 총체적 네트워크인 폴리스가 교육자로 인식됐다. 존 듀이(John Dewey)가 아름답게 표현한 것처럼, 모든 철학의 본질은 교육 철학이며, 세계를 어떻게 갖는지를 아는 것이다.”(Paul Goodman, *Unusual Ideas about Education: Education of the Young*, p.2,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37.
- 2) “단순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경험을 전달하는 문제일 때, 또 기술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고 주로 경험적인 것일 때, 아프리카의 전통 교육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전통적 아프리카 교육)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의 흡수와 전파를 통한 진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통 교육에서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따라서 고립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Abdou Moumouni, *Education in Africa*, London, André Deutsch, 1968)
- 3) “세상 어느 곳에서도, 또 어느 시기에도 문자의 도움 없이 문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거나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이룬 적은 없다. 그러나 문명이 일반적으로 도시 생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는 도시사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 도입되지는 않았다.”(*History of Mankind, Cultur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Vol. I, p.631, Paris, UNESCO, 1962)
- 4) “그러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 유일신을 믿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금욕주의를 결합한 생활 방식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 교육의 4대 주요 이상이다.”(A. K. Kinany, ‘Muslim Educational Ideals’, *Yearbook of Education*, London, Evans, 1949)
- 5) “역사가들은 이 시기의 대학 문화를 평가하면서 인위적이고 지루한 기교, 장황한 어구 표현에 대해 놀라워했다. 이 모두는 대학 문화 전반에 퍼져 있던 변증법을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였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형태를 근거로 스콜라 철학(scholasticism)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스콜라 철학의 역사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다. 스콜라 철학 덕분에 계발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덜 숙달된 지성들이 갑작스럽게 자신 앞에 드러난 고대의 거대한 유산을 흡수할 수 있었고, 이 강력한 지적 도구에 의지해 자신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History of Humanity, Cultur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Vol.III, Paris, UNESCO, 발간 예정[1996]*)

- 6) “식민 정부가 제공한 교육은 (중략)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식민 사회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식민지 지배 국가에 봉사하도록 개인들을 훈련시키려는 욕구에 기반하고 있었다.” (Julius K. Nyerere, *Education for Self-Reliance, Dar es Salaam,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ourism, 1967*)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영국의 교육 목적은 “혈통과 피부 색깔은 인도인이지만 취향이나 의견, 도덕과 지성에서는 영국인인 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Lord Macaulay, *Minute on Indian Education*)
- 7) “우리가 한 국가의 노력 정도를 파악하고 동일한 기반 위에서 국제 비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교육 개념이 광범위할 때 가능하다. 만약 국가 교육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러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무엇보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비교를 배제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육 예산의 내용과 영역은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에서도 정치적·행정적 이유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Lê Thành Khôi, *L’Industrie de l’Enseignement, p.39,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67*)
- 8) 교육과 국방 각각에 대한 재정 배분에서 상대적 비율 문제는 논쟁적이다. 1968년에 세계 국방비 지출은 1,820억 달러였다. 교육비 지출은 교육부문 공공 지출(1968년 1,320억 달러)에, 다른 부문의 훈련 비용, 대중매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 민간 부문 지출 등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커진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국방비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국방비 증가는 +10.4%(1965~66), +10.7%(1966~67), +6.1%(1967~68), +0.2%(1968~69)인데 비해, 교육비 지출은 +11%(1965~66), +11.3%(1966~67), +10.5%(1967~68)이다. (1968~69년은 통계 없음)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와 유네스코 통계원 데이터)
- 9) 예를 들어 카메룬에서는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6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GNP 성장률은 10%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 10) 콩고인민공화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낮지만(약 220달러), 주민 4명 중 1명은

제1부: 조사 결과

무상으로 초등학교에 다닌다. 쿠바는 재원이 한정됐으나 보편적 초등교육과 성인 문해 교육 및 중등교육 확대 면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11)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여성의 자궁 속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중에서, 바로 여기서 미래를 키워야 한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지원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어야 한다.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너무 늦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미래는 지금이다”(Margaret Mead, *Culture and commitment, A Study of the Generation Gap*, New York, N.Y., Doubleday, 1970)
- 12) “... 이 체제는 더 나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방’으로 규정되고, 아마도 유토피아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체제다. 이 체제의 주요한 목표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내는 것이며, 근본적 원리는 소외를 없애는 것이다. 모든 수준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와 체계적인 보상을 갖춘 교수 방법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 초래되는 학생 간 차이가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선택의 지도적 요소는 모든 이의 인격을 완성하려는 열망과, 각 개인이 지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는 열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에는 예술과 과학이 정치와 결합되고, 교수 방식에서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주도성과 잠재적 활동성에 크게 의존한다.”(Jacques Fournier, *Politique de l'Éducation*, p.172, Paris, Seuil, 1971)
- 13) “전 세계에 걸쳐 교육 시스템은 (중략)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입학하는 학생 수가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많다. 둘째,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연령과 성취도 요건이라는 수평적 장벽에 의한 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학이 저지된다. 셋째, 학생들의 진학은 다음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a)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의 두 가지 학업 성취도 구분 b) 상, 중, 하의 세 가지 성취도 구분 c) 모두에 대해 동등하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개방적 시스템.”(George Z. F. Bereday, *Essays on World Education: the Crisis of Supply and Demand*, p.9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14) 예를 들면 소련(Soviet Union)에서 학생들은 모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66개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15)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5-16세 혹은 18세까지의 학생들에게 폭넓은 과목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전문 교육을 8년제, 11년제, 12년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9년제 프로그램을 갖춘 통합 학교(unified school)에서

전반적인 중등교육이 끝나는 15세 혹은 16세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몇몇 나라(캐나다, 영국, 미국)의 종합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각자의 적성, 취향,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된 다원적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현대 교육이든 기술 교육이든 기존과 같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16세, 17세 이후로 늦춰지고 있다.(Roger Moline)

- 16) “교육기관의 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 — 그러나 그 경우에는 대학 밖과 집에, 직장에, 그리고 적당한 지역 센터에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James Perkins, *Reform of Higher Education: Mission Impossible?*, New York, N. Y., Inter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71. 6, Occasional Paper, 2)
- 17) 본 위원회의 A. V. 페트로프스키 위원은 중앙아시아의 소련연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이들 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가의 교육 분야에서 놀라운 진보를 이룩했다.”
- 18) “학교의 사명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정한 지식의 총량을 순전히 그리고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더는 아니다. 초등학교의 근본적 목적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데 지침이 되는 것은, 각 개인이 적성과 취미를 자유롭게 발전시키도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Ingvar Carlsson, 스웨덴 교육문화부 장관)
- 19) 이는 소련에서 볼 수 있다. 본 위원회의 페트로프스키 위원은 소련 교육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국가 통제와 공교육의 중앙집권적 운영, 보편적 의무교육,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방 입학제와 무료 교육,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통일성과 연속성의 유지.”
- 20) 시스템 전반에 관한 개혁과 두드러진 혁신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역별로 개혁과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교육과정의 현대화와 최첨단기술의 활용이 특히 인상적이다. 독일연방(서독)의 혁신안은 교육의 민주화와 종합중등교육의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코스타리카, 핀란드,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필리핀, 스웨덴(고등교육), 체코슬로바키아(직업교육) 등에서 개혁이 실시, 혹은 예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1968년에 착수된 교육 정책은 주로 고등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나 다른 부문에도 반향이 있었다.
- 21) 예를 들면 볼리비아, 브라질, 이집트, 이란, 르완다, 튀니지, 베네수엘라.
- 22) 방식은 다양했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탄자니아에서 실시된 개혁을 촉진했다.
- 23) 쿠바에서는 특히 문해 캠페인의 맥락에서 그러했다.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에서 시도한 민중교육도 그러하다.

제1부: 조사 결과

- 24)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교사, 학생, 부모, 지역사회 등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학교를 운영한다.
- 25) 중국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생산 부문이든 정치적 관점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부문이든, 사회의 역동적인 부문과 교육기관을 연계시켜 모든 수업과 사회경제적 공동체 간의 가장 완전한 상호의존적 조건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와 같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면 한편으로는 생산 작업이 촉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호의존 공식은 삼자동맹이다. 삼자동맹은 먼저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대표들, 다음으로 정치 군사적 지도자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습자들을 모든 수준에서 유기적으로 단결시킨다.”(L. Vandermeersch, *Educational Reform (People’s Republic of China)*, p.6,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혁신시리즈(Innovations Series), 13.
- 26) 이러한 생각의 추창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반 일리치(I. Illich)다. 그는 멕시코 쿠에르나바카(Cuernavaca)에 있는 CIDOC 센터(*역자 주: 문화교류문헌자료센터, 대안 학문공동체)에서 다른 비평가들과 함께 연구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교육적 가능성의 발전과, 그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활동의 제도화를 뚜렷이 구별했다. 일리치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에 관해 논하면서, 교육적 사업을 도시 한 가운데에 두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개인의 성장이 프락시스(praxis)의 한 형태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과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학교(scolae)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후략)”라고 그는 말한다.
- 27) “당신의 말에서 새로운 것은 교육이 더는 의존적이거나 반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변수이자 하나의 원인적 요소가 되리라는 점이다. (중략) 다른 시기에는 (중략) 정치 이론과 교육 이론은 쌍생아처럼 함께 기능하면서, 교육 이론은 늘 종속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시스템의 기능이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이반 일리치 인터뷰에서 발췌)
- 28) 일리치에 따르면 “공환성(conviviality)”은 개개인이 타인 및 환경과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 29) “학생들의 행동으로 교육적 보수주의라는 두꺼운 벽에 뚜렷한 구멍이 뚫렸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물밀듯 들이닥쳤다.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 그러한 흐름은 더욱 불어나고, 참을 수 없는 절박감과 신선한 희망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빈곤, 억압, 불공정의 사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제 희생자들은 그것을 운명 탓이라며 체념하지 않는다. 교육이 가진 결함과 부적절성을 자연 질서의 산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Paul Lengrand,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55, Paris, UNESCO, 1970)

- 30) 이 자료는 세계 교육의 위기에 관한 국제회의(Williamsburg, Virginia, 1967. 10. 5-9)에서 조사 보고서로 사용하고자 준비한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역사적으로 증첩되면서 세계적인 교육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학생 수 증가, 심각한 자원 부족, 급증하는 교육비, 결과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 타성과 비효율성이 그러한 요인들이다.(Philip H. Coombs, *The World Educational Crisi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제2장

진보와 막다른 지점

오늘날 세계 교육의 상황은 다양한 요인의 산물이다. 이들 요인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구조, 거기에 담긴 풍부하게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인 동시에 그 안에 남겨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무거운 짐이란 오늘날의 여건이 교육에 부과하는 요구와, 요구에 자극 받아 넘쳐나는 아이디어, 방안, 실험, 그리고 그 결과로 비록 모순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

계량적인 사실들은 서로 양가적 모습을 보여준다. 통계는 이중적인 그림을 폭로한다. 한쪽에서는 지식 수요 측면에서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또는 그래야만 하는) 학생 수의 꾸준한 증가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전례 없는 교육활동의 확대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다른 쪽에서는 교육 확장이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자원의 분배적 측면에서 지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아주 뚜렷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리 결론을 내기 앞서, 통계를 다룰 때는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 통계의 신뢰도와 타당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모든 통계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포함하며 선택은 그 성격상 주관적이다. 통계는 합계와 평균을 다루므로 차이와 격차를 덮어두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계는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이를 제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용도가 갖는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 통계는 주로 두 가지 정보원, 즉, 교육기관통계와 인구조사로부터 나온다. 행정 시스템의 긴밀한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된다.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수정되어 타당도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데이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인구조사에서 도출된 문해율, 교육 이수율에 관한 보고 자료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보고 자료들은 언제나 객관적 인터뷰를 통해 확인될 수 없으며, 확인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양적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통계의 수집 분석에서 오류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데이터에서 다양한 범주를 정의하는 것은 통계 기법이 다르듯 흔히 나라마다 다르다. 각국에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구조 간에 나타나는 차이까지 결합하면, 통계에서 대조되는 숫자의 조합들은 많은 경우에 서로 대등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다.¹⁾ 이에 더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은 자격 있는 담당자, 기술 장비, 그리고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 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다.

끝으로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공교육의 진보에 따라붙는 정치적 위신 때문에 관계 당국자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목적으로 제시되는 숫자의 함의를 부풀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주의점과 조심스러움에 유념하면서, 그럼에도 아래에서 우리는 가용 통계 자료의 양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요구와 수요

정의(Definition)

교육 요구와 수요는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먼저 교육 요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각각의 사회는 상당수의 교육받은 시민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은 다소간 전문 자격을 갖추고 여러 수준에서의 이런 저런 관점을 소유한 존재라야 한다. 물론 사회변화를 이끌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경제를 위한 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는데, 행정 인력을 수급해야 하는 국가의 필요성, 또는 교육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긍정적인 교육 요구는 민주적 과정에서 대중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여건을 형성하려는 관심에서 비롯되어,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과 의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다.

다음으로 교육 수요에 대해 말하자면 — 부모를 포함한 개인들의 목소리로 들리기는 하지만 — 일종의 집단적 현상이 되어가는 교육의 수요가 있다.

네 가지 언급

교육 발전의 구성 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하기에 앞서 네 가지 기본적인 언급을 해 두고자 한다.

첫째, 교육 요구와 교육 수요의 상관관계가 항상 조화롭지는 않다.

둘째, 불균형은 둘 중 어느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교육 요구가 선행되고 수요를 앞지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요가 요구보다 큰 나라도 많다.

셋째, 많은 분야와 나라에서 이 두 요인은 일치하지 않는다(요구와 수요 사이에 전반적인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그렇다). 교육 시스템이 경제 변동에 맞추려고 할 때 이러한 불일치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덜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국가가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인 뒤 교육을 상황에 맞춰 기계적으로 적응시키는 단계를 넘어, 교육에 보다 폭넓고 복합적인 과제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나라들에서였다.

넷째로, 교육 요구와 수요는 그 둘 각각의 성장률에 얼마나 차이가 나든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불일치가 초래되든지와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의 효과는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취학률의 엄청난 증대, 학습 기간의 지속적인 장기화, 학교 밖 교육에서의 자원 증대, 그리고 교육에 할당되는 국가 자원 지분의 증대 등에서 볼 수 있다.

요구와 수요의 확대를 초래한 복합적인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 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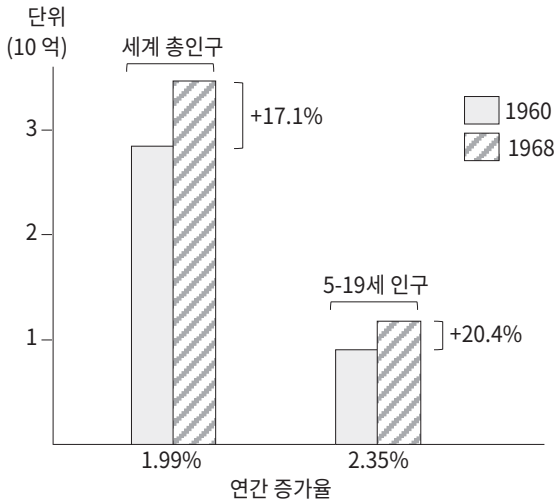
인간 지식의 증대, 사회 변혁, 심리적 동기 등이 있다. 각각의 요인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정치적 선택과 바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

그 모든 요인들의 근저에는 인구 증가라는 근본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 폭발’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만, 사실 그 안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학생 폭발’이라는 현상이 숨겨져 있다. 다만 여기서 세계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이유는 없으며, 오늘날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철학적,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과열된 논쟁의 주제인 인구 문제의 가능한 해법을 논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아래 두 사실이 이 문제의 차원을 충분히 드러내 준다.²⁾

1. 첫 UN <10개년 발전계획> 동안인 1960년부터 1968년까지 세계 인구는 30억 미만에서 거의 35억까지 급증했다. 이는 8년 동안 17% 급증한 것이며, 연간 인구증가율은 거의 2%에 육박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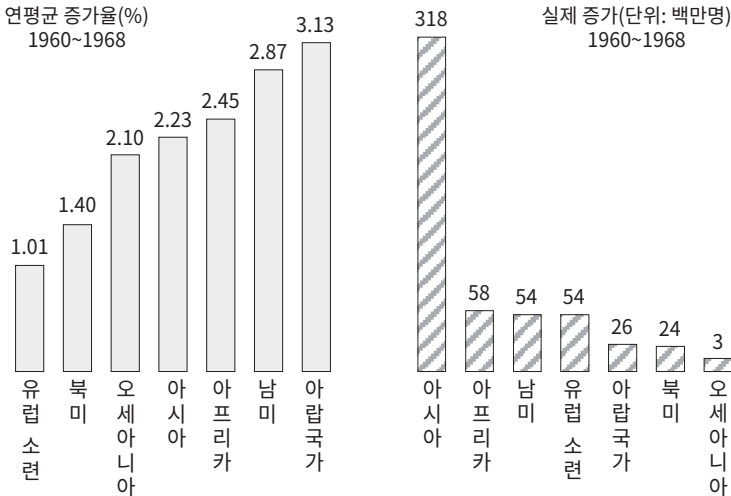
[그림 1] 인구증가: 1960-1968년 세계 총인구와 5-19세 인구의 증가율

- 같은 8년 동안, 세계의 전체 학령 인구(5-19세)는 9억 5,500만 명에서 약 11억 5,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약 20%의 증가율이고 연간 증가율은 2.35%로, 달리 말하면 연간 세계 인구증가율보다 거의 20% 더 높은 수준이다.

20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초·중등 학생 수와 대학생 수는 10억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잠재적인 학생 및 대학생이 연평균 3,600만 명씩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고 있다. 산업선진국의 수치와 개발도상국의 수치를 합쳐 하나로 몽둥그림으로써 세계 대부분 국가의 실상을 가리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여기에는 출생수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망률의 저하와 그로 인한 평균기대수명의 증가도 포함된다)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지 않다. 인구증가로 생겨나는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그림 2] 참조)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몇몇 지역이 있다. 이는 세계 평균 연간증가율(1.99%)을 이미 앞지른 네 개



[그림 2] 지역별 인구증가율과 증가 인구수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평균값과 대략 같거나 더 낮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 발전의 요건

교육이 확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 발전이다. 더 많은 남녀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확대된 경제는 보다 많은 숙련 노동자를 요구하며, 기술적인 변화는 전통적 직업군을 변화시키고 대규모의 훈련 및 재훈련이 요구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다.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금까지는 낙후되고 전통적이었던 농촌 경제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출현한다. 그러면서 청년과 성인, 특히 지금까지 제도화된 교육 활동에서 거의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이 긴급하게 교육에 참여하려고 한다.

초기 작업장에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본 메이지유신에서 소련의 첫 5개년계획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경제적 움직임은 항상 교육 확대를 동반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 경제 발전의 필요성과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이 교육 확대에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경제와 고용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구집단을 대략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두 집단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며 실제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학교를 중도 포기해서 직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다. 나머지 세 인구집단의 상황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세 집단이란 다소 높은 수준의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지만 자신들이 받은 훈련이 경제적 필요성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청년 집단, 일단 고용되었으나 그 일을 위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인 집단,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훈련이 더는 기술 진보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 5개의 인구집단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이 흔히 경제 동향 및 사회 주요 부문의 요구와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때문에 많은 경우 교육은 실제 교육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적합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1970년대를 보내면서 발전의 목표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경제발전 목표를 사회발전 목표와 분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교육 정책에서도 이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더욱 고려할 것이다. 1960년대에는 여전히 발전의 핵심 축에 대한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화 ‘거점’(islets) 마련의 효과에 대한 기술관료적인 과대평가가 있었다. 이와 달리 앞으로는 보다 폭넓은 발전 개념 구축, 농업 및 농촌 지역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제지원, 보다 자각이 있는 공공여론 형성, 그리고 국민 다수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등의 차원에서 지배적 특징들이 부각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에는 주로 전문가 및 경영진의 훈련과 행정 체계 수립을 위한 양적 표준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간은 아마도 이미 심각해진 실업 문제와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경제 발전은 기존의 특권을 폐기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정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³⁾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과학 기술적 변화의 시기에 각 사회들은 더 이상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뒤르켐(Durkeim)이 말한 “그 자체의 존재조건을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은 그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변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⁴⁾

정치적 고려

특별하고 신중하게 사태를 들여다보면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교육, 특히 비문해 감소는 국가의 결속을 공고화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신생독립국에서는 급속한 교육 발전이 민족 해방의 한 방식이자 총체적 탈식민화 과정의 본질이 되고 있다. 이 나라의 교육 당국자들은 기존에 확립된 교육 시스템의 몇 가지 특징을 개선함으로써 특권적 사회 계층이 행사하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 조건을 창출 또는 재창출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⁵⁾

국민으로부터 오는 압박의 영향(Pressure from the people)

정부가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동기는 부모와 학생층의 압력을 통해 더욱 추진력을 얻는다. 그것이 수요, 저항, 혹은 정치적 적개심의 형태이든 상관 없이, 그러한 압력은 교육 확대를 위한 공식적인 정책들과 함께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다음 수준을 향해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이 받은 교육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녀가 받기를 원한다. 때로 교육은 그것이 열어주리라 기대했던 전망을 무산시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계층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된다. 정치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사회 구조를 유지했던 고대 사회나 봉건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받던 직위나 특권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학 학위와 졸업장으로 종종 대체된다. 이와 같은 특권과 형식 지향적인 면은 종종 교육 시스템의 방향성 및 학문간 교육 자원 배분 방식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교육 수요의 사회학

교육 수요의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진 사회학적 기제를 따른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은 적어도 단기기간에는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분석을 포기하고 비합리적인 동기를 옹호하는 사악한 변호사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그러한 행동은 몇 가지로 정당화될 수 있다. 누구도 전 생애, 아마도 30년쯤 후에 절정에 도달할 자신의 생애는 안중에도 없이 단지 내일만 보고 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는 기대, 예컨대 경제 발전이 가속화하고 고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디서나 좀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믿음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러한

희망이 비록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경제발전계획의 인력 수요 예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출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 조직 체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좌절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현대화된 경제 분야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최소한인 때조차도 자녀가 해당 분야 관련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부모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교육 시스템이 실제 고용 규모를 꾸준히 앞질러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처럼 때때로 잘못된 희망과 그에 따른 실망에도 최소한의 장점은 있다. 즉, 이런 관심을 통해 교육 시스템의 아주 실제적인 결함을 예민하게 깨닫게 될 수 있고, 비판적 여론의 목소리도 복돋아줄 수 있다. 이는 모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 모든 요구와 관심을 결합시켜서 보면 모든 수준과 모든 형식 측면에서 전례 없이 높은 교육 수요에 대한 압력이 생겨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의 지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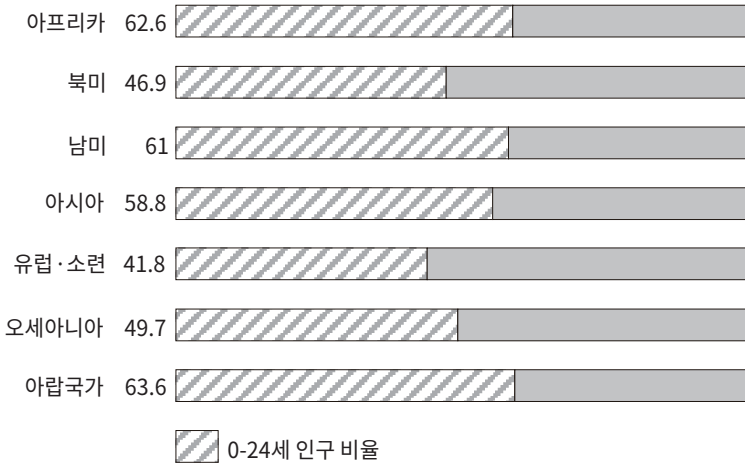
이러한 압력이 어느 곳이나 존재하더라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정도로 체감되지는 않는다. 이는 24세 이하 인구의 지역별 분포가 동등하지 않고 각급 학교 수준에서 성취된 취학률이 다르며,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그림 3], <표 1> 참조)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초등과 중등 단계에서 아주 크며, 이 단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선진국 지역(북미, 소련, 유럽, 일본 및 오세아니아 일부⁶⁾에서는 교육 수요의 증가세가 중등 및 대학교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4]를 보면, 선진국 지역에서는 전체 취학 학생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중이 54%에서 68% 사이인데 반해 그 외 지역에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교육 수준에서 일부 개발도상국과 산업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 학교 취학을 달성하고 있다. 선진국 중 일부는 중등 단계 취학률도 70%를 넘어

제1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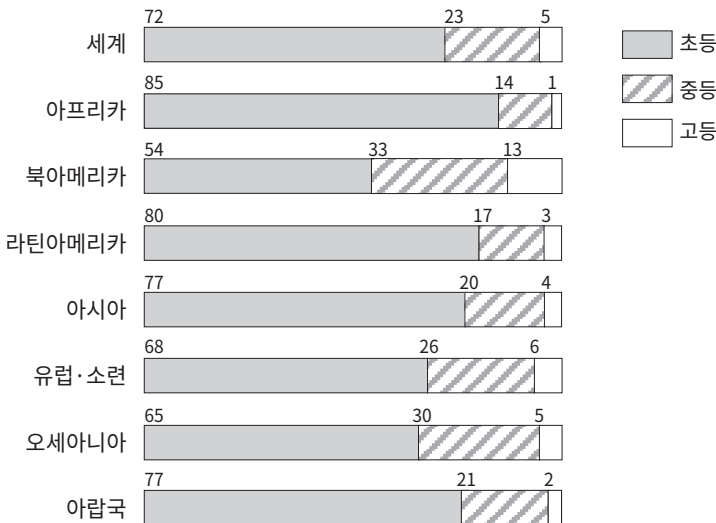
[그림 3] 1968년 지역별 전체인구 대비 0-24세 인구 비율 증가폭(%)

했으며, 가장 선진적인 경우는 90%에 달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학교에 다닌 적이 전혀 없고, 청소년의 30% 미만이 중등 학교에 진학하며, 5% 미만만이 고등교육에 진학한다.

<표 1> 1967-1968년 취학률

지역	(단위: %)		
	초등교육(전학년)	중등교육(전학년)	고등교육(20~24세)
북미	98	92	44.5
유럽·소련	97	65	16.7
오세아니아	95	60	15.0
남미	75	35	5.0
아시아	55	30	4.7
아랍국가	(50)	(25)	(3.1)
아프리카	40	15	1.3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정치적,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복합 요인들은 비록 서로 상반되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육 요구와 수요의 양적 발전에 대단히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질적인 수준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수렴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나 정부 당국 등의 집합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수 대중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모든 사람의 존재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적어도 각 개인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대표할 만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림 4] 1968년 교육 단계별 학생 분포(%)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특징으로서 전대미문의 새로운 차원과 힘을 갖게 됐다. 이러한 진화는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 발전의 수준, 인구 성장률, 인구 밀집도, 기술적 진보의 수준이 어떠한 상관 없이,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와 정치 체제가 어떠한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보편적 역사 현상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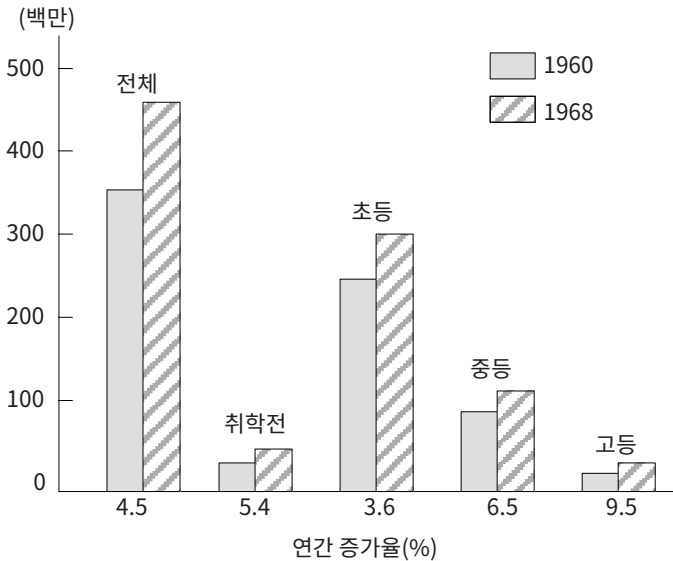
모든 지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동력을 얻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미래 교육 정책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확대와 한계

대부분의 정부는 밀려드는 교육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다.

속도를 내는 확대정책

1960년부터 1968년까지 8년 동안 학교 총취학자 수는 약 3억 2,500만 명에서 약 4억 6,000만([그림 5] 참조)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수적으로 1억 3,500만의



[그림 5] 1960~1968년 학교 취학자 수 변화 및 증가율

증가, 즉 40%의 증가율이며, 연평균으로는 4.5% 증가한 것이다. 이는 취학 연령 아동 인구증가율보다 100%, 세계 인구증가율보다 135% 높은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 학교교육의 실제 증가 수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의 수치에서는 중국, 북한, 북베트남의 주요 데이터가 빠진 상태며, 추산컨대 이 세 나라의 전체 취학자수는 1억 5,000만 명에 가깝고, 이는 앞서 인용한 전 세계 취학자수를 1/3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규모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략 4,000만 명에 달하는 학령전 교육기관 학생수를 포함시키면 전 세계에 걸쳐 형식 교육과 제도 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6억 5,000만 명에 달한다고 봐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보편적 학교 취학을 향해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목표인 보편적 학교 취학(universal school attendance)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초등 교육이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보편 교육의 목표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다. 이미 기본 학교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초등 고학년’ 단계나 중등교육 단계(부록 9 참조)가 목표가 되고 있다. 전통적 형태 혹은 종교적 형태의 기초교육이 이미 여러 나라에 존재하며 더 일찍부터 확대되어 왔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은 불과 한 세기 전에 시작된 것이며, 심지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십 년 전이나 기껏해야 수년 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은 본질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며, 아직 의무교육을 공식화하지 않은 나라들(총 20개국)이라 해서 이 측면을 도외시했던 것은 아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이런 종류의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과 계획들은 때로 현실로 옮겨지기 어렵다. 여러 나라가 단기 혹은 중기 교육 프로그램 혹은 법문과 엄숙한 선언문 속에 포함시켰던, 심지어 헌법에 명시했던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는 볼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그 수치가 항상 객관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취학자의 증가폭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학령전 교육에서의 진보는 초등교육보다 훨씬 더 빠르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보다 1.5배 빠르게 성장했으며 고등교육은 2배 이상 더 빨랐다. 1960년-1968년 사이 교육 수준별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 +107%, 중등교육 +65%, 학령전 교육 +45%, 초등교육 +33%.

교사의 확보

수적으로는 교육의 확대를 감당하기 위한 교사 수급 문제가 전반적으로 잘 충족되어 왔다. 취학률이 1960년에서 1968년 사이에 연평균 4.5% 증가된 만큼 교사 인력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증가율을 초과해 연평균 4.7%에 달했다. 교사 수는 1,260만 명에서 1,82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50% 증가했다.

학교 밖의 잠재력

교육의 세계적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학교 성장에 더해 무수히 많아진 학교 밖 활동의 증가를 살펴봐야 한다. 학교 밖 활동에는 교육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공공 혹은 민간), 성인 문해 프로그램, 시민대학, 통신학습과정, 다양한 문화 활동들, 학습서클 등이 있다. 여기에 주로 산업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직업교육 활동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도제 훈련, 승진교육 과정, 고급 기술훈련, 전환교육 과정, 경영 훈련과 세미나 등이 있다.⁷⁾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적 목적에 당장 활용할 수 있거나 그럴 잠재력이 있는 미디어도 있는데, 이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기존의 교육 활동 및 방법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여기에는 신문(일반적 관심사를 다루는 총 3억 5,000만 부 발행된 7,980 종의 일간지 및 6억 1,500만 부의 정기간행물), 서적(1968년에만 487,000종 출판), 도서관(798,297개 국·공립 학교, 대학교 및 특수기관의 도서관), 도서관에 소장된 약 50억 권의 장서, 연간 수억 명이

관람하는 14,374곳의 박물관, 18,850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전송 받는 6억 7,400만 개의 라디오 수신기, 그리고 13,140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골라 보는 2억 5,000만 명의 TV 시청자, 약 252,000개의 영화관 네트워크에서 보급되는 영화가 있다.

일부 현혹적인 통계수치

하지만 위에 인용된 성장률과 통계를 처음 보았을 때의 만족감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첫째, 1960년에서 1968년 기간에 학교에 갈 수 없는 5-14세 사이 아동의 수는 1,700만 명 늘어났다. 이는 매년 2백만 명 넘는 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는 의미다.

전 세계 통계치를 함께 모아보면 특별히 더 기만적인 환상이 만들어진다.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뒤처진 4개 지역의 통계를 모아보면 우리의 희망이나 요구가 현재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비교했던 그 8년 동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의 비율은 아프리카에서는 겨우 4% 포인트 늘었고, 아시아에서는 9% 포인트, 라틴 아메리카와 아랍 국가에서는 10% 포인트 늘었을 뿐이다.

인구증가율과 취학률이 1970년대에도 지난 10년간의 비율만큼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1980년대에 5-14세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수는 대략 2억 3,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문해와 비문해

성인 비문해율에 관한 통계 없이는 세계 교육의 현황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그 상황은 <표 2>에서 볼 수 있다.

비문해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그 절대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다만 이 실망스러운 결과에는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이 담겨 있다. 즉, 문해율이 지난 20년간 같은 비율로만 증가했다면 성인 비문해자 수는 1970년까지 8억 1,000만에 이르렀을 테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억 7,000만 명 적다. 이는 과거의 추세가

<표 2> 세계 비문해

(단위: 백만)

년도	세계 성인 인구(15세 이상)			비문해율(%)
	전체	문해자	비문해자	
1950	1,579	879	700	44.3
1960	1,869	1,134	735	39.3
1970	2,287	1,504	783	34.2

역사상 처음으로 역전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지 이러한 세계 전체 통계를 보고 거대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실제 문해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환상을 품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세계 통계는 실제 상황을 드러내기에 더욱 부적합해졌는데, 왜냐하면 그 숫자 안에는 산업 선진국에서 마지막 남은 비문해 지역을 정복하고 흡수하는 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추산에 따르면 1970년 현재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는 여전히 1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만이 읽고 쓸 수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문해력이 있다. 비문해자의 절대 수는 남미에 4,000만 명, 아랍 국가에 5,000만 명, 아프리카에 1억 4,300만 명, 아시아에는 5억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통계 전문가들은 1970년대는 1960년대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초등학교 취학상황 개선 및 문해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의 복합적 영향에 기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에는 세계 성인 인구가 28억 2,300만 명에 달하게 되고 그때 추가로 약 5억 명이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1980년에도 여전히 8억 2,000만 명의 성인 비문해자가 있고 세계 성인비문해율은 29%에 달할 것이다.

문해 캠페인의 교훈

그런데 여기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다. 문해 캠페인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듯 보이는 지역에서도 이 운동이 순전히 형식적 성격만 있고 교육 발전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문해 캠페인을 통해 오늘날 대체로 합의되는 비문해에 대한 투쟁의 진정한 목표를 성취한 경우는 거의 없다. 문해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히 비문해자가 교과서의 단어들 해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문해의 진정한 목표는 비문해자가 자신의 환경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실생활을 보다 잘 파악하도록,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증진하도록,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노하우와 기법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해 캠페인에 그간 바쳐온 엄청난(사실 이 표현도 충분히 강한 것은 아니다) 인간적 노력과 거기서 얻은 보잘것없는 성과를 비교한다면, 또한 실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묘사된 문해 캠페인 홍보자료에 붙여진 국가적·정치적 위신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시기 적절한 경고, 즉 현재 진행 중인 학교 확대 캠페인을 위협할 위험과 부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많은 나라가 문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었고, 많은 정부가 실천하지 못할 약속을 해 왔다. 부모와 청년 사이에서 아주 많은 희망이 조급하게 생겨났거나, 혹은 질적으로 불충분했던 희망조차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있다. 이들의 실망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무리 훌륭한 바람이라도 이를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고, 교육이라는 이 복잡미묘한 사회 활동 분야에서 우리가 대중선동에 굴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수단만을 활용해 계획과 공약과 희망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수단을 확보하고, 또한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도 찾아 나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아동과 청소년의 취학률을 높이고 성인 비문해를 퇴치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이 있었다.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노력을 최대치까지 올려도, 과거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한 앞으로 예측되는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수행할 때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날 세계는 인구 폭발, 필수적인 경제 발전과 기아와의 투쟁, 과학기술혁명, 광대한 지식의 증가, 대중의 출현, 민주적 이념의 결과와 새로운 표현방식, 정보통신매체의 확대와 증가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세계는 교육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한 과제 수행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3. 자원과 수단

교육의 확대에는 교육 지출의 대규모 증가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세계 교육비

1968년 공교육비 지출은 약 1,320억 달러로 상승했는데, 이는 1960-61년 사이 544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단 8년만에 거의 150% 증가한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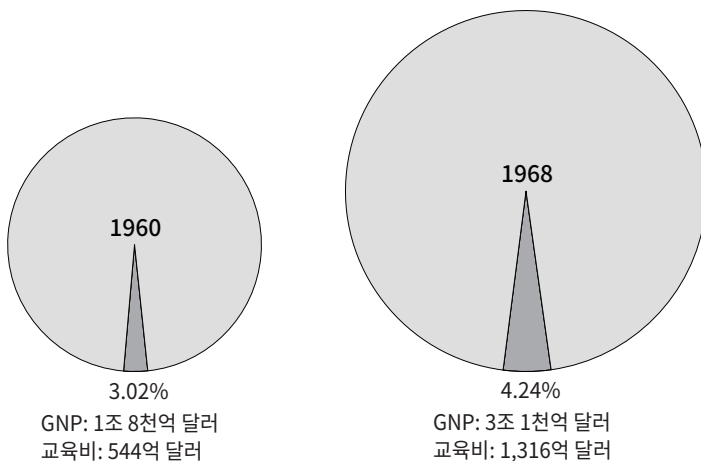
이 수치에는 중국, 북한, 북베트남의 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사립학교에 배정하는 자금, 노동부와 농업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교육활동 비용,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등 공공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경비 지출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무수한 학교 밖 교육 활동과 비정부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 그리고 가정에서 지출하는 학생 자녀들의 교구, 음식, 의복 및 교통 경비도 포함되지 않았다.⁹⁾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전체 교육비 지출을 추산해 보면 아마도 교육에 대한 세계 지출은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 지출

공공 재정에 대해서만 보았을 때 국가 예산에서 교육비 배정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지역별 증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14.5% → 16.4%, 북미 15.6% → 17.6%, 남미 12.6% → 15.4%, 아시아 11.8% → 13.2%, 유럽과 소련 13.5% → 15%, 오세아니아 10.4% → 15.7%. 전 세계적으로 교육비 지출에 배정하는 국가예산 비율은 1960년 13.5%에서 1965년 15.5%로 증가했다. 현재는 대략 16% 정도다. 1967년을 보면 국가 예산에서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인 나라가 18개국인 반면, 1960년에는 단지 6개국만이 그러했다.

교육지출과 GNP

보다 더 의미심장한 사실은 세계평균 공교육비 지출이 세계평균 GNP(국민총생산)보다 급속하게 증가하면서(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1960년 세계평균 GNP의 3.02%를 차지하던 공교육비 지출이 1968년에는 4.24%를 기록한 것이다.([그림 6] 참조) 지역별로는 3.6%(남미)부터 5.9%(북미)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림 6] 세계 GNP 중 교육비 비중(1960년과 1968년)

지출 증가의 비교

전통적 학교 체제에서 취학률의 세계적 증가를 그 교육에 대한 지출비 증가와 비교해 보면, 1960년에서 1968년 사이 취학률은 연간 4.5% 증가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연간 지출 증가폭은 11.7%였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별 비율은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3> 1960-68년 취학률과 교육비의 연간 증가율

(단위: %)

지역	모든 단계(초등, 중등) 취학률 증가율	교육비 증가율
아프리카	6.2	10.0
북미	3.0	12.1
남미	6.2	11.3
아시아	5.6	14.1
유럽·소련	3.0	11.0
오세아니아	3.7	11.7
아랍국가	(6.6)	(8.5)

학교의 낭비(School wastage)

이러한 지출의 증가로도 전통적 교육 체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비효율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장 심각한 증상은 낭비로, 학생들이 유급하거나 교육을 포기하는 비율이다.(<표 4> 참조) 이러한 문제들은 1960-61년간과 1967-68년간을 다룬 1969년 유네스코 조사에서 유형별로 다뤘다.

세계 절반의 나라에서 취학 아동의 절반이 초등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다. 1-3학년 안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대부분 지속적인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에서 이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국가 전체 교육예산의 20%에서 40%나 된다.

이러한 낭비도 양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 교육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흔히 말하는 교육비의 명목상 증가와 교육 활동 성과의 상대적 저하 사이의 모순이 본질적으로는 그 질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지역별 초등교육에서의 학교 낭비

지역	국가들의 투입/산출비*의 극값	투입/산출비 평균값
아프리카	1.24-3.55	2.00
남미	1.53-2.42	1.90
아시아	1.00-2.48	1.31
유럽	1.00-1.56	1.20

* 투입/산출비: 비금전적 측면에서 낭비 비용의 산출은 '투자된 연간학생수' 대비 성공적인 졸업 및 교육 수준 내 지속 기간의 관계로 표현된다. 결과는 투입/산출비이며 이는 내적 효율성 척도로 이용된다. 최적의 조건 아래 기능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이 비율은 1에 해당하며, 낭비 '비용'은 이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와 그림 1의 차이로 측정된다. 이 표에 제시된 수치는 아프리카 18개국, 남미 13개국, 아시아 13개국, 유럽 11개국에서 보내온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되었다.

재정 자원의 배정

교육비 지출로부터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한 결정요인에서 재정 자원의 총 규모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재정 자원의 분배 방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문제는 공교육비 지출이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화된 교육 형식에만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¹⁰⁾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예산 배정방식은 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도록 대부분의 공적 자금을 배정하는 기존 규칙의 한 표현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교육이며, 배움의 시기는 전통적인 학령기에 국한된다는 낡은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를 위한 특별 재정 조치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협소한 사고와 일방적인 재정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세상에는 수억 명의 비문해자가 있는데 학교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절반이 불운한 처지에서 학교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성인이 된다. 학교의 방법론도 좋고 치열한 교수 방식이 교육학적으로나 훈육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요건들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지금 세대에서 두 명 중 한 명이, 그리고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즉각적이며 실제적으로, 또한 보다 규모가 크고 활기차게 비전통적 교육 양식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단위 비용 면에서 현재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의 목표가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보지도 못했거나 일찍 학교에서 중도탈락 하면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폭넓고 빠르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주 많은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계속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의 의미가 당장 기존의 재정 자원을 재분배하여, 학교에 배당되는 기금을 줄이고 그 차액분을 학교 밖 활동에 돌려야 한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국가 교육비 지출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 증가분 중 얼마만큼을 공적 학교기관의 발전과 완성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다른 교육적 요구들, 특히 성인교육과 학령 전 교육 및 교육공학기술의 발전에 배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출 결정은 통상적인 예산변경과 기금의 증액, 그리고 교육 예산 내에서의 점차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증가율 둔화

다음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긴급한 사안이다. 교육비 지출의 일반 동향에 관한 어느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지만 지난

5년간 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표 5>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취학률 증가세의 둔화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1960-65년에는 평균 12.1%에서 1967-68년에는 10.5%로 떨어졌다.(취학률 증가는 1960-65년에 5%에서 최근에는 3.6%로 떨어졌다) 보다 자세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이 연구가 포함했던 7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발생했다.

<표 5> 전세계 공교육비 증가율

(단위: %)

지역	1960-1968년 연평균 증가율	1967-1968년 증가율
아프리카	10.0	9.2
북미	12.1	13.2
남미	11.3	10.8
아시아	14.1	12.6
유럽과 소련	11.0	7.9
오세아니아	11.7	3.6
아랍국가	8.5	10.7

교육비 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니다.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지역에서도 대개는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단지 전통적 학교 체제 내의 취학률 증가에 기초해서 국가 교육예산 증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평가하도록 위임 받은 공공기관들은 재정 평가질문에서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¹¹⁾ 사실 많은 전통적 교육 활동이 비용 대비 산출 성과가 낮다는 정당한 비판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교육 자원 배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 재정의 분배와 활용을 위한 중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이런 목적으로 전 사회에 요구되는 희생이 해명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엄격한가 가변적인가

그렇다면 이는 모든 환경과 모든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고정된 기준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교육비 지출의 ‘합리적’ 비율을 수학적으로 확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기준은 반드시 고수해야 하며, 그것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고정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전혀 믿지 않는다. 본 위원회를 포함해서 어떤 국제기구도 이 문제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을 부여할 수 없다고 믿는다. 본 위원회 전원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분명히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각 나라마다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한계, 즉 이를 넘어서면 교육 비용 부담이 경제적 균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넘어설 수 없는 문턱’이 있다. 교육예산 지출의 규모와 분배의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육 정책의 틀과 예산 기법의 틀을 넘어 판단되어야 한다. 교육의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한, 단지 그것을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더라도(이는 적어도 문화와 민주주의, 개인적 권리와 관련된 질적 평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비용이 단지 그렇게 지출된 총계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비용에는 노동, 투자 및 우선과제 등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상당히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가적 비용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교육 시스템을 위해 치른 희생이 그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로 산출된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프로그램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비용을 교육 시스템 자체의 고유한 내재적 필요성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개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나라가 국제의 대부분을 다수의 인력이 종사하는 2차, 3차 산업부문으로부터 거둬들인다면,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수출로 살아가는 국가와는 다른 정책, 적어도 예산 면에서는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미 국가 예산의 1/4을 교육에 지출하는 어떤 나라는 기술적인 진보나 공공시설의 발전과 관련된 교육 지출을 좀 더 늘리도록 결정하는 것이 건전한 선택이다. 교육에 대한 자원 비중이 훨씬 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으면서 대규모로 교육비 지출을 늘린다면 물가인상을 초래하거나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희생하게 될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

우리는 그 해 혹은 차년도에 학교 교육에 배정되는 예산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로 축소되어버린 교육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줄곧 들으며 성장해 왔다. 또한 배정된 예산의 얼마만큼을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의 다양한 교육 수준별로 각각 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속 논의도 들었다.

그런데 논쟁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상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그 자체의 특권을 강화하고 지위를 확립해 왔다. 이는 정부 당국과 부모, 청년의 소망을 담아 학교 체제의 확대에 이어졌으며, 이를 위해 사회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학교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와 형평성 있는 교육자원 분배에 대한 맹렬한 요청,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전혀 없었거나 앞으로 없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커져가는 목소리 속에서, 과거 학교가 교육 세계에서 누리던 최고의 헤게모니가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국가는 더는 국가 재정에서 비중이 큰 부분을 일부 인구의 한정된 활동에 계속 배정하기 어려워 뿐더러, 투입된 재정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공들여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²⁾ 글로벌 교육과(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아동기나 청소년기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교육하는)의 개념이 의식적인 열망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침체된 전통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역동적 진화를 경험하는 나라 모두가 늘어나는 교육 요구에 반응할 수 있다.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각국의 학교 프로그램에서 오는 난제와 모순으로 곤경을 겪는 정부들이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교육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역사적 변화를 야기했던 모든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좌절과 희망으로 점철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있어 왔다. 교육의 수요는 심지어 학생수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에서 이론상으로 절대적인 ‘천장’과 ‘바닥’은 없다. 교육비의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서는 가용한 재정 자원의 규모보다는 지금까지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온 공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선택방안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볼 때, 재정 자원을 늘리는 것은 설령 필요하다더라도 결코 유일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효과적인 정책은 보다 분별력 있게 예산 선택을 하고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단을 할당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에 배정되는 추가 자원의 사용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몇몇 예외가 있지만 각 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하게 학교교육의 총수요에 정비례하여 재정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비합리적이라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 혹은 곧 — 전통적 교육 체제가 최적의 수준에서 운영될 때조차 교육 수요의 총량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과연 이 교육 수요를 기존의 교육기관과 예산 범위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학교 이외에 다른 방식이나 수단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4. 불균형과 불평등

산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꾸준히 확대되는 격차는 오늘날의 세계에 근본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러한 격차는 부분적으로는 문화, 가치, 목표, 경로 등의 다양성에서 오는 차이일 뿐, ‘앞서간다’거나 ‘뒤처진다’는 개념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규칙은 이 주제를 다루며 ‘탁월한’이나 ‘뒤따르는’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선진국(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과 같은 표현에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른바 현재 선진국들의 모습인 듯 제안하면서, 마치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¹³⁾

각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려보든 자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풍요롭게 발달할 것을 기대한다. 산업선진국들의 역사는 그러한 발전에 과학 기술이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소수가 향유하는 풍요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겪는 궁핍 사이의 불균형, 즉 객관적으로도 부정적이고 해로운 불균형이 존재한다. 격차의 극복은 인류 공동체의 한국에서만 축적되어 온 과학적 기술적 집적물을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전하고 공정하게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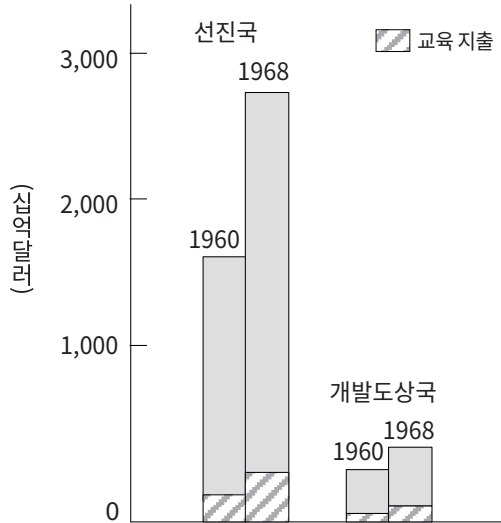
여기에서 분명히 교육은 지식의 중개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기본 조건은 세계의 여러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육권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적 불평등

1968년에 선진국의 교육 지출은 1,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개발도상국의 지출은 1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청년 인구의 1/4만이 살고 있는 산업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10배가 넘는 돈을 교육에 지출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부터 1968년까지 산업선진국의 교육 지출은 전체 GNP의 3.5%에서 4.80%로 증가했고, GNP는 같은 기간 동안 78%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출도 그들의 GNP 총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하지만 다소 느린 증가율이며, 수치상으로는 2.73%에서 3.91%로 높아졌다), 개발도상국의

전체 세입은 62%만 증가했다. 그 결과 산업선진국 지역의 교육비는 145% 증가했으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증가는 단지 130%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1960-1968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총 GNP 중 교육 지출 비율

달리 말하면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비록 절대 액수가 증가했지만 전 세계 지출에서는 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960년에 9%에서 1968년에는 8.6%).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경제 발전을 위한 경주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 교육에서 벌여온 경주, 즉 대규모 노력들은 재정적 희생 및 상당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산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막는데 전부 실패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학교 취학자의 절반은 선진국에서 나왔는데, 이 나라들의 학령기 인구(5-24세)는 같은 연령대의 세계 총인구의 1/4에 불과하다.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가 선진국의 두 배고 아동 청소년 인구는 세 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¹⁴⁾ 세계 학생 인구에서는 겨우 절반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유럽 및 소련과 북미에서는 1960년에서 1968년 사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단계 학교 취학자 증가가 5-19세 인구 증가와 함께 높아졌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연령대의 취학자보다 인구가 3,600만 명 더 많이 증가했다.¹⁵⁾

고등교육에서의 수치를 보면 북미에서 중등후 교육 단계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의 거의 절반(44.5%)이 실제로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했다. 고등교육 재학률은 유럽에서 뚜렷하게 낮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약 15%) 반면, 남미와 아시아는 이 비율이 크게 낮으며(1/10 이하), 아랍 국가에서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1/14 이하), 아프리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1/34 이하). 대체로 유럽과 북미의 고등교육 기관에는 세계의 다른 지역을 전부 합한 것보다 거의 2.5배 많은 대학생이 있다. 북미에서는 학생 8명 중 1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며,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20명 중 1명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 비율을 보면, 아시아는 38명 중 1명, 아랍 국가에서는 45명 중 1명,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49명 중 1명, 아프리카에서는 90명 중 1명이다.

교사의 수급

조건이 좋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교사 수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훈련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개발도상국은 유럽이나 북미보다 학생수가 6,500만 명 더 많지만, 교사 수는 이 나라들과 대략 같다. 초등학교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과 소련은 교사 1인당 학생 25명, 북미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26명, 남미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32명, 아시아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36명, 아랍 국가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38명, 아프리카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40명이다.

여성 교육

여학생 및 여성에 대한 교육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미, 유럽, 남미에서 초등과 중등 단계에 취학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대체적으로 같다. 하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국가들을 합해서 보면 초등학교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50% 더 많고, 중등 단계 학교에서는 100% 더 많다. 전 세계 비문해자 수치에서는 그 정도가 더 벌어져서, 남성의 28%가 비문해인데 비해 여성은 약 40%가 비문해다.

정보 매체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육 활동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매체에 있어서 학교 밖 활동에 배당되는 자원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이 영역에서 출발부터 불리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문이 주민 1,000명당 겨우 11부 발행되고, 남아시아와 아랍 국가에서는 1,000명당 18부 발행되는데, 이는 유럽과 북미 발행부수의 1/20 수준이다. 이와 비슷하게 아프리카에서는 라디오 수신기가 주민 1,000명당 45대 정도고 남아시아에서는 33대인 반면, 유럽에서는 주민 1,000명당 1,339대로 이미 인구수보다 라디오가 더 많다. 현재 전 세계에는 2억 5,000만 대 이상의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 중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아랍 국가에 있는 텔레비전은 500만 대 미만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가 그 이름값을 하기까지는 아직 보급할 지역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차질(Setbacks)

1960년대에 유네스코는 교육부장관들로 구성된 일련의 지역회의를 조직했다.¹⁶⁾ 여러 측면에서 이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교육 요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히 했고, 학교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에너지를 더 잘 동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대한 윤리적·실천적 가치를 담은 선언문 구성도 지원했다. 또한 이 회의들은 각 지역별로 학교 취학자수의 목표를 야심차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¹⁷⁾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예상 목표를 뛰어넘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에 그 결과는 목표 달성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 카라치(Karachi)에서 열린 1차 아시아 총회에서 합의된 목표는 1980년까지 초등교육에서 보편적 의무교육을 실현한

다는 것이었다. 1970년까지 1-5학년의 조정취학률(adjusted enrollment ratio)은 83.2%로 산정되었다. 1961년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회의에서도 1980년까지 100%의 취학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그 중간 단계로 1970년에는 71%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고된 해인 1965년의 목표 취학률은 47%였는데 비해 실제 취학률은 44%였다. 1962년 남미 국가들이 모인 산티아고(Santiago) 회의에서는 1970년까지 100%의 초등 취학률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 취학률은 남미 지역 다수의 국가에서는 1968년까지 달성되었으나, 일부 국가들은 아직 여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상태다. 1966년 트리폴리(Tripoli)에서 열린 아랍 국가 회의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학령기 아이들의 취학을 1980년까지 달성하자는 목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1967년까지 이 지역 취학률은 겨우 62.1%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설정된 목표의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취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결핍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취학자 수에 해당 국가의 초등교육 기간에 상응하는 동일 연령 집단¹⁸⁾의 어린이들만을 포함시키면 — 즉, 초과 연령자를 제외하고 본다면 — 이 지역의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가가 드러나면서 전체 양상에 대한 그림도 훨씬 어두워진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취학률이 보여주는 것은 1968년에 아프리카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대상 아동의 10명 중 4명만이 실제로 학교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랍 국가에서는 절반의 아동만 학교에 갔으며, 아시아의 아동들은 45%가, 그리고 남미에서는 25%의 아동이 취학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와 서구 산업선진국들은 60년대 초기에 설정된 취학자수의 양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에서 교육비 지출은 대단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살펴본 나라의 절반이 10%를 넘어서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단지 4개국만이 7%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¹⁹⁾

선진국에서 실현한 교육의 양적 발전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은, 그것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 20년 전에 지녔던 희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은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혹한 규칙, 즉 재화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증대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까닭은 개발도상국이 현재 경주하고 있는 노력이 성공하려면 과학과 기술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각국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나라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현재 세계적으로 지속되거나 악화일로에 있는 교육적 격차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석

- 1) 통계 범주의 정의에서 문해, 초등교육, 자격 있는 교사, 순환 지출, 농촌학교, 기술교육, 고등교육, 사회과학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해석이 있으며 보고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취학률의 통계 보고는 학년 초에 하거나 학년 말에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학년 말에 취학률은 더 낮아진다. 혹은 연평균 출석률로 잡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낮아진다. 의무교육은 그 연한이 4년, 5년, 6년, 혹은 10년간이 될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교육을 국가가 운영하는 데 반해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부문이 방대하다. 따라서 지출에 관한 데이터 역시 잘못 파악될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자동으로 진급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유급하는 학생이 많다. 교육의 효율성에 관해 분석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이 입학한 뒤에 바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학을 바꾸기도 한다. 반면에 다른 대학에서는 입학 즉시 확실하게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이동을 비교할 경우에는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 2) 이 장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는 유네스코 통계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교육 데이터는 중국, 북한, 북베트남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 자료만 언급되거나 문해에 관한 통계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나라들도 포함돼 있다. 표에서 아랍 국가들을 별개의 그룹으로 표시할 때는 괄호 안에 숫자를 표시했는데, 이는 아랍 국가 중 일부는 아프리카, 일부는 아시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계에 나타난 나라와 데이터 출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7. 교육 통계 및 해설>을 참조하라.
- 3)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부당한 특권, 극단적인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된다면 그 발전은 근본 목적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는 경제 및 사회생활의 모든 면, 즉 산업과 농업, 상업과 재정, 취업과 교육, 보건과 주거, 과학과 기술에서 공동의 집중 행동에 기반한 전 지구적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유엔 총회, 1970.10.17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 4)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1970년대에 교육이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면, 교육 체제의 효율성은 보다 광범한 목표들에 연관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바꾸어 말하면, 교육이 어떻게 자원을 이용하여야 사회가 교육에 설정해 준 모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OECD, 1970) 두 명의 소련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 역시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교육 발전(특히 양적 발전)을 예측할 때 주요한 난점 중 하나는, 이 분야의 기본 방법이 일종의 투사(projection)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안정된 경제사회 체제 속에서 완만하고 점진적인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가장 중요한 추세에서 투사하는 것이 미래를 탐색하는 이상적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교육 발전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 발전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개별 나라들 및 국가 그룹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예측 문제에서는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A. I. Markouchevitch and A. V. Petrovsky, *Where is Education Heading?*, p.4,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시리즈(Opinion Series), 4.

- 5) “현대 교육의 핵심인 삶의 질 추구는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결핍된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한다. 발전 중인 사회에서 올바른 유형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 잘사는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만족과 조화, 상호 이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교육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놀라울 만큼 벌어지는 풍요와 빈곤 간 격차를 궁극적으로 줄일 잠재력이 가장 높은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육으로 단기간 내에 금전적 소득의 균등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은 부자뿐만 아니라 빈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바깥의 우주에서 인간이 이룬 눈부신 성과에 견줄 수 있는 교육적 혁명이 일어나 인간의 내적 우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과학과 영성의 새로운 결합은 교육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주요한 도전이다.”(Prem Kirpal, ‘Modernization of Education in South Asia: The Search for Qualit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No. XVII, 1971)
- 6)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 7) 예를 들어 서독에서는 기업이 산업 훈련의 90%를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기술과 직업 훈련에 쓰는 비용이 공교육비 지출의 1/3(혹은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8) 세계의 교육비 지출을 평가하고자 시도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편적 성질 때문만이 아니라, 각국의 화폐를 기준통화(미 달러)로 바꾸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수치는 대략적인 추정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가격으로 표시된 지출 및 그 증가는 어느 정도(약 5~6%)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960-68년 기간 동안 남미와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했다. 그러나 이를 미 달러로 바꾸면 이 차이는 상당한 정도로 수정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이 그 나라 통화의 미 달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절하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고정 가격으로 지출을 계산할 때 따르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현재 가격으로 추정치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논의를 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교육비 지출과 국가 자원 전체의 규모를 비교하고, 이들의 증가율을 현재 가격으로 표시된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는 데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 9) 흔히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지출 정도는 상당히 크다. 최근의 연구(Pierre Daumard, *Le Prix de l'Enseignement en France*, Paris, 1969)에 따르면, 1964년 한 가정에서 어린이 1명당 취학과 관련된 직접 비용은 평균 1,180프랑이고, 전체로는 총 77억 프랑이며, 이는 전체 공교육비 지출액(174억 프랑)의 44%가 넘는다.
- 10) 다음 수치(%)는 국가의 교육 지출에서 각 부문별 예산 배정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 나라의 예산 분석을 사례로 든 것이다.
 - A 국가: 초등교육 39, 중등교육 18.1, 대학교육 18.1, 사립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기타 프로그램 6.8, 일반 행정 10, 기타 국립기관 4
 - B 국가: 초등교육 46.8, 중등교육 13.1, 고등교육, 15.8, 기술 및 직업학교 10.2, 사법 5.7, 행정 및 기타(일반인 대상 서비스 및 문화 활동에 할당된 지출 등) 8.4
 - C 국가: 초등교육 50, 전반적인 중등교육 31, 중등 기술교육 6, 전문직 6, 기타 7
- 11) 참조할 보고서들: 인도 교육위원회의 보고서(*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Report of the Education Commission 1964~66*, New Delhi, Ministry of Education, 1966). 교육의 선형적 증가는 실패로 귀결될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 멕시코 교육개혁위원회의 보고서(*Aportaciones al Estudio de los Problemas de la Educación*, Mexico,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1971) 및 기타.
- 12) “한 나라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배정해야 할 시기가 될 때, 그리고 교육을 통해 졸업장을 주지 못하고 생산적인 시민도 그보다 덜 산출될 때, 학교 교육이나 교사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심지어 취업 요건에 부응하는 직업 훈련을 채택하는 등의 해결책은 더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나라는 규정된 예산 자원이 이미 고갈되어 예산이 더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 자원’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때부터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전체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 이외 다른 부처의 공무원도 끌어들이고, 학생과 연금생활자도 모두 참여하며, 대중매체, 교통, 주거 부분의 지원을 받고, 모든 인적 물적 수단들이 동원되고 ‘최적화’ 됨으로써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에 더 잘 봉사하게 될 것이다.”(Sylvain Lourié, 국제교육발전위원회 4차 회의, Paris, UNESCO, 1971. 10. 6)
- 13) 발전 수준에 따라 전 세계 나라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쨌든 명백한 단순화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현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제1부: 조사 결과

책임이나 연대감을 보여야 할 의무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 14) 15세 이하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22%는 선진국에, 78%는 개발도상국에 있다.
- 15) 지역별 평균치에 엄청난 불균형이 숨겨져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 취학률은 평균 46%지만 각 국가별 수치는 8.7%부터 92%에 이른다. 중등학교 연평균 취학률의 경우에도 0.3%에서 11.8%까지 다양하다. 이용된 자료에 따르면 1967년에 교육비에 배정된 국가 예산은 11.3%부터 23% 사이에 있고, GNP 대비 교육비 비율은 1.4%에서 6.7% 사이에 있으며, 초등교육의 단위 비용도 18달러인 국가부터 126달러인 국가까지 있다. 아시아에서는 1968년에 국가 교육비 지출 지역 GNP의 3.7%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1% 미만을 지출했고, 3개국은 1~2%, 2개국은 2~3%, 6개국은 3~4%, 2개국은 4~5%를 지출했으며, 3개국은 5% 이상을 지출했다. 이러한 차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지역 평균과 그 예측은 상대적 가치를 가질 뿐이며, 따라서 국가별 전략과 예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 16) 카라치(1960), 베이루트(1960), 아디스아바바(1961), 산티아고(1962), 도쿄(1962), 아비잔(1964), 방콕(1965), 트리폴리(1966), 부에노스아이레스(1966), 비엔나(1967), 나이로비(1968), 마라케시(1970).
- 17) 장관회의에서 설정한 초등학교 취학 목표는 조정취학률(adjusted enrollment ratios)에 관련된다. 이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전체 연령의 학생수를 정규 초등교육 연한에 상응하는 연령 집단 인구 총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의 경우,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연령의 재학생 수를 6~10세의 총인구로 나누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조정취학률이 산출된다. 아프리카, 아랍 국가, 남미 국가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재학생을 6~11세에 해당하는 총인구로 나누면 초등학교 조정취학률이 산출된다.
- 18) 이와 같이 초과연령의 학생을 배제함으로써, 취학률이 100%를 넘는다고 보고하는 일부 국가들의 통계상 오류가 나타난다.
- 19)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관한 한, 이러한 진보는 1961년 워싱턴회의 당시의 예측을 확실히 뛰어넘은 것이다.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Expenditure and its Trends in OECD Countries since 1950*, Paris, 1971, Conference on Policies for Educational Growth, Background Study 2)

제3장

교육과 사회

교육 체제의 확대를 위한 과제를 시급하게 다루면서 교육계획 수립가들은 주로 양적인 차원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들은 오히려 교육과 사회의 관계, 교육과 학습자의 관계, 교육과 지식의 관계, 공표한 목표와 달성된 목표의 관계 등과 관련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

교육은 세계 자체이면서 세계를 반영한다. 교육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한편 바로 그 사회의 목적에 기여한다. 교육은 특히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가 생산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종속되는 환경 조건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며, 단지 교육이 생산하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은 그 자체의 변혁과 발전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스스로 창출해 낸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육과 세계 간의 이러한 변증법적인 과정이(그리고 낙관적인 관점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혹은 거꾸로 결과에 대한 원인의 관계 속에서 아주 명료하게 보인다.

그런데 사회 현상의 차원에서 더욱 분명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된 사회이건 간에) 선발의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교육 선발에 의해 사회의 기존 가치와 권력이 균형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유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교사, 학생, 부모의 개인적 경험 차원에서 보자면, 교육적 실천의 사회적

기능은(다양한 교육 형태를 통해서 너무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실행되므로) 무한한 복합성을 가진다. 교육적 실천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의 해방적 힘으로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한계와 취약점, 그리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영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 속에 담긴 교육의 모순된 본질은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엄청나게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넓게 보아서 이들을 네 가지 학설로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 사회: 네 가지 학설

우선 이상주의(idealism)는 교육이 그 자체로서의 본질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자발적 행동주의(voluntarism)는 교육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확신하는 견해다.

기계적 결정론(mechanistic determinism)에서는 교육의 형태와 미래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 받고 어느 정도 통제되며 그 변화에 대응한다고 본다.

마지막 학설은 위 세 가지 견해 모두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 학설에서는 교육이 불가피하게 사회가 물려받은 악을 재생산하고 심지어 악화시키거나 영속시킨다고 보며, 이 학설의 지지자들은 그런 사회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서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 외에는 교육에 대한 치료법을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는 명백히 모순되게도 이들은 교육적 세계가 자체의 내적 혁명을 통해 그 뒤에 오는 사회혁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각각의 입장은 한두 가지 근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약간의 논리적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견해들 중 그 어떤 것도 실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며, 충분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 영감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교육 활동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사이에는 동시적이거나 약간 지연되기도 하지만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 변동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우리에게서 환경 안에서 작용하는 지식이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적·집단적 해방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을 훈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면, 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인간화(humanizing)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도 있다.

1. 전통과 제약요인

사회와 교육 간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은 너무나 복잡해서 간단한 설명으로는 적절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은 교육이 사회에 대해, 혹은 사회가 교육에 대해 상호 간에 부여하는 과업에 대해서도 타당하며, 과업 달성을 위한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지난 10여 년간 다른 발전 목표들을 주제로 다룬 여러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목표가 일종의 깔꿈하고 단순한 수사적 용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해법들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과 사회가 규정되는 방식에도 여전히 타당한데, 흔히 교육에 대해 던지는 일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오직 구체적 상황 맥락 안에서가 아니라면 별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교육의 자기영속적 기능

교육은 스스로 재생산하고 개선해 나가면서도 그 고정성으로 인해 흔히 비난 받는다. 교육만 유일하게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제도인 것은 분명 아니다. 사실 반복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로, 앞 세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에 과거와 같이 전통적 가치를 전수하는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교육 시스템들이 시간과 공간 면에서 폐쇄적인 형태가 되는 이유이자, 대체로 그 자체의 존속과 성공에 주로 관심을 두는 이유다.¹⁾

교육 시스템의 시선은 내부와 과거로 향한다. 이러한 교육의 관점은 기존의 구조를 견고하게 하고, 개인을 지금 그대로의 사회에서 살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은 — 경멸하려는 뜻이 아니라 —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시민훈련의 이용과 남용

가정교육에서 시작되는 모든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화하는 과제를 갖는다. 학교는 시민 훈련과(특히 최근에 국가 주권을 획득하거나 회복한 국가에서) 이데올로기 훈련(혁명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과거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기는 나라에서)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교수 활동이 교육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의 목표, 묵시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이 세상과 자신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생각하며 자기완성을 해 나가도록 고무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따르게 만들어 지배하기 쉬운 인간이 되게 하는가? 교육은 독립심과 예리한 비판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발전을 장려하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위계질서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가? 사실 아주 많은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의 원초적 능력인 호기심과 발명가적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강인한 힘과 탁월한 탈피(escape)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위계질서

위계질서는 그것이 공식적이든 단순히 과거의 잔재이든(이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분명히 교육 구조 안에 존재한다. ‘초등’, ‘중등’, ‘고등’, ‘전문성’, ‘기술적’, ‘과학적’ 등의 용어 자체에 차별적인 어감이 실려 있다. 교사 직업군 자체도 위계적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교사의 등급과 지위가 그들이 맡은 학생의 나

이와 정신적 수준에 의해 나누어진다고 생각한다. 18세 학생들에게 고전문인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기술전문학교에서 15세 소년들을 가르치는 동료교사보다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분명 수학을 가르치는 일은 유아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일보다 더 권위를 갖는다. 물론 최고로 대접받는 자리는 대학 교수다.

끝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위계적 관계가 있다.²⁾ 이 위계적 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되다 보면 학생의 자기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질식시키며, 자유로운 반응의 잠재적 긍정성을 제거해 버린다.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라는 용어는 묘사하는 상황을 그다지 잘 표현하지 못한다. 이 말은 특수 신분 계층을 위한 최상류층 교육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의 ‘최상류층’을 나머지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용어다. 엘리트주의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일부 계층을 배제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엘리트들이 정의한 ‘최상급’의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목표를 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교는 초등학교 수업에서부터 이어지는 교육 단계에서 미래의 엘리트를 선발하고 걸러내는 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회 매커니즘이 특권층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문적으로 뛰어난 아동을 선호한다면, 이는 교육 시스템의 목표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엘리트란 말은 소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엘리트’가 아닌 것도 아니다. 얼마나 많이 뽑든, 기존의 엘리트가 설정한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모두를 제외시키는 결정의 요인은 선발의 원칙이며, 엘리트는 이런 제한을 계속해서 더 엄격하게 만들어 간다.³⁾

막힌 사회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층이동을 한다는 개념은 막힌 사회(blocked societies)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그런 사회는 오직 그 자체를 영속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산업선진국 모두에서 사회의 진화발

전을 방해한다. 기존의 엘리트는 편리하고도 분명히 공정해 보이는 방법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엘리트 계승자를 선발한다. 그들 대부분을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선발하는데, 이는 그럴 수만 있다면 매우 즐거운 일이다. 동시에 지위가 낮은 계층 출신 중에서도 일부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선발 기제는 3종의 장점이 있다. 사회의 안전 밸브가 되고, 지배계급의 양심이 떳떳함을 드러내며, 엘리트 계층에 신선한 피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경쟁적 시험에 기반하지 않고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차별에 기반하는 다른 선발 시스템보다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막힌 사회에서 나타나는 엘리트주의의 폐해 때문에 건전한 개념으로서의 엘리트주의와 교육 민주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두 용어는 이른바 지적 엘리트 집단이 비민주적인 기준과 구조에 의해서 선발됐을 때만 충돌을 빚는다. ‘권력이 곧 계급’인 사회를 구축하는 엘리트주의는 진정한 엘리트의 출현을 막을 것이다. 교육의 기반을 민주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개인의 적성이 완성되도록 한다면, ‘자연스러운’ 엘리트의 등장에 자극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엘리트 체제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민주적인 체제라는 승인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우리 시대의 필수적 과제는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엘리트주의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재정적 장애, 심리적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완고한 위계적 구조와 맞닥뜨릴 것이다. 오직 폭넓게 사회적 장벽을 해체하고 통합을 실현하는 사회만이 부정적 선발방식을 폐기하고, 선발과 분배라는 교육의 과제를 통해 인간 성취의 촉진이라는 긍정적 특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로서의 교육

교육은 사회의 하위 체계로서 반드시 그 사회의 주요 특징을 반영한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관료주의는 생활과 동떨어져 있어서 학교가 아동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이 학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상층의 권위와 하층의 복종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에서는 자유를 위한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 노동이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창조적인 일에 대한 흥미를 전수하는 학교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니 특권과 차별로 직조된 사회가 민주적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교육은 혁신한다

사회적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다고 해서 교육이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사회-경제적 체제에 대해 갖는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복합적인 사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특정 요소에 대해서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변화에 다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구조와 내용을 혁신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그에 비추어 교육의 목표를 구상할 수 있다면 변화는 확실히 가능하다. 우리는 역동적인 태도가 더 널리 수용되기를 바란다.

여러 사실들은 사회 체제 내의 모순과 교육 시스템의 일정한 무력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의 주요 목표들과 교육에 주어진 목표 사이에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사회의 저발전과 교육발전에서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함께 다루려는 시도 없이, 이 두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는, 교육 개혁 안에 사회적·경제적 발전 목표를 함께 설정해야 할 필요가 오늘날 훨씬 더 커졌다.

둘째로, 교육 혁신 없이는 사회 발전을 생각하기 어렵다. 사회의 형태와 그 지배적 원리가 무엇이든, 또 시민들(개혁가든 혁명가든)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든, 이는 모든 사회에 타당하게 적용된다.

2. 방법과 내용

교육 및 교육 방법에 대해 거의 전 세계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 받고 있는데, 예컨대 개인적 필요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진보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 방법 역시 교육 과정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며, 마음과 태도를 훈련하는 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적 소통

이 보고서에서 교육 및 교육 방법에 대해 제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는(이는 그 자체로 논쟁적인데, 이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식을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매체, 즉 구어와 문어, 시각적 이미지 등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것이다. 사실 매체는 교육 방법을 규정하며, 정도의 차는 있지만 교육의 성격과 내용도 규정한다.

구어(Spoken word)

인쇄가 발명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말하기는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되찾고 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대중매체, 즉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연술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비문해자가 대부분인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서 구어는 여전히 원초적인 수단이다. 구어에 기반한 직업의 수도 증가 추세다. 그리고 이전에 식민지배를 받았던 민족에 있어 모국어를 회복하는 것은 식민지배자들이 들여 온 문어의 헤게모니에 질식당했던 인격을 재확립하는 수단이기도 하다.⁵⁾

문어(Written word)

구어의 쓰임새가 많아진다고 해서 문어가 시들어 간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더 많은 아동들이 취학하고 성인들이 문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서, 더욱 많

은 사람들이 문자를 통한 언어를 배워 사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있다. 나아가 지식이 구조화되고 정돈되어야 할 때, 혹은 정보가 편리하고 영구적인 참조체계의 형태로 정리되어야 할 때 문어는 불가결하다. 또한 구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우 자유롭게 문어로 된 자료들을 끌어다 쓰기도 한다.

그러나 문어적 표현은 구어적 표현보다 추상성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돼 있다. 활자화된 글을 통해 보는 세상은 구체적인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고 단지 생각과 상징 덩어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문서를 좋아하는’ 문화(‘bookish’ culture)가 갖는 폐단은 활자화된 책과 신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습관을 갖게 하며, 현실과 해석 사이에 연결되기 어려운 간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순수문학과 같은 지식을 요하는 ‘고상한’ 직업과 그러한 지식을 사실상 배제하는 육체노동 직업을 구분하는 이전의 구별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문화의 습득을 요하는 활동이 증가했지만, 아주 극소수의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더는 언어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 기술의 대중화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말보다는 사물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게 됐다. 따라서 언어와는 전혀 다른 도구가 필요하게 됐다. 기술 훈련에서 언어가 아닌 방법, 예컨대 시범, 실험, 실습, 습관 형성, 반사작용(reflexes), 스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대적 훈련방식들이 전통적인 ‘문자문명’ 만큼이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자료

그림 등 시각자료를 통한 소통은 전례 없는 규모로 발전해 왔다. 모든 방식의 시각적 표현물이 곳곳에서 사람들의 세계를 파고들고 현대 생활의 모든 형태에 스며들고 있다. 오늘날 이미지는 다양한 수준의 문화적 경험에서 정보의 전달 도구로, 오락으로, 혹은 과학적 연구의 도구로도 나타나고 있다.

매체의 오용

대중매체라는 강력한 수단 덕분에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손가락만 까딱하면 도달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문어를 숭상하고 구어와 그림들을 체계적으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어와 시각자료만을 배타적으로 쓰려는 유혹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다른 것에 비해 선호하는 배타적 방식보다 더욱 건설적인 방법은 활용 가능한 자원의 목록을 만들고 각각의 방법이 다른 방법을 보완하여 쓰일 수 있는 여건을 방법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모든 종류와 수준의 교수 활동에 해당되지만, 특히 읽고 쓸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어를 가르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외지고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혹은 문해 캠페인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곳에서는 우선 시각적 이미지와 구어를 통해 정보 소통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낭비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실시되는 대중적 문해 캠페인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양자택일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너무나 흔하다. 초보적이고 전통적인 교수법을 버리고 현대적인 시청각 방법만을 쓰거나, 아니면 강력한 새로운 매체들을 배제하고 오직 분필과 공책만으로 읽기 및 쓰기 교육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시청각적 방법은 그 즉각적 이점 외에도 중요한 이점이 더 있다. 실용적 정보를 전하고 사회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배우려는 욕망과 더불어 문어적 표현과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익히려는 욕망을 자극해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을 증대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의제에 있어서 우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⁶⁾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문어와 시각 자료를 적대적 관계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며, 진정한 현대 교육은 초등교육의 문해 훈련에서부터 고등교육의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말과 소리와 이미지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와 교육을 전수하는 수단에 대해 차별적인 등급을 두는 것은 곧 전달되는 교육 내용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다.

교과목의 위계

역사적으로 전통적 교육과정 교과목들의 가치는 교육적이거나 사회적인 유용

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부여되어 왔다. 문학과 역사는 지리나 경제보다 큰 권위를 가졌고, 고전 과목은 현대 세계 관련 과목보다 우선시됐다. 심지어 과학 전반에서도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흔히 순수과학은 응용과학 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는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대착오와 배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주요 목표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대개 추상적 설명이나 소위 보편적 원리라는 방식으로만 표현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협소한 실용주의에 머물곤 한다. 이 두 가지 방식만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그들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에게 결코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한다.⁷⁾

구식이 된 교육과정

많은 학교 프로그램들이 젊은 세대가 알고 싶어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⁸⁾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즉 군사 문제, 사회적·인종적 갈등, 세계적 기근, 오염,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의 지위, 소수자 집단의 여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계에서는 흔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히 정확한 정보나 알맞은 교육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또한 내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서 엄격히 교과목별로 정해져 있는 현재의 시간표 편제 안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한편,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의 보급을 단기간에 물질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는 과학의 다른 차원, 즉 인간이 객관적 지식을 통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과학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처사며, 심지어 응용과학 자체에도 이런 특성이 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인간과 환경을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며, 인간을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상태에 두기보다 오히려 자연의 주인이자 지배자로 군림하게 한다.

사회 교육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과 공부를 겉핥기 식으로 배우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단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와 그 너머에 있는 사회 속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생활에서 민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개인이자 집단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지금보다 좋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동은 그가 살아가게 될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공받아야 하며, 그림으로써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에 접근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 교육

전통적인 과학 교육은 교실 안의 지식과 실제 과학의 세계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과학의 세계에서는 교실에서와 달리 가설을 가르치기보다 실험하며, 과학 법칙들도 배우기보다는 발견한다. 전통적 과학 교육과정에는 과학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창조성, 직관, 상상력, 흥미 및 의문의 정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찰하고, 수집하고, 범주화하고, 증거를 결론에 연결하는 등의 능력은 비단 과학자들의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과학을 둘러싼 신화를 벗겨내고 과학적 실천을 대중화하는 일은 과학의 변질이나 퇴조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⁹⁾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나누는 교육의 이분법은 이러한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는 이미 잊혀진 (중세의) 인문주의적 접근법과 극적일 정도로 상반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과학이 인간과학과 통합되고, 인간과학이 자연과학과 통합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의’ 과학만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은 특히 자주 무시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교육의 고객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한편, 자신의 의식적·무의식적 인격, 두뇌의 작용 기제, 지성의 작동 방식, 육체

적 발달을 지배하는 법칙들, 꿈과 열망의 의미,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맺는 관계와 전체 공동체의 관계가 갖는 본질 등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은 사람들에게 사회 안에서 살며, 사랑하며, 일하는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회가 사람들이 품은 이상의 구현체로 창조 되도록 하는 교육의 본분을 무시하고 있다.

기술 교육

과학 교육의 기본 목표 중 하나는 지식과 행동이 서로 상호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 연구와 그 실용적 발전 및 적용의 관련성이 강조되도록 과학 교육과 기술 교육을 정확히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이와 정확히 반대로 양자를 예리하게 분리시키는데, 이러한 분리는 양쪽 모두에 해를 입힌다.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술보다 과학에 더 많은 공간을 내주기 쉽다. 과학 교육은 실천적 측면을 깎아내 권위를 좀 더 높인다는 구실로 과학의 일부를 무력화시켰으며, 그 결과 교육적 도구로서 과학이 갖는 효과를 대부분 잃어버렸다.

기술에 대한 이해는 현대 세계에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기초교육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기술적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취업 기회가 좁아지고, 기술의 무분별한 적용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악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 달리 말해 인간 소외나 환경 오염 등에 압도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그로부터 혜택을 보거나 거기에 굴복한다. 기술에 대한 교육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수준에서 보면, 기술적 과정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통해 사람들은 기술적 생산물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의 일반교육에서는 기술이 체계적이고 개념적인 방식으로 다루이지 않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 나아가 전 인류의 기술 활용 이해도를 높

이러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물질을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이 과정에는 반드시 에너지와 정보가 함께 동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간에 —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깔려 있는 원리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이란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조정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술 교육

예술적 경험, 즉 예술적 형식을 창조하고 미적 기쁨을 주는 경험은 과학적 경험과 더불어 언제나 새로움으로 세상을 느끼게 하는 두 갈래 길 중 하나다. 명료한 사고력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상상적 능력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상상력은 예술적 창조뿐 아니라 과학적 발명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창조적 욕구를 등한시하고 소위 객관적 사실만을 가르치는 교육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경험한 진실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다. 그것이 모든 진실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술 활동의 가시적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창조하는 마음과 열정 또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적 열망을 깨움으로써 인간을 보다 높은 존재적 수준으로 고양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더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라져 갈 것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인격적 요소는 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 구성에 통합시키는 능력이다. 여기에 예술 교육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할 것으로 전제되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 바로 자연 및 사회 환경과 소통하고 환경을 이해하며, 필요가 있을 때 환경에 저항하는 기능이다. 예술 교육의 이러한 요소는 지금까지 교육적 실천으로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직업 교육

전통적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체로 직업적 요구와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 인문학은 여전히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이 선택하는 진로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도 응용과학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자가 더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향은 예외가 아니었다.

직업 경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은퇴하기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거나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20세기 초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이 전대미문의 변화에 대비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아직도 직업간 이동성과 평생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과학·기술전문(polytechnical)적인 중등교육의 원칙을 폭넓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¹⁰⁾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볼 때, 인력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불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반적인 양적 불균형이고, 다른 하나는 — 양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만 — 제공되는 일자리가 구직자들의 역량이나 요건, 또는 선호와 맞지 않는 상태인 구조적 불균형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교육은 (특히 지방에서) 전반적인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지만, 이때 교육이 완화시킬 수 있는 (혹은 악화시킬 수 있는) 불균형이란 주로 구조적인 것이다. 교육이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지, 교육이 실제 직업생활과는 큰 연관이 없는 기대와 태도,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지 등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학교 기능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학교의 임무는 단지 적성을 찾아주고, 훈련시키고, 공인된 수료증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학교는 인격과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임금격차로 인해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 구직 또는 대

기 인원이 많아 해당 직종에 대한 인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데, 많은 경우 그러한 직업은 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경향은 주로 공공서비스직의 경우 특히 심한데, 전통적으로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우월하게 여겨져 왔다.

수작업 교육(Manual education)

몇몇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식 노동 훈련과 육체노동 훈련 간의 구분을 영속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육체 노동을 일종의 기피대상으로 여기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을 통해 이를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절하해 왔다. 교육과정에서도 육체노동 훈련이 학업성적이 낮은 사람들에게 맞는 것으로 분류되는 일은 너무나 흔하다.

체육 교육

체육 교육의 목표가 근육과 신경, 반사작용의 연습 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쟁심의 가치를 강조하며, 신체적 단련과 인격 형성의 관계는 단지 말뿐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격의 기반이 되는 자신의 신체에 완전히 적응하도록 배워야 한다. 체육 교육의 문제는 그 이론적 부적합성보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일반적 무관심이라고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무시와 천대, 그리고 교육과정의 결핍과 불균형은 우리가 보기에 교육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다. 이것은 교육이 만들어낸 현상이지만, 가장 큰 희생자는 오히려 교육 자신이다. 교육에서 지적, 신체적, 미적, 도덕적, 사회적 구성 요소를 분리시켜 다루는 것은 곧 인간의 소외,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경시 및 훼손 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의 난제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생활 경험 사이의 격차, 교육이 설파하는 가치 체계와 사회가 정하는 목표 사이의 격차, 고전적인 교육과정과 과학의 현대성 사이의 격차 등이 있다. 교육을 삶에 연결시키고, 교육을 구체적 목표와 관련짓고, 사회와 경제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 시스템을 환경에 맞도록 고안하거나 재발견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은 틀에 박힌 기능, 안정적인 상황, 생애의 한 순간, 특별한 직종이나 주어진 직업 등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과제만을 담당해 왔다. 교육은 전통적인 범주에 속하는 전래된 지식을 심어주었다. 교육의 이러한 개념은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평생동안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세트로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낡은 것이 됐다. 전통 교육의 근본 명제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전과는 매우 다른 것을 요청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삶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배움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 그래서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학습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학습도 필요하다.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학습을 강구해야 한다. 창조적 활동 안에서, 또 그 활동을 통해 발전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는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너무나도 큰 과업이고 인간의 운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단지 구조와 전달 수단 및 과정 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패착이다. 교육의 실체성, 교육이 인간 및 인간 발전에 대해 갖는 불가결한 관계, 교육이 사회의 산물이자 구성 요소로서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을 깊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폭넓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민주주의로 가는 길

지난 몇 년간 비평가들은 학교가 불공정과 권위주의 및 차별의 온상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학교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해서 사회가 학교에 부여했던 사명을 잘 수행한 결과이며, 학교는 이를 잘 수행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교는 위계적이어야 하고 권위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합의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맹렬한 비난은 납득할 만하다. 먼저 이런 비난은 주로 최근 분위기를 타고 확산된 모종의 강렬한 요구의 표현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난에 불을 붙인 것은 그간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느꼈던 부분, 즉 심각한 불공정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등장한 사 이비 민주주의적 구호이기도 하다.

교육 민주화의 진보

흔히 교육 당국은 학교가 기회의 평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열망을 천명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육적 필요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목표 또는 민족해방의 투쟁을 위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이 더욱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있다. 현대사회와 전통사회 모두 더 많은 사람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산업선진국은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지속적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시험 및 경쟁 시험, 교육성취에 관한 단일한 평가 방법 도입 등으로 ‘법률상’ 향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전통적 특권은 폐지됐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보이며, 교육의 구조와 차원, 교육학적 실천 면에서 향상을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영속되는 특권

하지만 교육의 세계에서 불공정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우리가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국가 간의 불일치가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이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 차이는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며, 교육 상황과 관련된 수치가 지리적으로 다른 두 지역 간에 평균 50% 이상까지 벌어지기도 한다.¹¹⁾ 다른 불평등의 예는 교육 시설이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광대한 농촌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¹²⁾ 더욱 심각한 불공정으로는 한 도시 안에서 교육시설이 주로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변의 판자촌이나 파벨라스(favelas * 역자 주: 브라질의 빈민가)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부유한 이웃 지역에 비해 다닐 만한 학교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무수히 많은 인종 간, 부족 간 불평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치유할 만한 충분한 물질적 수단을 가진 나라에서도 때로는 격한 분노가 터져 나온다.¹³⁾

교육이 어떤 지위의 사회 계층에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일부는 높은 지위를 누리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가난한 ‘시골뜨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빈곤층이나 인종적·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기에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돌봄이 부족하고 유아기 교육 역시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아동들은 부유층 또는 자신보다 유리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적절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치유불가능하게 방치되기도 한다. 진학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학교가 점점 더 적어지는 나라에서는 다소 독단적인 학생 선발 과정을 통해 계속 공부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중도에 막아버리기도 한다. 문해 프로그램과 학교 밖 직업 훈련이 적절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기에 학교 네트워크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스스로 교육할 가능성을 찾기가 점점 불가능해진다.

(오늘날의 문명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일찍 자부심을 품었지만) 보편적 교육권은 그 상징적 정의로움과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빈곤층에게 종종 부여되지 않는다. 빈곤층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교육권을 거부당하며, 부유한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계층이다.

동등한 접근, 불평등한 기회

하지만 동등한 교육 접근은 단지 정의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동등한 접근이 곧 기회균등은 아니다. 동등한 접근에는 동등한 성공의 기회도 포함되어야 한다.¹⁴⁾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회는 매우 불평등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교육 순환의 시작과 끝에서 보이는 체계적인 왜곡으로 나타나며, 학교에 들어오고 나가는 아동들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접근 기회 및 이후 학업 유지율 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비록 나라마다 그 정도가 다르더라도 보편적인 현상이다.¹⁵⁾ 대부분의 이유는 분명하다. 가난한 배경의 아동은 어린 나이에 노동 활동이 강제되며,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 아동들은 위생 상태나 먹는 음식,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는¹⁶⁾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 이런 아이들이 취학 전 지식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문화 학습, 특히 언어 학습을 비교적 늦게 시작하며 이것이 이후의 학업수준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개탄스럽지만 사실이며, 교육 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의 영역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불평등을 제거할 권한을 교육이 갖고 있든 없든 간에, 결의에 찬 사회정책으로 교육 자원 및 노력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 것은 진보를 위한 명백한 선결조건이다.

대학 수준의 불평등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로,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사회 계층별 불균등한 학업성취도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에 아주 분명히 반영된다.

<표 6> 주요 국가에서 모그룹 대비 부모의 직업 및 그 자녀의 고등교육 취학률

(단위: %)

국가 ¹⁾	인문계 전문직 및 관리직		노동자	
	대학생 (전체 대학생 중)	부모 집단 (경제활동인구 중)	대학생 (전체 대학생 중)	부모 집단 (경제활동인구 중)
오스트리아	32.4	7.4	5.5	63.7
이탈리아	11.6	1.7	15.4	59.6
일본	52.8	8.7	8.7	44.2
노르웨이	33.6	10.4	23.9	55.4
영국	62.9	21.5	27.2	71.5
미국	52.4	22.9	26.6	57.4
유고슬라비아	17.9	8.8	19.0	28.0

1) 국가별 수치는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서로 연도가 다름.

* 출처: UNESCO(1971). The Social Background of Students and Their Chance of Success at Schoo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23 session). Geneva. 1971. 9. 15-23. (doc. UNESCO ED/BIE/CONFINTED/33/3, 1971. 7. 7.)

임시방편

이런 현상들은 대단히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통해 즉각적이며 대규모의 개선을 이루기는 어렵다. 대학교 캠퍼스의 조직과 확대, 특정 집단의 등록을 배려하는 대학교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쿼터제, 장학제도 확충과 같은 수단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런 수단들은 결의에 찬 장기적인 문화 개선 전략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종합적 노력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민주주의는 단지 학교 수를 늘리거나, 다양한 교육 수준에서 접근 기회를 확대하거나, 학업 기간을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 여기에만 문제를 국한시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미래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학교 이외의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교육의 내적 장애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다른 문제들도 있다. 다양한 교육의 갈래들이 어떻게 서로 조율될 수 있는가?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성인을 위한 교육 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모든 형태 및 수준의 교육기관들 간의 수평적·수직적 이동이 진정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교육 시스템에서 막힌 지점은 없는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든 자신에게 부족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누구나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의지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그만둘 수 있는가? 아주 늦게라도, 자신이 사적 혹은 사회적 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개인적 경험이 무엇이든 그에 기반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가?¹⁷⁾

더 나아가 비록 학생들을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입학시킨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근본적 접근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 교육체계를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시야가 좁은 사람들에 의해 교육이 운영된다면 그것 역시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깨려고 시도하더라도 가르치는 과목을 제한하고 그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런 교육체계는 민주적일 수 없다. 학습자들에게 여러 경로를 제공하지만 진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다면,¹⁸⁾ 이것 역시 민주적 교육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가 오로지 전통적 교육학¹⁹⁾의 도그마를 흔드는 데 성공할 때, 그리고 교육 과정 안에서 자유롭고 항구적인 대화가 성립될 때,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²⁰⁾이 향상될 때, 학습자들이 자기교육을 하도록 안내받아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될 때, 비로소 교육의 민주화는 가능할 것이다. 흔히 생각하듯이 교육은 가르침을 받고 반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선물이나 통제도 아니다. 자유로운 추구, 획득, 창조적 활동의 형식을 취할 때 교육은 더욱 민주화된다.

교육의 진정한 평등은 개별화된 교수법, 즉 개인의 적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필요로 한다. 평등한 기회가 평균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부정, 인격의 통합성에 대한 공격, 혹은 테크노크라트나 관료들의 권력 남용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²¹⁾

모든 이를 위한 평등한 기회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명목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기회는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간과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실책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교수법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실책은 인격의 미묘하고 복잡한 작용, 다양한 형식과 수단으로 표현되는 인격의 복합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자주 무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실책은 다양한 종류의 개성, 기질, 열망과 소명의식 등을 교육활동 안에서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점수제도, 선발, 시험, 졸업장

이러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선발, 시험, 졸업장에 대한 중요성이 과도하게 강조된다. 이런 제도는 강한 자, 운 좋은 자, 순응주의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반면, 불운한 자, 느린 자, 부적응자, 그리고 남과 다르거나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징벌한다.

이를 안심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능력(merit)이라는 개념에 기반해 생겨났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는 민주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능력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통해 출신 성분과 재산에 따른 특권과 맞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우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오히려 문제의 다른 측면을 감추고 있다. 즉, 언어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유리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평균 이상의 IQ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동료들에 비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더 자격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실력 중심의 선발 논리는 대체적으로 한 사회가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구성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타당하다. 인간 능력에 대한, 또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러한 협소한 개념은 시간이 가면 결국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경제와 행정 분야에서 훈련된 리더들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라면 능력 우선의 선발 과정을 따르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게다가 그것이 족벌주의나 정실주의를 막는 유일한 길인 경우에는 더더욱 정당성을 갖는다.

선발 방법은 교육 원칙과 철학의 관점만이 아니라 실천적 입장에 의해서도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선발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직업에 요구되는 적성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선발 절차에서는 위계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활동만 테스트할 뿐이다. 선발 절차는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거부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거나 이들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가적 이유로 제시되곤 한다.²²⁾ 점수 제도는 보통 한 개인의 성취를 다른 동료들의 성취와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출발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²³⁾

시험의 이론적 목적은 개인의 과거 성취를 측정하고 미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학교는 이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할 충분한 권한과 자격이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직업 생활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까지 학교가 감당해야 할까? 학교가 선발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간의 관련성이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와 관련된 학교의 역량은 더욱 의문스럽다.

이렇게 완고하고, 형식주의적이고, 비인간화된 선발제도가 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극소수의 예외와 임시적인 실험들 외에는 여전히 거의 모든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선발제도에 제기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평생교육에 맞춰 교육 절차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것밖에 없다.

교육이 평생 동안 계속 실시된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에 대한 개념이 변할 것이다. 자신의 교육 경력의 초창기 나이와 수준에서 실패했던 사람들도 이후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 그는 더는 학업 실패라는 초라한 자리에 평생 동안 웅크려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교사-학생 관계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서, 이제 전통 교육의 성전을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교사-학생 관계, 특히 지배자 대 피지배자의 관계를 분명 재검토해야 한다. 이 관계에서 한쪽은 나이와 지식이 많고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는 이점을 가진 반면, 다른 쪽은 본질적으로 열등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 낡아빠진 인간관계를 거부하고자 하는 저항의 물결은 오늘날의 교육계를 휩쓸고 있으며, 한편에서 불복종과 반발, 자퇴와 항의시위 등으로 표현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독립적 지역공동체 교육을 모색하거나 학교 및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시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저항의 표현들은 교육 시스템에서 소위 ‘권위의 위기’를 야기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혹은 현재의 보편적 지식 수준에서 볼 때 교사를 ‘마스터(masters)’ (우리가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라고 부르는 것은 점점 더 부적절해지고 있다. 교사의 임무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고 사고를 격려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교사는 이전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점점 더 조언자이자 함께 대화할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이미 만들어진 진리를 전달하기보다는 논쟁의 활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즉 상호작용과 토의, 자극, 이해, 격려와 같은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가 그에 맞춰 진화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의 민주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공동운영과 자체운영

사람들이 교육에서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도록 보장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의 운영과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의미다.²⁴⁾

이는 오늘날 정치적·경제적 사안들에서 매우 강력하게 표현되는 요구들과 완전히 같은 흐름에 있는 것이다. 이를 교육에 적용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참가자와 이용자, 관계자 중 누가 공동 사업으로서의 교육을 인도하고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는 교사와 학부모, 과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등, 나이 먹은 학생과 어린 학생들, 행정직과 그 외 직원들, 특정 분야의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과 더불어 청소년, 노동자, 정치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대표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정확히 어느 수준에서 공동운영과 자체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가능한 활동들로서 예컨대 교육 정책과 목표의 수정, 교육기관의 설립과 조직, 재정과 자원의 분배, 학과목의 규정, 교육방법과 교수법 문제의 처리, 교사 모집, 급여와 규정의 관리 및 결과 감독 등이 있다.

많은 나라가 이에 관심이 있고 규모 있는 실험에 착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참여와 공동운영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에 전제되는 구조의 변화와 낡은 금기사항들을 폐기하는 것이 현재로서 실현불가능하고 환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운동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실패와 결핍, 왜곡 등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다. 우리의 이러한 묘사가 어찌면 공정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데다가 고의적으로 비판에 치우친 것일지도 모른다. 균형 잡힌 사태 파악을 통해 이와 다른 측면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는 우리 자신을 공평하고 냉정한 심판관이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도 모든 인간사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낡아가고, 죽은 가지가 썩는다. 교육이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남아 개인과 발전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성과 패기를 충족시키려면, 안주와 안일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은 스스로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결코 교육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막중한 과제다. 개념적으로 말하면 이것의 전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면서도 오랫동안 혼동해 왔던 것처럼, 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평등한 기회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취학을 증가 등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교육의 민주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교육 세계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제 그런 것이 존재한 적이 있거나 했는가? 하지만 다가오는 민주주의는 실재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민주주의일 것이며, 관료들이나 테크노크라트의 영감에서 비롯되거나 일부 지배계층에 의해 부여된 것도 아닐 것이다. 그 민주주의는 살아 있고, 창조적이며, 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 구조는 변화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문화 유산 속에 구축되어 있는 특권은 줄어들어야 한다. 교육 구조를 리모델링하면서 선택 영역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사람들이 평생교육 패턴을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교과목은 개인별로 맞춰져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위, 권리, 그리고 소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권위주의적 교수방식은 학생들의 독립성, 상호책임성, 대화로 표현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학적 훈련을 통해서 인격의 다면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선발은 진로지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이용자들은 해당 기관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 활동의 관료적인 측면은 해체되고 행정은 분권화되어야 한다.

주석

- 1)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교육 체제는 이미 상당히 구축된 관성을 갖고 있다. 만일 교수 활동의 기능이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으로 여겨진다면, 유전적으로 말해서 재생산 체계의 주요한 특성은 자기의 유형을 최대한 정확하고 충실하게 재생산하여, 생물학자들이 말해 온 종족보존을 위한 ‘생물의 재생적 불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Pierre Bertaux,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7,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11.
- 2)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며, 다른 해석을 지지한다. 런던 대학의 교육연구소 소장은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남은 권위주의에 대해 투쟁하느라 우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 있는 교사의 기능을 무시했고, 우리 시대의 다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 상태도 빈곤해지고 말았다. 우리의 문제는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지도하는 것이다. 이점은 중대한 문제다. 우리 자신에게 ‘권위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을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Lionel Elvin, “The Positive Roles of Society and the Teacher”, in R. S. Peters(ed.), *Perspectives on Plowden*, P.87,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 3) 예를 들어, 10년 전까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엘리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준으로도 충분했지만 5년 전에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게 됐고, 오늘날에는 대학원 이상이어야 명함을 내민다.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것이 꼭 기회의 평등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니며, 성공을 위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늘 대중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 4) “막힌 사회는 가로막힌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또 다시 막힌 사회를 유지하고 영속시킨다.”(Louis Ruillen, 1970.)
- 5) “식민지 문화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 ‘이름을 붙인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개인이 자기 세계를 표현하고자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말’을 지배의 도구가 되는 말로 대체시킨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는 진정한 대화의 중심 자리, 즉 교사와 학생이 세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진정한 말들을 교환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식민지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교사는 확고한 권위와 지식의 원천으로서 마치 투자자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듯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예치’한다.”(M. Mardjane)

- 6) “수단과 목적 사이, 혹은 같은 목적을 향한 수단들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오로지 시청각 수단에만 바탕을 둔 교육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순이 있다. 모더니즘에 관한 이런 모순적인 궁리는 ‘상상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공상가들에게 맡겨 두자. 문어는 방송, 텔레비전 상영물, 동작이나 마임이 있는 수업을 최소한 따라가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들을 결합시키고 지원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병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현대 교육은 이미지로 글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에서 다른 체계를 끊임없이 오가는 종합적 과정 속에서 마음의 훈련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미지와 글을 통합시켜야 한다. (중략) 이것이 인류가 단일성을 잃지 않는, 즉 ‘문자’를 직접 관리하는 교육 받은 사람들과,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두 집단으로 쪼개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René Maheu, *La Civilisation de l’Universel*, p.104, Paris, Laffont-Gauthier, 1966.)
- 7) “어린이는 지식의 통일성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이유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가르침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의 특정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학교가 주변 환경과 분리되어 있듯이 실생활로부터 떨어져 있다. 학교생활의 최종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삶을 위한 준비 및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학교의 기본적 기능이라는 점이 잊혀진다. 교육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길러내야 할지 방향을 잃고, 교육의 목적인 아동들에게 중점을 두지도 못한다. (중략) 각 학문 분과들의 구획화, 그리고 학교와 생활 간의 장벽 사이에는 뚜렷한 평행선이 있다. 이는 지식이 통합되지 못하는 것과, 학교가 주변 환경과 통합되지 못한다는 사실 사이에 평행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유네스코에서 주최한 ‘다학문간 체제에 의한 교사훈련 및 학교에서의 활용에 대한 세미나’ 최종보고서에서 발췌. Bouaké, Ivory Coast, 1970. 3. 24-4. 4.)
- 8)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훈련을 위해 정보의 원천을 어떻게 활용할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워야 한다. 이는 지식 전달 구조와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은 세대에 관한 고정적 계층 구분에 기반해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성인과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젊은이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분리를 탈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전통적이기는 하지만 존중할 만한 규범 및 내적인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의 세계를 구체적인 실제 세계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세계에서는 일에서 요구되는 것과 개인적 사명감 및 책임으로 인해 무관심하고 거룩하게 남아 있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좌절된다.”(Armand Biancheri, *La Rénovation Pédagogique*, Centre de Recherche et de Formation en Éducation, 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Saint-Cloud, 1970.)

- 9) 앞에서 말한 비판들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사례에 너무나 잘 부합한다. 일부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이 비판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개혁은 과학 교육의 목표와 방법,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개혁에서는 공식을 배우고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강조된다. 실험적인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과학 수업과 학생이 사는 환경을 실제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도 있다. 확실히 혁신적인 몇몇 실험들로는 하버드대학교의 물리학 프로젝트, 미국 물리학연구위원회의 작업, 영국 뉴필드재단의 과학교수 프로젝트, 프랑스 중등학교에서의 현대 수학 도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드문 사례다.
- 10) 몇몇 사례, 특히 미국 및 서독과 같은 고도의 산업국가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전문적인 중등교육의 허용이 보류되고 있다.
- 11) 예를 들어 인도에서 9-11세 연령 집단의 평균 취학률을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평균 약 80%인 인도의 지역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나갈란드(Nagaland)는 121%,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는 77%, 편잡(Punjab)은 68%,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는 57%다. 상급 학년으로 가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국가 전체 평균은 36%인데(11-14세 인구 대비 6-8학년 취학률) 비하르(Bihar)는 22%, 아쌈(Assam)은 31%, 구자라트(Gujarat)는 43%, 케랄라(Kerala)는 71%다.
- 12) 예를 들어 남미의 한 나라에서는 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66%가 완전한 5년제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해 농촌 지역은 6%만 5년제였으며, 농촌 마을학교의 59%는 2년 동안만 학교 교육을 제공했다.
- 13) 1964년 흑인 학생들은 미국 총학생수의 약 5%를 차지했다. 1969년에는 대학 적령기 인구 집단의 12%가 흑인이었지만, 흑인 학생의 비율은 6%에 불과했다.(*Campus Unrest,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Campus Unres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0.)
- 14) 진정한 기회의 평등에 필요한 조건을 연구한 일부 저자들은 다른 모든 조건들을 고려사항으로부터 떼어놓은 채 학교교육이라는 수단만 평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평등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영국의 플로우든 위원회(Plowden Committee)는 적극적 차별의 원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끝에 가서 교육 기회의 평등에 관한 가장 급진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그 목적은 동등한 교육적 투입이 아니라, 동등한 교육적 산출로 규정된다. (물론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것이다) (중략) 콜먼(Coleman)의 가장 극적이고 논쟁적인 연구 결과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은

불평등한 교육의 제공보다는 학교 친구들의 유형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학업 성취도 시험 점수와 가장 중요한 상관성을 갖는 것은 그 학교 학생들의 사회 계급적 환경이다.”(A. H. Halsey, *Education and Social Change*, Paris, UNESCO, 1972,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51.

- 15) “체제 변혁 이후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학생수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사회 계층의 대격변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중략) 학생수를 늘리면서 또한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 보기 드물게 광범위한 이중적 운동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Robert Castel)

그러나 여전한 사실은 — 예를 들면 헝가리(S. Ferge에 의하면)와 유고슬라비아(M. Mastić와 R. Supek에 의하면)에서 — 부모가 고위직 임원, 전문직 종사자, 지식인인 경우 그 자녀들이 얻은 평균 점수는 숙련 노동자, 육체노동 및 농업 노동자 자녀들의 점수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 16) 교육 시스템은 “(중략) 교육을 잘 받아서, 자녀들에게 교양 있는 단어와 문화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Coombs, *op. cit.*, p.32)

“학교 공부에서도 성공하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배경이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중략) 이에 대해 순전히 경제적 유산만 탓할 수는 없게 됐다. 이는 의무교육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문화적 유산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섰다. 학교는 물려받은 지위를 위하고 그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체제다. 학교 체제는 평등주의자를 자처하지만, 그 기능은 특권을 유지시키고 오늘의 사회 질서가 확실히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체제는 아주 고상한 위선 밑에 수단들을 감추어 두고, 그로부터 엘리트층을 선발하며 또한 가장 수혜받지 못한 계급 출신 아이들의 학교 탈락을 강제하고 있다.”(A. Girard)

“교육사회학 영역에서 최근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학습한 문화를 습득하는데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출신 집단이 가진 하위문화를 반드시 참조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Robert Castel)

- 17) “교육이 진정으로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사회생활에서 자기 적성을 시험해 본 다음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상은 정반대다. 사회적으로 말해, 개인이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행동할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는 바로 그때 교육이 중지된다.”(J. R. Gass, OECD, Paris)

다음 언급도 위와 같은 선상에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 및 조사에 따르면 학교 시스

템의 민주화 과정(대학을 포함하여)은 이제 막다른 지점에 이르렀다. 이제 평생교육의 원칙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떤 연령에서나 학업을 재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나중에 보다 분명하게 규정된 목표를 가지고,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 더 잘 파악한 적성에 따라서, 잘 고려된 동기와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사람들이 막다른 지점을 뚫고 나가도록 해 줄 것이다.”(Henri Janne, Brussels, 1971)

- 18) “학생 모집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넓히는 것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충분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가 인구 전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교육이 불관용, 권력의 찬양, 민족우월주의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애국심, 인간의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정의 결여, 그리고 인종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 없다.”(Georges Friedmann, *La Puissance et la Sagesse*, p.435, Paris, Gallimard, 1970.)
- 19) “전통적 교육학에서 지배적이었던 것은 모범생이라는 개념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의 형태였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학이 갖는 동력은,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최대한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Bernard Courcoul, 'Nécessité d'une Pédagogie Nouvelle', *Cahiers Pédagogiques*, No. 60, 1966.4.)
- 20)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고, 개인이자 주체로서 자신의 조건을 알게 되도록 돕는만큼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획득할 것이다. (중략) 지식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하거나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를 관통해 나가는 관계를 통해서 구축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비판적인 문제 해결이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Paulo Freire)
- 21) “젊은이들에게 민주화는 확일성 및 엄격성과 동의어가 되고 말았다. 교육의 진보를 추구하려면 선택 범위를 폭넓게 제공하고, 접근 조건들을 개혁하고, 국가의 사회적·직업적 구분에 따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교육적 진보의 최소 목적 (minimum aims)이 되어야 한다.”(Thierry Lemaesquier, *Educ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Young*, p.5,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46.
- 22)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등급을 매김으로써 급이 낮아진다. 시험을 치고 자격 획득에 ‘실패’한 사람은 (중략)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들에게 불어 넣었던 기대를 완수하지 못해서 좌절하게 된다. 사회적 서열은 학교교육의 성취 수준에 따라 부여된다. 학생 간의 맹목적인 경쟁은 엘리트의 후원자로 행세하는 교육 시스템의 결과다.”(C. M. Labani, *Ends and Objectives in Education*, p.4,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7.

- 23) “널리 퍼져 있는 시험과 선발 체제는 각 수험자의 기회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원리에 기반한다고들 말한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 대해 타당한 판단을 내리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관료주의 체제에서 근본 규칙 중 하나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Robert Bazin)
- 24) “교육의 민주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 운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은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의 요구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했다. 이는 재창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교육을 재창조할 것인가? 교육 행정가와 교육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잘 안다. 교육을 민주화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나아가 모든 계층에서 논의가 분출되어야 한다. 교육 민주화가 진정한 민주적 행동으로 다시 시작되도록 하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재창조를 지원해야 한다.”(청년 포럼 참가자 발언, 제네바, 1971.9.)
- “사회의 교육 위기와 관련된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의 범위와 강도는 각국의 경제력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는 교육의 사회적 지위에서, 교육 시스템의 활동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발전 정책과 교육 재정에 관한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들의 전체 생활과 노동에서 총체적 전환을 이루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 관계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Stevan Bezdanov, *Unusual Ideas in Education*, p.2,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오래된 개념과 새로운 요구

우리는 앞에서 교육의 구조 및 개념까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은 사회적·경제적 진보의 조건에 대한 일정한 통념들 때문에 그리 분명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선진국의 우월감에서 오는 자부심, 그리고 저개발국의 선진국의 성공을 향한 선망 때문에, 선진국과 저개발국 모두 진보의 여정은 (생산력 발달과 국민소득 성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반드시 주요 선진국들이 거쳐온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저개발국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목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었으며, 보다 발전된 국가들이 예전에 밟아간 각각의 단계를, 인위적으로 가속화한 속도로 충실히 따라가면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 진보가 어디에서나 저절로 이루어진대거나, 사회 문제들은 정권 교체를 통해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의 폭과 복잡성을 과소평가했다. 즉, 소득의 차별과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과 왜곡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고, 집단이나 민족 간의 갈등 해소에 경제적·사회적 전환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숨기게 됐으며, 무엇보다도 발전의 과정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사회진보를 보다 분별 있게 보는 관점을 통해 교육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다. 교육이 그 자체로 사회악을 치료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으로써, 수천만 명의 잠재적 에너지를 실현함으로써, 대중들이 창조적 힘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기술 발전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교육은 인본주의의 본질적인 궁극적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꾸준히 진행되는 비인간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비 지출은 대개 특별 투자로 간주되며, 농업이나 공업 등과 완전히 대척점에서 경쟁하지는 않지만,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건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만 여러 발전계획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여러 투자들 사이에 엄밀한 구분을 두고 각 영역을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한, 영역 간 장벽을 부수고 다부문 접근법을 구사하여 거대한 발전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들을 결합시키고 균형을 잡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저개발국에서,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일부 산업선진국에서도 숙련 기술 인력의 부족을 겪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기술 인력에 대한 무한한 수요가 있고, 기술 훈련은 그 자체로 유용하고, 노동시장에서 잠깐씩 나타나는 잉여 인력은 산업화 과정이 이어지면서 경제 분야에 자동적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믿게 됐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은 감소되거나 아예 사라졌으며, 학위소지자 중 실업자 수는 고정되어 있거나 때로는 더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과 교육의 구조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즉각적인 노동시장 요구에 기반하지 않는 직업 훈련 체제를 고안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의 장래 직업을 생각할 때, 당장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과 특정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학생에게 최대한의 직업 이동성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에서 가장 의문시되지 않았던 도그마는 바로 학교에 관한 것으로, 교육이 곧 학교라는 등식이었다. 물론 학교가 절대적인 차원에서 그 자신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체계 안에서의 근본적인 지위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의 다른 양식들(예컨대 무형식 혹은 비형식)에 비해서, 혹은 세대 간 소통의 다른 수단들과 관련해서 볼 때 학교의 중요성은 증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됐다.

사실상 사람들이 — 장기간이든 혹은 간헐적이든 — 평생에 걸쳐 오래도록 교육을 받는 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학교가 곧 교육이라는 등식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이미지를 한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프로젝트로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사회의 프로젝트에는 학교만이 아니라 교통 및 통신 체계, 다원적인 의사소통 수단, 자유로운 시민들의 조직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동안 비판받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여러 상식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증폭되고 있다. 사람들은 교육이 국가적·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기회를 균등화한다고 말한다. 학교 생활은 연대와 협력의 태도를 길러준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지만, 현실은 일면적이지 않으며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교육에 의해 국가적 결속이 공고화 되어 온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이와 함께 학교가 주로 엘리트 계층을 강화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 농촌 인구가 아닌 도시 인구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학교가 종종 가난한 농촌 지역을 탈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육체노동에 붙여진 사회적 낙인을 떼어낼 수 있게 하거나, 심지어는 특권적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서는 데 최상의 수단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육 시스템은 너무나 흔히 사회적·경제적으로 특권을 가진 계층의 구성원들과 학문적 소질이 가장 높은 아이들을 선호했고, 그럼으로써 대다수 학생들의 미래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 게다가 연대와 협력과 같은 덕성을 가르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사람들은 교육 과정이 인생단계의 정해진 기간, 예컨대 유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기간으로만 제한돼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학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학교를 떠날 때 남은 평생 동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믿는다.

오늘날 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믿음의 첫 번째 항목, 즉 교육 기간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점점 빨라지는 변화는 그 믿음의 두 번째 항목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편협한 도그마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교육은 결코 현대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될 수 없다. 교육은 이제 청소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 시기를 포함하는 전 생애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도 반드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주제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공허한 논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은 새로운 요구 앞에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삶 자체가 그러한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 버리기 때문이다.

제2부 미래

제4장

도전

교육 시스템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압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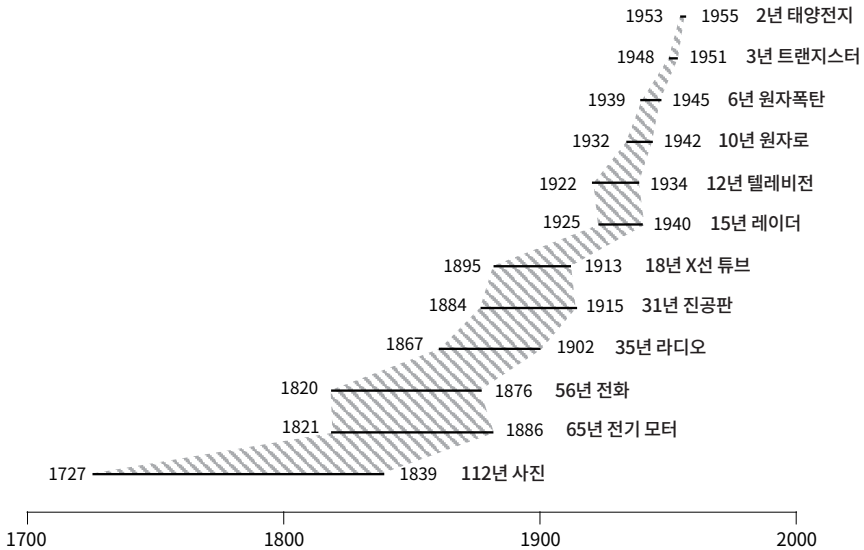
내적 압력은 교육 시스템에 내재한 역기능과 모순으로부터 나온다. 앞서 보았듯 이제 교육 시스템이 더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 미래의 교육 발전 과정에서 전략 방향을 재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 선택 방안들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상 이러한 내적 압박과 긴장만으로는 교육 구조 내의 변화를 끌어 낼 수 없다.

외적 압력은 우리 시대에 특히 더 강력하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면서, 이따금씩 진화를 야기하고 곧 반박되면서 다시 기본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재조정한다. 지금으로서는 이전과 같은 경로를 계속해서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새롭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 주저한다. 아마도 미래 행동의 방향성은 주로 이러한 외적 요인들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1. 도약

과학 기술이 힘과 잠재력을 이토록 놀랍게 보여준 적은 일찍이 없었다. ‘20세기 후반부’ 동안 지식은 엄청난 도약을 이루고 있다. 연구와 혁신은 제도화됐고, 변화는 한계를 모르고 빨라지고 있으며, 인간의 지식 자본과 과학 분야 종사자 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인류문명사 가운데 90% 이상의 과학자와 발명가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과학적 발견과

그것의 대규모 적용 사이의 간격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사진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112년이 걸렸다. 그런데 태양광 전지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산하기까지는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림 8]에서 보듯,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루어진 11가지 위대한 발견이 실제 적용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계속해서 단축돼 왔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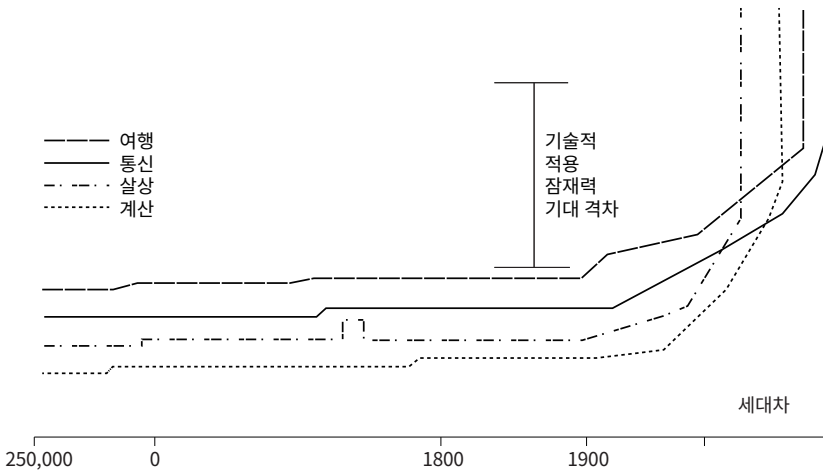


[그림 8] 물리학에서 발명과 적용 사이의 간격

* 출처: Eli Gimzberg(1964).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Columbia University Press.

또 다른 그림인 [그림 9]는 네 종류의 인간 활동, 즉 여행, 통신, 살상, 계산 등이 지난 25만 년에 걸쳐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²⁾

4천 년 동안 인간은 걷는 속도로 여행해 왔다. 그 다음에 수레가 생겼다. 19세기 말 무렵에는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시간당 1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1945년에 이르러 제트기는 그 10배 속도로 날게 됐다. 오늘날 우주 비행사들은 시속 40,000km의 속도로 우주에서 날아다닌다.



[그림 9] 오늘날의 세계: 기계의 발전

20세기가 되면서 자동차의 속도 발전과 전 세계적 이용 덕분에 인류는 거리에 상관 없이 일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19세기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대인은 유목민이 됐다. 1967년에는 1억 800만 명이 3억 6,000만 번 여행을 했고, 여기에는 자기 집에서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숙박하는 여행도 있었다. 1971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을 여행했고 150만 명의 독일인이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냈다. 1970년에 항공사들은 3억 1,000만 명의 승객을 싣고 72억km를 날아다녔다.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 노동력 이동, 비즈니스와 관광 등과 같은 대중 이동의 결과는 엄청나다. 개인의 안정감, 공동체 생활 및 기관들의 안정성, 전통적인 가치들은 모두 충격 속에 변화될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생겼다.³⁾

통신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나 북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혹은 글로 쓴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 범위의 제한 속에

서 살아왔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전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들이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현기증 나는 미래

지난 20년간 이처럼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인간의 지식과 힘이 진보했지만, 변화는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교수활동이 더 민주화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적 발전이 일어나 더욱 많은 연구자를 배출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 및 통제와 관련한 진보는 더욱 커다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양적 도약이 발명 활동뿐 아니라 생산성과 신뢰성 및 품질 면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공학의 진보는 다가오는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문자 발명에 맞먹는 혁명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업 생산의 전망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도 산업에서는 주로 천연 원자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강하고, 튼튼하고, 가벼우며, 전통적 재료들보다 더 극한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미세구조물이나 원자 및 분자로부터 ‘합성물’을 생산하는 혁명을 통해 산업은 전통적인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다양한 유기적 또는 비유기적 요소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적 발견은 무수히 많으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는다. 물리적·사회적 세계의 모든 면들이 기본적 조건에서부터 사실상 수정되거나 혁명적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혁명은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아마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오늘날의 세계를 특징짓는 인장이 될 것이며, 그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유사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유사한 습관이나 실천 방식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혁명에 따라 문화적·미적 변화들 역시 가치와 윤리 면에서나 메시지의 전달 및 인식 면에서, 그리고 미적 창조와 문화적 발전의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산업화 시대의 이중의 문화혁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한 혁명의 추동력은 이성과 상상력의 결합, 비합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결합에서 샘솟는다. 오늘날의 교육자들은 사실상 한 가지 매력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성적 훈련과 감성의 해방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획득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흥미롭고도 무시무시한 전망

과학 발전의 전망은 놀랍도록 인상적인 동시에 무시무시하다. 인류가 물질 진보의 요소들을 놀랍도록 풍성하게 누렸던 지난 25년간을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의 증대된 힘과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의 확장과 다양화가 과연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지구 개발에 대한 거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언젠가는 인간이 지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학 기술이 이롭게도, 혹은 해롭게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그럴듯하면서 진부한 의견 밑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시대의 핵심적인 윤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과학 기술의 결과는 그것이 생겨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체제에 근본적으로 달려 있다고도 말한다. 이 말은 인간이 과학을 해롭게 적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전까지는 오래도록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과학 기술의 복잡성은 인류가 겪는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한 희망으로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또한 세계적인 우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은 이 점에서 과도함을 피하기 위해 산업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는 과학의 오용에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대과학의 가치를 그들의 전통문화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과학적 사고방식

의문의 여지없이 모든 나라에서 발전은 과학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개발도상

국이 자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과학을 전통 문화와 통합하고, 또 보편적 사고를 기존의 고유한 생활 방식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미래는 불가피하게 과학적 진보 및 생산력 발달과 연관돼 있으며, 이는 — 우리가 진보란 말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낙관주의적이든 비관주의적이든, 혹은 단지 말로만 그러하든 간에 —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 진보 과정이 인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이 그 자체만의 논리에 의지하며, 따라서 그 논리가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현대인은 대단한 환멸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인간 자신이 과학적 발전의 과정을 설정하고, 연구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와 자원을 적용하고, 착수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의사결정의 연쇄적 과정을 통제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크고 작은 요소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재정립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지는 오늘날의 사고방식, 특히 정치적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여기든 간에 우리는 합리적인 교육적 선언은 다음과 같은 공리들에 기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즉, 현재와 미래의 사회는 과학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과학의 진정한 대상은 인류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능력을 가졌거나 가지게 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교육 활동 기획에서도 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돼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모든 교육 활동 안에 스며들어 각 개인이 자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에너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선택 및 행동의 주인이 돼야 한다. 결국 과학 기술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갖도록 도움으로써 사람이 과학 기술의 노예가 되는 일 없이 과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격차

1961년 UN은 제1차 10개년발전계획에 착수하면서, 소수의 부국과 인류의 2/3를 차지하는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국가들 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제2차 10개년발전계획을 시작하는데도 그러한 특권국가들과 다수 인류 사이의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 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세계의 긴장 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의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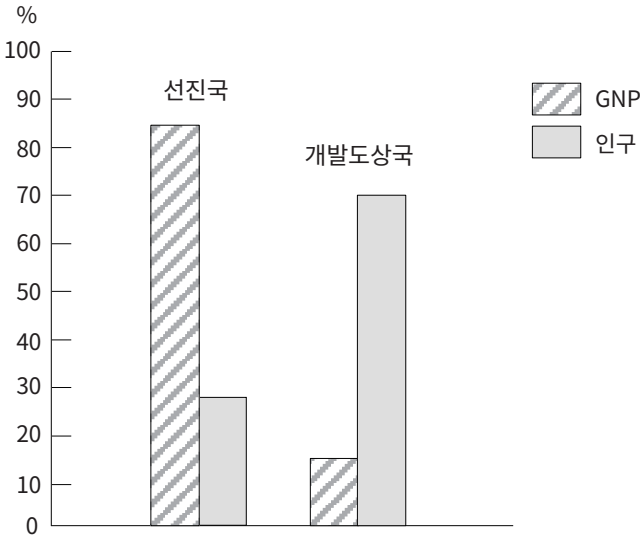
인구 증가가 격차의 한 가지 원인이다. 산업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연간 인구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이런 비율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30년 내에 세계 인구는 현재 36억 명의 두 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정도는 그들의 빠른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충분치 않다. 1960-68년 동안 이 나라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 4.9%였다. 동일한 기간 동안 선진국들의 연간 성장률은 5.2%였고 선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6.8%까지 이르렀으나, 이 나라들의 인구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낮았다. 개발도상국의 국민 일인당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2.4%였다. 그런데 이 평균 치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민(중국은 제외) 가운데 22%가 개인소득이 1% 미만으로 증가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개발도상국민의 단 30%만이 개인소득이 연간 2% 이상 증가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격차의 확대는 암울한 수준이다.([그림 10] 참조)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 무역에서도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지만 원자재의 수요는 공산품의 수요보다 덜 빠르게 증가하므로, 두 국가 집단 간의 격차는 더 커지기 쉽다.

다음 두 개의 지도([그림 11]과 [그림 12])는 매우 설득력 있게 1980년의 세계상을 두 가지 독자적인 버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는 각 나라가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인구 단위(백만 명)로 그린 것이고([그림 11]), 다른 하나

는 각 나라의 국제 수입 규모를 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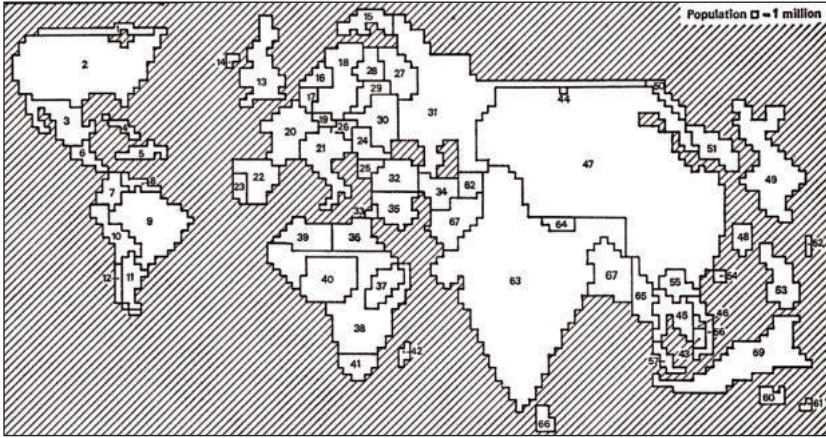


[그림 10]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 1970년 전체 대비 인구나 GN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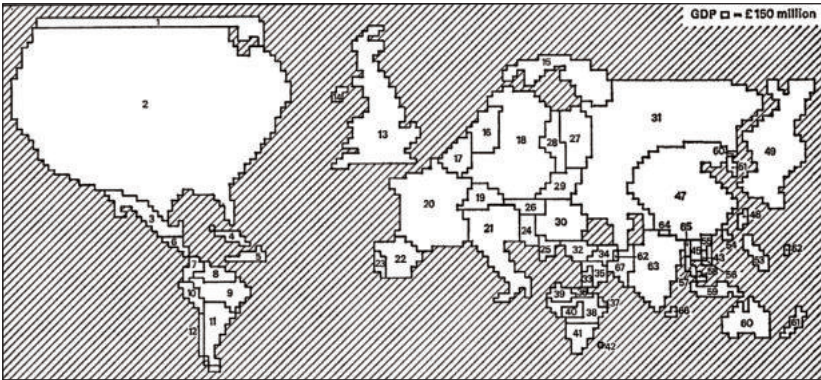
실업

이러한 상황의 특히 중대한 결과는 고용문제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2% 증가한 데 비해 산업선진국에서는 12% 증가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이 비율은 각각 26%, 1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활동인구 수 예측으로는 이 두 번째 시기 동안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략 2억 6,800만 명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선진국에서는 단 5,600만 명이 그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계에 잡힌 실업자들에 더해서 ‘잠재적’ 실업자들, 즉 노동시장 전망에 실망해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과(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잠재적 실업자인) 불완전 취업자들, 곧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면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더 길게 일할 수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더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40%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⁵⁾



[그림 11] 거주자수로 본 1980년의 세계(아래 번호 참조)(단위: 백만)



[그림 12] 국세 수입 규모로 본 1980년의 세계(아래 번호 참조)(단위: £150백만)

아프가니스탄(62)	쿠바(4)	이탈리아(21)	파키스탄(67)	남베트남(56)
아르헨티나(11)	체코슬로바키아(29)	일본(49)	필리핀(53)	북베트남(55)
호주(60)	이집트(36)	캄보디아(43)	폴란드(27)	유고슬라비아(24)
오스트리아(26)	에티오피아(37)	대한민국(51)	포르투갈(23)	중동아랍국가(35)
벨기에-룩셈부르크(17)	프랑스(20)	북한(50)	싱가포르(58)	기타 아랍국가(38)
브라질(9)	서독(18)	라오스(46)	남아프리카(41)	기타 카리브 국가(5)
버마(65)	동독(28)	마다가스카르(42)	스페인(22)	기타 중남미 국가(6)
캐나다(1)	그리스(25)	말레이시아(57)	스위스(19)	기타 동유럽 국가(30)
스리랑카(66)	홍콩(54)	멕시코(3)	태국(45)	기타 북아프리카 국가(39)
칠레(12)	인도(63)	몽골(44)	터키(32)	기타 남미 국가(10)
중국(47)	인도네시아(59)	네팔(64)	소련(31)	스칸디나비아(15)
대만(48)	이란(34)	네덜란드(16)	영국(13)	
콜롬비아(7)	아일랜드(14)	뉴질랜드(61)	미국(2)	
	이스라엘(33)	나이지리아(40)	베네수엘라(8)	

* 출처: Godfrey N. Brown(1970). *Towards a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A World Perspective* (an inaugural lecture). University of Keele. UK.

다른 곤란한 특징은 대학 졸업자 및 학위소지자의 실업 증가를 포함한 청년 실업 문제다. 청년 실업자 수는 25세 이상 성인 실업자 수의 2~3배에 달한다. 청년 실업은 비문해자나 고등교육 학위소지자보다도 오히려 초등 및 중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⁶⁾

최저 수혜 계층 사람들(The least favoured)

농촌과 도시 간 격차, 혹은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은 국세 증가에 도움이 됐지만, 국민총생산(GNP)에서 최고성장률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불균형을 낳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조시켰다. 이 과정에서 농업 노동자들은 최저생활 수준에서 살아가는 최저 수혜 계층의 일부가 됐다. 교육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긴급한 정치적·사회적·교육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개발도상국에 요구되는 정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이 나라들의 풍부한 노동력은 대단한 자원이 될 것이다.

확대되는 격차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발전 과정이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여러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데는 적어도 일반적 합의가 있다. 세계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산업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막다른 지점이자 불균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원이 고갈될 것이며, 세계의 발전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끝으로 UN의 제2차 10개년발전계획이 100% 달성된다 하더라도, 고도 산업 국가와 저산업국가들 간에는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율이 1.8~2%로(즉, 현재 비율보다 훨씬 낮게) 안정화되고 GNP 연간증가율이 5~6%에 도달함으로써 인구당 평균생산물이(현재의 2.4% 대신) 3%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인구당 생산증가율이 지난 25년 동안

기록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격차는 2000년까지 여전히 15% 이상 벌어질 것이다.

경제 확대의 요구

이런 예측에 노력의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한다.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이 성숙하는 데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이 걸렸고, 소련과 일본은 50년이 걸렸다. 하지만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경제 확장을 이룰 여유가 없다.⁷⁾ 앞서 산업화된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보다 나은 경제 발전을 보여주었고, 적어도 그 나라들이 달성한 수치로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미 산업화된 나라들은 우리 시대에 생겨난 세계적 규모의 노동 분업에서 오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업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은 지금은 당연시되는 몇 가지 역사적 법칙을 적용하며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게 됐다. 따라서 이제 발전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더는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발전 모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제 정책들을 깊이 숙고하거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의 탐색

일부 분석가들은 제2차 10개년발전계획이 보여준 전망과 방향 모두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이들의 비평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모순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3세계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발전 격차를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제3세계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에 7%, 1980년대에 8%, 그리고 1990년대에 8.5%까지 도달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1970년에 산업선진국 국민 한 사람의 소득은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 소득의 12배였는데, 위의 이론을 적용하면 2000년에는 8배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세계적 자원 분배와 개발도상국으로의 대규모 재정적·기술적 수단 이전을 통해, 즉

오늘날 적용되거나 추천되는 것과는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추구하기도 한다.⁸⁾ 또 다른 사람들은 발전 정책의 완전 교체, 노력의 조율, 현재의 접근법 전체의 급진적 분해, 혹은 ‘전 지구적 형평성의 조건’⁹⁾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전 지구적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출산율을 낮추는 방안을 취하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산업선진국에는 경제적·기술적 성장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그것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대단히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다.¹⁰⁾

단일 세계 접근법

이러한 제안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본 위원회는 그런 제안 중 어떤 것을 선호할 입장이 아니다), 이 제안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제를 표현해내는 장점이 있다고 보인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들은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결코 한쪽에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있고 다른 쪽에 산업선진국들의 원조가 있다는 식으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은 이 문제들이 세계 경제의 실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나라의 진보를 한 세트의 단일한 문제로 보고 여기에 모든 복잡성과 상호관련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격차’의 새로운 의미

하지만 제안된 여러 해결방안들은 우선 이런 해법들을 단지 양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격차’의 문제를 산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주된 참조 용어였던 국민총생산(GNP)이나 전체 성장률 등의 사용을 포기할 수 있다면 — 이것은 새로운 의미로 재정의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개발도상국이 자원을 최대한의 산출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이 악명 높은 ‘격차’는 대부분 의미를 잃고 단지 통계적인 비교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발전의 핵심적인 기준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국가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런 모델 위에서 전체 국민이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한 통찰

앞서 본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 우리가 자원과 자원의 사용 간에 불균형이 제거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교육 발전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미래사회의 도래가 지연된다면, 보다 단호한 교육 전략을 통해서 학습을 보다 폭넓게 보급할 수 있는 방식과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 나라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의 지역별 격차가 세계적 발전을 방해한다면, 이때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수혜를 덜 받은 인구 집단과 농촌 지역, 최저 수혜국들을 교육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여러 나라가 발전을 위한 합의된 공동의 정책과 철학이 필요하다면, 세계 공통의 접근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교육체계의 진화(evolution)가 필요하며 이는 거꾸로 국가 정책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으로 명백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에 대해 교육이 취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교육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위험에 처한 환경

인간은 기술 발전 덕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 생활의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술 발전은 전 세계에 걸쳐 환경 악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환경 악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7,000년간 기록된 역사를 통해 인간은 환경에 맞서고 환경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인간은 때로 환경을 황폐화시켰다. 사냥과 이동식 농업을 위해 불을 질렀고 숲을 헐벗게 했다. 건조지역에서 관개수로를 만들면서 토양 염류화가 심해졌고, 토양에서 염분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면서 경작지의 손실을 가져왔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예전에 비옥했던 땅의 상당 부분이 사막으로 변했다.

무질서한 확장

19세기 이후로 환경파괴 과정은 인구 증가 및 산업 발전에 의해 가속화됐다. 예전에는 비옥한 토양이 고갈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단지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된다. 북미와 남미에서는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집약적인 삼림 개간으로 풀과 식물들이 사라지면서 토양의 침식, 홍수, 가뭄 등이 심해지고 흙은 날려가거나 씻겨 나갔다.

UN 추산에 따르면 “5억 헥타르(12억 3,500만 에이커)의 경작 가능한 땅이 토양 침식과 염류화로 이미 사라졌고, 세계 삼림의 2/3가 생산을 위해 사라졌으며, 150종의 새와 동물들이 인간으로 인해 멸종됐다. 약 1,000종의 야생동물이 희귀종이 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했다. 토양 침식, 토질 악화, 삼림파괴, 하천 유역 손실,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 등이 지속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증하고 있다.”¹¹⁾

도시의 성장은 이러한 환경파괴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에서는 1분당 약 2만m²(2 헥타르)의 땅이 고속도로, 도시 확장, 공항, 주차장 등 ‘현대적 필요’

때문에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 인구의 40%가 도시 지역에서 산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 초반까지 전체 인구의 3/4 정도가 도시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이로써 현재의 도시 한계를 넘게 되는 도시들이 서로 합병하면서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거대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역자 주: 여러 대도시가 연결된 도시 지역)’를 형성할 것이다.

생태계의 불균형

19세기까지 작은 도시들은 시골이나 바다와 직접 혹은 꽤 가까이 닿아 있어서 사람들이 육체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산업화가 도래하며 순전히 경제적·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시작된 도시의 발전은, 인간이 환경의 주인이며 인간의 자연적·생물학적 한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무질서한 확장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대기, 토양, 호수 및 해양의 오염과 신체적·심리적 장애들이 생겼으며, 고요함은 옛일이 되고 폭력이 일상의 위협이 됐다. 소음 공해는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집에서나 도시민을 괴롭혀 정신집중을 방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피로감을 야기하며¹²⁾, 난청과 같은 직업병과 산업 재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 인구가 더욱 과밀해지고 익명화됨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런 산업사회의 경험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간 ‘발전’을 가속화한다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침해하는 이질적인 기술 세계의 요소들을 허용해(혹은 요청해)왔다. 기술적 요소들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문화적·생태적으로 불균형해지는 위협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졌고,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이 열악한 상황으로 끌려 들어갔다. 소도시와 대도시들이 오염됐고, 특히 중요한 농촌지역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황폐화가 일어나 수백 년 동안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조화로운 자연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이는 단지 인간을 둘러싼 환경만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 자신의

운명을 위협할 것이며, 이미 인간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불안정과 신경 질환, 반사회적 행동, 비행과 범죄 등이 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총체적 손실 효과를 낳고 있다. 기술로 인해 인간과 환경 사이, 자연과 사회 구조 사이, 인간의 생리적 구성과 인격 사이의 관계 균형이 깨질 위험에 직면한 상태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교육은 이러한 다층적 위험에 맞서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그러한 괴리를 막기 위해, 그리고 기술 문명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교육에 새롭게 요청되는 과제다. 그러나 이런 역할은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종종 과소평가돼 왔다.

4. 위협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변화를 지향해 가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 인본주의적 발전, 그리고 변화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는 목가적이지 않다. 우선, 민주주의는 술한 장애물과 유혹을 헤치고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기술적 진보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품,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풍요 등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이런 진보는 또 다른 불평등, 소외 그리고 새로운 독재의 원천이기도 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는 정부와 민간 집단 모두에게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그들이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광범위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한편, 두뇌와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식들은 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이해에 빛을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흐리게 만들곤 한다. 대부분의 헌법에서 열성을 다해, 혹은 거창한 의례적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부여한 정치 권력의 고삐는 점점 더 국민들의 손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앞에 놓인 장애물이 적지 않다.

민주주의의 행운과 불운

교육이나 정보의 확장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실천의 근본적 측면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국민들은 공적인 생활에서 더 큰 발언권을 주장하게 됐다.

이는 민주주의 교육이 반드시 실제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을 준비시키는 것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교육은 더는 정치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굳건한 기반과 예리한 판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심사와 노력의 모든 면, 즉 정치적·공적 사안들, 노동조합 활동, 사회·문화적 생활 등 전 영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보존하고 진정성 있는 개인적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정치선동의 남용, 매스컴의 전방위적인 메시지와 유혹, 그리고 소외의 위험과 매스컴이 가져올 수 있는 ‘반교육(anti-education)’에 저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격변하는 사생활

심대한 변화는 공적 생활에서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가활동 자체가 복합적인 현상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¹³⁾ 의심과 회의주의, 오랜 시간 존중 받았던 가치의 붕괴, 핵의 대재앙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우주적 혼란, 지진, 문명의

퇴화와 같은 위협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 흔히들 과학과 기술, 산업과 조직체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방해한다고 말한다. 가족과 공동체 생활에서 나오는 정서적 만족과 안정감은 그 중요성을 잃고, 공장이나 행정기구 혹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인격적 인간관계로 대체되고 있다. 도시 군중 속에서나 이주 노동자 무리 속에서 익명화되는 개인들은 점점 더 외롭고 무력하고 '획일화'됨을 느끼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좌절감도 커지고 있다.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서 소비를 조장하는 경향도 있다. 소비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던 것에 더해, 새로운 소외를 느끼게 한다.

우리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몇몇 나라에서 청년들은 소비사회의 가치 왜곡과 환경 파괴, 불의, 전쟁, 그리고 — 분명히 드러나든 아니든 — 자유와 개인의 완성에 대한 침해에 맞서고 있다. 이런 저항을 전통적인 세대 간 갈등의 표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대 차이' 갈등은 사라져 가고 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간은 이전보다 젊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다.)

청년들의 주장과 저항의 원인 및 형태들은 해당 국가와 그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청년 저항운동은 제도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또 일부는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구질서'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저항운동도 있다. 이는 특히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편에서는 원자폭탄을 쌓아둔 채 정의롭지 못하고 파괴적인 전쟁을 지속하는 체제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많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성인기를 위해 기존 사회가 제공해온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들은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하며, 그 세상에서는 물질적 이익에 대한 경주 대신 영적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길 바란다.¹⁴⁾

이와 동시에 일부 보수주의적 흐름은 기술 발전의 시대 현상에 저항하면서, 기술의 시대가 진화의 속도를 강요하고 갑작스런 격변을 만든다며 고발하고 있다. 이들의 기성체제와 전통, 관습, 위계질서, 지위에 대한 집착, 그리고

권력 및 사회적 지위 양도에 대한 주저 등이 전부 우리 시대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협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충돌이 첨예해지면서 보수주의적 반동도 격화될 것이다. 우리 세계의 근본적 모순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미래의 교육적 행동에 필요한 길을 판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 교육은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지만 그것들의 수동적 놀잇감은 아니다. 교육은 미래를 형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며, 지금 시점에서 특히 더 그렇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시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변화에 인류가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가 있다. 변화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변화의 맥락에서 교육도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첫째로 변화에 대비해 교육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여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지를 보여주고, 역동적이고 순응하지 않고 보수적이지 않은 사고의 틀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은 사람과 사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왜곡에 대한 해독제 역할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교육은 좌절에 대한, 그리고 현대사회의 비인간화와 익명성에 대한 치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직업 이동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행동의 이러한 측면들은 너무도 자주 무시돼 왔다. 물론 교육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거나, 교육에만 의지해서 우리 시대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의 기능과 의무, 궁극적 목적을 재검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노력은 인간의 시대, 그리고 험준한 드라마라는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증진될 것이다.

주석

- 1) John McHale, *The Future of the Future*, p.60, New York, Braziller, 1969.
- 2) 전(前) 영국 기술부장관 앤서니 웨지우드 벤(Anthony Wedgwood Benn)이 작성한 도표. 이를 1971년 4월 25일 런던대학교 강의에서 사용했다.
- 3) 현대 인간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Alvin Toffler, *Future Shock*, New York, Random House, 1970.
- 4) Lester B. Pearson, *Partners in Development*, New York, Praeger, 1969.
- 5) ILO, *World Employment Programme*, p.42, Geneva, 1969; *Towards Full Employment: A Programme for Colombia*, p.13-28, Geneva, 1970; D. Turnham, *The Employment Problem in Less Developed Countries*, p.41-72, Paris, OECD, 1971.
- 6) Turnham, op. cit., p.48-52.
- 7) 이 주제에 관한 어느 저명한 경제학자의 예리한 견해는 흥미롭다. “오늘날 선진적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왜 남미 여러 나라들은 같은 리듬을 타면 안 되는가? 시간이 그들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을가? (중략) 경제에 요구되는 역동성이 없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바로잡을 수 없다.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그 취약성은 더 고치기 힘들어지고 사회적·정치적 대가,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Raúl Prebisch, *Change and Development*, report presented to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antiago de Chile, 1970.4.17.).
- 8) 이 해결방안을 선호하는 저자의 한 사람인 앙겔로스 앙겔로폴로스(Angelos Angelopoulos)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GNP가 연간 5% 증가한다고 할 때, GNP의 0.5%로 이미 상정된 재정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한 비율의 반에도 못 미치며, 이 기여분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조건 하에서다. 이는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정책과 부합한다. 이 정책은 선진국들이 자국 내 소외 계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국가 소득의 재분배 시스템을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Le Tiers-Monde Face aux Pays Riches*, p.143,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2).
- 9) 교육자, 과학자,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로마 클럽(Rome Club) 실행위원회는 메도우즈 보고서(Meadows Report)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세계적 균형은

다수의 소위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때, 즉 절대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한 상대적 의미로도 향상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향상은 오직 전 지구적 전략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세계적인 노력 없이는 오늘날 이미 폭발적으로 벌어진 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중략) 그들(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의 목표는 그들의 물질 생산 증가 속도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을 더 신속히 이루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The Limits to Growth*, p.191, 195,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ion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N.Y., Potomac Associates, 1972).

- 10) 예를 들어 폴 베어록(Paul Bairoch)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5-10년 내에 선진국들의 1인당 연평균 성장률을 0.5-1%까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선진국의 총생산 가운데 2-3%를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 추가 자원을 사용해 1인당 연평균 성장률 4-5%에 도달할 것이며, 이로써 2050년까지 양 국가 그룹의 경제 발전 수준이 엇비슷해질 것이다.”(*Le Tiers-Monde dans l’Impasse*, p.344, Paris, Gallimard, 1971.)
- 11) U Thant, ‘Man the Killer of Nature’, *Unesco Courier*, p.48, 1970.8-9.
또한 다음을 참조할 것. *Use and Conservation of the Biosphere*, Paris, UNESCO, 1970.
- 12) 콘스탄틴 스트라멘토프(Constantin Stramentov)(‘The Architects of Silence’, *Unesco Courier*, p.10, 1967.7)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소음 수준이 75에서 95 데시벨로 올라가면 즉시 생산성이 25% 떨어졌고 우편물 분류 작업의 실수가 4배 증가했다. 그러나 직원들 주위에 방음 스크린을 설치해 소음 수준을 10 데시벨, 15 데시벨로 떨어뜨리자 생산성은 각각 5%, 18% 증가했다.
- 13) “개인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질 권리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역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여가다. (중략) 사실상 여가생활은 일, 정치, 신앙, 가족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가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위한 시금석이 됐다.”(Joffre Dumazedier, *Pour une Réévaluation Radicale de la Politique Culturelle de Peuple et Culture*, 1971-1975, Paris, Peuple et Culture, 1972.)
- 14) “젊은이들 사이에서 끓고 있는 불만은 단순한 정치 운동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현상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차원을 넘어서 양심의 차원에 이르고 있고, 자신과 타인과 환경에 대한 가장 심오한 관념을 바꾸고자 하기 때문이다.”(T. Roszak, *The Making of a Counter-Culture*, New York, Doubleday, 1970.)

제5장

발전

교육 실천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 혁신이 필요해진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혁명²⁾으로 인해 교육 혁신은 이제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과학 연구 및 기술 진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증대와 더불어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 세계의 안팎에는 교육체계의 기본적인 조건과 조직체제를 심층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 혁신의 수단이 쌓여있다. 즉, 뇌에 관한 최근의 눈부신 연구, 정보 이론 발달, 언어 및 심리기술적 연구기관들의 체계적인 활동, 집단 심리학과 문화 인류학 팀들이 획득한 결과, 시스템 분석가와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이 개발한 모델 등을 적절한 행정적 뒷받침과 정보 전달체계를 통해 작동시킨다면 기존의 전통적 학교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자체의 영역 내에서도 새로운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다. 엄격한 조직체가 보다 유연해지고, 교육기관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환경과 연계되고 있으며, 교육 내부의 역할과 기능이 재분배되고, 권위주의적 패턴이 보다 ‘참여’ 지향적 구조로 바뀌고, 총체적 교육 환경이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밖에 개별화된 교수법과 모듈화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다.³⁾ 물론 아직 부분적인 혁신이거나 주로 실험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상황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어쩌면 이런 혁신이 교육 시스템에 대규모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적어도 폭넓게 따라 할 수 있는 시범적 모델로 활용되어 교육적 요구와 개인 및 공동체의 열망에 두루두루 적절히 쓰이게 될 것이다.

과학 기술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교육 사업이 과거의 전통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교육 전략 및 정책의 개발이나 전문 인력의 훈련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제부터는 교육 실천을 맡고 있거나 교육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학과 기술에서 발견되거나 제시되는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교육이 그 가용자원을 초과하는 수요를 감당해야만 하는 이 시대에, 교육은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도구와 권한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 및 전략 방안을 작성하고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같은 과학 기술적 특징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1. 새로운 연구 결과

두뇌 연구

최근 몇 년간 뇌와 생화학 분야에서 우리가 도달한 획기적인 지식은 인간 행동, 정신 작용의 메커니즘과 학습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인간의 뇌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데, 일부 권위자들은 — 다소 독단적이긴 하지만 —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90%라고 평가한다.

두뇌신경생리학은 이미 정신 집종의 메커니즘, 기억의 생화학 작용, 피로 현상과 최적의 학습 연령 등을 밝힘으로써 훈련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전기 작용을 통해 뇌의 조건과 기능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생화학 물질을 사용해 특정 신경 메커니즘에 직접 작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⁴⁾

현재 수행 중인 실험 연구에는 뇌에 선형적 형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분자’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 과정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정한 형태의 화학 물질을 보충함으로써 결함이 있고 노화되는 심리적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직 정상적인 지적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적 견해로는 화학 물질적 개입은 인지적 수준보다 정서적 수준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연구들은 특정 형태의 약물 처방으로 교육적 행동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단지 교육을 지원하는 생화학적 보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유아기의 영양실조

뇌세포에서 엔트로피(entropy, *역자 주: 열역학에서 부분적으로 뭉쳐있는 에너지가 전체에 걸쳐 평평하게 흩어져가는 과정, 무질서도를 말함)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실험, 그리고 기억 기능과 관련된 단백질을 항구적으로 안정화하도록 하는 실험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 실험들은 특히 출생 직후의 영양 부족이 유아의 양적이고 질적인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그간 응용 분야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발전을 지지해 주고 있다. 두뇌 발달은 불가역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결핍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영양 부족은 신생아의 신경계를 취약하게 할 수 있고, 그 후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기에 젖을 떼면 신경세포에서 신경섬유피막(myeline) 형성 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뇌의 물리적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후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영양 부족이 일어나면 뇌세포 수가 감소할 수 있는데, 뇌는 사실상 생후 2년 말에는 성장이 끝난다. 중앙 아프리카와 중미의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는⁵⁾ 생애 첫 4년 동안 영양실조가 있었던 아동이 학령기에 도달했을 때 열악한 지적 수행력을 갖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령전 기간 동안(특히 4세에 이를 때까지) 각 사회는 유아들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영양실조⁶⁾ 문제는 윤리적 논쟁에 사회·경제적 측면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

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속한 사회집단의 자원 부족에 기인한다. 만약 아동의 환경에 또 다른 결핍이 있다면, 학령기 때 또 다른 취약성을 가질 위험, 예컨대 심리적 조건, 가족 상황, 학교 결석 문제 등에 노출되게 된다. 여기에는 단지 영양부족과 사회-경제적 결핍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안정된 물질적 여건에서 살아가는 아이라도 잘못된 유형의 교육을 받거나 혹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두뇌 발달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의 결여’가 두뇌피질의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런 논의를 확장해가면 결국 — 아직까지는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 부주의와 관심 부족으로 인간 뇌에 손상을 초래하는 일은 실질적인 사회적 범죄일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현재의 두뇌생화학 분야의 연구 결과, 특히 두뇌에 약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뇌에 보다 바람직한 조건들과 새로운 교육적 행동, 그리고 환경의 영향들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심리학의 공헌

현재의 심리학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의 문제에 관해 철저히 탐구하면서, 지식을 근본적이고 불변하는 저장의 형태가 아니라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했다. 학습과 기억에 관한 심리학의 실험실 연구와 임상적 연구 및 인식론적 탐구, 형태심리학의 연구 등은 모두 충분한 양의 자료들을 구축했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학교의 조직과 방법을 혁신해 학교 체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심리학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

기계론적 환원주의자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정신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심리학을 구축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들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예측’이다. 이들의 실험 연구는 의지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자극 혹은 투입과 이에 대한 반응 혹은 산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에 주목한다. 행동주의 가운데 ‘블랙박스’ 이론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내적 연관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⁷⁾ 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이 분야 심리학자들은 이론적 탐색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정된 기계 장치를 주로 활용한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를 위해 어떤 형태의 처벌도 배제하고 오직 긍정적 강화만을 사용하며, 기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선택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때 선택이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모종의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화된 교수 체계 혹은 선형 학습이나 지시적 훈련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학습을 이해와 발견으로 이해하려는 접근과는 다르다.

발생적 인식론

발생적 인식론에서는 이해력 자체가 발명에 수반되는 것이며, 발명은 이미 있는 실재를 단지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구조를 형성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성이란 내면화되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실행하고 조율하는 구성적 과정이다.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이러한 행동은 논리적·수학적 작업이며 판단력과 이성을 작동시킨다. 지식은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즉, 지식은 단순히 연관된 반응이나 갑작스런 직관의 형태이기보다는 행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율 속에서 현실에 대한 동조화를 통해 생겨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의 교육학은 행동과 사고를 통해 현실을 직조하도록 격려하는 일이며, 결코 현실을 단순히 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⁸⁾

인지 과정의 형성

소련 과학자 비고츠키(L.S. Vygotsky)의 이름과 연관된 심리교육학 이론에 따르면 도구를 사용하는 활동으로서의 일(work)이 개인에게 모종의 행동을 촉발하고, 그 행동의 형태는 활동의 본질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사용된 상징, 단어, 숫자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인간의 발달은 학습

과정에서 상징 체계에 동화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상징 체계가 아동의 생활에서 조직 체계의 중심 요소가 되고 아동의 심리 발달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유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서 소련 심리학자들은 인지 기능과 인격에 대한 적극적 훈련 전략을 만들어 왔다. 이들이 보기에 사고 기능이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며, 사고하는 법과 반성을 숙달하는 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확장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정신 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정신 활동이 전개되는 방식도 지도해야 한다. 이 심리교육학적 체계의 후속 응용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동화시키는 연령의 한계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생의 적응력은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심리교육학 체계에 의해 초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크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알고리즘

이 수학적 논리 학파는 행동주의를 거부하는 한편, 개인이 획득하게 되는 안정적인 인식체계(schemes)와 규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자 했다. 이 학파는 ‘블랙박스’ 원리를 ‘투명박스’ 원리로 바꾸면서, 행동집합의 프로그램화된 체계를 통해 인지 활동 훈련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심리학자들은 학습 활동을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algorithm)은 주어진 문제의 층위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작동적이고 서술적인 해결모형이 실험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실험적 모델은 의사결정에 대한 방정식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초적 지적 작동(operations)들로 구성된다. 목적은 해결방안 자체가 아니라 절차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절차는 수학적 논리의 지시를 따르는 정신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운동적-구조적’ 방법을 따르게 된다.

구조주의

구조주의적 접근은 주로 형태심리학에 집중하면서 지각(perception), 지적

충동 및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 모두에서 연합(association)보다는 동화(assimilation)가 우선한다는 연구를 선보였다. 형태심리학, 혹은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지 구조 및 행동의 인식체계 안에서 기본적인 단일성을 정의하고자 하며, 행동 인식체계의 구성요소들은 보완적으로 총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구조주의 심리학은 개인이 수단과 목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한다. 학습 과정에 참여한 개인은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지, 혹은 보다 느리게 진행할지 선택할 것이다. 개인은 심지어 목표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도피적 행동 형태를 취해 현재 다루는 과제에 대한 적응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형태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에 기반한 직관적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현대적인 버전은 시청각 교육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정신 작용이 미리 설정되고 결과도 미리 공식화된다. 구조주의자들은 ‘영역(fields)’을 조직화된 전체로 정의하는데, 영역들은 정신 생활의 기하학적, 대수학적, 역동적 모델에 따라 조직된다고 본다. 이들은 정신 생활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종속, 맞물림, 상응과 같은 특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심리학자들은 인식의 기제, 그리고 의식의 내용 및 신경 구조와, 논리적·원인적 형태 사이에 합리적 상관관계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이들은 행동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다소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독자적이든 연결된 것이든, 그 안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이 취하는 경로를 연구하고자 한다.

심리학 연구의 교육학적 적용

실험심리학은 연구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그 결과가 너무 늦게 학교의 일상적 실천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을 광범위하게 공표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울러 교사들 중에 회의감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 교사들은 실천가로서 주로 경험에 따라 활동하며, 그런 성격이나 기능 때문에라도 모종의 구조 및 절차를 수정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현장에 핵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청각적 자료와 녹음 기술 덕분에 기존에는 말로만 진행하던 강의가 현대화되었고, 발생적 인식론

으로 인해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교수 체제가 나타났으며, 행동주의 연구 실험들은 학습방법을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새로운 통신기술은 개방통신교육이나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새로운 패턴의 수업을 낳았고, 응용과학과 차별 심리학의 결합은 개별화된 교수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산발적인 적용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우리가 기존 교육 시스템의 향상만을 고집하든지 새로운 학습 전략의 발전을 마음에 두든지 간에, 과학 기술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현행 교육 시스템의 방향성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 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조직된 다학문 간 접촉이 있을 때
2. 교육개발 기관들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실험실이나 시범 프로젝트 단계에서 대규모 활용으로 이동시켜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전략과 실행 차원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3. 관련 정보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활동가들에게, 무엇보다도 교육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교육기관들을 통해 보급할 때

일반 및 응용 언어학

원래는 그 자체로 도구이자 기능인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분과였던 언어학은 지난 15년간 정신분석학, 인류학, 사회학 등 방대한 지식 분야를 넘나들었다. 교육학 자체도 언어학의 몇 가지 성과를 일상의 교육 실천과 활동에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동에게 모국어 가르치기(‘문장요소들’의 결합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어 및 시청각적 방법(통합 구조 접근법)을 통한 외국어 교수법, 복수언어 발달 등이 있다.

언어학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교육에 신선한 빛을 던져주었다. 언어는 결코 여타 다른 과목들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어의 창조적 성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⁹⁾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된 문장을 비록 그 수가 무한한데도 불구

하고 잘 이해하게 되는 언어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초등교육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¹⁰⁾ 이러한 접근법의 일부로서 ‘변형기능적’ 문법을 사이버네틱스와 결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특히 영역 변화에 따라 그룹별로 나뉜 알고리즘들을 자동 결합하는 연구도 있다. 심리언어학자들이 현재 애쓰고 있는 분야는 아동들이 어떻게 논리적 정신 작용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일, 말하거나 듣는 사람들 안에 내면화된 문법을 파악하는 일,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일, 그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학적 구조를 개발하고 일상 언어활동에서 무의식 속에 잠재된 비합리적 요소들이 표현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 등이다.

학파 간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정신 활동 가운데 언어와 언어 훈련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해 온 언어학이라는 분과학문의 방향은 미래 교육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인류학의 공헌

인류학이 언어학과 긴밀한 연계를 갖는 이유는 언어가 주요한 매개가 되는, ‘자연’으로부터 ‘문화’로의 이전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은 인류학의 현실에 대한 질적이고 직접적인 접근법을 통해, 시각적·물리적 방식의 현상 기술을 통해, 그리고 개인 및 공동체 간의 서로 다른 담론의 비교를 통해 교육학적 탐구에 공헌해 왔다.

지식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반인류학은 다학문적 교육적 방법의 개념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점을 제공한다.(하지만 이들의 결론은 몇몇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류학 자료를 기반으로 학교 프로그램의 재평가, 소수 집단이나 서로 이질적인 계층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와 국제적 인식의 발전을 위해 기획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교과목 체제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 등이 마련됐다.

또한 문화인류학¹¹⁾은 교육이 전수하는 것을 기록하고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기능에 빛을 비추 주었다. 문화인류학은 전수의 방식과 수단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문화인류학은

교육의 정서적이고 비인지적인 측면을 비취준다. 이런 측면에는 학교 의례, 놀이,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의 유순함과 수동성의 문제, 의도된 교수 내용에서 무의식적으로 전수되는 중요한 메시지, 혁신의 전파 등이 있다.

정치인류학은 원시사회에서의 권력과 갈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경제 인류학은 원시 경제나 농촌 경제에서 생산과 교역의 수단, 그리고 경제와 자연 생태계의 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학교의 역할 발전을 성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인류학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 전수와 발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인류학은 국가나 공동체 사회가 전수해야 할 교육적 내용 및 교과목 문제를 정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¹²⁾

전체적으로 인류학은 교육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그 행동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유용한 공헌을 할 것이다.

정보 이론

정보 이론을 통해 교육자들은 소통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 이론이 잘 적용되는 부분은 연속적인 교수 방안의 구축과 교사-학생 간의 일상적인 소통, 더욱 일반적으로는 — 그에 사용되는 전달 수단이 무엇이든 — 교육적 메시지와 개요의 구성이다. (전달 수단에는 교사 지침, 교육방송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시청각 자료, 교수 기기, 다양한 방식의 언어 교수, 수학적 담론의 조직 등이 있다.) 최근의 실험 연구 결과 가운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으로는 주어진 정보량에 대한 ‘적정한’ 중복 수준의 정의, 정보가 제시되는 속도, 데이터 처리와 기억 처리 간의 긴밀한 관련성 등이 있다.

정보 이론의 교육학적 연구 적용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정보 전달에 걸리는 시간이나 메시지 전달 수단의 경제성이 아니라 그것의 효능, 말하자면 이해도임을 알 수 있다.

기호학

비언어적·시각적 소통의 연구들은 다양한 매체의 조합에서 오는 상호관련성을 보여준다. 기호학은 소통에서의 기호 사용을 연구한다. 교통 신호, 지도 제작, 약식 해부도, 분해조립도, 도형, 배선도, 행정 및 경영 조직도, 그래프, 연재 만화, 시각적 홍보물 등은 ‘언어적’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며, 마치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꿀벌들과 같다. 이 분야에서 그러한 기호 세트를 구축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기술적인(technological) 내용과 더불어 교육 과정에의 실천적인 적용성 때문에 교수활동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이버네틱스

정보 이론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관련된다. 사이버네틱스는 점차 유기체의 과학, 수학과 대조되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 되고 있다. 총체적 자기-적응(self-adapting totality) 모델을 정의하고자 하면서, 사이버네틱스는 학습 조건의 조직에서 생기는 복잡한 기호논리학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다.(미국, 그리고 특히 소련에서 더 많이 운영하는) 사이버네틱스 교수법과 관련한 개별적·미시적 시스템으로는 학습자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맞춤형 학습기계가, 거시적 시스템으로는 무한히 다양한 학생별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에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서로 다른 학습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 다양한 범주의 프로그램 모듈을 제공한다.

생물학자, 신경심리학자, 언어학자, 인류학자, 사이버네틱스 학자의 연구는 귀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 큰 희망을 걸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실,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 모임에서 교육 시스템의 혁신에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을 제안하는 바다. 교육에 배정된 재정 자원의 더 많은 부분을 과학 연구와 다수의 학문분과에 배정함으로써 교육학 및 교수 혁신의 경로를 더욱 크고 대담하게 열어가야

한다. 산업선진국들이 제3세계의 과학자와 교육전문가들을 이러한 연구에 참여시켜 그들이 본국에서도 본래의 연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획득하도록 한다면, 결국 선진국에도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2. 과학 기술의 새로운 발전

교육학, 고대의 기술(art)이자 새로운 과학

우리 시대는 모든 과학 분야가 그러하듯 교수법에서도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교수법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관련된 모든 학문 체제의 발달은 교육학의 과학적 측면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한때 가르치는 일은 일종의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과학이 되었다. 즉, 확고한 기초 위에 구축되고 심리학, 인류학, 사이버네틱스, 언어학 및 기타 학문들과 연계된 과학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교수법은 많은 경우에 여전히 과학이기보다는 기술이다.

교육 과학의 개념과 적용 분야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과거 교육학(pedagogy)은 어원이 함축하는 것처럼 젊은이를 가르치는 일에 한정됐지만 이제 이러한 생각은 낡은 것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교육학은 모든 공식화된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보조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육에, 따라서 교육학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보다 무한하고 거대하며 복잡적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된다.¹³⁾ 아주 최근까지도 교육(education)은 지시(instruction)와 혼동되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초기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교육학적 행동의 전망은 급격히 변화해, 평생교육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초기교육의 아이디어로부터 계속교육의 아이디어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현대교육학의 대표적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전통적인 학교 형태가 초기교육 중심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속교육은 복잡한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란 ‘반응-지각’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이 평가되고 수정되는 학습자, 기능적으로 교육자인 교사, 학생들에게 제시되거나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지식 자료, 특히 학습자가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환경, 수정된 행동을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달리 말해 반응과 반응이 자극하는 새로운 행동에 대한 기록 방안 등이 그 요소들이다.¹⁴⁾

교육심리학적 과정

전통적 교육학은 학생의 나이나 지적 수준에 따른 교육 방법과 내용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 전통적 교육학에서는 흔히 아동을 단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른인 듯 대해 왔다. 또한 사춘기를 특별한 심리적 단계로서 구별하는 데도 실패했다.

오늘날의 교육학, 특히 발생학적 심리학에서는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 간의 특징을 구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정신 발달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2세까지는 인과관계가 감각-운동 탐색을 통해 확립된다. 2세부터 7세 사이에는 상징적 기능이 놀이, 그림, 언어 등을 통해 발달하며, 행동의 내면화와 ‘탈중심화’(*역자 주: 아동이 가상 놀이에 사물을 끌어들이고 사물이 중심이 되는 가장 행동을 하는 것)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시기인 7세나 8세에는 쌍방향 역산 조작(reversive operation)을 통달하는 발전을 이룬다. 11세가 되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정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추론을 통달하는 것이 특징이다.(명제 조작: 의미함축, 추론, 불일치 판별) 14세나 15세가 되면 진정한 실험 정신이 발달된다.(요인들을 분류하고, 요소들을 구별하거나 체계적 결합 속에 요소들을 배치한다) 끝으로 15세와 20세 사이에 전문성 분화가 시작되어 개인별 적성을 반영

하는 평생 프로그램의 구축이 가능하다.¹⁵⁾

하지만 일부 교육심리학 전문가들은 (주로 소련 학자들인데) 정신 발달을 교육과 동떨어진 자발적 성장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령대별 발달 구분을 비판하고 있다.

유아기 심리학

20세기 전반기 동안 심리학과 심리분석학은 조화로운 감정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교육가들은 이를 거의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달리 지적 발달과 인지 개념의 초기 학습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데, 이런 현상은 인간에 대한 견고한 견해들이 의문에 부딪힐 때 흔히 나타난다.

현재의 지식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 발달 지수(지능지수인 IQ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대략 3세까지는 모든 아동이 같다.
- 0세부터 4세의 유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5세부터 6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데, 그렇다고 이것이 5세부터 6세에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때의 변화는 아주 어린 유아기 때 이미 뿌리 내린 것으로서 이 나이가 되어 일종의 지연 행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시기나 청소년기에는 정말로 다른 새로운 영향들로 인해 행동 수정이 일어나며, 사실상 죽을 때까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생후 첫 1년간 측정된 IQ와 1세, 3세, 6세, 12세의 IQ 사이에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IQ는 정서적 환경과 관련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아동에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¹⁶⁾

지난 10년간 교육학 연구, 특히 수학과 언어학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개념화 능력을 그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갖출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취약성과 가족의 기본적인 태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아동의 학교생활의 실패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모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 행동이란 부모가 처한 사회적 환경보다는 엄격함, 관용성, 권위, 이해심, 대화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었다.

전통적인 교육자들(이들은 생물학적 성숙의 법칙에 기반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따라서 아동들이 '자연적인 궤적'을 따라 발전하도록 권유했다)은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발전이 4세 이전에 습득한 것에 크게 의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위의 두 집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탄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서 최종적 결론이란 거의 없음을 강조한다.

성인기의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사춘기 이후 시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성인학습의 가능성은 평생교육이란 개념의 실천적 적용에 있어 핵심적 문제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교육이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에 집중되어야 하며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큼은 교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정조차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이 이런 생각들을 바꾸고 있다. 하나는 교육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펼쳐져야 한다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순환교육이라는 개념, 즉 교육이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¹⁷⁾

집단 교수법과 개별화

현대 교육학은 개인과 개인의 역량, 정신 구조, 관심사, 동기 및 욕구 등을 중시하며, 학습자가 집단에 속할 때도 마찬가지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 교사와 강사가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이

그들만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오히려 학생 자신, 즉 교육 받는 개인이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심리학의 ‘개입(intervention)’이나 인간관계의 심리학이 함의하는 기본 전제들, 즉 집단이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합을 넘어서며, 동시에 개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집단 기법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전통적 형태의 학교의 권위주의적 제약을 완화시키고, 학생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각각 권위주의, 민주주의, 자유 방임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학습하는 아동 집단을 비교 연구한 결과, 허용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환경으로부터 발전을 위한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¹⁹⁾ 또한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그러한 환경이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하는 동안 생기는 자기 감정의 내적 현상들과 공감, 반감 등을 의식하고, 그로부터 오는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집단 기법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상호 간, 다자 간 소통을 발전시키며, 피드백을 제도화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나눔의 적성을 갖도록 자극할 수 있다. 접촉도 더욱 자연스럽고 쉬워지며 자제력을 높이면서 공격성과 서먹함도 줄어든다. 개인의 판단은 명확해지고 비판 정신이 발달한다. 이런 환경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예전에는 집단 리더에게만 부여되었던 여러 기능들(관찰, 분석, 진단, 평가)을 서로 나눠 맡는 경향이 생긴다.

제도적 교육학

다른 흥미로운 실험으로는 소위 제도적 교육학이 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제도의 사회학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연구들은 관료주의²⁰⁾와 학생, 교사, 행정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외에 관련되어 있다. 제도적 교육학의 목적은 학교에서 ‘제도화된(instituted) 결합’ 방식을 ‘제도화하는(instituting) 결합’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달리 말해 외부로부터의 개입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기반해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교사의 개입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중재자·제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수행의 의무와 학교 집단 내부 및 외부와의 상호성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생각은 성인 훈련에서 훨씬 더 중요하며, 특히 교사양성대학, 재훈련센터, 합숙 세미나 및 장기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 성인은 전통적인 학교와는 다른 방식의 교사-학습자 관계를 필요로 한다. 성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동기 및 각각이 학습 과정에 가져오는 체계적이고 문화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심리학자가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강사는 ‘변화의 유도자’가 되고자 하고, 학습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제시된 연구, 그리고 집단 생활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²²⁾

‘제도주의자’들은 권력과 책임의 직조를 강조하는 반면, 비-지시적 교육학²³⁾에서는 일상의 교육학적 실천이 ‘내담자 중심’ 심리치료 분야의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때 심리치료사는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맑은’ 상태로 있다. 그는 해석하지 않으며 상담은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일치’, ‘긍정적·무조건적 배려’, ‘이해의 공감’ 등의 개념이 오늘날 개인적 자기-발전의 교육학을 구축하는 데서, 특히 중등교육에서 이용되고 있다.

통신 이론과 기술

통신 기술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가 제공하는 보급 네트워크의 성질에 따라 구분되며 이것에 의해 대부분의 사용방식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통신 기술은 관성(inertia) 네트워크와 비관성(non-inertia) 네트워크로 나뉜다. 관성 방식에는 영화, 비디오테이프,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채널 생산 등이 포함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모듈로 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시켜 준다. 비관성 네트워크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포함되는데, 이는 보다 통합적으로, 보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쉽게 진화하고 스스로 개선하면서 발전되도록 만든다. 비관성 네트워크는 낮은 비용으로 생산과 보급의 탈중양화가 가능하다.²⁴⁾ 관성 네트워크의 비용 구조는 탈중양화를 어렵게 하는데, 이는 투자 및 높은

고정비용으로 보급 체계가 집중화되기 때문이다.

관성 네트워크, 슬라이드, 카세트 및 다른 장비들을 이용함으로써 교육자들은 시청각 언어와 과학 교수법, 폐쇄회로 이용 교사훈련 등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교수 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규모로 교육 참여자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다.

유선 텔레비전

현재 통신 기술의 발전은 두 갈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는 개별화를 지향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급하려는 방향이다.

개별화를 촉진하는 가장 흥미로운 통신 기술은 '유선' 혹은 '케이블' 텔레비전²⁵⁾이다. 이 텔레비전은 전체 가입자 네트워크에 동시에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중계하거나, 한 가입자에게 수십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유선 중계 시스템을 통해 특정한 요구를 가진 집단들, 특히 직업 훈련이 필요한 집단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지역사회, 도시, 농촌 지역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네트워크들은 공통 언어나 공동의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집단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대중매체를 대체할 수 있다.

선별적·개별적 교육을 위한 다른 보조기구에는 TV 수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 카세트와 카트리지가 있고, 비디오 재생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디스크 등이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가의 보조기구들은 빠르고 임의적인 접근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반복 가능성으로 인해 미래 교육의 풍요로운 가능성을 약속해주는 요인이 된다.

교육적 메시지들이 수백만 명의 아동과 성인에게 전달되도록 해 주는 대량 전송 기술 중에는 개발도상국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라디오와 통신위성 중계다.(이 두 기술이 산업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욱 흥미로운 까닭은 선진국들은 대량전달보다는 개별특성화라는 방향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충분하고 적절한 기술 자원도 있기 때문이다.)

라디오

라디오는 개발도상국에서 적절하게 자리를 잡은 유일한 선진 통신 기술이다. 여건이 허락되는 곳에는 라디오 방송이 잘 구축되고 널리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이 방식은 실제로는 교육적으로 충분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듯하다. 사람들은 흔히 라디오보다는 다른 미디어가 효용성이 좋다는 평판 때문에 라디오를 포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매체들은 라디오와 비교하면 광범위하게 보급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광범위한 보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아주 싼 가격에 어떤 기후에서도 적절히 작동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 방송이 교육적 목적에 특히 적합한 매체라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위성 통신

한편, 위성 통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²⁶⁾ 1957년 처음으로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지 5년 후인 1962년에 첫 통신위성인 텔스타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 그 3년 후에 얼리버드(Early Bird, 미국)와 몰냐(Molnya, 소련)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다. 국제위성통신인 인텔샷(Intelsat)에는 80개국 이상이 참여했고, 최근 인텔샷 IV 시리즈의 첫 위성이 궤도에 올라감으로써 6,000개 국제전화의 동시 통화가 가능해졌다.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나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교육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전에 위성부터 설치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프로젝트는 실패 위험이 크다. 실패는 예산 균형을 깰 것이고,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다른 대규모의 기술 혁신 사업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특히 지방 TV나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등의 시청각

수단이 충분히 발전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공통된 상황은 자원이 희박해, 신중하고도 균형 잡힌 교육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우주전자통신 시스템은 언어적으로 단일한 지역에서나 인도,²⁷⁾ 브라질, 캐나다처럼 땅덩이가 큰 나라, 혹은 인도네시아나 일본처럼 매우 드문 지리적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사실상 국가적으로 조직된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위성 중계방송은 다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²⁸⁾ 방송 메시지가 하나의 단일한 출처에서 나와 이 나라 저 나라로 간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 공동체를 넘어 ‘교육학적 공동체’(pedagogic community)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학적 공동체’는 공동의 자원을 마련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준비와 제작에 쓰도록 조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각국의 주권과 교육 시스템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합의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학적 혁신에 대한 확고한 공동의 열망을 동반해야 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공동으로 결정하고 제작한 국가별 프로그램, 국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작된 국가 모듈, 국제적으로 개발된 모듈을 국가 모듈과 결합시키는 방식, 국가 프로그램을 지역 수준에 맞게 교육학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개정하는 것 등이다. 국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때로는 공동의 핵심 주제들(지리나 수학)에 기반할 수 있고, 때로는 국가별로 특징적 요소가 덧붙여질 수 있고(역사), 때로는 지방의 여건에 맞춰진 다기능의 자료(과학, 농촌개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국제 기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 일정을 관리하며, 필요하다면 견해 차이를 중재하는 방식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기관 설립 방안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체계적으로 서구화되는 위험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고, 기술 원조라는 명목 하에 초래될 외부 압력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전망은 희망을 갖게 하지만, 현재의 복잡하고 유기체적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통신 시스템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

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전달체계와 교과내용 양쪽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흔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이에 따르는 계획 수립과 준비가 목표로 하는 환경에 대한 행동과 결합되어 이것들이 수용되도록 길을 열어가야 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적용, 그리고 잠재적인 청취자와 시청자의 저항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방식의 발달 또한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컴퓨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용 가능한 범위는 관리 및 연구 보조부터 교수 목적의 사용까지 그 폭이 넓다.²⁹⁾

교육 시스템과 교육기관에서 컴퓨터는 행정적 문제, 즉 급여 지급, 자금 관리, 청구서 발급 및 회계 등의 업무 해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는 학교 통학 네트워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조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계획을 만들고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데이터의 양이 클 때, 컴퓨터는 정보의 복잡성과 세부사항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고, 수집하고, 분류하며, 적재적소에 그 내용을 제공한다.

컴퓨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실천방식을 지원하는 데도 이용 가능하다. 예컨대 도서 분류 체계를 고안하고 데이터를 선별하며, 진로지도(교육 및 취업 가능성에 관해 선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를 돕는데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는 학교 활동을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등 교육학 연구에도 대단히 유용하다. 컴퓨터에는 전체 취학 인구에 관한 대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대량의 정보는 잘 조직되고 해석돼 각 학생의 전체 재학 기간의 학습이력에 대한 완전한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고, 이 프로파일로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들은 교육 방법에 완성을 기하고 개별화된 교수법을 발전시키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³⁰⁾

컴퓨터 지원 교수법

하지만 컴퓨터의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기능은 교수 과정에서 드러난다. 학생과 컴퓨터 간의 대화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학습 조건을 형성해 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이 탐색해 온 컴퓨터 지원 교수법의 여러 가능성들은 반복 연습과 집중적인 실행 작업³¹⁾과 같은 초등 단계의 과제부터 고등교육의 복잡한 학문분과³²⁾들과 교사 훈련³³⁾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컴퓨터는 평생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³⁴⁾ 교육학적 경험에서 보면 컴퓨터의 교수 관련 기능은 결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들이 지식체를 습득하고 이해하도록 해준다. 컴퓨터는 학생이 개념과 기술의 조작을 배우고 지적 적성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컴퓨터는 학습자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음대로 탐색하게 하고, 스스로 입력한 변수들에 따라 대표적인 모델의 반응을 배우도록 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해 준다. 컴퓨터는 학생과 시스템 간의 대화 여건을 구축해 준다.

지적 혁명

그러나 이것이 컴퓨터가 교육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종착점은 아니다. 데이터 처리는 진정한 지적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데이터 처리는 기존 형태의 논리와 규칙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완성단계로 이끌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컴퓨터의 최고의 장점은 인간을 일상적인 정신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자유로워진 인간의 마음이 문제 제기나 결정과 같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정신 작용에 특별히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현재까지 쌓여온 파편적 경험만을 가지고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가 여러 과목에서 학습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이해를 자극하고 확장하리라는 것이다. 데이터 처리 학습을 발전시켜서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를 현대 수학을 학습하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와 같은 고급 기술의 사용을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 장비들은 여러 공산품 가운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동시에 성능은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드문 생산품들 중 하나다.³⁵⁾ 컴퓨터 한 대의 데이터 처리 작업 비용은 20년 전에 비해 600배나 싸졌다. 소프트웨어 비용을 낮추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컴퓨터 자체가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 어떤 교육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소위 컴퓨터 생성 프로그램화 자료)

이에 더해 컴퓨터 단말기는 보다 유연해지고, 보다 인간적이고, 소통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다. 성인이 성인을 위해 고안한 컴퓨터 단말기는 대체로 교육현장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과 수준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 학습자가 교수 기계(teaching machine)와 말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구어의 구조화³⁶⁾에 필요한 최소 정보량과 그 복잡성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단지 유토피아적인 생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다른 부문들, 특히 성격상 가장 ‘현대적’인 산업에서 획득된 경험과 사용되는 도구들로부터 교육학적이고 교수적인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

인간공학(ergonomy)³⁷⁾의 원리는 여러 가지 이로운 방식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건축가, 공학자, 의사, 생리학자, 심리학자와 같은 여러 분과학문의 전문가 팀의 작업 조건 분석, 인지를 포함한 과업의 측정, 기능의 분배, 과업 수행 및 실적에서 환경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정신적 행동 연구 등이 있다.³⁸⁾ 인간공학 연구(예를 들어, 작업 단위 간 소통 양식과 조건, 점검과 감독의 효과, 시스템의 역기능을 의미하는 결함과 작업 사고의 원인)를 통해 우리는 학교 및 학교 밖 기관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용 과학

아마도 우리는 포괄적 용어로 쓰이는 ‘운용 과학(operations research)’에서 교육을 위한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용 과학은 산업체 기업의 조직과 적절한 발전을 위해 수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이론적·경험적 방법(선형적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모델 등)의 전체를 포괄한다. 교육 외의 인간 활동에 대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우리는 조직의 약점을 탐지하고, 적절한 치유책의 선택을 제안하며, 구성요소들을 다르게 결합시키거나 조정하도록 그려볼 수 있다.

시스템 분석

시스템 분석³⁹⁾은 환경에 의해 촉진되는 연속적인 조정의 결과로 인한 동적 평형 상태에서 어떤 조직의 최적의 구조를 결정하고자 애쓰는 분야다.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개연성이란 용어 외에는 분석하기 어려우며, 교육은 이론상 개방적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도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시스템 분석의 주요 특징이 바로 불확실성을 일상의 행동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시스템 분석을 통해 여러 요소들을 단일한 과정으로 조율해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는 만큼, 시스템 분석은 중요한 지적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적 도구를 기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적용한다면 새롭게 과학적으로 산정된 교육학적 패턴들을 제안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교육적 활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즉 관리, 요구 적응, 교육학적 방안, 운영 구조, 재정 등에서 현대화될 것이다.⁴⁰⁾

최근의 여러 실험들을 통해 산업 시스템의 새로운 관리 절차 방안⁴¹⁾의 상당수가 교육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에 신뢰가 더해지고 있다. 이들의 교육 적용은 국가 수준에서 전체 교육 시스템의 운영 방식⁴²⁾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들의 내부적 운영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려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양적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특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뭐라고 쓰여 있든 그 방법보다 정신에 의지해

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도 이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명료해질 것이다. 어떤 기법들은 거시적 수준(전체 교육 시스템에서)보다 미시적 수준(학교 기관과 집단에서)에서 적용이 쉬울 것이다.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발전 속도 파악과 진단 및 방향 설정에 효과적인 기법들이 도입될 것이다.

오늘날 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지식 전수와 인격 도야를 위한 기법을 잘 숙달하는 데 새롭게 기여하지 않는 과학 기술 분야는 거의 없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들 외에도 덧붙일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 우선 생태학은 교육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이 관계를 발전의 맥락 속에서 보도록 하며, 의학은 난독증의 감소와 듣고-말하기식 언어 학습법의 발전을 지원했고, 정신측정학은 새로운 측정 방식과 조사 척도 및 테스트 및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다학문 간 연계

하지만 이러한 기여들은 산발적인 경우가 너무 흔하다. 이들 간에 보다 유기적인 다학문 간 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처럼 ‘교육 과학(education sciences)’이란 이름 하에 단순히 나열된 형태로 두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한 기제를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마련해 여러 갈래로 병행 중인 학습 관련 학문들 간에 새로운 상호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상호조율은 교육 이론의 발전에 필요조건이자 그 자체로 불가결한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교육에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적 행동의 변화

첫째로, 이제 우리는 교수 과정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습 과정에서의 변화를 논할 자격을 갖추었다. 새로운 학습 이론⁴³⁾에서 강조하는 것은 근접원리(principle of contiguity), 욕구와 동기의 중요성, 내용 선택의 중요성, 학습의 위계적 성질의 중요성, 교육적 내용과 환경 간 상호관계 등이다.⁴⁴⁾ 현재의

학습 실행은 지식을 전수하는 다양한 수단 간의 무질서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이들의 활용과 효과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에 통합되는 기술

교육적 기술의 진보로부터 오는 두 번째 중요한 결과는 전체 교육 구조를 점검하지 않고는 그 기술의 혜택을 얻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교육을 현대화하는 것(비록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이나, “그저 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그 장비를 사용할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적인 교육적 활동에 장비들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이 지식의 획득과 이용 방법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기법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상호 조율함으로써 경제적·재정적 낭비를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⁴⁵⁾ 교육 기술은 기존의 시스템에 부착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아니며, 전통적인 절차에 덧붙이거나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교육 기술은 그것이 전체 교육 시스템에 실제로 통합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고민하고 개선하게 만들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혁신이 의미 있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의미가 전체 교육 시스템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중급 기술

여러 가지 ‘보잘것없는 기법’들을 활용하는 데는 어떠한 복잡한 장비나 다수의 고급 자격을 갖춘 인력도 필요치 않다. 예를 들어 산업선진국에서 산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저속주사텔레비전(slow-scan television; SSTV, *역자 주: 아마추어 무선 운영자가 주로 사용하는 영상 전송 방법)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정지된 그림들의 연속체를 대규모로 즉각적으로 방송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활용법이 산업선진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은 이유

는 이미 더 세련된 다른 기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교육 발전에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더욱이 산업선진국에서의 연구는 가장 정교한 기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불가역적이므로 ‘보잘것없거나’ ‘낡고 손상된’ 기법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는 작업은 현대적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들(예를 들면 인도나 브라질)에서 착수해야 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통신 및 기술 조직 모델을 만들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육이 중급 기술의 발전을 위해 그에 합당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도 물을 필요가 있다. 흔히 교육공학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장인 개념(master craftsman concept)에 반대하며 장비와 메시지의 대량 생산에 기반한 선진적 교육 산업화를 권장한다. 이는 분명히 개발도상국의 교육적 진보가 구조나 조직, 내용면에서 여전히 식민지적 패턴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으며, 아직 비판적 인식과 기술적 발명의 적절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급 기술(여전히 때로는 ‘적용 기술(adopted technology)’로 불리는) 기반 프로그램들을 단지 사람들을 모아 그저 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운용할 기존 직원들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중급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발전 지향적으로 기술을 발명하고 창조하려는 정신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교육학적 목적의식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실천적 목적에서 보면 이는 지역 및 국가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혹은 인종별, 문화별, 언어별 각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특정한 방법과 기법을 모종의 조직화된 패턴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조직화된 패턴이란 예컨대 표준화된 국가적 혹은 국제적 대량생산방식(산업선진국에서 교재를 발간하고, 시청각 보조 자료를 생산하고, 라디오와 TV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듯이)에서부터 마을학교 교사가 조직하는 수공업 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실제로 기술을 실현할 물질적 자원이 충분

한지와는 관계 없이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 아직 방대한 범위에서 현대적 장비들이 준비되고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술 발전에 내재된 정신은 그 자체로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론적 원리들이 발전되고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중급 기술은 하나의 적절한 단계가 아니라 그저 발전의 막다른 골목이 될 위험이 있다. 기술적 창조력은 새로운 방법의 윤곽을 그려냄으로써 중급 기술의 필요 불가결한 표준화와 그에 따른 보편화를 이루어낼 것이다.”⁴⁶⁾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선진 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자국의 특수한 요구와 가능성에 잘 들어맞는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권장하는 것은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의 이용, 그리고 교육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중급 기술의 이용이다. 선진적인 교육 기술로부터 도출될 새로운 원리들을 기다리느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국민 에너지의 이용

현대적 기술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가 없는 나라가 많다. 이 나라들은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댈 수 없으며,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훈련하고 필요한 시설을 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어 개발도상국 앞에 펼쳐질 교육에서의 눈부신 전망을 신기루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위험한 환상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뒤쳐진 일부 국가에서는 또 다른 출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독자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하고 조직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창조적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와 지성을 요청해 자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과학적 발전 증진에 그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증진과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근본적인 교육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교육 기술의 발전은 그로부터 혜택을 입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차원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허용할 것이다. 신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일은 반드시 공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신기술은 공교육을 넘어 확산될 것이며, 꽤 가까운 미래에 교육 활동의 다른 분야, 즉 문해, 기초교육, 공공 정보 등의 증진에서 현대적인 대중 매체의 활용을 통해 상당한 진보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간 잠재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기술적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사업에 대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역사의 조류 속에 침잠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권한을 인식하게 됐다. 민중을 동원하는 가운데, 자원활동 운동과 잠재적 민중 조직들을 통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민중의 잠재력이 해방되고 표출될 수 있는지는 지난 50년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민중의 에너지를 해방시켜 그들의 창조적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이 미래 세계의 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3. 실천에 적용된 새로운 발명들

실천에서의 혁신

다목적 교실(polyvalent classes), 통합운영학교(integrated schools), 비학년제 학교(non-graded schools), 전환기 교육과정(transition course), 벽 없는 학교(scuola senza muri: 이탈리아),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s), 다원적 학교(multivalent schools), 연계 수업(classes passerelles: 프랑스), 비등급 교실(unstreamed classes), 다목적 성인교육센터

(shramek vidyapeech: 인도), 하람비 학교(Harambee schools: 미국), 지역사회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미국), 방송대학(universidad libre a distancia: 스페인), 비등록 고등학교(drop-in high schools), 노동자대학(workers' universities), 무형의 대학(universitiés invisibles), 팀 티칭(enseñanza en equipo: 스페인), 개방대학(open universities), 노동자대학(radnicki universiteti: 유고슬라비아), 개방형 학교(open schools), 전원 학교(scuola nel campo: 이탈리아), 병행학교(parallel schools), 모듈형 학습 일정(modular scheduling), 자유 연구(free studies), 개별 처방식 수업(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 IPI)...

이 끝이 없는 목록들은 지난 10년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혁신의 물결이 어떤 차원인지 보여준다. 이 혁신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들에 따라 강점과 성취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혁신들은 모두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유연한 형태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주 최근에는 그 장점과 영향을 평가 받고 있지만 이들의 초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개별화된 교수법

여러 형태의 개별화된 교수법은 개인별 진단과 자기주도적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은 필요와 능력에 따라 잘 조율된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프로그램과 더불어 단체로 혹은 혼자서 연구 및 실천 활동을 수행하도록 배정받는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점검할 수 있는 수단도 부여한다.

새로운 학습 방법들로 인해 독자적 학습을 위한 절차와 장비,⁴⁷⁾ 즉 설문 조사와 연구, 문서자료센터, 장비 은행 등이 늘어났고 집단 검사시설과 교수 기기 같은 응용 기법들도 신속하게 발전됐다.⁴⁸⁾

지식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도 변하고 있다. 학교 프로그램은 더는 동일하게 중요한 장(chapters)들로 나뉜 연속된 강의의 집합이 아니다. 학교 프로그램은 모듈화된 체제로 변해가며,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주제의 블록들로 분류된 학습 패키지 구성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들도 선형적인 학습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학생의 지식 수준에 따라 흐름을 바꿈으로써 학생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 자료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학교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멀티미디어 접근법이 이용되고 있다.

학교 학습시간도 이제는 단일한 조각들로 쪼개져 있지 않다. 학습 속도를 다양화해, 모두가 발걸음을 맞춰 단일한 진도를 나가는 대신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학교 시간의 일정 부분은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개인 학습을 하도록 따로 배정한다(일부 미국과 스웨덴의 중등학교는 이러한 시간이 학교 학습시간의 40%에 달한다). 수업 시간 중에도 경험적인 시간대 구분이 다소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강의 시간대(개인별로나 큰 그룹으로나), 소그룹 시간대, 개인 정리 시간대, 전달 시간대 및 점점 시간대(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등이다.

새로운 교육참여자

교육의 순환 체계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인구 집단에 교육이 좀 더 다가가면서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생겨난다. 전 세계에서 특별한 범주의 성인들, 즉 자격 취득을 원하는 노동자, 전문가,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변화로 훈련 받은 적이 없는 업무에 갑작스럽게 책임을 맡게 되거나 기술 변화로 맡은 업무가 대체된 관리자 혹은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등교육에 보다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는 일부 교육 시스템들이 특별히 흥미를 끌고 있다.⁴⁹⁾ 이런 시스템에서는 공식적인 입학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자료에는 컴퓨터 저장 데이터나 테이프 저장 데이터, 자료 보급 네트워크(라디오, TV, 통신학습과정 등)의 가입권한 등이 있다.

전통적 학교에서도 권위주의적 지식 전수 방식을 재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훈육, 연습, 시험)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고 있다. 협동을 통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상당한 시간이 토론과 세미나에 쓰인다. 이는 ‘반-대학’(anti-universities, *역자 주: 1968년 영국 런던의 급진적인 반문화 네트워크)의 경우처럼 기존의 교육 구조와는 아무 관련 없는 협동 경영의 폭력적 저항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경제적이거나 교육학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요인들은 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의 추구, 보다 자주적이고 개별화된 교수법을 성취하거나 상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다.⁵⁰⁾

교사 역할의 조정

대체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변하고 있으며, 권위적인 지식 전달 역할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며, 획득된 지식을 점검하는 일에 더 시간을 쏟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병원 팀의 패턴을 따라 교사 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보조 교사나 조교들이 더 많아져서 가르치는 일 외에 학생의 감독과 평가, 행정적인 업무 등을 전담한다. 극단적으로는 교육의 일각에서 영구적인 교육전문가라는 생각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변화하는 학교 건물

학교 공간은 더는 30-40명의 학생을 모아두는 작은 교실들의 집합일 필요가 없다. 건물 내부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학교들이 많다. 이동식 파티션과 분리형 부스 구조로 된 다목적실은 큰 그룹이나 소그룹 학습, 혹은 개별 학습에 맞춰 공간도 변한다. 큰 공간은 대규모 토론장으로 쓸 수 있다. 문서보관 장소도 늘어났다. 교육기관은 클럽이자 작업장, 문서자료센터, 연구실이자 회합의 장소가 되고 있다.⁵¹⁾ 학생 공간 배정, 시간표, 직원 배치, 장비 배정 등 모든 것에서 보다 융통성이 커지고, 교육기관이 더 유연해지면서 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더욱 잘 적응하고 있다.

전형적인 학교 건물은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진보적인 혁신 기술이 통합된 현대적 스타일의 건축물은 이론적으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험이 보여주는 바는 학교 시설, 장비, 건물 등의 약점은 교사와 학습자의 새로운 관계와 창조적 교육학의 도입, 그리고 대개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 환경 구성에 의해서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농촌 지역 천막 교실에서 열리는 수업에 참신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면서 가장 기초

적인 교육 수단을 사용해 얻은 결과들은 값비싼 장비들을 가진 그 어떤 학교들이 얻는 결과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⁵²⁾ 값비싼 장비들을 가지고도 적절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나 창조적 분위기가 부족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이다. 다른 최고의 학교들과 경쟁하기 위해 흔히 과도한 학교 건축비가 산정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에는 학교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충고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행태는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교육 재정에 쓸데없는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 발전을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이와 정반대되는 방법을 쓴다면 학교와 주변 환경 사이에 훨씬 더 만족스러운 연결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사회의 연계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 자체의 발전은 학교와 사회 간의 실천적 연계의 증진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결국 인간이 세대를 이어오며 스스로를 교육해 온 것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였다. 생물학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결합 효과를 가르친 자연의 교육은 인간의 인식과 지성이 성장하는 데 주요한 도구가 되어 왔다.

인간의 마음이 향상되고 지식과 문화 획득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와 교육의 긴밀한 상호관계는 특히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노력과 훈육과 경쟁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학교에서의 학습은 보다 생생하고 쉬우며 덜 집중적인 형태의 청소년 및 성인교육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학교에서 대변하는 가치와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삶의 양식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흔히 시(poetry), 자발성, 쾌감뿐 아니라 폭력, 선정성, 행운을 미화하기 때문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목적과 방법들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⁵³⁾

세상을 향해 학교를 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학교를 다목적 문화센터로 보는 방향이다. 학교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

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당은 지역사회의 극장이며, 과학 실험실과 작업장, 스포츠 시설, 시청각 스튜디오와 문서자료센터 등은 적어도 방과후 시간이나 휴일에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주변의 사회적 맥락에 뿌리내리고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잘 스며들도록 하려는 시도가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도시나 대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형편이 좋지 못한 도시에서는 학교를 세우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도로는 학부모를 직접적으로 학교 구조에 통합시키려 하거나, 학부모들을 ‘지역사회학교’⁵⁴⁾나 ‘학부모교실’과 같은 교육 구성과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한편, 학교를 직업세계와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도 생기고 있다.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피상적인 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접촉은 아동들이 육체 노동을 맛보고 존중하게 되고, 또한 학교와 이웃의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⁵⁵⁾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생물학, 심리학과 사회과학의 발전은 위대한 전통을 갖는 인본주의 운동에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가져다 주었다. 결국 사회-경제적, 역사적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압제적이고 가난에 찌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과거의 가난과 폭력이 인간을 얼마나 위축시켰든, 우리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반드시 잔인한 늑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정신적 구조는 사랑과 창조적 활동 성향을 갖도록 되어 있다는 것과, 비록 인간의 깊은 충동 속에 폭력성과 불합리한 공격성 같은 부정적 형태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간이 살아 온 역사 전체에 걸쳐서 소위 인간성의 미발달이라는 악순환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인간은 진정한 출구를 앞에 두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물질 세계의 실체, 그리고 자신의 조건과 존재성을 더욱더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힘을 갖기 시작했다.

해방으로서의 교육

이러한 길 위에서 우리는 과거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교육은 해방일 수 있고 해방이어야 한다⁵⁶⁾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영감을 끌어냈던, 창조적 직관을 지녔던 모든 교사 및 교육자들과 조우하게 된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으로 부터 영감을 얻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많다.

▲아돌프 페리에르(A. Ferriere)와 그의 ‘능동적 학교(active school, 스위스)’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의 ‘자기 교육(self education, 이탈리아)’ ▲존 듀이 (John Dewey)의 ‘팀 활동(team work, 미국)’ ▲10월 혁명 직후 소련에서 파벨 페트로비치 블론스키(Pavel Petrovich Blonsky)가 처음 연 ‘노작학교(working schools)’ ▲드크롤리(O. Decroly)의 ‘능동적 방법(active method, 벨기에)’ ▲셀레스탱 프레네(Célestin Freinet)의 ‘신학교(new school, 프랑스)’ ▲페테르젠(P. Petersen)의 ‘생활 공동체학교(Lebensgemeinschaftschulen, 독일)’ ▲A.S. 닐(A.S. Neill)의 ‘서머 힐 학교(Summerhill, 영국)’ ▲타이 솔라린(Tai Solarin)의 ‘메이플라워 학교(Mayflower school, 나이지리아)’ ▲브라질 북동부와 칠레 등에서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의식화(conscientization)’ 방법⁵⁷⁾을 모델로 한 문해 및 교육 운동 ▲유네스코와의 협력으로 ‘세계문해프로그램’(World Literacy Programme)의 차원에서 세계 각지에서 착수된 기능문해 프로젝트들 ▲중국에서 심대한 변화 상황에서 환경과 긴밀히 접촉하며 교육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안 ▲베트남에서 박 리(Bac-ly)의 시범 농촌학교와 ‘녹색 연구실(green laboratory)’ ▲탄자니아의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for self-reliance)’의 실험 ▲문해운동을 앙골라민중해방투쟁과 결합시킨 앙골라 여성들 ▲아랍국가들의 ‘건물 없는 학교(Schools without Buildings)’ 실험 ▲현재 페루, 칠레, 쿠바에서 진행 중인 민중의 창조적 참여의 철학에 기반한 교육 개혁의 노력...⁵⁸⁾

이들과 많은 다른 실험들은 교육에 해방적 활동의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증거다. 동시에 이런 유형의 모든 사업들이 마주치는 한계와 좌절도 드

러났는데, 이는 해당 사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구조가 그들을 마치 이방인인 양 거부함으로써 잘 안착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의 해방적 힘은 현재의 환경 하에서 교육자들의 혁신 의지 및 관용성과 용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기술의 혜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진보적 생각으로 가득한 교육자에 의해서나 정치적 혁신의 맥락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적 기술은 그 본연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다. 대중매체, 특히 라디오의 집중적인 사용은 예전의 통신 방식으로 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환경 속으로 지식을 깊이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대중매체의 고유한 커다란 장점 중 하나는 교사가 자신의 관심을 지식의 전수에만 두었던 배타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보다 폭넓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⁵⁹⁾ 이로 인해서 대중매체는 개인이나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학습의 가능성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다.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

실험적 기능문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의 지원 속에 12개국⁶⁰⁾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기능문해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사업으로, 그 원리와 방법론으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교육과 발전의 관계를 새로이 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다. 분명히 비문해는 미발전의 한 측면이므로, 문해 훈련은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자이자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발전 방안의 통합적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기능문해의 원리가 생겨나며, 기능문해는 발전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영역에서, 그리고 비문해가 주요한 취약점이 되는 영역에서 교육적·사회적·문화적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개인적 동기가 출발점이 되어야 교수 내용이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능문해 방안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측정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생태적 접근법과 직접 활용 가능한 지식 학습에 기반을 두었다. 문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이 요청 받은 사회적 경제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 학습은 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읽기와 쓰기는 개인의 해방과 발달의 수단이고 개인의 교육적 노력을 증진하는 수단이다. 학습 내용은 보통 쓰는 교육의 과목-주제가 아니고, 그 내용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다학문적 대응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문해의 목표는 기술적이고 직업적인 역량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 능력과 의사소통의 힘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능문해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교육적 기능을 제공하며,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목적과 문제 별로 교육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정의하며, 교육 활동에 단지 성인 비문해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난관을 만나기 마련이다. 난관은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들 탓이기도 하지만, 발전 사업을 벌이면서도 그와 관련된 교육 요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기술관료들의 성향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기능문해 캠페인은 여러 혁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으며, 따라서 교육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 대단히 건설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여길 만하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개념의 발전

평생교육이란 개념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강화됐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을 우리 시대의 발전으로 여기는 것은 환상이다. 교육적 발전이 지속된다는 생각 자체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통해,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삶에 대한 개념 및 지식의 내용을 형성하는 경험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자연스러운 역동이 우연을 넘어 짜임새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선입견, 즉 공부는 젊은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교육의 정상적인 용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명백한 사실이 세상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똑같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세기 후반부를 살아가며 삶의 조건과 우여곡절에 맞설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

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성인에게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예전처럼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고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20세기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이 교육받은 시민들의 잠재력 극대화를 요청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보았듯 교육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육 행동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교육 사업은 한 마디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채택해야만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인간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평생교육은 또한 역사적인 문제이자 문명 자체의 문제가 되었다.⁶¹⁾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

처음에 평생교육은 야간강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실천에 적용되는 새로운 용어 이상은 아니었다. 이후 이 개념은 점점 발전하면서 직업 훈련에도 적용됐고, 교육 활동의 통합적 전망 안에서 인격의 여러 측면들, 예컨대 지적, 정서적, 미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제 마침내 평생교육 개념은 개인과 사회의 관점에서 전체 교육 과정을 포괄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의 첫 번째 관심사는 아동교육으로, 아동이 좋은 삶을 살도록 지원하면서 미래의 성인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성과 자기 학습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자기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교육적 구조와 성인의 발달을 위한 문화적 활동들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이로부터 교육적 행위의 모든 형태와, 표현과, 순간들로 이루어진 순환적 관계를 실현하는 도구이자 표현이다.

이제부터 교육은 더 이상 동화(assimilated) 되어야 할 교과목으로만 규정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즉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진적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와 소통하고 질문하는 스스로의 존재를 형성해갈 수 있는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에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완성의 존재

이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만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심리학 연구에도 강력한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생애 모든 연령대에 걸쳐, 존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이 전체적이고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교육에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이미 갖추어졌다. 이제 과제는 다학문적 연구와 교육 발전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과학의 성취를 교육학적 현실 안으로 옮겨오며, 교육기관을 기술적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합리적 단위체로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생태학적 사이버네틱스 모델들도 활용 가능하다. 이 모델들은 견고하며, 자기조정적이고, 자기균형적이며, 자기혁신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광범위한 개별화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소통 원리에 기반해 교육을 조직하는 방법을 예견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학적 목적은 여러 나라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듯하다. 교육을 개인을 사회에 재통합하고 사회적 해방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적 견해와 실천으로부터 반발이 있으며, 또 많은 경우에 감정 표현의 권리를 요구하고, 여러 제약의 거부를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저항과 반발도 있다.

이런 반대들이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그간 교육 시스템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 현상, 전쟁과 평화, 정부의 합법성, 인구 통제, 경제적·사회적 불의와 인종 차별에 대해 보여준 무관심이었다. 과학은 목표의 정의, 방법의 현대화, 인공지능적 조직화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 교육 시스템 구상에만 애를 썼다. 이제 과학과 정부 당국자들은 주도성의 권리, 개인적 창의성의 권리, 창조성의 권리, 다름의 권리 등에 대한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교육적 절차의 합리화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과학적 발전 법칙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기계적인 통합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이것은 가망이 없는 상황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대립되는 견해들 사이에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낼 능력이 있다면 말이다. 대립하는 한쪽의 견해는 교육의 기능과 목표를 프로그램화 하고 규정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한쪽은 문제를 사회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끝없는 부정(negation)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다.

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 교육기관은 지식 획득을 중심에 두고 산업적·기술적 효율성을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간관계를 진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집단의 생명력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명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교육적 활동의 형태와 방법을 합리화하고 매스컴 기술을 활용하며 사이버 네틱스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개별화와 의식 각성에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성을 증진하고 학습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무기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적 형태 및 권력과 권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도록 하며,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참여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비판과 민주적 참여,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깃든 힘을 통한 상상을 결합시키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여 잠재적 자원과 사람들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잠재력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할 것이다.

주석

- 1) 2장과 3장 참조.
- 2) 4장 참조.
- 3) 모듈(module)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지원 교수법에서 지식의 한 ‘묶음’을 뜻하며, 학생의 개별화된 학습 과정을 위해 논리적으로 조합 형성된 지식 구조에 통합된다. 모듈 연속체(modular chain)는 학생이 자신의 취향이나 적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학생에게 부과된 모듈의 시리즈를 말한다. 먼저 구성된 다음 학생에게 부과되는 모듈 시리즈는 패스(path)라 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모듈 시리즈는 웨이(way)라고 한다.
- 4)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RNA(ribonucleic acid, 리보핵산; 단백질 합성을 통제하는 유전 물질)가 인간의 기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지금은 즉각적인 단기 회상 기억과 장기 기억을 뚜렷이 구분한다. 즉, 단기 기억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는 단순한 전자생화학적 메커니즘이고, 장기 기억은 화학적으로 부호화된 신경 메커니즘으로 두뇌세포의 구조 속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한 장기 기억은 뇌세포에 특수한 효소를 생성하는 일과 관련되는데, 이 효소 생성은 촉진되거나 심지어 유발될 수도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량의 RNA는 학습 과정 중에 뇌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뇌세포의 RNA 생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있다면 결국 학습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개인의 생애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 혹은 개인의 역사를 마음에 두고 진행되는 연구를 뜻한다.
- 6) 세계의 영양실조 문제에 관한 유엔의 관심은 교육 발전에 관한 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아기의 단백질·칼로리 결핍은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발달 부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러한 손상을 입었다면 성인이 되어 단백질을 더 보충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나라에 영양 결핍이 만연해 있다면, 모든 면에서 미래의 국가 발전은 저해될 것이다.”(우 탄트(U Thant), 유엔 사무총장) 교육 전략에서도 중요한 이러한 상관관계는 전문가들의 구체적 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단백질 부족은 개발도상국에서 유아 및 아동 사망률, 신체 발육 부진, 낮은 생산성, 조로 및 수명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의 연구는 또한 유아기와 유년기의 영양실조가 나중에 학습과 행동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유아, 취학 전 아동, 임산부와 수유부들의 단백질 부족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 공동체 인구의 대다수에서 유전적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한다.”(*Strategy Statement on Action to*

Avert the Protein Crisi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United Nations, 1971.5.)

- 7)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블랙박스’ 원리를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대신 육체적 자극의 시작과 관찰되는 반응의 표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확인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 8) 이 과학적 학파의 창시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는 그것을 ‘구성주의적 본성’으로 서술한다. (언어의 시작은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감각운동지능에 의해 형성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는 지식이 외적으로 사전 형성(경험주의, empiricism) 된다거나 내적으로 사전 형성(본유론, innateness) 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연속된 단계를 지속적으로 뛰어넘는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교육적 강조점을 아동 활동의 자발적인 측면에 두게 된다.(J. Piaget, *Where is Education Heading?*, p.3,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6.
- 9)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에 관해서는 해리스(Z. Harris),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 관해서는 촘스키(N. Chomsky) 참조.
- 10) 소련의 연구자들, 특히 소우미안(Soumian).
- 11) 미국의 문화인류학은 최근 학교 기관이 기능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다. 와일리(Laurence W. Wylie)는 연역적 교육학(deductive pedagogy)과 그에 따른 프랑스 초등학교에서의 사회적 제약을 연구했다.(*Village in the Vauclus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워렌(Richard L. Warren)은 독일 농촌학교의 합리화된 관료주의적 질서를 분석했다.(*Education in Rebhausen, a German Vill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7). 그리고 싱글턴(John C. Singleton)은 일본 마을학교에서 개인화되고 위계적인 질서를 연구했다.(*Nichu: A Japanese School*,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8) 이러한 연구들은 유럽 사회학연구소(European Center for Sociology)가 실시한 교육 체제와 권위 및 계급관계의 재생산에 관한 최근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 있다.(Claude Grignon, *L'Ordre des Choses, Les Fonctions Sociales de l'Enseignement Technique*, Paris, Éditions de Minuit, 1971). 그 밖에 버마, 가나, 라이베리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문자 없는 사회와 그 속에서 친족, 입문의례, 비밀결사 등이 갖는 역할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을 넘어 학교 체제에 갖는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과 마이클 맥코비(Michael Maccoby)는 수입된 문화와 문화적으로 제도화된 학교가 멕시코 마을 주민의 문화 생활 및 주민 정체성에 미친 명백히 재난스러운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Erich Fromm and Michael Maccoby, *Social*

Character in a Mexican Village, New York, Prentice Hall, 1970.)

- 12) “인류학은 경제학에 이론의 타당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 인류학은 서양 문화의 배경에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있음을 일깨운다. 세계의 원시적인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지 않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생존이라는 의미로)은 부족하지 않다. 인류학은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진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 양식을 창출해 인간 역사에 심층적으로 깔린 논리를 꿰뚫어 보게 한다.” (Maurice Godelier, *L’anthropologie Economique*, Paris, Denoël, 1971.)
- 13)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게 한다. “교육은 특정한 의도를 수행하거나, 어떤 이상을 실현하거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은 한 다발의 어려운 일거리이고, 특수한 기법(효과성 측정이 가능한) 및 개인이나 집단과 함께 하며, 조직되고 계획되고 관리되고 평가되는 행동에 기반한 과정들의 모음이다. 교육에서 과학을 추구하려면 우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으로서의 교육과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결합은 소위 응용과학이나 단지 합리화된 임기응변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학은 목표들을 정립해 주는 교육철학일 뿐이며 구체적인 행동의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더는 머무를 수 없다. 또한 교육학은 유용한 기법 구상에 한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학은 스스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된 전일체라는 전제하에 그 자체의 과학적 자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앤드라고지(Andragogy)’라는 말로 알려진, 인간 훈련에 대한 과학을 대학에서 인정할 것을 제안하며, 일부 대학은 이미 그렇게 했다. 이 과학이 페다고지(Pedagogy)가 아니라 앤드라고지로 불려야 하는 까닭은 교육학의 의도가 아동과 청소년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Pierre Furter, *Grandeur et Misère de la Pédagogie*, University of Neuchâtel, 1971.)
- 14) C. Saury and M. Scholl, *Education and the Computer*, p.1,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8.
- 15)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년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덜 창조적이고, 이미 조직된 사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사회는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반항에 제동을 걸거나 오히려 부추기기도 한다.” (Jean Piaget, ‘Intellectual Evolu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Proceeding of the IIIrd FONEM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Formation from Adolescence to Maturity*, Milan, 1970.5.9.-10.)
- 16) M. Boulanger Balleyguier, L’Evolution du Q.I.’, *Enfance* 참조.
- 17) H. Janne and M. L. Roggemans, *Educational Systems and the New Demands*,

- p.19-22,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s Series), 3.
- 18) 집단 교육학의 기법은 개별화된 교육 과정과 조금도 상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목표 설정이 분명하고 잘 운영되는 학습 집단은 학생 개인을 억누르는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 19) Kurt Lewin의 연구.
 - 20) 주로 Lukacs, Weber, Merton, Crozier
 - 21) A. Vasquez and F. Oury, *Vers une Pédagogie Institutionnelle*, P.248, Paris, Maspero, 1971.
 - 22) 예를 들면 프랑스 낭시(Nancy)에 있었던 CUCES 실험과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의 노동자대학 참조.
 - 23) 심리치료사인 칼 로저스(Carl Rogers)와 그의 저서에서 영감을 받았다.
 - 24) 예를 들면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농촌 발전의 방안으로 초등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바시코 계획(Plan Básico, 중등 수준) 아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양적으로도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텔레비전을 활용하고 있다. 성인교육에서도 체계적인 강의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예: 캐나다의 Tevec 프로그램)
 - 25) 미국에서는 1970년에 사설 유선 텔레비전이 2,400개 가입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10분의 1에 달하는 약 500만 개의 수신기로 프로그램을 보냈다. 연평균 증가율은 25%다. 유선 텔레비전 가입 제도는 벨기에,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에도 있다.
 - 26)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위성통신 중계에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이 있는데, 간접 중계와 직접 중계가 그것이다. 간접 중계를 다루는 통신 위성은 출력이 낮고 안테나가 보통 수준의 지향성을 갖는다. 송신국에서 지상의 수신센터까지 저강도의 신호를 보내면, 지상에서는 그것을 증폭해 가입자들에게 다시 보낸다. 지금은 수백 와트의 출력과 고도의 지향적 안테나를 갖춘 직접 중계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송센터에서 직접, 먼 거리를 가로질러 가입자의 수신센터로 중계할 수 있다. 이 기술로 인해 중앙 수신국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지만, 대신 개별 텔레비전 수신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 송신국이 내보내는 우주 중계 통신을 받아서 일반 채널을 통해 각각의 수신기에 재방송하고, 동일한 우주 중계 프로그램을 특수 장비를 갖춘 수신기로 고립된 농촌 지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결합한 혼용 시스템도 있다.
 - 27) 1974년 예정되어 있는 인도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주통신의 두 가지 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첫째, 시간이 절약된다. 인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지상통신망은 1980년까지 단지 영토의 17%, 인구의 25%만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위성 서비스는 시작되는 즉시 나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둘째, 범위가 넓다. 종래의 체계는 보통 대도시의 송신국이 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신이 한정되었다. 인공위성은 기술적,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든다. 고출력의 송신기는 반경 100km, 즉 3만 km² 이상의 지역을 포괄한다. 500와트 정지 위성은 약 9° 각도 이내의 지역을 포괄하며, 이는 실제로 약 1,200만 km²의 지역을 망라하는 것이다. 나아가 통신위성은 저비용의 프로그램을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과 유목민, 이주노동자, 수상 가구 등의 이동 집단에도 보낼 수 있다.

- 28) 이는 남미의 문화적 통합계획인 SERLA, 또는 프랑스와 독일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심포니 소크라테스(Symphony-Socrates)’와 같은 것이다.
- 29) 미국의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약 3천 개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체 컴퓨터의 약 6%이다. 소련에서는 이론적 사이버네틱스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또 컴퓨터의 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는 스베르들로프스크(Sverdlovsk) 대학과, 알파5라는 교수 기계와 테스터가 개발된 민스크(Minsk), 키예프(Kiev), 르보프(Lvov)의 공과대학이 있다. 실험적 목적으로 컴퓨터가 사용되는 곳은 동독의 드레스덴 데이터처리연구소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이다. 일본에 있는 약 4천 개의 컴퓨터 가운데 200개는 대학에서 교수 활동에 사용된다. 영국에는 거의 모든 교수용 컴퓨터들이 대학에 있으며, 서독의 많은 대학들 역시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다.
- 30) 이는 ‘개별 처방식 수업(IPI)’ 이론으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 31)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는 캘리포니아, 캔터키, 미시시피에 있는 초등학교에 300개의 단말기로 연결돼 있으며, 20,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170명 이상의 교사들이 이를 통해 연습문제를 마련한다.
- 32) 미국의 1970년도 연감에 따르면, 1969/70년 대학년도에 여러 대학에서 컴퓨터 강좌를 위해 총 9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래밍 방식은 극히 다양하며, 컴퓨터 강좌로 가장 많이 마련되는 과목에는 천문학, 생물학, 화학, 인류학, 경제학, 지리, 역사, 언어(러시아어, 중국어), 경영, 수학, 기계학, 의학, 음악, 철학, 심리학, 통계학이 포함된다.
- 33) 스페인 정부는 유네스코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해 1980년까지 20만 명의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15만 명의 현직 교사에게 전직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 34) “이전에는 몇 세대를 합해 하나의 시대(epoch)를 이룬다고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몇 시대가 합쳐져서 한 세대를 이룬다고 본다. 우리는 컴퓨터 지원 교수법을 통해 평생교육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평생교육은 우리가 지식 변화에 계속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수 형태는 지식의 요소들이 항구적으로 활용되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게 해 준다. 나아가 여기에 작용하는 부수적인 논리로 인해 이제 교육학은 기존의 수업에서 대체적인 근사치를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산출물을 정확히 선별해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Maurice Peuchot, *La Stratégie Modulaire en Enseignement Assisté par Ordinateur.*)
- 35) 10년 전 10달러였던 트랜지스터는 오늘날 그 당시 트랜지스터 50개가 하던 작업을 대신하는 집적회로로 대체되었으며, 가격은 1달러에 불과하다.
- 36)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데만 2,000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하다.
- 37) 인간공학은 1949년 옥스퍼드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일의 ‘법칙’ 혹은 과학을 뜻하며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연구한다. 즉, 사람이 보수를 받기 위해 계획적인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는 행동을 연구한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공학은 노동의 심리학까지 포괄한다. 좁은 의미로는 인간-기계 체제 내의 소통 기술을 다룬다. 이 영역에서 용어상의 문제가 일어난다. 프랑스어 저자들은 ergonomie, 혹은 ergonomics를 선호하고, 미국 저자들은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 ‘엔지니어링 심리학(engineering psychology)’ 또는 ‘시스템 공학(system enginee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ncyclopaedia Universalis* 참조)
- 38)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소련에서 발전된 인간공학은 산업적 노동을 시스템 중심의 활동으로 세밀하게 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에는 기계에 초점을 두었다가 이후에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온 인간공학은 모든 범주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의 시스템 중심 활동을 지향한다.
- 39) 분석가들은 ‘시스템’이란 말을 이미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고자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관련성 속에서도 움직이는 분리된 부분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시스템은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능하게 하는 조직에 의해 규정된다. 시스템 분석의 목적은 성과와 관련해 목표의 성취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과, 합리적인 운영 모델에 도달하도록 적용 수준을 정하고 제한된 요인들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 40)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은 일반적 또는 부분적 예산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예산 구분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폐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과제와 그 목표, 즉 측정 가능한 기능은 여러 해에 걸쳐 정해진다. 이 기법은 특히 긴축 예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로 예산을 감축할 때 각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

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정부 당국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기법의 이점은 예산이 더는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에 의해서나, 그 기능에 따라서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 행정 기구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따라(예를 들면 특정 해당년도 동안 취업 가능성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규정된 자격을 취득한 대학 졸업생수) 분배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 활동에 든 비용을 그 활용성과 비교할 수 있으며, 몇 개의 기관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한 기관이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예산 프로그램은 일정 시간에 걸쳐서 분산시킨 지출을 부분적 목표들에,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에 연계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 41) 산업계는 운용 과학(operations research)의 일상적인 진행 과정에 더해 오늘날 더욱 진보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계획수립, 프로그래밍, 예산체제(PPBS)>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체 프로그램의 분명한 목표와 성과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정기적 간격을 두고 장기 계획을 조율하고 자원 사용을 규정하기 위한 기제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소위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의 영향을 줄이고, 기관들의 ‘비대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술(PERT)>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일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바로잡음으로써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도록 고안되었다. <델파이 방식(Delphi method)>은 전문가 집단(익명 상태를 유지한다)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경향의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체계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특히 앞서 있는 한 가지 기술은 <상호작용 매트릭스(interaction matrix)>라는 것으로, 이 방법을 통해 미래의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평가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방식, 힘, 시간이라는 세 요인이 기능하며 상호작용해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시나리오 방법>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이나 결정에 뒤따르는 사건들을 상세하게 묘사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여러 게임 이론 역시 널리 적용되고 있다.
- 42) 적어도 이 수준에서는 운용 과학에서 얻은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 가지 실험이 있다. 여기에 포함된 방법들은 시스템 분석에 기초한 계획안 작성하기, 투입·산출 도표 해석하기, ‘참조 나무 만들기(reference tree)’, ‘계획수립, 프로그래밍, 예산체제(PPBS)’ 등이다.
- 43) ‘mathetic’이라는 말은 가르침에서 학습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길버트, Gilbert)과 소련(레프 란다, Lev Landa)의 일부 연구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프라스카티(Frascati)에 있는 유럽교육센터(European Education Center)는 처음으로 소규모의 ‘학습과정연구실(mathetics labora-

tory)'을 설치했다. mathet은 그리스어 mathesis(mathein, 배우다)에서 나온 말로,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학(pedagogy)이 교사가 가르칠 때의 행동에 중점을 둔 학문 분과인 것처럼, mathematics는 학생이 학습할 때의 행동에 대한 과학이다.

- 44) J. L. Laroch, 'A Propos des Theories de l'Apprentissage', *Education Permanente* (Paris), No.8, 1970. 참조.
- 45) 1971년 5~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교육·경제계획 지역장관회의.
- 46) Henri Dieuzeide, *Education Technology*, p.13,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30.
- 47) 자기 서비스 교육 시스템이 기반으로 삼는 개념은 효과적인 공부의 공부가 교수의 과학적 엄밀성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 교수의 가치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허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공부는 학습자가 지식의 원천과 맺는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개인 학습자는 목표 선정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신이다. 이 수단들은 일반적으로 모듈 방식이나, 몇 그룹의 시스템(패키지)들로 이루어지며, 즉석에서 참고할 수도 있고(문서자료센터), 대여, 임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다.
- 48) 그렇지만 어떤 독창적 실험들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일본과 미국에서 특히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집중 방식이 그렇다. 훈련생은 비교적 단기간인 3주에서 3개월 동안 '교육 클리닉(teaching clinics)'에 배치돼 직업재훈련, 언어 및 특수 기술 훈련 등 특별한 목적의 학습 과정을 밟는다. 훈련생은 시작할 때 학습 진단을 받고, 엄격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훈련 받으며,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조직된 조건화된 학습 과정(시청각 발표, 어학실습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 49) 사례들: TeleKolleg(서독) 혹은 NHK 라디오(일본)의 중등학교 통신학습과정과 라디오 학교를 들 수 있다. 현재 가장 잘 발전된 체제로는 영국의 개방대학이 있다. 개방대학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특수 매뉴얼과 학습 교재 사용, 통신학습과정, 비디오카세트 상담, 집단 세미나 및 여름학교 등이 결합되어 있다.
- 50) 1970-71년에 Tele-Niger가 시행한 '무료 수신'이라는 실험에서는 10-11세의 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운영하도록 했다.
- 51) 전화 다이얼 시스템, 혹은 글자-숫자 키보드를 통해 문서에 접근하는 것과 텔레비전이나 헤드폰을 통해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것은 '정보흐름(traffic)' 패턴을 바꾸고 있다. 한편으로는 융통성 있는 학습 경로와 학생들의 이동에 따라 항상 이용 가능한 지식 저장소가 필요해졌다. 도서관, 연구센터 및 마이크로 색인(micro-

index) 시스템, 정보센터, 장비센터, 테이프 도서관, 기억 은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식 저장소들은 교사가 학습에 함께 이용할 때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 등이 가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특성을 보완할 수 있다.

- 52) 이란의 Bahmanbegui는 파르스(Fars) 지역의 유목민들, 특히 카슈카이(Qachiqäi) 족을 위해서 ‘건물 없는 학교’ 제도를 실험했다.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얻은 결과는 인근 지역의 정규 수업에 나가는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경우가 많았다.
- 53)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시청률 시간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학교 활동에 맞추어 조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들이 문화적 지체 해소와 학업 중퇴 방지를 목표로 삼는다.
- 54) 여러 나라 가운데 라오스, 라이베리아, 필리핀, 시에라리온에서 잘 발달되었다.
- 55) 농촌 환경에 긴밀히 연결된 학교 사례, 그리고 학교 안에 작업장을 두고 지역의 수공업자, 목수, 인쇄공 등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연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때때로 수공업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장장이나 어부들의 작업 비결이 부족에서 성인입문의례를 받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 56) “교화를 위한 교육과는 반대로, 해방을 위한 유토피아적·예언적·희망적인 교육은 앞의 행위이며 알려진 현실을 전환하는 행동의 수단이다. (중략) 교화를 위한 교육에서는 사람은 알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오직 완전한 지식, 교육자가 소유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지식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을 위한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소유하는 완전한 지식이란 없으며, 앞의 과정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주체들로서 매개해 주는, 알게 되는 대상이 있다. (중략) 교화적인 교육 실천에서 교육자는 언제나 피교육자의 교육자다. 하지만 해방적 교육 실천에서는 피교육자의 소외로서의 교육자는 ‘죽어야’ 하며, 그로써 피교육자의 피교육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교육자의 소외로서의 피교육자는 ‘죽고’, 그리하여 교육자의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제안해야 한다. 이는 주고받으며 나아가는 끝없는 길이며, 양쪽이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겸손하고 창조적인 운동이다.”(Paulo Freire. *Unusual Ideas about Education*, p.7,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36.
- 57) ‘의식화’라는 용어는 브라질어 ‘conscientização’에서 왔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인식하고, 현실의 억압적 요인에 대항해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는 뜻이다.(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p.19, translator’s note, New York, N.Y., Herder & Herder, 1970.)
- 58) “교육은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사람들의 일이다. (중략) 관련된

모든 부문의 사람들의 최대로 광범위한 참여와 결의가 (요구된다). (중략) (이는) 우리가 교육을 교사와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투쟁의 결실이다.”(1971년 12월, 칠레 전국교육 대회에 제출된 보고문에서 발췌) “민중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주인공이다. 이는 오직 혁명적 과정에서만 가능한 중요한 사실이다. 대중적인 교육적 조직들은 대중적 행동을 조정하고 조직하는 이상적인 장치며, 그 대중적 행동은 교육의 진작과 교육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1971년 4월 쿠바의 제1차 전국교육문화대회 선언문)

- 59) “현대 기술은 최고 수준의 해방적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인식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더욱 많은 사회 집단들이 문화와 지식의 ‘저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 기술은 개인의 지적 잠재력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범위까지 발휘할 수 있게 해 준다. 그것은 지적 활동을 그보다 클 수 없을 정도로 ‘만화’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기술은 모든 개인이 끊임없이 증대되어 인지적 영역의 주인이 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해 최대한의 비판적 인식을 갖도록 해 준다.”(G. Gozzer, ‘L’Educazione Intellettuale et le Nuove Tecnologie Metodologiche dell’Apprendimento’, *Pedagogia e Vita*, 1971.6-7.)
- 60) 실험적인 세계문화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예과도르,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말리, 니제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등이다. 국제적 방안 안에서 각 나라 정부들이 이 방안에 어떤 비중을 두고 참여했는지는, 1971년 한 해 동안 최소 40만 명의 성인들이 문해교육에 참가했고 8,000명 이상의 문해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61) “삶은 교육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와 직면하게 하고, 지금까지 교육학이 해결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내놓고 있다. (중략) 학교는 어떻게 과학을, 또 삶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과학과 삶이라는 두 개의 불규칙하고 고르지 않은 과정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한편에는 과학적 정보의 홍수, 더욱 격화되는 현대 지식의 분화와 통합,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과학과 기술과 예술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교과서 테두리 안과 시간의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한정된 학교교육의 과정이 있다. 이는 마치 발전하는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까지 확장될 수 없는 것처럼 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불일치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이 불일치가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며, 반대로 그 경향은 훨씬 더 첨예해질 것이 분명하다.”(P. Korovlev, *Soviet Schools: Their Present and Future.*)

제6장

목적

모든 교육 행위는 목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다. 이 목적은 근본적으로 사회가 깔아놓은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가 따르는 패턴이다. 주어진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현실은 각국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교육의 현재 목적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형태의 조건을 형성한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또한 그 공동체의 전체 목표와 아울러,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적 행위와 주관적 선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¹⁾ 교육에 궁극적 목적을 제시한다는 것은 단지 이러저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부여된 기능이 그것을 초월하는 전체 목적과의 필연적 관련성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²⁾

일련의 결정요인들을 단순히 기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사회 형태와 기제들이 실제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뒤처지기 마련인 것처럼, 오랫동안 교육은 전 시대의 구태의연한 사회적 상태를 재생산해 왔다. 반대로 교육이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진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상황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육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말할 때, 그 뜻은 교육이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교육, 혹은 학교나 교육 시스템을 오로지 지배적인 사회 세력의, 국가의, 혹은 현 정권의 표현으로만 보려고 하면서, 보완적이거나 독립적이거나 대항적인 여러 사회 요인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교육의 세계, 특히 학교는 끊임없는 논쟁과 쟁송의 장이며 그 모든 것이 교육의 목적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건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요인만이 교육 목표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개인(현재와 훗날의 학습자), 교사, 학부모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결정되거나 조정되는 방식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교육학적 사상, 철학, 교육의 이론과 과학 및 일반 이데올로기들은 각각의 특별한 강조점과 효과를 통해 교육 목적을 특정적으로 명시하게 한다.

사회, 역사적 단계,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이 다양한 만큼,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다양한 미래만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몇 가지 공통된 지향성은 존재한다.

1. 과학적 인본주의(Scientific Humanism)를 향하여

새로운 교육적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과학적 인본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과학적 사고와 언어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 인본주의가 인간에 대한 선입견이나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생각들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진정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과학적 인본주의가 가정하는 인간형은 하나의 구체적 존재, 즉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역사적 맥락 안에 놓인 존재다. 그런 인간은 객관적 지식에 의존하지만, 그 지식은 본질적이고 단호하게 인간 자신의 행동에 이끌리는 지식이며, 또한 우선적으로 인간 자신에 봉사하는 지식이다.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는 지식은 계속 변해왔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과학에 깊이 몰든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는 자동화 공장 노동자나 핵물리학 실험실의 기술자만큼이나 녹색 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도의 농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대 문명에서 인간은 단지 약간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은 과학적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로 그 정도만큼 자신이 속한 우주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사람에게도 과학적 사고와 언어를 능숙히 다루는 일은 그 외의 다른 사고 및 표현 수단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성의 법칙

교육적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과학이 인격의 모든 부분을 훈련하고 그 요구들을 충족하는 데 결정적 요인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은 ‘학습의 단위 비트’들의 집적체가 아니며, 전통적인 태도와 행동을 고집하는 인간을 묶어둬야 할 지적 도구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이 갖는 객관성은 결정적 가치를 갖는다. 객관성은 주관성을 압도할 수 있는데, 사실 주관성은 설 자리가 없는 영역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영역에서는 스스로 번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관계는 공동으로 진리를 추구할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현실과 사실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성의 옷을 걸친 감정들 간의 충돌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식이 일상성과 관성에 대항하는, 기존의 생각과 범주에 대항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상의 복잡성과 모호성에 대항하는 모든 종류의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쟁취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식³⁾이 새로운 탐구의 출발점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획득한 진리의 일부 속에 여러 세대에 걸친 노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것을 판별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적 정신에 대한 이러한 공리들은 두 가지, 즉 교조주의적 마음과 형이상학적인 마음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한다.

상대성과 변증법적 사고

개인이 자신의 관점에서든 공동체의 관점에서든, 존재하는 다양한 순간들의 상대성과 상호의존성을 파악하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변증법적 사고는 이런 방식의 현실 이해에 기본적 수단이 되는데, 이는 시간 및 운동을 사고의 개념과 작용 속에 끌어오기 때문이다. 상대성과 변증법적 사고는 관용의 씨앗을 육성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다. 관용은 악의와 잔인성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념, 확신, 이데올로기, 세계관, 행동, 관습 등을 모든 시대, 모든 문명, 모든 삶의 방식에서 유효한 규칙 혹은 모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과학 정신의 훈련

끝없는 과학의 진화로 인해 전통적인 교수법은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더 많은 과학적 사실들로 머리를 채우고 교육과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지식 폭발을 흡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과학은 단지 학문적 훈련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과학 수업은 현실의 문제나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 방안을 찾는 실용적인 탐구에 기반해야 한다.

극히 다양하고 강력한 이런 이유들로부터, 즉 현재 노동으로부터 오는 요구와 현실을 통제하려는 요구를 비롯해 자기관리, 과학적 방법 및 윤리적 훈련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친 이유들로부터, 과학과 과학 정신의 훈련은 오늘날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도 중대한 목적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창조성을 위하여

안정과 모험

인간은 본성상 안정과 모험이라는 두 가지 열망 사이에서 있는 듯하다. 안정을 위해 사람은 피난처를 구한다. 모험을 위해 사람은 모든 형태의 위험을 맛보고 받아들인다. 일생일대의 대단한 경험을 마주하는 일에는 잘못되거나 제 길에서 벗어나는 위험도 있다. 안정과 모험에는 각각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높은 값을 치러야 한다. 창조적이기 위해 인간의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안정의 대가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훈육 정도다. 하지만 창조성이 인간 본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발명과 발견의 길 역시 자유롭게 받아들인 훈육의 과정과, 선택된 모델들의 모방 과정, 또 모순된 모델들에 반대하는 과정을 따른다. 훈육의 역할을 부인하고 모든 규칙을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결국에는 발명적 능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훈육과 규칙들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각자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의 탐색

이 창조적이며 비순응주의적인 탐구 정신은 특히 여러 나라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난다. 청년들은(비록 모두가 그런 것도, 모두가 같은 방식인 것도, 심지어는 언제나 청년들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윤리적 가치에 저항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성세대가 그 윤리적 가치를 어기고 있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들을 초대하는 대화가 주로 기존 사회의 자기보존 본능이나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지, 새로운 진실을 추구하려는 의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젊은이들의 불안감은 주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심층적인 변동과, 여러 제도가 그 변동에 적응하면서 보여주는 태도 — 고르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 그런 태도 — 들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문화적 형태의 하나로, 또 정치적 사실로 일어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단결된 자기충족적인 집단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는 마침내 ‘침묵의 문화’와 압제로부터 떨쳐 일어나, 모든 사회-경제적이고 지적인 지배의 기제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청년들의 삶에 대한 진실을 진심으로 다루지 않고는 피상적인 측면만을 이용하기 쉽다.

청년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의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어떤 장기적 교육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

사고와 행동

교육은 인간 의식의 모든 창조적 잠재력을 해방하도록 더욱 요청받고 있다. 오늘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적 실천(praxis)의 양대 요소인 행동과 사고가 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인간과 우주에 대한 왜곡된 관점, 무지, 폭력과 이를 야기하는 집단적 정신이상, 무력감, 지배로 인한 고통과 억압, 자유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행동과 비판적 사고가 서로를 파괴하는 형국이 되었다.

인간은 창조 안에서, 또한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완성한다. 인간의 창조적 능력은 문화에 가장 민감하고, 인간의 성취를 번창시키고 이를 넘어서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며, 또한 억압과 좌절에는 가장 취약하다.

교육은 창조성을 함양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는 이중적 힘을 지녔다. 이렇듯 교육 분야 과업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현대 심리교육학 연구의 가장 풍요로운 지적 성취 중 하나다. 교육 분야의 과업은 개인이 현실 생활에 잘 자리잡을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각각의 고유성과 창조적 재능을 보존하는 것, 각자가 기성의 모델들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면서 문화를 전수하는 것,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키우지 않고도 재능과 적성, 개인적 표현 형식을 잘 발휘하도록 고무하는 것, 그리고 창조가 집단적인 활동이란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도 개인의 특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적 책임을 향하여

교육은 언제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시적으로든 은밀하게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준비시키고 적절하게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모든 사회-정치적 체제는 사회의 원리, 관념, 공동 참조체계, 그리고 이를 넘어서 국가를 결속시켜 주는 신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체제 기반을 공고화하려고 한다.

학교는 단결을 위한 활동에 힘써 노력한다. 교육은 아동을 일관된 도덕적, 지적, 정서적 세계로 이끌어 주고, 과거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동시에 교육은 사고와 정보의 기본적인 저장소이자 공동의 유산이며, 이질적인 사회나 국가 공동체일수록 이는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성인교육 활동에서는 (공교육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결의 효과가 더 작기는 하다. 하지만 성인교육 활동도 시민 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한다.

정치 교육

그런데 정치학은 교육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민주주의가 정치 교육에서 적절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정치학에 대한 교육을 하는 대신 정치 교육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교화를 권력의 본질과 구성 요소에 대한, 제도 안에서 제도를 통해 행사되는 힘에 대한, 폭넓고 자유로운 성찰에 대한 준비와 혼동하고 있다. 정치 의식의 각성과 민주적 덕성의 발달은 고분고분하고 획일화된 시민의 훈련이란 생각으로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정치적 개념을 심어주는 데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갈 세계의 구조를 인식하고 삶의 진정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훈련 받음으로써, 암호처럼 알 수 없는 세계를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걸어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천

정치 교육에서 본질적인 것은 교육 행동이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권력 행사에 연계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인은 사회 구조의 기능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는 투쟁에 개인적 사명감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사회적 차원에서 완전히 실현한다.

학교의 정치학

한 나라가 그 어떤 규칙과 형식, 관습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든 간에, 민주적 생활에는 반드시 견해들 사이의 논쟁과 의견 대립이 전제된다. 사람들은 논쟁의 원칙이 학교 밖 기관에서 실행되거나 교수 및 다른 활동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토론이 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흔히 두려워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고백하듯 학교가 폴리스(Polis), 즉 도시의 구성체이며 이 둘의 관계가 최대한 긴밀해야 한다는 말을 (원칙적으로도 실제로도) 부정하거나 그에 맞서는 것이 된다.

참여

교육은 수업과 실천, 책임을 통해 우리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과업에 기여해야 한다. 이 과업은 기계적·행정적 권위의 형태를 생동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최대한의 사람들이 최고의 책임감을 행사하며 참여하는 것은 집단의 효율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개인적 행복을 위한, 사회와 일에 대한 일상적 권력 행사를 위한, 그리고 운명에 자유롭게 영향을 미치는 길을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시민의 임무는 더는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수준과 생의 모든 단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정치적·공민적 목적을 지향하는 일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악용하거나, 교조적으로 협소하게 이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 사업이 가지는 본질적 구성요소다.

경제 교육

마찬가지로 발전 역시 노동 인력의 기술자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은 의식이 있는 소비자이고 각성된 발전의 행위자가 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인들은 법률에 대해,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 및 기업체들의 경제 활동 기제와 복잡한 활동에 대해 기초 지식을 갖춰야 한다. 사람들은 이들의 내재적 갈등과 내부적·외부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제적 계층이 이용하는 수단이 사회적 산물과 생산성, 투자의 선택, 계획수립 과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경제학은 더는 전문가와 경제학 분야 입문자들의 사적 전유물이 아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지식은 지금 계속교육이 적용되는 분야가 되었으며, 학교만이 여기에 포함되는 유일한 교육기관은 아니다. 노동조합, 직업별 협회, 정당,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근로자협회 등이 모두 참여한다. 이는 또한 신문사, 광고회사,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교육 활동에도 속한다.

경제 교육은 모든 사람의 의식과 문화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돼야 하며, 학교에서 시작되어 모든 학교 밖 매개체들을 통해 지속돼야 한다.

국제 교육

민주주의의 발전은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는 관용과 우정, 국가 간 협력을 고무한다. 이는 진부한 말이지만 복잡다단한 정치와 외교의 움직임 속에서, 관계자들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그들이 평화에 대해 현실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견해를 가질 때 더욱 그렇다.⁴⁾ 정부 당국자들은 다수의 시민이나 강력하고 적극적인 소수자들을 쉽사리 자신들이 기획한 위험한 방안 속으로 몰아넣지는 못한다. 반면에 대중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관심사에 대해 속아 넘어가서 잘 변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갖지 못할 때 이들을 쉽게 다룬다.

교육 활동 중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평화롭게 살도록 돕도록 기획한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을 불행한 고립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모든 것은 사람 간 조화를 추구하도록 돕는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파괴적 욕망은 좌절, 실패, 그리고 열등감의 여러 감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으로 좌절된 사람은 국수주의에 도취되고, 지역주의 문화 뒤에 숨으며, 그 자신의 제한된 반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개념, 가치 등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좌절된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동료 시민들의 지지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려 들고, 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확신시키려고 한다.

교육 활동은 그러한 자기패배적 태도를 없애야 하고, 개인의 완전한 발달과 인격의 통합성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논리적으로 더욱 확장할 때, 모든 인간 존재 속에서 모두를 위하고 모든 곳을 위하는 평화에 대한 깊은 열망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과 정복을 위한 전쟁을 거부하고 이웃의 독립성을 존중할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사명 중 하나는 이방인을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로, 각각의 이유와 고난과 기쁨을 가진 존재로 보도록 돕는 것이며, 다양한 국가들 속에서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4. 완전한 인간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인간을(A new man for a new world)! 혹은 무시간적 존재(timeless Being)라는 견해를 중시하면서, 이 표어가 ‘인간(man)’이란 용어를 오용한 것이라고 항의할 수도 있다. 이들은 미래의 ‘신인류(cynerbopoid)’도 과거 유인원들과 똑같은 본능과 동기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미래 인류의 근심, 절망, 유한한 조건, 살고 사랑하고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요구, 간단히 말해 인간적 조건은 언제나 동일할 것이기에, 새로운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 주장할 것이다.

인간의 힘

지금 출현하는 인간은 그 가능성의 한계가 무한에 이를 정도로 발전된 지식과 행동 수단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인간은 과학적 법칙에 대한 지식 덕분에 자연의 과정을 통제하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⁵⁾

인간 자신의 힘에 대한 지식은 의식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뻗어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밝히려는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두뇌의 매커니즘에 대한, 또 인간 행동의 의식적·무의식적 근원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과거의 인간은 무지와 무능이라는 저주 속에서, 외부의 영향에 대해 (그것이 자연에서 오든,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반에서 오든) 체념이나 신경증적 반응으로 대응했다. 오늘날의 새로운 인간은 세계를 파악하고, 알며, 이해한다.⁶⁾ 또한 인간은 지성적으로 자신의 관심에 따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기법들을 갖게 되었다. 끝으로 인간은 물품과 기술적 구조들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운명의 잠재적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잠재적일 뿐인 이유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폭력과 독재의 희생자로 만드는 조건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 속에 항구적인 특징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통스러운 대립을 거부하는 것, 과도한 긴장을 견디지 못하는 것, 자신의 지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 행복 — 기계적인 식욕의 만족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잠재력의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즉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 을 추구하는 것이다.

분열된 인간

그러한 인간의 완성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확실히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모든 측면에서 분열, 긴장, 불일치에 노출돼 있다. 정의와 조화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사회 구조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계층에 따른 사회의 분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파편화된 노동

의 성격,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의 인위적 대립, 이데올로기의 위기, 신화의 붕괴,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이분법 등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인격의 분해를 야기하는 듯하다.

교육이 청소년에게 기능하고 전달되는 방식, 청년에게 제공되는 훈련,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량 정보는 모두 인격의 와해를 조장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일부일 뿐인 지적 인지 부문은 훈련을 목적으로 제멋대로 조각내 다루는 반면, 인간의 다른 차원들은 잊혀지거나 간과되었으며 원초적인 형태로 축소되거나 무질서한 상태로 개발 없이 남아 있다. 과학적 연구와 고도의 전문화라는 요구를 가정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형성은 훼손됐다.⁷⁾ 고도로 세분화된 작업을 훈련함으로써 기술적 소질 향상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됐고, 보다 인간적인 다른 자질은 경시됐다.

완전한 인간의 차원들

이는 지식, 연구, 표현의 도구를 습득하는 것이 모두 인간의 발달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호기심은 인간 활동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에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경험과 정보를 분류하고, 토론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체계적인 의구심을 갖도록 자신의 기능을 훈련하고, 읽기라는 끝나지 않는 연습을 하고, 과학적 정신과 시적 감수성을 결합시킨 방식⁸⁾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능력 등이 있다.

각 개인이 자신과 동료 모두를 위해서 발전하도록 하려면 교육에서, 특히 학교에서 인격의 여러 측면을 존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복합적인 태도는 모든 인격적 구성 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개인의 교육 과정에서 적절히 자극되고 형성되어야 한다.⁹⁾

한 가지 특별한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자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고 공통의 과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또한 인간과학의 발견들로부터 강화된 내용을 통해, 무지 혹은 불충분하고 보잘것 없었던 초기교육에서 온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정신적 장애들을 제거할 책임도 있다.

개인의 표현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영역은 심미적 활동이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자신의 인격에 통합하는 것은 미적 활동의 실천 및 경험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문화적 가치에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중이 만족스럽게 통합되고 있다. 인간의 육체를 새롭게 인정하며, 이를 생명력과 신체적 조화의 주요 원천이자 미적 즐거움, 자신감, 자신의 표현이자 감정적 경험으로서 존중하고 있다. 육체에 대해, 그리고 육체의 힘과 특성에 대해 잘 다루려면 지식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성교육과 신체 및 신체의 기술과 능력 강화, 그리고 근육과 신경의 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각의 발달과 위생 및 식습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자극에서 기인하는 타락과 자기 파괴적 성향에 대한 대처는 모든 교육전문가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개인이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윤리적 통합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에 대한 확대된 정의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학적 이상을 모든 역사에 걸쳐, 거의 모든 나라와 철학자와 도덕적 사상가 속에서, 그리고 교육 이론가와 비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은 모든 시대의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근본적 주제의 하나였다. 비록 그동안 불완전하게 적용되어 왔을 수도 있지만, 이 이상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결실을 맺어 왔고 영감을 주었다.

추상적 인간과 구체적 인간

교육이 고려하는 인간은 대체적으로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동일한 보편적 인간이다. 하지만 특정한 교육 과정이 상정하는 개인은 대단히 구체적인 존재며,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동안에 인간 본질의 두 측면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진실할수록 인간의 자연법과 자신의 소명을 더욱 긴밀하게 따르게 되고, 인류 전체의 공동사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사고, 존재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습자는 실로 대단히 구체적인 존재다. 각 학습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기 자신의 역사를 갖고 있다. 각자의 인격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복합적인 생물학적, 생리학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전문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개인마다 다르다. 어떻게 우리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내용, 방법을 결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아동은 문화적 유산을 지녔고 특수한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가족적 배경이나 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¹⁰⁾ 그리고 계속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은 생산자, 소비자, 시민, 부모로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인간이다.

이러한 근거를 인정한다면 교육 실천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의 기제와 정신에서는 개인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관료화된 중앙집중적 행정 구조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물로 다루어진다. 교육 운영의 개혁과 교육 절차의 조정,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활동 없이는, 우리는 실제적 차원에서 여러 요구를 가진 구체적 인간, 즉 살아있는 인간의 사명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이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미완성의 인간

오늘날의 과학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미완성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인간은 결코 어른이 되지 않으며, 인간의 존재는 끝없는 완성과 배움의 과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인간의 불완전성이며, 인간은 본성과 본능으로서 주어지지 않은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신의 주변에서 끌어와야 한다. 인간은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오늘날의 한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¹¹⁾ 인간은 ‘미숙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한 묶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데, 이 잠재력은 개인이 살아가게 되는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유실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교육받아야 한다. 사실 인간은 ‘생(生)으로 진입하기를’,

즉 인간의 형태로 태어나기를 결코 멈출 수 없다.¹²⁾ 이것이 평생교육을 옹호하게 되는 주요한 논점이다.

(물론 관련된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 경험과 기존의 자원, 그리고 잠재적인 자원들을 통해 인간이 발전과 변화의 행위자로서, 민주주의의 촉진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기 완성의 저자로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상을 향해 현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간이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그 목적을 표현하는 언어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무엇이 그 실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누가 그것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목적은 반드시 특수하면서도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 목적이란 역사와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회 형태 및 경제적·정치적 체제와 환경에 좌우되는 만큼,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도출되어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를 관통하는 일반적 성격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교육은 하나의 보편적 차원의 거대하고 광범위한 계획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마치 오늘날 인류의 위대한 이상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그렇듯 명백한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목적을 과학적 인본주의, 이성의 발전, 창조성, 사회적 책임 정신, 인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적·윤리적·정서적·신체적 요소들의 균형 추구,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 목적이 폭넓은 합의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을 규정할 때 정치적 선택, 교육학적·과학 기술적 성취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더라도, 이를 그저 정치인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과학자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공동의 기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전문가만 필요한 것

이 아니라 해당 관계자들인 학습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종류의 선택과 합의의 결과에 달려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이 과거를 향할지 아니면 미래를 향할지, 고착화될지 아니면 발전을 지향할지, 변화에 저항하며 잘못된 안전성을 추구할지 아니면 진보에 참여하며 진정한 안전성을 발견해 나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석

- 1) “교육의 목적은 우주적 원리에서 추론될 수 없고, 플라톤의 이상 세계에 영원히 놓인 절대적 가치의 체계로 설정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은 형이상학적 고찰과 무관하지 않다. 분명히 도덕 철학과 가치론의 요소들을 밀접히 포괄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철학 이론에서 교육의 목적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진정으로 생명력 있고 원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만일 ▲개인적·사회적 경험 ▲개인의 요구, 흥미, 열망 ▲사회의 실패, 성공, 목적 ▲개인적·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가치 및 이 가치에 대한 비판 ▲이론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말이다.”(Sterling M. McMurrin, ‘Innovation and the Purposes of Education,’ *The Schools and the Challenge of Innovation*, New York, N.Y., McGraw-Hill, 1969.)
- 2) “목적(aims)과 목표(objectives)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목표는 측정할 수 있지만 목적은 측정할 수 없다. 궁극적 목적은 철학적 생명력(élan)이며, 우리 행동의 초월적 정수다. 자유로운 인간, 창조적 정신을 훈련하는 것, 인간이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표는 개인들로부터 독립적이다.”(A. Biancheri, op. cit.)
- 3) 종교적 성격을 가진 계시의 문제는 주로 시간 밖에 놓여 있고, 비판적 연구를 넘어서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4) “(중략) 평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정확한 개념을 위장하거나 왜곡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이비 개념은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평화는 정적인 삶의 상태가 아니며, 그러한 평화에서는 평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의 죽음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움직임이고 성장이고 일이고 노력이고 극복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는 평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실일까? 그렇다. 평화는 이 세상의 나그네인 인간이 가진 최고의 선과 일치하며, 그 선은 결코 완전히 정복되지 않으며, 완성도 없이 늘 새롭게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최고의 역동성 뒤에 있는, 핵심적인 추진력이다.”
 “그러나 권력과 일치하는 평화가 없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를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주어진 집단(가족, 학교, 사업체, 지역사회, 사회 계급, 도시, 국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관심과 책무를 갖고 있다. 지도자들은 평화의 외양을 띠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시스템에 강제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직면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 때 살아있는 공동체의 곤란함은 고통과 부패한 마음으로 변질돼 버린다.”(1972년 1월, 교황 바오로 6세의 평화의 날 축하 메시지)

- 5) “인간의 역할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구의 진화 과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그 임무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그 과정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것이다.(줄리언 헉슬리 경(Sir Julian Huxley))
- 6) “이 세계에 관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 7) 한 저명한 학자는 대학의 편협한 전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약 전문가들이 충분히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면, 필요할 때 새로운 과정을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새로운 과학 분야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현재 과학 발전에서 사실상 전반적인 특징이 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전문화 추구 경향을 반대해야 한다.”(표트르 레오니도비치 카피차(Dr.Pyotr Leonidovitch Kapitsa))
- 8) 레닌(Lenin)은 과학과 예술에 모두 필요한 상상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상상력)은 극히 귀중한 능력이다. 오직 시인에게만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며 어리석은 선입견이다. 상상력은 심지어 수학에서도 필요하다. 상상력 없이는 미분학이나 적분학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V. I. Lenin, *Complete Works*, Vol. 45, 5th ed.)
- 9) 동일한 한 명의 인간 속에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 여러 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호모 파베르(Homo Faber, 공작인)’는 항상 구체화를 추구하지만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추상화를 추구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는 목표 없이 과정을 즐긴다. ‘호모 폴리틱우스(Homo Politicus, 정치하는 인간)’는 (자신과 사회를 위해) 자유를 추구하며 한계를 향해 돌진하지만 ‘호모 렐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종교적 인간)’는 결정론을 믿고 운명에 순응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루덴스’는 미지의 추상적인 것을 향해 손을 뻗지만 ‘호모 파베르’와 ‘호모 렐리기오수스’는 미지의 것과 추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알려진 것,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하다고 느낀다.”(Erika Landau, *Toward a New Technology of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Future Research Conference, Kyoto, Japan, 1970.)
- 10) “어린이들은 다르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르다. (중략) 어린이들은 매우 고집이 세고, 확실히 자라는 것을 거부한다.”(John Goodlad, ‘Meeting Children Where They Are,’ *Saturday Review*, 1965.3.)

- 11) Georges Lapassade, *L'Entrée dans la Vie*, Paris, Éditions de Minuit, 1963 (essay on man's unfinished state).
- 12) “개인의 한 평생은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는 과정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 비로소 완전히 태어난다.”(E. Fromm, *Le Drame Fondamental de l'Homme: Naitre à l'Humain.*)

학습사회: 오늘과 내일¹⁾

보통의 인간은 성공하도록 만들어졌고,
우주는 그 성공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

교육 활동은 처음에는 산발적이고, 단편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러 시대와 무한한 역사적 명암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왔다.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 오면서 견고한 구조와 보편적 사명을 띤 중앙집중화된 학교 체제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학교 구조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을 시점에는 더욱 많은 학교 밖 활동과 교육기관이 출현하고 재출현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형식교육 기관들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지 못했다. 형식교육 기관들이 이들을 포괄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엄격했던 탓이었다. 이때 의식이 깨어있던 사람들이 학교 안과 학교 밖 체제를 서로 결합 시킴으로써 부조화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천이 아니라 이론 수준의 전쟁터에서 막 승리하는 듯이 보였을 때, 또 다른 지평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현실과 잠재력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아직 미래를 말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미 교육은 단지 체계화된 교육구조 —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다양화함으로써 교육을 분류하거나 합산하는 등이 용이한 교육 시스템 — 라는 건축물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순전히 시스템적인 차원만을 말하기보다, 이를 넘어선 새로운 방안이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리 결정된 구조와 요구, 사고에 따른 몇 가지 방안을 통해 내일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젊은이들을 주어진 삶의 방식에 끼워 맞추도록 한꺼번에 준비시키는 과거 방식에 교육이 발목잡혀 있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교육은 더는 엘리트의 특권도 아니고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도 아니다. 교육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전 사회와 개인 생애의 전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면서도 보다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해, 교육 체제를 비-체제(non-system)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에 대해 전례 없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탈시스템(un-system)이다.”

교육은 수 세기 동안 전통에 묶여 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조금씩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면서 교육은 그 진정한 영역, 즉 모든 인간이 모든 차원에서 포괄되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너무 광대하고 복잡해서 어떤 ‘체제’, 말 그대로 정적이고 진화하지 않는 체제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이 영역에서는 가르치는 행위가 배우는 행위에 자리를 내준다. 가르침 받기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개인은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더욱 주체가 되어간다. 개인은 교육을 그의 보호자나 권력 있는 자가 건네주는 선물이나 사회 서비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지식과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교육에 동화되며, 그렇게 획득된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미래의 학교는 반드시 교육의 대상을 스스로 교육하는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받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자를 교육하는 환경은 이제 주체를 교육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이 근본적인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질 과학기술혁명을 앞두고 교육이 직면할 최고의 난제가 될 것이다.”

교육은 비록 가장 최근의 과학적 자료에서 얻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기반하지만, 더는 학습자나 특정 개인, 특정한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반드시 학습자로부터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강조되는 것은 수업과 학습의 ‘학습과정(mathetic)’ 원리이지 전통적인 교육학적 원리가 아니다.”

사회는 어떤 영역이든 그 기관이 얼마나 방대하든 간에, 단 하나의 기관을 통해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실현할 수는 없다. 교육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할 원초적인 요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학교와 대학교를 더 많이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이 이들을 초월하여 사회 전체 차원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는 그 자체로 역할이 있고, 그 점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한 사회 내에서의 교육 기능이 일종의 특권적 영역으로 구획지어져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모든 영역, 즉 공공행정, 산업, 언론과 통신, 교통 등 모든 영역들이 교육 활성화에 참여해야 한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가 말했듯, “도시는 가장 좋은 교사다.” 그리고 특히 인구비중에 있어서 그러한 도시가 적절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다면 도시는 사회·행정적 구조와 문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로 대단한 교육적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교류의 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식과 동료애를 위한 학교가 되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 교육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인생의 특정 시기에 수행되는 분리된 활동이 아니었다. 교육은 곧 사회의 목적이었다. 도시가 사람들을 교육했다. 아테네 시민은 문화에 의해, 파이데이아(paideia, *역자 주: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대중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교양)에 의해 교육되었다. 물론 이는 노예가 있어서 가능했다. (중략) 아테네의 운 좋은 소수 사람들을 위해 노예가 수행했던 일을 오늘날에는 기계들이 모든 현대인을 위해 수행할 수 있다.”

확실히 기계들이 사회적 여건에 맞게 도입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교육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러한 비전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모든 교육기관은 사람들의 새로운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해야 한다. 달리 말해 새로운 형태의 기관들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지식 획득의 간접적인 방식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어야 하며, 이들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필요와 수요로 인해 기존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선택과 과정의 흐름을, 그리고 진입 지점과 출구 및 전환 지점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 민주화를 향한 강력한 추동력의 첫째 단계다. 각 사회는 성공적으로 구조들을 통합하고 변형시키며 인간의 ‘존재할 권리(right to be)’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각 사회는 물질적 부를 창조해 인간의 ‘더 가질 권리(right to have more)’의 필요에도 부응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하던 사회의 근본적인 목표였다. 이제는 각 사회가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완성을 위한 학습(learning of fulfilment)’, 즉 인류의 교육으로 설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

“사회 내의 별도 기구로 구성된 단일하고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구조에 교육적 힘을 위임하는 대신, 이제 모든 집단과 협의체, 노동조합, 지역사회 및 중개 기관이 그들의 교육적 책임을 나눠 맡아야 한다. (중략) 지금까지 아주 자명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그 의미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삶을 적극적 삶과 수동적 삶으로 나누던 고정관념, 혹은 오늘날의 공공 및 국가 당국의 법령 개념들도 그렇다. 지금부터는 전문적으로 임용된 교사가 아닌 사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나 직위의 수직적 분할 방식이 사라져 간다는 것도 그런 예다. 또한 여러 경계의 구분, 즉 학교 영토와 유사학교 기구들을 구분하는 경계, 국립과 사립 교육 사업의 경계, 정식으로 임용된 공교육 교사와 계약직 교수직이나 특수하게 혹은 때에 따라 교육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는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시스템 변화 너머로 일종의 근본적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사회와 교육의 본질적 관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교육에 이렇게 새로운 위치와 지위를 부여한 사회의 유형에는 마땅히 그에 적합한 명칭이 붙여질 자격이 있다. 바로 학습사회이다. 학습사회는 교육과 사회·정치·경제적

가닥들이 밀접하게 짜여가는 과정에서만 출현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가족 단위나 시민의 삶도 포함된다. 학습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훈련하며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규정됐던 교육과 자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게 된다. 이제는 교육의 의무 대신 학습의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교육은 사회의 모든 부문이 구조적으로 통합되고 조율된 단일체를 형성해야 한다. 미래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며 생애 전반에서 지속될 것이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총체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별화되고 자기주도적이 될 것이다. 교육은 직업적 활동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굳건한 보루이자 미래를 향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항할 수도 없고 뒤바꿀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혁명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비전일까? 그렇다. 인간 운명의 근본 조건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수단이 이용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유토피아적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기도 하다. 이러한 전망은 오늘날 세계의 근본적인 교육 요구와 주요한 진화의 방향을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망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도 서로 조응하며, 설령 사회-경제적 구조와 경제 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든 원대한 비전들은 초기에는 늘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받아 왔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유토피아적 전망 없이 좋은 전략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리 역설적인 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결단력 있고 현명한 행동을 원한다면 우리는 보다 멀리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극단적으로, 우리는 좀 더 과감히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철학자가 그의 사고에서 유토피아적 차원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교육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철학자가 그 차원을 더 잘 인식할수록 교육의 해방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개념이라도 실행과정에서 어려움과 자원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극적인 방안들이 종종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전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규율, 절제, 단일성 등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창조성을 스스로 수용한 규율과 연계하는 것, 빈곤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행복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 등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도덕성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교육 개혁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전통주의자들로부터, 혹은 유토피아주의자라고 불리는 미래 전망자들로부터 여러 다양한 저항이 닥쳐 올 것이다. 내부에서는 교육적 구조 측면에서, 외부에서는 정치적인 반동 차원에서 이런저런 저항이 올 것이다. 아동의 심리적 기제의 취약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두려움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실제 개혁 과정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필요한 공포심 때문이라도 저항은 올 것이다. 학습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올라, 완전한 형태와 장비를 갖추고, 낭랑한 문구로 올려퍼질 것을 기대하며 학습사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는 기껏 거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전쟁터에 걸린 현수막의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객관적 조건을 창조하며, 요청되는 노력과 상상력, 과감한 발상 및 행동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중략) 첫걸음은 정치가들이 이를 중요한 의제이자 총체적인 문제로, 혹은 일종의 철학적인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시작할 것인가?”

정말로 그렇다!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이는 각국과 정부들이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답해야 한다. 우리는 두 번째 질문, 즉 ‘어떻게’에 대해 다음 장들에서 부분적으로 답해보고자 한다.

각주

- 1) 인용된 구절들은 특히 다음 저자들의 저작에서 가져온 것이다.
R. Buckminster Fuller, René Maheu, George Z F. Bereday, Radovan Richta, Giovanni Gozzer, Robert Hutchins, Edouard Lizop, Henri Janne, Pierre Furter, Anthony Lewis.

제3부

학습사회를 향하여

제7장

교육 전략의 역할과 기능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미래만을 선택하고 원해야 한다.” 아마도 이 말이 이 장에서 다룰 내용들과 잘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교육 발전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폭넓은 비전을 갖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잘 시사해 준다. 미래 교육 발전을 담당할 사람들은 따라가야 할 길을 분별하고 모든 교차로와 대안적인 경로를 잘 지나야 한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가능한 한 명확한 시선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가야 한다.

1. 정책, 전략, 계획수립

용어에 대한 토론은 다소 금기시되지만, 우리의 논의를 위해 교육 계획 작성과 그 실행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일부 용어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모든 교육 당국과 교육 시스템의 이용자에게 엄밀한 용어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다만, 문제의 기본적 측면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선택

정책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형성되고, 책임을 위임 받은 기관이나 개인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초기 단계를 거친다. 모든 교육정책에는 그 안에 국가 차원의 정치적 선택, 전통과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교육정책이 나라의 주권과 관련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다음의 사고과정들을 거친 최종 결과물이다.

- 교육목표가 전반적인 국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 교육목표가 전체적인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책에서 승인된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도록 한다.
- 교육목표가 여러 다른 부문에서 채택된 국가적 활동들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교육정책은 전체적인 지침이 되는 몇 가지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다. 교육정책은 특정한 세부 목표들을 긴밀하게 엮은 하나의 통합된 단일한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는 첫째, 인류의 이념을 반영한 영적·철학적·문화적 본질을 갖는 일반적 목표, 둘째, 국가 공동체의 주요한 선택방안에 상응하는 정치적 목표, 셋째, 사회 발전에 대한 이념과의 관련 속에서 달성해야 할 목적을 설정한 사회·경제적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 넷째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교육 관련 목표로서, 이는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에 배정된 어떤 목표든 달성하도록 하며 교육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 목표를 지향한다. 마지막은 직접적인 차원에서의 교육목표로서, 교육 시스템 내의 여러 형태와 여러 수준의 교육기관 및 교육 행동에 해당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목표다.

일단 목표들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그저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목표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돈되고 전체와의 조율을 거쳐 위치가 설정되어야만 교육정책이라 불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향성

이제 우리는 정책 단계에서 전략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전략의 개념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 일관된 전체 속에 관련 요소들을 조직하는 일
- 계획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일
- 그러한 기회를 맞아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

이를 다시 요약하면 결합 요소, 가능성 요소, 의지 요소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전략의 목적은 정책을 일련의 조건 속에서 의사결정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로써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관련해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 목표를 작업적 용어로 번역하면서 구체적인 달성 목표, 배정될 자원, 의사결정의 기준, 가능성의 범위를 형성해주는 모델들을 명료화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선택한 목표를 향한 예상하는 경로들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만일의 사태와 시간 제약의 요소들을 고려하며 조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목표를 작업적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는 일종의 역추론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최대한 멀리 비추보는 것인데) 전략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전략은 또한 정책입안가들로 하여금 여러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치적 달성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 가능성 또한 내다볼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전략은 연쇄적 작업의 중심고리가 되며,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정책의 세밀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수립의 방법론이 마련된다.

앞서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 말한 것은 교육 전략에도 적용 가능하다.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 교육 전략은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즉, 교육 전략은 모든 형식과 모든 수준의 교육을 포괄해야 한다.
- 교육 전략은 그 외 다른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정책들과 통합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그 안에서 교육은 구성 요소이자 하위 요소가 된다.

- 교육 전략은 충분히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어떤 정치적 선택이 진화하는 데 필요한 보폭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이 계획수립 요건을 충족하려면 구체적이며 또한 역동적이어야 한다. 전략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필연적으로 어떤 고정된 요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또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진화와 혁신의 창조적 과정을 완전히 고려하기 위해서이며, 진화와 혁신을 통해 시작 단계에서 알려진 기본적 정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의 진화는 사회 경제적 요소의 진화와 너무나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육 전략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적 열망과 요구, 가용 자원 전체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방법

계획수립의 목적은 전략적 지시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수준의 의사결정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이를 위해 기술적 선택의 조건을 계량화하기 위한 계산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함께 갖춰지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계획수립은 흔히 생각하듯 단지 바람직한 목표들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정책 수행을 위한 방식과 도구를 결합하는 일이다. 사회 현실은 항상 변하고 분석적 도구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교육계획 수립을(지금까지는 거의 항상 학교 체제의 계획수립과 동의어였지만) 일종의 특권적이거나 도구적인 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구성 요소들을 조율하고,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행동의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특권적이고, 심지어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계획수립의 역할은 이제 학교교육을 넘어 전체 교육 사업을 다룰 정도까지 커졌고, 더는 독재적일 수도,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전체주의적 계획수립과 혼동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모두 조화로운 방식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그리고 그 본질이나 발전 정도, 중심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교육 시스템이 진보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다. 전체를 포괄하는 체제일수록 이는 더욱 잘 들어맞는 말이 될 것이다. 사실 모든 단계가 적절히 구조화되는 일은 드물다. 정책은 결정 단계에서 끝나며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이를 실행에 옮길 방식이나 수단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부족할 수도 있다. 불일치는 다른 단계에서보다는 전략적 수준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전략을 이전 단계인 정책 단계, 혹은 다음 단계인 계획수립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사전검토 없이 계획수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책, 전략 및 계획수립과 같은 개념을 교육에 방법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은 오랜 기간의 발전을 통해 서서히 확립된 것이다.

정책 단계에서 전략으로, 전략에서 계획수립 단계로 나아가면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보장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그간 고수하지 못했던 것은 순전히 교육의 책임이다. 교육이 그동안 너무 자주 우연에 기대왔고, 맹목적으로 따라왔으며, 무정부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온 탓이다.

2. 교육 전략의 특징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교육 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나아가 보자.

양적 확대

1960년대에 실시된 국가교육전략을 검토해 보면, 특히 학교 취학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전이 거의 없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핵심 원칙이 주로 교육 시스템 참가자 수의 선형적 확대¹⁾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추정으로는 교육처럼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활동 분야에 대해 타당성 있는 발전 예측을 하기 어렵다.

이 낡은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흐름에서 나타날 발전 가능성과, 학교 시스템의 또 다른 요소들인 교직원, 장비, 건물, 교실 등의 확장 잠재력을 직접적 함수관계로 보면서 교육적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측에 기초하여 교육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같은 계량적 방법의 사용은 단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발전을 이루는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만 타당하다. 하지만 특정 수의 아동을 교육하도록 조직된 시스템에 더 많은 아동들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 방식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비판하는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양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현황보고서에서 분명히 파악되는 것은 세계적 지표의 측면에서 ‘성장’으로 파악되고 표현된 것 안에는 몇 가지 결함과 불균형의 지점, 심지어는 악화된 측면도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교육 시스템의 양적 성장이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막대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고비용의 학교 모델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²⁾

선형적 확대 전략은 결과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교육 시스템이 엄청난 수의 아동을 받아들여려고 할 때 교육 전략은 수정되어야만 하며,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모방과 반복생산에서 혁신의 탐색으로, 그리고 단일한 절차에서 다양한 대안들로 변해가야 한다.

특수성

이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기존 접근법을 완전히 재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각 사회에 적절한 교육 목표, 그 구조와 환경이 발전해 갈 방식, 그리고 훈련 받을 사람들의 유형 등을 명료하게 다시 규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그대로 각각의 특수한 상황,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 생활 방식, 철학, 이념적 목표 등과 긴밀하게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모든 나라가 선택하는 바는 각기 다를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목표들을 설정하기 어려울 테지만, 다른 나라들은 날짜별로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나라들은 사회 전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 그것이 교육정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³⁾

상호관련성

비선형적 전략을 탐색하는 일이 결코 과거 추세를 단순히 끼워 넣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 및 집단의 요구와 열망에 대한 최신의 구체적 분석에 의거해야 한다. 즉, 개인과 집단을 교육하는 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산업적 생산, 농업 생산성 등의 그 외 다른 부문과도 관련시켜 설정된 목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 목표는 다른 요소들, 즉 일과 삶의 조건, 도시 개발, 사회 내 관계, 개인적 열망, 통신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 삶의 표준 및 발전 프로젝트 등과 같은 요소에도 바탕을 두어야 한다.⁴⁾

통합적 교육 목표

따라서 우리는 통합적 교육 목표를 정의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목표를 적절한 위계로 정리하고, 작업적인 용어로 표현하며, 특정한 환경 조건에 적응되도록 하고, 목표를 적용할 인구 집단과 지역사회를 선정하게 된다.

통합적 교육 목표의 개념은(주로 학교 안이나 밖을 포함해서) 여러 교육 부문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종의 생태적 접근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모든 학교 및 학교 밖 체제가 개인이나 집단이 발전해 가는 환경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은 학습사회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만이 아니라 교육학적 방법도 규정한다. 교육에 대한 노력은 환경에 따라 다양해

져야 하며, 각각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해, 특히 인구의 여러 집단의 문화 속에 고유하게 간직된 가치와의 관련 속에서 진정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전반적인 비전

새로운 교육 전략은 기본적으로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및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⁵⁾ 교육 전략에서는 교육을 학교 및 대학교 등의 형식적 틀과 그 교육기관을 뛰어넘는 계획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교육 전략은 한 가지 수단이나 교육기관형태, 혹은 소위 한 가지 ‘체계적’ 구조의 한계에 묶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을 확대하고 그 대안이나 대체 방안을 채택할 때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 속에 이미 교육적인 풍요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그런 교육적 풍요로움은 경제적·행정적 구조 속에도, 대중매체 안에도, 직장과 가정에도 있다. 이런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적용해야 한다. 대안적 교육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맞이하게 될 10년간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

오늘날, 교육 과정(educational process)의 목적과 양식의 ‘총체성’이라는 개념 없이 교육개혁을 찢김찢김 하는 방식은 더 이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 부문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오늘날, 개혁이 부분적이든 전반적이든, 우리는 총체적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이런 저런 관계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교육의 영향이 더욱 멀리 퍼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직관적인 추측이 아닌 적어도 단기적·중기적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는 즉흥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거나 편협한 실용주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위해 명확하게 사고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방법을 발전시키고 개혁할 때, 우리는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기법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 수단과 기법 덕분에 우리는 기존의 교육양식이나 기관, 혹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혁신 전략의 일부로 이와 같은 실천적 대안들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교육 사업에서든지 주요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각주

- 1) 이 맥락에서 ‘선형적 확대’는 교육 시스템의 활동과 능력이 기존의 진화 방식의 연장선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선형적 확대에서는 교육 유형의 구성, 교육 시스템 내부의 수준과 구조, 전문적 교사 인력의 채용,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되는 기술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들이 수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선형적 확대에 포함되는 것은 세계적 지표로 측정되고, 주로 교육 시스템의 과거 추세에서 나온 단순한 추론으로 처리된 학교교육의 여러 수준에서 나타난 양적 성장이다.
- 2) “지난 10년간의 교훈은 10년 전에 세운 일부 가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확대의 첫 번째 역설이지만 유일한 역설은 아니다. 사실 그동안 특정한 교육적 기관, 즉 학교 체제와 대학 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거의 절대적인 우선권이 있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는 사람들의 교육 받을 권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실로 많은 교육부 장관들이 기존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에 압도당함으로써 ‘학교교육부’ 장관이 돼버렸고, 학교 체제에 흡수되지 않은 아동, 청년, 성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야에서 밀어내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 Hennion, UNESCO.)
- 3) “(중략) 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양적·질적 예측의 결과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는 곧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미래들을 그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결정에 따라 사회와 교육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미래를 분석한 결과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Goals and Targets of Educational Policy’, discussion paper submitted to the Conference on Policies for Educational Growth, Paris, OECD, 1970.5.)
- 4) “(중략) 이미 선포된 교육 목표와 실제로 달성한 목표가 서로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새 목표를 도출해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재설정되는 교육 목표는 다른 부문, 즉 농업, 광산자원 개발, 공업, 서비스업 등에 상응하는 목표나 달성 목표들로부터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목표는 특히 고용이나 자영업의 목표에 연계되어 계량화 가능한 달성목표로 한정되어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목표는 그 정의에 있어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더 큰 사회, 즉 국가나 국가를 구성하는 한 지역일 수 있는 더 큰 사회 내에서 개인의 발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 목표에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공동체 및 종족 내의, 그리고 언어 집단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In the Field of Education, What should Determine the Optimum Con-

tribution of UNDP?', p.4, Paris, UNESCO, 1971.11, secretariat document.)

- 5) “많은 교육 문제들은 교육이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보다 큰 사회 체제 맥락 안에서만 성공적으로 이해되고 접근될 수 있다. 그러한 교육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에 국한된 전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폭넓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전략에는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부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W. W. Harman and M. E. Rosenberg, *Methodology of Educational Futurology*, p.15,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44.)

제8장

현 시대의 전략적 요소

이중적 조치

학습사회에서 평생에 걸친 전 사회적 교육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미래의 꿈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자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전 사회적 프로젝트—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육자, 교육학자, 과학자, 정치가 및 학습자들이 이미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로 여긴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내부 개혁과 지속적인 개선
- 혁신적 형태와 대안 모색 및 이를 위한 새로운 자원 발굴

국가적 특징

교육 시스템은 각 국민들의 국가의식과 문화 및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한다. 어떤 나라든 다른 나라와 동일하지 않기에 각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규정도 가지각색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가적 전략 수준에서 확고한 행동이 일어난다.

게다가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언어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각각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직업적 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국가적 전략을 탈중앙화,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상당히 폭넓은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적 영감

우리는 각 나라마다 정치적·전략적 선택을 수행하는 데 고유한 주권이 있음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교육 개혁을 추진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생각과 고려사항, 지향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 간 유사성을 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나라들이 같은 지역에 속하거나 아닐 수도 있지만, 이들은 때때로 아주 유사한 개혁 방안을 적용하고 유사한 해결방안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육 전략은 실질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주권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한 국가 전략에도 국제적 맥락의 아이디어가 도입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풍부한 교육 경험이 담긴 유용한 사례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실천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서로 수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취하는 행동과 진행 과정은 반드시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부처의 결정이나 행정당국의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반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미래 교육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 즉 이용자와 실천가, 촉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전반적인 국가 전략을 발전시키고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혁적인 것이든 혁신적인 것이든 강력한 마음과 의지가 동원돼야 하며, 많은 사람의 단결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변화를 위한 준비를 도운 사람만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 참이라는 점에서 이런 과정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1. 개선과 개혁

현 시대의 교육 시스템은 지금까지 꾸준히 적응하고 향상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부분적 개혁을 달성해 왔다. 이런 개혁이 기존의 교육기관과 교육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는 상당한 수준의 혁신적인 변화로 나아가거나 일정한 변화를 수반했으며, 때로는 그 정도의 변화로 대체되기도 했다.¹⁾

동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개혁을 촉발시킨다.

첫째, 개혁은 교육 시스템이 기능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결함과 부적절함을 고치고자 하는 관심에서 시작되며, 이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개혁에 대한 요구는 문제를 깨닫게 되면서 촉발된다. 결함 대부분은 대체로 ‘성장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그 외의 결함들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 사실상 교육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을 조성하는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불안한 현상은 사실상 교육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역기능이 만들어내는 증상이며, 반드시 파악하고 적절히 분석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다수의 교육자 및 교육 당국자가 공유하면 심각한 자기 비판이 이루어지고 개혁가들이 새로운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체계 내부의 문제가 교육 시스템 개혁과 개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학적 발견과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 실천을 온전하게 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꾸준히 제공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교육 시스템이 타성에 젖고 보수주의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용출되는 자극은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현대화하며 개선하게 만든다. 교육은 살아 있고, 사회적인 움직임이며 선의를 가진 인간들이 거하는 곳이다. 교육은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새로운 발상에 활짝 열려 있다. 그럼으로써 교육은 필연적으로 자기 향상의 욕구에 의해 추동된다.

무한한 범위의 내부 조정 방식

연구자, 교육전문가, 행정가, 그리고 정부가 그간 학교 체제에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싶어하는 크고 작은 개혁 방안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헛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 개혁 방안의 범주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교육을 지역사회의 생활과 요구에 보다 밀착시키려는 욕망에서부터 각 개인의 열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려는 관심에 이르기까지
- 교육기관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결정에서부터 노동자와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야 할 경제계와 산업계의 의무를 정의하는 데까지
- 지역사회와 기초교육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산업계, 연구기관 및 대학교 간의 긴밀한 관계 확립까지
- 교육 시스템의 구조 개편(막다른 지점, 병목 현상 제거 등)에서부터 교육적 방법의 현대화까지
- 학교 낭비의 복합적 요인을 제거하는 행동에서부터 ‘오류’의 재교정 기제에 이르기까지
- 교육 과정상의 모든 요소, 즉 지식과 이해, 정신적 태도, 동기, 실천적 적성 등의 조화로운 발달에서부터 정서적·인격적 문제들에 대한 고려 확대에 이르기까지
- 체육 교육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교육에서 도덕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까지
- 생활 과학을 모든 종류의 교육에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그리고 성인교육에 기초기술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 교육과정을 가볍게 하는 것에서부터 테스트와 시험의 압력을 줄이는 것까지
- 교재의 개선에서부터 학습 자료의 증대까지
- 교과목 중심의, 다면적 교육을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특수한 과학 학문 분과를 개선하는 것까지
- 모국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다른 매체를 통한 교수법의 발전까지
- 학령 전 아동의 마음을 촉진하는 것에서부터 성인을 노년기에 대비하게 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등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끝도 없이 많은 내부적 개혁 방안이 무한히 연구되고 논의돼 왔다. 따라서 이들 방안을 좀 더 토론하고 이 중에 선호할 만한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별로 쓸모 없는 제안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내부적 개혁의 단 한 가지 측면, 즉 전반적 교육 발전 전략 중 내부적 개혁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하며, 다음의 사항이 실현돼야 한다.

위로부터의 격려

1. 내부적 개혁은 기존 교육 실천 관행에 대한 대안 탐색과 분리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이런 개혁은 충분히 효과적이어서 훨씬 급진적인 방안이 적용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와 동시에 점진적 개혁은 뒤이어 오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부분적 개혁에서 실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곧 교육 시스템에 충분한 자기생명력이 있다는 표시이며, 보다 빠른 속도의 변화도 겪어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 당국은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도록 늘 격려해야 한다.
2. 많은 나라에서 교수법과 심리학, 교육학, 교육기술 등 관련 분야의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개혁은 그 자체가 일종의 실험적인 역할을 한다.

아래로부터의 주도성

3. 경험에 따르면, 내부적 개혁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재능과 에너지의 낭비에 그치는 경우는 대체로 상부의 관리와 하부의 행동 사이에 소통과 조율과정이 부족한 탓이었다. 이런 경우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는 개혁가들이 고립되고 개혁적 사고의 보급과 실험은 지연된다. 모든 나라의 교육 당국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현재 실험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적용도 포함돼야 한다.

4. 구체적 개혁의 성공 여부는 교사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혁신 이론가들이 기획한 대부분의 방안은 그 목표를 교사에 ‘대해서’, 즉 교사를 ‘위해서’ 작용하도록 할 뿐, 교사와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술관료들의 가부장적 관점은 교사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있고, 이는 역으로 불신을 야기한다.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개혁안이 그들의 어깨에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안이 제시되는 방식도 못마땅해 하지만, 사실상 그 정도로까지 개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 개혁 프로젝트에 대해서나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혁신과 대안의 모색

현재 상황에서 이미 얻은 경험뿐 아니라 미래에 증대될 가능성들을 고려한다면, 부분적 개혁만으로는 — 비록 그것이 주요한 개혁 방안일지라도 —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교육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혁신적이어야 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원칙

원칙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학습사회의 주춧돌이다.

근거

평생교육 개념은 교육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부분들의 총합 이상인 전체적 실재로서 그 안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교육의 ‘영구적인’ 부분 중 인간의 일생

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없다. 달리 말하면 평생교육은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조직이 기반하는 원리이며, 따라서 그것은 구성 요소 각각의 발전에 밀거름이 되는 것이다.

제안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평생교육을 미래 교육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한다.

보완 설명

이러한 생각을 적용하는 방식은 물론 다양할 것이다. 전 세계 국가의 숫자만 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 보고서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모든 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정도 역시 당연히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확신하는 바는 평생교육의 문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하는지는 우리 시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나라, 심지어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다.

사례

최근 페루에서 입안된 교육 개혁 방안은 평생교육의 원칙에 기반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개혁은 학교 안팎에서 페루의 모든 교육 기관과 전체 교육 활동을 포괄한다. 이는 교육 개혁이라는 틀을 훨씬 벗어나 페루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관련된 계획이다. 이 개혁은 모든 사람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개인이 자신이 받을 교육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와 국가의 교육 독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해당 개혁법안 19326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 교육에는 똑같이 치명적인 두 가지 해약이 있다. 즉, 국가의 권위적인 통제와 차별적인 ‘사유화(privatism)’다. 책임 있는 대화와 참여를 포함한 ‘교육 공동

체에 기반을 둔 공동체 교육'을 통해 이 해악을 최종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본 개혁의 의도이다.” 이 법안은 전통적 교육 방안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일방적 관계 방식으로 연결하는 형식적인 수업의 운영으로 축소돼버린” 것을 깨뜨리려는 교육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배제하고 거부하는 공식화된 교육 체제”라는 전통적 교육 방안의 “배타적이고 완고한” 개념을 대체하고자 한다. 이 개혁법안에서는 세 가지 폭넓은 교육 수준, 즉 초기교육과 기본교육, 고등교육에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중 흥미로운 혁신 방안의 하나는 전국의 교육 서비스들과 프로그램들을 ‘핵(nuclei)’ 또는 세포로 나누는 것이다. 공동체 교육의 세포들은 지역사회에서 직접 나오기도 하며, 학교, 전문대 및 대학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의존하면서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2) 전반적 전망

원칙

교수 활동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교육에서 살아 있는 경험의 차원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근거

교육은 인간의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의 요구와 편리성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교육의 출발에서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모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개인적 학습이자 자기 교수활동, 자기 훈련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 안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가르치기 위해 설계됐든 아니든 모든 유형의 기존 기관, 그리고 여러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한다.

제안

교육기관과 교육 수단이 늘어나야 하고, 접근이 더욱 쉬워야 하며, 개인에게 훨씬 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진정한 대중운동에 걸맞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보완 설명

오늘날 교육, 훈련, 수업에 대한 수요는 너무도 크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여전히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화된 시스템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도화된 교육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완고한 내부적 분립을 폐지하고 바깥 세계에 좀 더 개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제되는 것은 교육적 구조와 교수 내용이 다음의 기준들을 따라 전반적으로 재조직화 되는 것이다.

- 유아기 교육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으로 구축돼야 한다.
- 기초교육은 다면적이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떠한 연령대에 있든 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에게도 맞도록 설계돼야 한다. 기초교육은 기본적 지식의 보급뿐만 아니라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초교육에서는 특히 아동기에 평생 지속될 자기 학습의 맛을 알도록, 또한 알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관찰력과 판단력, 비판 정신을 계발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기초교육은 자신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과, 각자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창조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한다.
- 기초교육 이후의 교육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에 갈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이들이 적극적 경제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 단계의 교육은 당분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중등후 교육이나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적·직업적 훈

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생히 살아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고등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그리고 어떠한 연령대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특히 지속적인 자기 향상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
- 개인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요구에 맞춘 교육서비스도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사례

1.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의 교육계획위원회(The Educational Planning Commission)는 매우 흥미로운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위원회 예비 보고서는 개혁안이 평생교육의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은 “학습자가 다양한 환경 및 조건에서, 즉 시간제 학습이나, 여러 미디어를 사용한 가정에서의 학습이나, 비형식 학습 환경에서나,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중략) 우리는 학교가 주도하고 교실에서 전일제 교사 위주로 하루 8시간씩 8-10개월간 지속되는 교육 체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 증가로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에 추가적 투자는 거의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본 위원회는 전반적인 교육 사업의 구상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자 했으며, 평생교육은 ‘삶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고, 보통 취학 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거쳐,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평생교육은 학습을 우리의 일과 여가 생활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집단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자기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의 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총체적 인간에 관심을 가지며, 물질적으로 생산적인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다.”

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는 교육이 삶이며 삶이 곧 교육

이라는 믿음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몇몇 시기에 구조화된 학습 경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들이 교육을 떠났다가도 적당하다고 여길 때와 특정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수용돼야 한다. 그러한 가정 하에, 어린 시절의 학교교육에서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고, 지적 발달만이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독립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적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양한 학문분과의 내용 학습은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 시절에 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학습의 기본 언어에 해당하는 말하기, 수, 쓰기, 미술 등이다.”

앨버타 위원회는 이에 덧붙여 초등 및 중등 학교 체제를 더욱 개방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더욱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1) 평생교육과 ‘현 사회의 미래 추세에 대한 가정’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 2)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대 기술의 이용을 포함해 형식 프로그램부터 비형식 프로그램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 3)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2. 북베트남에서 교육 활동은 민중운동의 흐름에 입각해서 조직됐다. 이 교육 활동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들을 위해 단일한 형태의 일반교육을 대규모로 급속히 발전시키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가르쳤다. 그와 동시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문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인을 위한 보충교육을 추진했다. 아울러 학습과 생산 작업을 결합시켰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생산 활동을 집단 농장의 생산에 접목시키기가 더 용이했다. 여기에 깔린 원칙은 젊은이들이 ‘늦은 나이까지 손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순전히 책만 들고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생산 센터와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 기구를 교육에, 특히 보충교육에 포함시켰으며, 이로써 교육의 대중운동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캄 빈(Cam Binh) 마을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캄 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3-6세 아동의 95%가 유치원에 다니고, 학령기 아동의 100%가 일반교육 수업을 받으며, 성인의 90%가 이미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을 이수했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성인이 보충교육 과정에 다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받고 있다.

3) 교육기관의 형식주의 완화

원칙

교육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배되고 또 획득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따라가야 할 경로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학습하고 획득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근거

현재 두 가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좀 더 다양화되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 교육구조의 형식화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결코 서로 대립적이지 않다. 일부 학교기관에서 신성불가침한 특징이 점차 사라지는 것과, 잘 짜여진 학교 구조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충분히 병행될 수 있다. 교수 활동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학교 형태의 양적 증가에 의해서도, 그와 다른 형태의 학교 설립에 의해서도, 시간제 학습이나 학교 밖 방식을 통해서도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모든 방식이 동시에 운영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경로들이 —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제도화되었든 아니든 —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비-형식화’와 ‘비-제도화’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안

개인은 교육 경로를 보다 자유롭게, 보다 유연한 틀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교육 시스템을 떠난다 하더라도 교육 서비스의 이용을 평생동안 포기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보완 설명

교육 수단과 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일제 교육, 시간제 교육, 통신 교육과 더불어 정보 자료의 직접적 이용(현대적 통신 매체가 있든 없든)을 통한 자기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방안들은 동등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상호교환 가능한 과정이어야 한다. 최종 결과로 모든 것이 판정되어야 한다.

기초교육은 대체적으로 다음 단계의 교육들에 비해 단일해야 한다. 다양화된 교수 내용을(환경이나 개인적 요건에 따라서) 시작 때부터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 방법과 속도는 어느 정도 개별화되어야 한다. 학생이 성장하고 판단력이 성숙해 가면서 자신의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데 더 큰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의 개인적 능력을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측정하기 쉬워지고, 또한 각자의 진정한 관심사에 따라 학생들을 그룹화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다.

사례

1.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교육과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 교육에는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활동이 있다. 또한 학생기구의 구성과 그것이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다양하다. 나라마다 전체적인 그림은 다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조직하는 ‘스펙트럼’의 범위는 대체로 폐쇄적이고 약간 규범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개방적이고 비규범적인 시스템까지 다양하다.

폐쇄적 시스템은 선발적이고 경쟁적인 경향이 있으며, 학습 대상과

연령대를 결정하는 데 주로 자체 내에서 설정된 기준을 따른다.

개방적 시스템은 비선발적이고 비경쟁적이며 비규범적인 경향이 있다. 듣고, 읽고, 공부할 강의나 교과목의 선택은 주로 참가자의 관심에 달려 있다.

물론 아주 다양한 교육 활동과 교육기관이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 한 끝에는 폐쇄적이고 선발적이고 경쟁적인, 전통적이고 구조화된 형식교육이 있다. 여기서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안’학교, 다단위 학교(multi-unit school), 그리도 구조와 프로그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개별 처방식 수업(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 IPI)이 있다. 자기학습센터, 일-학습 연계 방안, ‘개방대학’ 등은 덜 구조화돼 있으나 학습 목표에는 규범적인 지향성이 남아 있다.

이 스펙트럼의 반대 극단에 가까이 가면 느슨하게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여기에는 현장훈련 방안, 농촌지역 확장서비스,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 클럽, 협동조합, 노동 및 정치 조직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정보와 교육을 위한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정보 센터와 라디오, 텔레비전, 도서관, 신문 등이 이에 포함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와 관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많은 나라가 평생교육을 염두에 두고, 교육적 시설을 더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 개혁은 이들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이 모든 활동들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준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기보다(이미 발전된 것도 많다), 그들을 상호 연관시켜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비전통적 방식으로 이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스펙트럼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여 각 학습자의 편의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학생 평가를 어떻게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방식보다 성취 결과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학생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시설을 결합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가 다양한 발전 수준에서 이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보다 넓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려는 시도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미국의 ‘벽 없는 대학(university without walls, UWW)’이다.(다른 몇몇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은 Antioch, Bard, Hofstra, Loretto, Heights, Monteith, Nasson New College(Sarasota), Northern Illinois State, Sarah Lawrence, Shimer and Stephens 대학 등이다. 벽 없는 대학(UWW)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16-60세의 사람들 모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요구와 관심에 맞도록 마련된다. 필요로 하는 정보(테이프, 교재, 실험실, 개인적 접촉 등과 같은)가 무엇이든 그 자료에 대한 목록이 제공된다. 학생은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자기학습을 조직할 수 있으며, 또한 각 학생은 재학 기간의 최소 절반을 캠퍼스의 실험센터에서 지낼 의무가 있다. 학생과 튜터(tutor *역자 주: 개별지도교사 혹은 선배지도자)는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벽 없는 대학(UWW) 교수진에는 특정 캠퍼스에 소속된 교수와 교사들도 있고, 농업이나 상업 분야의 객원 전문가,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도 포함돼 있다. 대학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3. 이 밖에도 세계 곳곳에 여러 유형의 교육 기관들이 설립돼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거론할 만한 기관 들로는 성인들과 아동들이 교대로 다니는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서로 다르고 다양한 교육적 기관들을 그룹화하여 한 곳으로 모은 ‘대학급(collegia)’ 센터가 있다. 이 센터들은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 단지 내의 한 학문분과에서 다른 분과로 이동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준다. 문화센터나 다른 활동 센터 들도 있는데, 이 센터의 건물과 시설들은 교육 메시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조직가들이 묶은 서로 다른 그룹들이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연속적 수준(특수 노동자, 숙련 노동자, 산업별 장인 등)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술훈련센터와 인민 대학, 노동자 대학, 자유 대학,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접근이 쉬운 여타의 유사 기관들이 있다.

4) 이동과 선택

원칙

전반적으로 개방적 교육 시스템은 학습자들이 그 안에서 수평적·수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근거

이동과 선택의 다양화는 상호보완적이며 각각은 서로에게 선결조건이 된다. 각 개인이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추구할 수 없다면 진정한 선택의 자유란 없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진보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열망에 달려 있어야 한다. 충분히 다양한 가능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동은 의미가 없다.

제안

서로 다른 교과 학문이나 과정 및 수준 사이, 그리고 형식적·비형식적 교육 사이에 있는 인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장벽은 철폐되어야 한다. 순환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경제활동인구 중 특정 범주의 집단부터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완 설명

이것의 전제로, 더 많은 학생이 교육기관 전체에 걸쳐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그리고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단계에서 교육에 진입하고 여러 다른 지점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의무교육을 마칠 때 개인은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나중에 학업을 이어갈 전망을 배제하지 않고서) 적극적 경제 생활을 시작할 것인지, 더 나아가 이전 학교교육 기간 동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전 교육을 보완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전통적으로는 공식적 학교에서 필요로 했던 기간을 다 이수하지 않고도 고등 단계의 학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이동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이런저런 길목에서 교육에 들고 날 수 있는 풍부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과 성인에게는 일과 교육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회가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에게 적절할 때 교육의 흐름에서 떠나거나 다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노동 관련 법은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사이에 놓인 장벽은 제거해야 하고, 청년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 점차 성인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학업을 시작하거나 재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욱 쉽게 교육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들이 시간제 학습이나 도제훈련 과정 혹은 연구를 위해 일을 떠나는 데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교 수준에서는 중단 없이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교육을 잘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앞으로는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가는 사이에, 심지어는 한 과정 내에서도 학업 중단이 더 많이 허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이로울 수 있다.

순환교육이라는 개념은 제도화된 교육과 비제도화된 교육 사이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으로, 두 교육을 일관된 체제 속에 통합함으로써 조화롭게 서로를 보완하고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교육이 '적극적 경제 생활'로 들어가기 전인 인생의 초년기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순환교육 개념이 적용되면 특히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경제활동 생활 중에도 교육 흐름에 재진입할 권리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사례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는 순환교육 체제 채택을 내다보고 있다. 순환교육 체제에서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초기교육을 이수하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b)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극소수에게 곧바로 예비 대학 과정에 입학할 허가를 준다. (c)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실생활로 나가거나 기술교육이나 직업전문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d) 2~3년 뒤 누구나 예비 대학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 자격은 초기교육 자격에 나타난 성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정한 직업전문 훈련을 받거나 특정한 직업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적성검사에 따라 인정한다.

5) 학령 전 교육

원칙

학령 전 아동 교육은 모든 교육적 문화적 정책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근거

유아기가 이후의 적성 및 인격 발달에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현대 정신생리학과 일반적인 관찰로도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마치 유아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운영된다. 그 이유는 교육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교육 발달에서 유아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안

학령 전 아동을 위한 교육의 발전은 1970년대 교육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

보완 설명

학령기 아동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과도한 자원을 학령 전 아동들의 교육에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가 분산된 농촌 지역에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이들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교육기관에 드는 비용은 직원 문제, 혹은 행정적·심리적 및 여러 다른 형태의 저항과 결합되면서 제도적인 모델과 방법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2세나 3세에서 시작되는) 학령 전 아동에 대한 교육은 자유롭고 유연한 양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최상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형식적 학령 전 아동교육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직원을 양성하고, 특수학교 등에서 부모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대중매체는 이런 활동에 상당히 유용한데, 이는 특히 문화적 여건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아동에게 학령 전 교육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때 그렇다.

사례

1. 중국에서는 학령 전 유아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유치원들은 일부는 날마다, 일부는 주 단위로 3-7세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부속돼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마을, 지자체, 동별 위원회, 지방 풀뿌리조직 또는 복지단체가 운영을 담당한다. 유아교육을 보조하는 일은 많은 비전문가, 특히 조부모들이 하고 있다.
2. 소련에서는 현재 9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록돼 있다. 또한 집단농장의 학령 전 교육기관이 상설 혹은 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약 300만 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심미적으로 조화로운 아동의 발전을 돕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교육학적 경험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초한 단일한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된다. 최근 소련 교육과학연구원의 학령전교육연구소 및 다른

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와 학령 전 어린이들의 정신생리학적 기능은 지금까지 믿었던 것보다 더욱 발달돼 있다. 또한 특별한 교육학적 환경이 주어지면 예전에는 훨씬 나이가 많은 아동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지식과 지적 적성, 도덕적 자질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금까지 학령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시청각 교육 실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새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남미로도 확산됐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학령 전 아동이 일반 아동과 유사한 여건에서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해당 지역에 유치원은 없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돼 있는 빈곤 지역의 노동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세네갈 카자망스(Casamance)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도 하에 약 30개의 주간돌봄센터를 조직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이제는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1년 중 마을의 남녀 농민들이 전적으로 농사일에 매여 있는 계절 동안 운영된다. 주간돌봄센터는 1-7세의 모든 아동들을 돌보며, 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등교 전과 방과후 시간 동안 돌본다. 어린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로 만든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단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관리한다. 담당 직원들은 현지에서 채용돼 최소한으로 필요한 단기 훈련을 받으며, 급여는 현물로 받거나 그들의 농지를 대신 경작해주는 식으로 받는다.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주간돌봄센터를 돕는다.

6) 기초교육

원칙

모든 아동에게 가능하면 전일제로, 혹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근거

실제로 모든 교육 시스템의 당초 규칙은 각 아동은 학교에서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배움 없이 살아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수백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 전략의 근본적 의제 중 하나다.

제안

가능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는 보편적 기초교육에 1970년대 교육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완 설명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미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장시간에 걸친 노력이며, 물론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안을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완전한 전일제 초등교육, 둘째는 완전한 시간제 또는 ‘적절한 리듬의’ 초등교육, 셋째는 아동과 성인을 위한 비시간제 초등교육, 넷째는 12-16세의 청소년, 특히 이전에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 교수 프로그램이다.²⁾

이런 종류의 방안이 모든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방안은 비록 일부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 경제적·재정적·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순환 주기를 갖는 교육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리듬을 가진 교육은, 그 효과로 초등 및 초등 이후 학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미묘한 연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실제로 모든 곳에서 교육자와 정부가 관심을 갖는 문제인 학생의 적극적 경제 활동 시작 연령에 대한 이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

1. 인도에서 시행되는 ‘교육구 집중 발전 프로젝트(Intensive Educational District Development Project)’는 선정된 지역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독특한 실험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펀잡(Punjab)주, 비하르(Bihar)주, 마하라시트라(Maharashtra) 주, 마이소르(Mysore)주 등 4개 지역 총 9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3세부터 45세 연령의 인구 전체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각급 학교 학생과 중퇴자,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전일제 및 시간제 수업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실시된다. 이 방안이 지향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적 투입 요소와 수단을 결합시키고, 교육의 다양한 수준과 영역을 가로지르며 진행하고, 전체 지역사회에 혜택이 되도록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기관을 발전시키는 것 등으로 통합적 접근을 진화시키는 것이다.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비정통적인 방식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2부제 수업으로 2학년이나 3학년까지의 학교 수업 시간을 약 반으로 줄임으로써 교사들의 교육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학교 수업에 늘 참석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시간제 및 지속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 무학년제(ungraded system)의 채택으로 학생들을 초등 3-4학년에 붙잡아두지 않는 방안, 또 기존 학교 시설을 같은 날 몇몇 다른 분야의 수업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2. 탄자니아의 통합 초등학교는 전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로 여겨지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학교에는 변형 가능한 교실 공간이 성인교육, 주간돌봄센터, 유치원, 또는 아이들에게 실용적 기술을 가르치는 대형 다목적실이나 작은 마을 기업들을 위한 훈련 센터로도 이용되고 있다.
3. 케냐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체제 외에 약 400개의 자립적(self-help)

중등학교(하람비 학교, Harambee schools)가 있다. 자립적 중등학교는 자발적 후원과 학부모의 수업료 납부를 기반으로 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케냐 적십자사는 농촌 여성들을 위한 센터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농촌 여성들은 4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이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위생, 영양, 자녀 및 가정 돌봄, 소규모 가축 기르기 등을 교육받는다.

7) 일반교육의 확대

원칙

일반교육의 개념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그 안에 일반 사회·경제적 지식과 기술·실용적 지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근거

오랫동안 우리는 일반교육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해 왔다. 일반교육은 몇몇 전통적인 교과목에만 관련돼 있었지만 일반 교과와 특수 교과 사이의 구별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최근까지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많은 지식 분야들이 이제는 일반 문화에 개방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학 및 사회학적 지식도 포함되는데, 이런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에게, 또 무엇보다도 기술적 지식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기술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숙달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제안

여러 형태의 교육 활동, 즉 일반교육, 과학교육, 기술전문교육 등의 활동 간의

엄격한 구분은 폐지되어야 하며,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의 교육은 이론적이고 기술적임과 동시에 실천적이면서도 수작업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보완 설명

소위 일반교육이 진정으로 일반적인 것이 되려면 기술교육이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완전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려면 지적 훈련과 수작업적인 훈련을 조화시키는 데, 또한 학업과 일을 꾸준히 연관 짓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교육은 과학 법칙과 그 적용에 대한 학습이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절차에 대한 학습에 한정되면 안 된다. 기술교육이 완전한 의미를 실현하려면 두 가지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로, 기술교육 수업에도 언어학, 역사, 지리, 사회 및 공동체 생활 수업 등과 마찬가지로의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 문제들은 삶의 연관 속에서, 즉 기술과 일, 기술과 여가, 기술과 사회적 구조,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과 환경 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사례

1. 동독에서는 과학·기술전문 교육이 10년간의 기초교육 안에 통합돼 있다. 폴리테크닉 교육은 교육학과 기술 사이의 긴밀한 상호 작용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전문가, 교육학자, 전문 과학자, 기술자가 포함된 연구팀은 새롭고 역동적인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폴리테크닉 교육의 경험과 실천 결과는 현행 연구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으로 이용되고 있다.

폴리테크닉 교육은 가장 저학년에서부터 실시되는 실천적 육체 활동을 포함한다. 7학년부터 시작되는 주당 4시간의 사전 직업훈련에서 학생들은 산업체나 농촌 기업, 또는 폴리테크닉 관련 기관에서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의 중점은 특정한 직업을 위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기술적 방법, 그리고 그 적용과 생산 과정에 익숙

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육체노동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2. ‘가정기숙사(family hostels)’는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설립됐으며, 대안적인 교육 일정과 적절한 교수 리듬에 기반한 흥미로운 교육적 실험을 펼쳐 왔다. 그 방법론은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는 농촌의 가톨릭 지역에서 고안되고 발전했다. 가정기숙사의 목표는 ▲아동들이 적어도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최소한의 문화적 지원밖에 제공할 수 없는 가족 환경을 가진 어린이들이 최상의 심리적 환경에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 ▲개인들이 강력한 동기를 갖고 주위 환경과 긴밀히 관련되는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 ▲지적인 노력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그러한 심리적 저항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대로 괜찮은 문화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가정기숙사는 순환적 교육 일정으로 학생들이 3년간에 걸쳐서 1/3의 시간은 학교에서, 나머지 2/3의 시간은 가정 환경에서 지내도록 하고 있다.

8) 직업 이동의 최대화

원칙

직업과 적극적 경제 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적 활동은 청소년이 기존의 직업과 전문 분야를 그대로 답습해서 실습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들을 다양한 직업에 적응하도록 준비시키고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둬으로써 계속 발전되는 생산 방식과 작업 조건을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 활동은 고용활동에서 이동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혹은 한 직업 내 하위 분야 간 이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것이지만, 교육은 직업 훈련에서도, 경제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 형태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기존 직업 요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것을 기대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생산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런 기대가 다소 합당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경제 분야 비평가들은 교육의 여러 학문 분과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가 본질적으로 일반 교육의 과제를 여전히 지닌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학교는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원적 기술을 뒷받침하도록 고안된 지식의 굳건한 기초를 제공해야만 한다. 학교는 정신적 능력을 함양하고 창조적인 마음 상태를 자극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원리의 이해와 원리들을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일반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의욕을 진작시켜야 한다.

제안

전문대학과 기술훈련 대학은 중등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구조 속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수업 내용에서는 직업 현장에서의 실천적 훈련이 이어져야 하며, 이들 모두는 무엇보다도 순환교육과 직업훈련 과정으로 완결돼야 한다.

사례

소련에서는 보편적 중등교육의 성취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 일반 학교 교육이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도 — 전문학교와 기술학교를 발전시켰다. 전문학교와 기술학교를 통해 중등 단계에서 직업적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병행 발전시키고 있다. 5개년의 국가발전을 결정하는 소련 공산당전당대회의 제24차 회의에서 수립된 <1971-75년 소련경제발전계획>

의 지침에는 특수 교육이나 중등교육을 받았던 900만 명의 전문가들에 대한 훈련 제공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하여 과학 기술의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 훈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앞서 제23차 소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지침은 700만 명의 전문가들에게 특수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완전히 달성됐다. 따라서,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예정된 수치 역시 완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9) 상업과 산업계의 교육적 역할

원칙

평생교육은, 완전한 의미에서, 상업, 제조업, 농업 등 각 분야의 기업에서 교육적 기능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근거

기술 훈련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학교 체제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학교와 기업계, 여타 사업체 및 학교 밖 활동들이 함께 분담해야 하며, 교육자, 상업 및 산업계 지도자, 노동자, 정부가 이런 목적을 위해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교육에는 다른 교육기관, 특히 교육을 통해 훈련시킨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여의 유형과 과제를 분담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를 것이며, 학교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훈련을 실시하는 나라에서부터 주로 직업 현장에서 훈련이 제공되는 나라까지 다양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긴밀한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선진국의 경제계는 훈련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훈련비 지출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산업 내 훈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제안

교육기관과 민간 및 공공 소유 기업체 사이에 여전히 큰 격차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전체 교육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기업의 역할은 노동자 훈련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술자 및 연구자 훈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보완 설명

사실 기초훈련이 학교 체제의 주된 기능의 하나로 간주되는 나라에서조차도 기업은 훈련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거나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각국의 교육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적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 노동자는 여전히 보충 훈련을 필요로 하며, 산업 현장에서 일의 조건과 리듬에 적응하도록 배워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후속 훈련을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이런 후속 훈련에는 전문성 훈련, 자격 승급 훈련, 승진 대비 강좌, 재훈련, 전문직·경영직·관리직 및 다른 고급기술인력 훈련 등이 있다. 교육이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민간 및 공공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와 관리직 직원의 교육과 훈련에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사례

일본에는 상업 및 공업계가 지원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기술 훈련과 직업 훈련 체계가 있다. 20세기 초,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도제훈련 시설을 설치했다. 이러한 활동은 1948년부터 두 가지 정부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산업현장훈련(Training Within Industry, TWI)과 관리직훈련 프로그램(Management Training Programme, MTP)이다.

기업은 노동성이 인준한 국립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407개의 훈련 센터에 10만 명 이상의 훈련생들이 참여한다.

이에 더해서 대부분의 대기업은 산업 내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입 근로자들을 위한 초기훈련, 숙련노동자들의 기술 향상 및 재훈련, 기술감독 훈련, 관리직 개발 과정 등을 제공한다. 5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야와타(Yawata) 제철회사가 전형적인 사례로, 이 회사는 잘 다듬어진 훈련 정책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하도록 장려하며, 중간 관리자로부터 매일 현장코칭(on-the-job coach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사장 직속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회사 내 각 공장별 교육 분과에서 수행할 훈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자, 공장장, 사무직, 엔지니어 및 최고 관리직 대상 훈련까지 망라한다.

10) 고등교육의 다양화

원칙

고등교육의 확대는 보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거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결합해 중등 후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기존 체제에 어떤 요소들을 덧붙이거나 과대한 짐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수적으로 늘어나고 또한 다양화되는 학습자들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중등 후 교육기관들의 전면적인 다양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변해야만 한다. 만약 대중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런 교육기관은 기능을 실현하는 데 실패할 것

이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조직된 대학교에는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릴 것이며, 결국에는 차별을 두는 절차를 적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안

중등 후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구조, 교과목, 학생의 범주 구분 측면에서 아주 폭넓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 설명

여기에 포함되는 방안에는 교육 프로그램 수의 증대, 일반 대학교육 사이클과 병행 운영되는 단기 대학교육(직업전문대학) 사이클의 도입, 특수한 또는 지역적 목적과 요구에 맞는 소규모 교육기관, 즉 전문대학과 기술교육기관, ‘자유’ 대학교의 설립 등이 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건에 세밀하게 맞춘 준전문직 훈련 및 중급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입학 허가 기준은 자유롭고 비형식적이어야 한다. 그 기준은 지원자들의 학교 성적이나 졸업장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직업적 미래의 관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모든 수준에서 전문직 및 경영직 직원의 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탁월성 센터(centres of excellence)’란 방식은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센터들을 통해서 국제적 규준에 따른 질적 관리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기관, 즉 다학문적 센터와 학교, 전문대학, 기술공학, 농학, 의학, 경영학 등의 전문직 훈련기관 등을 교육 시스템에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지출 없이 각국의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은 질도 낮고 실제적 여건에 잘 맞지도 않는 ‘권위있는’ 교육기관보다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전망을 한결 드높여줄 것이다.

끝으로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일반적인 ‘정규’학생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 즉,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이전 졸업생, 노동자, 고급 훈련 및 재훈련 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유형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물론 서로 다른 발전 및 산업화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에 대한 탐색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그 중에서도 발전이 더딘 나라들은 그런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중등 후 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다양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현재 프랑스 뱅센느(Vincennes) 대학센터에는 26개 학과에 400명의 전임 교수와 강사가 고용돼 약 12,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의 주요한 원칙은 통상적인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을 통과하지 못한 직원과 학생들을 가능한 많이 받아들여서 주로 여러 학문분과 간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현대 세계 연구를 위한 교수 활동과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다.

뱅센느 대학센터 학생의 약 2/3는 급여생활자이며, 대략 절반은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뱅센느에서 처음으로 실험된 몇 가지 혁신 방안들은 프랑스의 다른 대학에서도 채택됐다. 이 혁신 방안에는 특히 학습을 ‘단위(unit values)’별로 조직하는 것(전일제 학생의 경우 1년에 10개 단위), 학생이 전공 분야 외의 다른 학문분과에서 많은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

프랑스의 대학 시스템 안에서, 지금으로서는 뱅센느에 독특한 몇 가지 특징들이 남아 있다. 특히 정규 수업과 시험을 다양한 팀워크 활동으로 대체한 것을 주목할 만한데, 여기서 교사는 주로 조언자가 돼 절반의 독립성을 가진 학생 소그룹 활동들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 활동의 많은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뱅센느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부터 발전됐다.

- 1) 대학입학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 문을 열어 취업자들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 2) 중등교육을 방금 마친, 직업 경험이 없는 젊은 학생들과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잘 아는 성인들 간의 접촉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교육 분위기를 해소한다.
 - 3) 교과목은 학생의 이해력에 맞게 제공한다. 틀에 박힌 강의 진행보다 각각의 흥미, 적성, 성취도가 학생의 발전에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이 가는 길은 지식의 축적이기보다는 연구의 과정이다.
 - 4) 초기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면 전통적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생각의 숙성과 지식의 교환이 자극된다.
2. 이집트에서는 개혁을 통해 고등교육 수준의 기술교육기관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기술공과대학에 융합시킨, 고등교육을 위한 대안적 경로 모색에서 흥미로운 연구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교육기관은 숙련된 기술-행정직의 인력 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이 기관들이 특정한 교육 부문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가 산업 사이의 관계를 주도하고 개선하는 센터들을 설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미국 필라델피아의 파크웨이(Parkway)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활동과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주요 부분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의 공장, 자동차 수리 센터, 법률 사무소, 신문사, 박물관, 아트 갤러리 등의 현장에 가서 전문가를 통해 배운다. 그러한 활동은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른 좀 더 구조화된 학문적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대부분 담당자와 학생 간의 토론에 따라서 조직된다. 이 프로그램에 입학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추첨으로 선발된다.
4. 인도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에서 고등교육이 광범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는 최상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소수의 ‘선진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적절히 조직된 핵심 부문 없이 이루어지는 민주화는 전체 시스템의 활용성과 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선진연구센터’는 1963년 대학인가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ssion)가 대학들과 협의하에 시작했으며, 인도 고등교육에서 핵심 부문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지금까지 과학 분야 17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 13개 등 모두 30개의 센터가 만들어졌다. 이 센터들은 유네스코, 소련, 영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 센터들은 학문 활동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탁월함의 산실(breeders of excellence)’이 돼 더 많은 ‘탁월성 센터’가 생겨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연구센터 외에도 핵심 부문에 있는 6개 공과대학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 6개 공과대학 재학생은 약 10,000명으로 전체 기술공학 재학생의 약 5%다. 또한 몇몇 특별농업대학도 미국과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전인도의학연구소(All-India Institute for Medicine) 역시 주목할 만하다.

5. 폴란드의 일부 대학들은 다양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학업을 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시도로 아주 광범위한 통신학습과정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전공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는 중등 후 교육의 체제 개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발전이다. 통신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시설들이 제공되고 특별 유급휴가도 있어서 생산 활동을 유지하며 계속 공부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신과정 또는 야간 강좌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은 일부 큰 공장과 연계해 노동자들에게 평소처럼 일하면서 공부하거나 혹은 일과 공부의 순환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1) 선발 기준

원칙

여러 형태의 교육기회를 얻는 것 혹은 전문직에 취업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지식과 역량, 적성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결코 학교에서 획득한 지식을 일용하면서 혹은 스스로 학습한 경험보다 높게 보거나 혹은 낮게 보는 등의 등급화를 한 결과여서는 안 된다.

근거

전통적인 입학 지원자 선발 방식은 그들의 지식수준을 점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학 지원자들은 여전히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몇 가지의 장애물들을 해결하면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요소, 즉 학생들의 출신과 연령, 방향성,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수 방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선발, 평가 및 안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평생교육 개념은 어떤 형태든 최종적이고 너무 이른 선발은 배제한다. 진학과 자격 절차는 점수나 학급 순위, 성적표 등을 넘어 진정한 능력의 가치, 적성 및 동기를 강조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제안

교육 시스템은 더욱 다양화되어야 한다. 입학, 수료, 재입학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대학교 학위 및 졸업장 획득이 미리 결정된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한다.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출신 배경이 다른 개인들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획득한 기술을 비교하는 수단이자,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의 표시로 작용해야 하며, 각자가 자기 학습 방법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평가 절차는 학습자가 외부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발전을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완 설명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단 한 번의 요약적인 시험이 아니라 학업 과정 내내 그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에 기반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학생이 기억하는 지식의 양보다는 추론 능력과 비판적 판단력, 능숙한 문제해결력 등 지적 역량 발전에 더 주의를 두어야 한다. 현대적 학습 방법, 즉 프로그램화된 수업과 컴퓨터 지원 수업, TV 강좌, 언어실습실, 다양한 양식의 자기 교육 등은 시험 방식을 다르게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끝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자리 배정을 위해 지원자의 학교 졸업장이나 대학교 학위를 검토하기보다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고용주들은 선발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지원자가 획득한 결과가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되고 점검된다면, 시험은 오랜 시간 존중받아 온 교수 관습과 전문적 자격을 평가하던 기준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스웨덴은 중등교육을 마칠 때 치르는 졸업자격시험을 폐지했다.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이 필요치 않다. 성취도와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써 전통적인 시험 대신 더욱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능력, 기술, 이해력, 비판적 판단력을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영상, 녹음된 테이프, 시집(a book of poems)이나 그림 혹은 조각 작품,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모형 제작 등이 그러한 방법이다.

12) 성인교육

원칙

교육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점(normal culmination)은 성인교육이다.

근거

성인교육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실시되는 성인교육의 대부분은 사람이 놓쳤던 기초교육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매우 불완전한 교육만 받은 사람들에게 성인교육은 기초교육이나 전문적 교육을 보완해 준다.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위해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인교육은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이미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인교육은 추가교육을 제공해 준다. 또한 성인교육은 누구에게나 개인적 발전 수단이 된다. 이런 측면들 중 한두 가지는 특정 국가에서 더 중요시 되겠지만, 모든 측면들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 성인교육은 더는 초보적 수준에 국한되거나, 소수를 위한 '교양' 교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성인교육은 성인 대상이 아닌 학교 활동의 성공에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아동의 기초교육은 부모의 교육적 수준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세대는 비문해적 사회환경에서는 적절히 훈련받을 수 없다. 교육의 발전은 가르칠 수 있거나 남을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완전히 이용하는 데 달린 일이므로 전문직 교육종사자의 숫자는 집중적인 성인교육을 통해서만 증대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성인교육을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세계적이고 전체적인 교육 개념은 이들 교육 간의 외관상의 대립을 넘어서서, 두 교육이 서로 협력하고 병행되도록, 또 그와 동시에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공통의 교육 목표에 함께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교육은 더는 사회 활동의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 정책 및 예산에서도 성인교육에 적절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서로 확고하게 연계돼야 함을 의미한다.

제안

앞으로 10년 동안 교육적 전략의 우선 목표의 하나로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성인교육이 급속히 발전해야 한다.

보완 설명

현재의 교육 시설들이 세계 성인 인구의 교육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볼 때, 단계적인 진보로는 충분치 않으며 거대한 도약이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려면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노력과 자원 면에서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 기존의 모든 학교 기관(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기술학교)을 성인교육 활동에 활용한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성인의 수를 늘린다.
- 특별한 성인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학교 밖 활동들을 통합해 성인들이 시민으로서,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더 잘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개인과 공동체의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는 일을 증진하고, 자기교육을 장려하며, 자발적인 주도성을 발전시키고, 모든 교육적 수단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중점 이행사항은 국가와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있을 때, 그리고 경제의 산업 및 농업 부문 모두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만 실행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활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주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민간의 주도적 역할로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근본적으로 보장되고 교육학적인 혁신도 고무될 것이다.

사례

1.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대학’은 성인교육기관으로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자대학에서는 정규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둘 다 실시되며,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개방돼 있다. 입학을 위한 유일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다. 초등교육에서부터 고급 자격을 지닌 노동자들을 위한 극히 전문적인 주제 강의까지 모든 수준에서 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짜게 된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교육 과정의 부분들을 결합할 수도 있고, 특히 작업 그룹 등 그룹 방식이나 자기 학습, '사례사(case-histories)' 연구 같은 개별적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다. 학습자의 프로그램은 환경에 맞게 적용되거나, 지역사회와 개인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그리고 환경의) 교육적·사회경제적 요구에 관한 예비 분석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기능적 교육은 (직업적, 시민적,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므로) 똑같이 중시되며, 노동자의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발전도 마찬가지로 중시된다.

2. 성인교육은 급진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현재 스웨덴에서는 성인교육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스웨덴의 통계 수치에서 볼 수 있다. 1970-71 회계연도에 학습서클 회원 수는 약 160만 명이었다. 같은 해에 약 17만 명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성인교육 과정에 참가했다.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 과정에는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있다. 또 10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훈련을 받았다. 약 11,000명은 근로자 조직들이 마련한 강좌에 참여했다. 이처럼 공적 지원을 받는 성인교육의 참가자 총수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웠다. (이 나라의 20세 이상 성인 수는 약 550만 명이다)

13) 문해

원칙

문해 훈련은 성인교육에서 단지 '일시적인 시기(moment)',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근거

오랫동안 문해 훈련은 성인교육과 분리돼 있었고 심지어 대립하기도 했다. 또한 문해 훈련은 초등교육의 경쟁자로 여겨져 왔다. 읽기와 쓰기 학습은 지식, 적성 및 기술을 획득하는 다른 수단들과 대비돼 왔다. 문해는 오래도록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대중적 편견과 정치적 선동으로 초기 성인 문해 프로그램은 이런저런 방해 를 받았으며, 교육적 효과는 대체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 문해 활동이 직접 적인 사회환경 안에 통합돼있지 못했고, 문해 프로그램과 발전목표 간 연계는 느슨했다.

제안

비문해가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성인을 위해 기획되는 프로그램에 강력한 문해 캠페인을 포함해야 한다. 문해 활동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노동 인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지닌 집단의 문해교육은 우선적으로 기능 문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로는 조건이 적절할 때, 특히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사회의 발전 조건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문해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할 때는 대중 문해를 목표로 한다.

보완 설명

모든 문해 활동은 취업 가능성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의 발전 목표에 통합돼야 한다. 문해 활동의 범위는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노력의 범위에 잘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 노력을 위한 전략이 문해 프로그램의 전략을 결정해야 하며, 문해 프로그램에서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지식도 보급해야 한다.

대중 문해 캠페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지원 하는 한 정당하다. 과거의 실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는 문해 프로그램들이 시민으로서의 삶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기초교육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원하고, 동반하고, 뒤따라야 한다.

사례

이란의 이스파한(Isfahan)과 데즈(Dez)에서 실시된 기능적 문해 프로젝트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문해가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즉 비문해자가 극복해야 할 특수한 어려움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해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된 환경에 관한 사전 조사와 심층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분석과 유형 구분을 통해 개입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일련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제적 ‘유형학(typology)’을 규정하는 것이 시범 프로젝트 실시 지역의 중기 발전 목표의 기능이다. 중기 발전 목표는 3차, 4차 국가발전계획의 일반적 목표에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충분히 동질적인 사회-직업적 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작업 상황에 관련해서 보았을 때, 그 집단은 유사한 직업자격 보유가 필요했으며, 수적으로도 공동 활동 팀을 조직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년간 시범 프로젝트가 운영돼, 15개의 특화된 문해 프로그램이 다양한 환경을 가진 비문해자들의 요구와 동기에 맞게 선정되고 계획됐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문해 훈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직업 훈련에 강조점을 두는 학습 과정에 통합시키려는 시도였다. 그 목적은 언어학습을 기술 훈련에, 수학을 기술에, 기술적 도안 작성을 기술 관련 주제들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적 요소(읽기, 쓰기, 상징기호)가 기술적·직업적·사회경제적 요소들과 통합됐다.

이 실험적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971년 중 실시된 시험 결과에 대한 최초의 결과 분석을 보면, 몇몇 학문분과에서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었다. 즉, 교육학(지식의 획득), 실제적 활동(농업 프로그램에 대해 추천된 방식 채택), 사회학(태도, 현대 생활에 대한 개방적인 마음가짐),

경제학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4) 자기 학습(Self-learning)

원칙

이 시대의 새로운 교육 정신은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발전의 주인이자 창조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학습, 특히 지원을 받는 자기 학습은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다.

근거

교육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늘어났으며,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서 자기 교육과 자기 학습의 실천 방식들이 보급되고 그 원리가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개인의 우연한 발전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배움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은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먼저 통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교육학적 접근법을 의미한다. 또한 배움을 위한 학습은 활동 습관(work habits)을 익히고, 학교나 대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하는) 학습 동기를 일깨우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학교나 대학에서만 이 아니라 다른 곳, 즉 모든 유형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각자의 학업이 알찬 결실을 거두는 활동이 되도록 그에 맞는 수단과 도구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의 자기 학습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야 한다. 자기 학습의 효과는 자기 지도 기법의 습득과 다양한 보조적 지원을 통해 크게 향상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자기 학습의 발전을 위한 교육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야 한다.

제안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과 교육 서비스, 즉 언어실습실, 기술 훈련 실습실, 정보센터, 도서관 및 관련 서비스, 데이터 은행, 프로그램화되고 개별화된 교수 보조기구, 시청각 기구 등은 모든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보완 설명

비록 자기 학습을 하나의 단독 목표로 여기지는 않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 학습은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 자기 학습을 실행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도 교육 전략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초기에는 특정 인구 집단에 한정해 실시하더라도, 자기 학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수백 명의 청년과 성인이 진지하고 꾸준하게 자기 학습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온 것에 관해 온타리오교육연구소(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의 앨런 터프(Allen Tough) 교수 등이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연구자들은 모든 경제적·사회적 수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이 스스로 자기 학습을 관리할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주도학습은 개별화 학습과 같은 것이 아니다. 때때로 학습자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강좌 수강이나 집단에 등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주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학습자이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교사와 도서관 사서 외에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학습 과정을 도운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자일 뿐 아니라 ‘선생님’이기도 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기주도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와 경험은 학교와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기관, 그리고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15) 교육 공학

원칙

복제와 통신의 새로운 기법의 효과가 가속화되고 커지면서 이는 대부분의 교육 혁신 방안 도입에 기초가 되고 있다.

근거

지금까지 학교 체제에서는 기술적 진보와 과학적 발견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대체로 산발적이고 임시변통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교육에서 새로운 장비의 적용은 오래된 교육적 방식을 따라 주변적인 업무와 기록, 암기 반복, 자료 배포 등에만 주로 한정되었다. 또한 처음부터 교육을 기술적 발전의 혁신과 연계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많은 구조적 개혁이 교착 상태가 되거나 방향이 틀어졌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육 기술의 체계적 이용을 통해 교육 발전을 위한 애초의 계획이 작업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벌기도 했다. 새 기술은 자격을 갖춘 교수 인력을 재배치하고 더욱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중퇴자와 유급자 수를 줄임으로써 교육 시스템의 내적 효율성과 산출 결과를 향상시켰다.

제안

1. 교육 시스템을 개념화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용수단과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통합된 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2. 교육 시스템에 기술적 지원을 활용할 경우, 그 구체적 전략은 경제 발전 수

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보완 설명

교육공학과 관련하여 채택되는 전략은 해당 교육 시스템의 성격과 그것이 이용 가능한 자원, 적용되는 기술적 매체의 형태, 그리고 기술들이 도입되는 교육적 부분에 각각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공학을 교육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은 정보를 보급하는 더욱 많은 네트워크와 대규모 데이터 저장 설비,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평가 및 지도 기법의 도입을 통해 개별 학생 수준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습 그룹과 교육기관, 국가 공동체 수준에서 이들을 더욱 개방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기술적 매체의 선택에 관해서는 멀티미디어 방식이 장점이 많은데, 이때 하나의 복합적인 접근법 속에 다양한 매체를 함께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를 동시에 전파하는 값싸고 쉬운 수단으로서 라디오는 대중교육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돼야 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기초교육에 이용돼야 한다. 다양한 보조 방법을 이용하는 더욱 정교한 통신 시스템은 특정 국가의 특정 수준에서는 유용하게 도입될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아 적절한 교육적 맥락에서, 예를 들면 고등 단계 기술교육 등에 적절히 통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기술적 적용(중급 기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되고 이용돼야 한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중급 기술 관계자들을 장려해야 하며, 이는 전체적인 사회적·환경적 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나라에서 특히 그러하다.

교육공학은 우선 학교 밖 활동이나 원격 교수 활동 같은 부문에 적용돼야 하는데, 이는 변화에 거친 거부감을 드러낼 위험이 있는 낡은 구조에 교육공학이 얹혀질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그 외의 분야로는 심각한 외부 압력 때문에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부문들, 예를 들면 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이 있다. 다양한 기술적 수단의 통합적 이용에 기반한 학교 체제는 전통적 체제의 확대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대안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캐나다 퀘벡(Quebec)의 테벡(Tevac) 프로젝트의 일반적 목표는 9년간의 학교교육을 완수하지 못한 일부 성인 집단을 해당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 요소를 연결시켰다. 첫 번째는 소위 학문적 과목(프랑스어, 영어, 수학)이고, 두 번째는 보건, 정의, 참여, 사회복지, 정부 등 여러 주제 목록에서 뽑은 사회-경제-문화적 주제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행 중인 사회에서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

교육학적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 사이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을 결합하고자 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주 5일 동안 90분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통신학습과정(하루 평균 15,000건의 회신), 참가자와 교사 간의 인적 교류(3주마다 체계적인 가정 방문), 매주 TV 클럽 모임을 갖고 시청한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기 등이 이루어졌다. 표본 조사에 따르면 35,000명이 규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았고, 11만 명이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이러한 경험은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캐나다 전 지역을 포괄했고, 학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훈련 범위를 넓혔으며, 주제의 전달과 주제 관련 활동에서 몇 가지 방법론을 결합시켰고, 연구와 그 결과의 적용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 소련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특별 TV 프로그램을 매일 5-8시간 방송한다. 교사를 위한 방송 내용은 소련 교육과학연구원(Soviet Academy of Pedagogic Sciences)이 결정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학자와 심리학자, 학교 교육의 여러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출연한다.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얻은 지식을 증진한다. 또한 학부모 대상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의 주요 원리를 소개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16) 새로운 기법의 적용

원칙

교육에서 새로운 기술을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 자체 내에서 충분한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

근거

교육 구조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들도 잘 준비돼야 하고 적절한 자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

1.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교육 예산 증가액의 일부를 고정분으로 확보해 고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보완 설명

교육 기술의 모든 가능한 자원이 교사훈련기관에 체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이 기관들은 점차 평생교육 훈련센터로 전환돼야 하고, 교육 부문 외의 다른 활동에 종사하면서 시간제나 기간제로 활동하는 교사에게도 개방돼야 한다. 교육자를 위한 전문적 훈련에서는 특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교수 활동의 범위 안에서 교육자가 말을 감독 및 조정의 역할에 대비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교육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학습 목표의 기획 및 개정, 시스템의 조직, 지도와 평가, 자료 제작(인쇄물,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등), 그룹 역동성과 시설 유지 등을 담당할 전문가를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교육 예산의 연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배정해

(예를 들면 몇 년에 걸쳐 증가액의 절반 정도)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식 개발에 충당해야 한다.

사례

코트디부아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초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방안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 조직 전반에 대규모로 도입한 좋은 사례며, 이런 방식이 교육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트디부아르의 현행 5개년 계획에 규정돼 있는 방안의 목적은 텔레비전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텔레비전을 전 인구에 보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또한 통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문화적 통일에 기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80년까지 약 16,500개 교실에 텔레비전을 구비할 예정이다며, 초등학교1학년 수업, 교육을 받고자 하는 13-17세 청소년, 그리고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 및 정보를 원하는 모든 성인 인구가 텔레비전 시청을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초등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1969년 406,000명에서 1980년에는 830,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립교육 부문만 보더라도 (이전의 371,000명에서) 72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까지 취학률 증가는 인구 증가와 병행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6세가 돼 학령기에 도달한다. 1986년까지 6-11세 연령집단 전체가 취학할 것이고, 모든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과 교사 관련 비용을 포함해 산출한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연구가 진행된 때인 1967년 13,500 CFA 프랑(*역자 주: 옛 프랑스령 아프리카 국가의 통화 단위)에서 18,500 CFA 프랑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자동진급제도의 채택과 중퇴자 감소로 사실상 상쇄될 것이다. 유급자와 중퇴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월드뱅크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전통적인 교육 체제를 유지한다면 텔레비전을 통한 교육 체제 보다 44%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교육과 사회경제적 연구가 세부적인 계획에 앞서 이루어졌다. 교육학적 실험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프로젝트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용, 방법, 학교 건물의 불가피한 변화 역시 연구 주제였다.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루어진 혁신 가운데는 학생의 자동진급과 더 좋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훈련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집중적 교사훈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요구되었고, 수정 보완을 해야 했다. 종래의 교수 절차를 텔레비전으로 대체한 것은 교수 방법이 변해야 함을 의미했으며, 교사들은 새로운 교과목뿐 아니라 시청각 기술, 의사소통 심리학, 그룹 다이내믹(group dynamics), 방과후 활동, 새로운 평가 기법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했다.

새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구성과 수업의 순서를 조정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정 작업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매우 다른 종류의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요구에 맞춰 향후 중등교육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텔레비전의 도입은 학교 밖 교육과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들도 기존의 행정 절차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17) 교사의 지위

원칙

교사라는 직업이 현대적 교육 시스템에 좀 더 잘 들어맞는 구조로 구성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지도 못한다면, 미래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근거

교육 활동이 증대되고 다양화되면서 필연적으로 교육자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수적 증가는 불가피하면서도 동시에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교직원에 대한 비용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성과 증가를 동반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교사 급여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비 비용이나 혁신 및 연구 비용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운영비가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를 방해할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이익이 큰’ 교수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선결조건이 되어 오늘날의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보다 큰 가치 부여가 가능해진다.

초등학교 교사, 기술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등의 구분에 위계적인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급여 수준이나 승진 제도가 교수의 형태에 따라 달라서도 안 된다. 교육의 어느 분야에 있든 교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오직 개인이 보유한 능력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교수 활동이 어떠한 영역에서 수행되든 교사의 역할은 같은 방식으로 인식되며, 동일하게 존중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제안

법제적인 활동, 전문직 활동,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통해 지금까지 아무런 타당한 근거 없이 다양한 범주의 교사들 사이에 유지돼 온 위계적 구분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

보완 설명

교사의 역할은 어디에서나 본질상 가치 있고 소명을 받은, 하나의 단일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 교수활동의 수단과 기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각 교사들은 아동, 청소년, 성인 중 자신이 다루기를 선호하는 쪽을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선호 거주지에 따라서 시골, 중소 도시, 대도시 등을 전문 영역으로 택할 수 있으며, 물론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교사는 그저 승진과 재정적·사회적 이득에 대한 욕망을 따라 더 큰 도시나 교육기관으로, 교육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최고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는 것을 좇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례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을 통해 초등 및 중등 교사를 위한 훈련과 급여 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 즉 체코, 덴마크,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이 두 범주의 교사들에게 대학 및 그에 상응하는 중등 후 교육 기관에서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한다. 또 다른 여러 나라들, 즉 프랑스, 폴란드, 소련 등에서는 이들을 똑같이 대학 수준에서 훈련한다. 교사들의 가르치는 기능은 초등이나 중등 교육에 상관없이 모든 의도와 목적 면에서 동질적이며, 이는 중등학교 교사가 교육학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널리 인정된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더불어 교사훈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18) 교사 훈련

원칙

오늘날 교육자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과제 중 하나는 모든 직업에 내재하는 마음가짐과 자격인정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우선 교직의 기준과 기본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직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일을 넘어 학생을 교육시키고 자극하는 일로 꾸준히 변하고 있다.

근거

오늘날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학교 안과 밖, 아동교육과 성인교육의 구분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오늘날 훈련 받은 교사들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교사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훈련은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며 기획돼야 할 것이다.

제안

교사들이 훈련 받는 여건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겨야 하며,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교사들은 미리 설정된 교육과정을 전수하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교육자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처음에 집중적인 훈련 단계를 거치고, 이어서 주기적인 현직 훈련을 실시하는 원칙이 채택돼야 한다.

보완 설명

미래의 교육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를 따라야 한다. 전문가 훈련의 차원에서는 학령 전 교육, 학교 교육학, 기술 교육, 학습부진 아동 훈련, 성인교육자 등 정해진 수의 미래 전문가를 위한 훈련 일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조직가-교육자(organizer-educators)들을 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아동교육과 성인교육 양쪽에서, 그리고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교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일반적 교사 훈련생들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의 교육에 필요할 기술의 범위를 모두 언급한 것은 아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교육 자료와 자기 학습 장비, 교육적 기법의 활용에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시청각 교구 보조자, 지역사회 센터들의 ‘활성화전문가(animators)’, 시험 및 진로지도 전문가, 심리학자, 새로운 유형의 행정가, 시스템 분석가 등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 훈련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이들의 과제 변화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미래 교육자의 과제란 인격을 교육하면서 학습자에게 실제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사례

1. 에티오피아 중등학교 교사들은 4년제 대학교 과정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한다. 현재 이 과정의 후반 2년간의 수업을 6회에 걸친 여름방학 강좌로 대체하도록 재구성하자는 제안이 있다. 대학이 방학 중인 기간에

시설과 교직원들을 활용하게 되면 교사들을 두 배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 역시 2년 일찍 교직에 부임할 수 있을 것이다.

2. 잉글랜드에서 교사훈련 재조직에 대한 제임스 보고서(James Report)는 현직교육 및 훈련 증대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들이 매 7년마다, 앞으로는 가능한 더 잦은 매 5년마다, 한 학기씩 유급 휴가를 갖도록 제안했다. 이 기간은 단기 직장연수 활동 프로그램의 확충으로 보완될 수 있다.
3. 최근 유네스코의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카메룬,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니제르, 토고)에 교사양성기관이 설립됐다. 기관의 기본 목적은 단순히 교실 수업이나 교과목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하게 될 현지 사정에 잘 적응하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발전 활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할 기술이 있는 농촌 교육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사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갖는다.
 - 1) 기본적으로 시골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지역 ‘활성화전문가(animato)’로서 기술을 갖추도록 교사를 훈련한다.
 - 2) 이미 재직 중인 교직원, 초등학교 장학사, 교육 자문가, 고등학교 교사, 각급 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에게 재훈련 및 고급 훈련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교육 개혁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고 새로운 방법과 기법을 시도하도록 한다.

19) 전통적/비전통적 교육자

원칙

교육은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이 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전체 인구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여러 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 볼 때, 이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분명 사회-경제적 발전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사회 정의 구현을 향한 강력한 운동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제안

보다 많은 여러 직업 분야의 지원인력과 전문가(노동자, 기술자, 전문직 및 경영직 임원)가 전통적인 전문 교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적 자본’의 획득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의무를 가지면서 지적 소유권을 갖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보완 설명

구체적인 목적은 학교에서 아동들과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와 지원인력의 수를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 보조원들은 ‘무료로 가르치는 교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 외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으로 교수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조원들은 교육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례

1. 미국의 사례를 보면 관련 활동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 있다.

1) 부모 자원활동가(Volunteer Parent Aide): 주로 어머니들이 참여

하는데, 아이들이 작성한 글 고쳐주기, 책 읽어주기, 수업 자료 만들기, 점심시간이나 운동장에서 아동 집단의 감독, 교사의 보조 역할 등을 한다.

- 2) 지역사회 자원활동가(Volunteer Community Aide): 특별한 기술을 가진 개인들로, 수공예 기술자, 광학기계 전문가, 사진사, 우표수집가, 정치가, 세일즈맨, 보험 전문가, 경찰관, 요리사, 낙농가, 소수 집단 회원 등으로 그 범위는 무한하다.
- 3) 학생 자원활동가(Volunteer Student Aide): 누군가의 배움을 돕는 일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제공한다. 대체로 좀 더 나이 많은 아동이 저학년 교실에 가서 읽기를 시키거나 책을 읽어주며, 기초적인 수학 문제 연습이나 그 밖의 학습 기술 영역을 보조한다.

2. 1961년부터 쿠바는 5세까지의 어린이 50,000명을 위해 주간 탁아소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대체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탁아소를 운영했는데, 이 여성들은 유아교육에 관한 특별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만으로 준비돼 있고, 집중적 현장 연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부모들은 목공, 페인트, 재봉, 원예 등 유지관리 팀 활동들도 돕고 있다.

20) 학교생활에서 학습자의 위치

원칙

전통적인 생각이나 관행과는 반대로, 교수 활동은 학습자에 맞춰져야 한다. 가르치기 위해 미리 설정된 규칙들에 학습자가 반드시 순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근거

학습자의 위치와 역할은 교육 시스템의 성질, 가치, 궁극적 목적에 대한 본질적 척도다. 학습자의 위치는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의 정도와 학습자를 선발하는데 적용된 기준, 그리고 학습자가 질 수 있는 책임의 성질과 정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제안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을 하는 것, 학습자에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더욱 큰 자유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어디서·어떻게·무엇을 학습하기를 원하며 훈련을 시작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교과목이나 학습 방법에 관련된 몇 가지 교육학적 의무와 사회문화적 의무들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자유 선택과 학습자들의 심리적 성향 및 동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보완 설명

학생들의 자유 선택은 반드시 그들 자신 및 학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학교 생활의 조직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규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정은 점차적으로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가 교육적 방법이나 교과목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습자는 특히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교육기관 및 훈련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흥미를 느끼는 선택 교과와 보충 교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무 교과들은 기성체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교수 내용이나 일반적인 교수 방법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인의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사례

1.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의 교육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는 교육기관의 사례는 많이 있다. 서독의 종합학교(Gesamtschulen)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능력을 격려하고 대학 교육과 현대적 직업 훈련에 가까운 작업 방법을 도입하고자 노력한다. 학생은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의 종류를 입학 직후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교과목은 주요선택과목, 보충과목, 기본과목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주요선택과목과 보충과목은 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선택 과목이다. 기본과목만이 모든 학생의 필수 이수사항이며, 이는 시민·사회생활 훈련, 시각 예술이나 음악, 체육, 종교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각의 학생이 각 과목에 쏟는 공부 분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가 허용된다.

한편, 과목 선택에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몇 가지 조건이 부여된다. 첫째, 핵심 과목은 모국어 한 과목과 외국어 한 과목, 그리고 실험과학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는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특정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하여 격차를 메우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 주요 과목으로 독일어,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를 선택한 경우, 학교는 수학, 화학을 보충 과목으로 부과할 수 있다.
- 2) 학생이 주요 과목으로 독일어, 수학, 물리학, 화학을 선택한 경우, 학교는 영어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보충과목은 학생이 선택하도록 한다.
- 3) 학생이 독일어, 수학, 영어, 생물학을 선택한 경우,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충분히 균형이 잡혀 있으므로 보충 과목은 학생의 자유 선택에 맡긴다.

2. 런던의 프라이어 웨스턴(Prior Weston) 초등학교는 1966년 <플로우든 보고서(Plowden report)>의 제안에 따라 학습자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영국의 초등교육을 폭넓게 변화시킨 뛰어난 사례다. 아동 중심, 활동 중심

의 학습이 교실 없는 환경, 즉 교실 공간과 연령 능력별 집단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방 계획’으로 제공되는 활동 영역은 교과 학습, 읽기, 미술, 기타 수작업과 놀이 등이다. 5-7세 아동들이 섞여서 같은 내용의 수학 프로젝트(예: 자기 집단의 신체 치수와 특징을 수집, 정리, 분석하기 등)에 참여하고, 문제를 더 빨리 푼 학생은 다른 학생을 돕는다. 시간표는 융통성이 있고 모듈에 기반한다. 학생들은 어떤 주제나 제목을 갖고 하루 이틀 동안 조사하고, 한 가지 주제나 화제를 선택하여 이를 서술하며(글쓰기, 수학 용어 및 색칠하기 등으로),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활동을 진행한다. 읽기와 쓰기 교육은 직접적인 환경과 개인적 관심에 기반하며, 책을 베끼는 연습보다는 창의적인 표현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협동적 활동, 자기 학습의 많은 부분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훈련을 격려한다. 교장과 교사는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난다. 학부모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나아가 놀이 감독과 수작업 보조, 단체 독서 활동 등에서 보조 역할을 하도록 권장된다.

21) 학습자의 책임

원칙

수동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혹은 대다수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지 못하는 교육 개혁은 기껏해야 주변적인 성과밖에는 얻을 수 없다.

제안

모든 학습자들은, 젊은이든 성인이든, 그들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교육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완 설명

교육 활동 참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할 뿐 아니라, 그 방식도 교과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학습자의 책임은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물질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경우 최대한으로 커진다. 물론 학습자의 책임은 프로그램을 결정하거나 방법론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게 되며, 일반적으로 재정문제나 신입교사를 임용하는 등의 문제에서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및 그 외 다른 사람들과는 독립적으로, 또한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의 형태는 계속 진보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주며, 강력한 지지를 받거나 때로는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참여의 특정 형태(감사, 공동운영, 자체운영 등)는 이제 초등학교와 지역사회, 중등학교, 기술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 혹은 지방적 수준의) 일부 성인교육기관과 학교 밖 조직의 틀에서도 참여가 이루어져, 교육 프로그램, 연구, 교사 승진, 교사 급여, 투자 등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실험은 세계 곳곳의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직 상대적으로 사례는 적지만 참여 운동이 취한 경로와 그 확장의 과정을 주목할 만하다. 벌써 오래 전부터 학생들은 ‘사회적’ 영역, 즉 학생기숙사, 스포츠 활동, 위생 및 보조 서비스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받았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때때로 일반 정책 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특정한 개혁안을 제안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 최근 학생 참여는 대학 구조의 여러 부문과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특정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학 구조를 배타적으로 장악했다. 이제는 교육적 방법과 학습 프로그램이 점점 더 참여 기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요 경영 기구들(교수 협의회, 전국위원회, 정부부처별 위원회)이

구조를 조정하여 학생 대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입학, 시험, 재정 및 교육 일반 행정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학생 대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³⁾

또한 언급할 만한 것으로는, 이 분야에서 경험이 없거나 특별한 전통이 없는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도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영향력은 직접적이든(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간접적이든(말레이시아, 태국) 간에, 대학 및 전국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3. 방식과 수단

교육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혁신 과제를 파악하고 자극하고 실험하는 일, 다음으로 교육 시스템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일, 끝으로 교육 재정 수단을 찾는 일이다.

교육 시스템 진단

전반적인 혁신 전략은 ‘해당 분야 안에서’ 다소 우연적이며 부분적인 혁신들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생겨날 수 없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려면 반드시 교육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전반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운영 기제들에 대해,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연계된 다른 시스템들, 즉 경제, 교통체계, 통신, 문화 활동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균형 파악

그러한 진단을 통해 우리는 불균형의 주요 영역을 내부(낮은 교육 산출 결과, 엄청나게 높은 비용 등) 및 외부(노동시장 연계, 사회적 요구 및 개인적 바람 등과의 연계성 부족 등)로부터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제약이

인간적인 것인지, 정치적이거나 재정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관련 변인을 도출해 우리가 바꿀 만한 것과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한다면 교육이 현재 기능하는 방식을 모델로 구축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해 교육 시스템 변화로 예상되는 결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방안 선택

그 다음 과정은 가능한 선택지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된다. 첫째, 모델에서 예상되는 불균형 지점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기, 둘째, 실제적인 혁신 방안을 목록으로 만들고 새롭게 가능한 혁신 방안을 탐색하기, 셋째, 여러 가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파악하기, 끝으로 정책 결정 수준에서 채택할 만한 전략을 공식화하기 등이다.⁴⁾

실험

위에서 제시한 이론적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혁신 방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더 나아가 체계적으로 혁신 방안을 적용하기 전에는) 이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 방안과 잘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관’ 실험을 해 봐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그 선택은 임의로 선정된 제한된 가설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선택 방안 전체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혁신 방안의 범위는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 목록화되어야 한다.⁵⁾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 기대했던 것만큼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지금까지 다른 분야들보다 아주 제한된 자원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 교육당국자들은 교육학적 연구에 배정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이 혁신을 위한 강력한 한 방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교육 시스템과 교육학적 연구 체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기껏해야 학습에 대한 대학교의 이론적 연구나, 특정한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실험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다. 즉, 어떠한 교육학적 연구가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스템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 시스템이 교육학적 연구와 잘 맞물릴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해결방안은 창조적 실험지구나 실험 부문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상황 속의 모든 변인들이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 시스템이 대립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한 연구기관을 특정 지역에 연결하고, 그 지역의 교사-연구자-행정가로 이루어진 팀에 최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을 위한 추동력은 교사들의 창조적 자유와 시스템 설계자들의 무겁고 느린 교육학적·사회적 중량감 사이의 '격차'를 계기로 형성된다. 이는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 연구를 위해 실제적인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며, 교사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처음부터 잃지 말았어야 했던 창조적 자유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실행 계획의 요소

특히 연구와 실험을 조율하도록 설립된 조직이 있을 때 혁신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유형의 교육적 기관들과 서비스에는 그런 과제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일련의 '작업실(workshops)'로 구성된⁶⁾ 조직에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작업실은 시스템 분석, 프로그램 개발, 대안적 프로그램의 원형 생산, 교육적 방법과 기술의 개발 및 실험과 훈련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혹은 과학적 기관⁷⁾에서 여러 교육 분야의 연구 및 실험을 그룹화하거나 조율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개혁 체제⁸⁾의 틀 안에 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다.

우리는 교육 혁신의 도입에는 연구와 실험 간의 긴밀한 상호조정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교육개발센터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혁신 시리즈를 만들어 내면서, 교육이 ‘영구적인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탈중앙화 돼 있는 나라들에서도 교육 개혁은 단지 산발적인 방안들로는 더는 효과적일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부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책임을 아주 잘 인지하게 되었고, 교육 문제가 중앙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대중이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교육당국들은 각국의 특수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 개혁에 참여해야 하고 개혁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혁신을 기존 시스템과 일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중앙 행정기구에 의해 시작된 변화의 효과는 마치 파동이 번져나가듯이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외부적으로 퍼져갈 것이다. 교육 시스템에서 한 가지 가벼운 조정만 해도 그것은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조정 시도는 행정가, 교사, 심지어 학부모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모든 반응이 결합되면서 교육 시스템을 더욱 마비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변화를 승인하는 움직임에 불을 붙이고 변화의 잠재적 과정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고 보완될 때, 이런 식으로 풀려난 현상은 일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나아가 시스템 전반에 변형을 가져오는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 혁신이 저절로 긍정적 연쇄 반응의 고리를 촉발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부분적 변화들을 기계적으로 덧붙이는 것 역시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라는 발상을 (우연적이거나 의도된) 조정들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달리 말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결과를 증폭시키거나 일종의 메아리 효과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럼으로써 주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정들의 결합이다. 우리는 문제적 상황의 형태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어 몇 가지 전체적인 조정으로 전체적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상상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적이 되어 어떠한 조정도 시스템 내의 관성의 힘에 대해 주변적 의미만 가질 뿐이라고 믿는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다.

대립적으로 보이는 요건들

모든 현대 행정에서는 얼핏 보면 대립적으로 보이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수준에서 책임감을 불어넣으며 자발적 주도성을 고무하는 것이다.

이들 중 첫 번째 요건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볼 때 — 공동체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자원들이 이용되고 일반적인 목표들이 규정되는 방식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생겨난다. 즉, 책임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들이 전체 시스템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중앙집중화로부터 벗어나고, 유연하고 공감적이며 간섭하지 않는 접근법으로 현장의 주도성을 고무할 때 사업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이 책임을 맡고 지역 사회가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육은 인간 활동 중에 특징적으로 창조적인 영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앙 교육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활동에 대해 전체적인 관점을 갖는 것, 국가 정책의 요구와 여러 측면의 지역 및 개인들의 주도성 간에 조화를 꾀하는 것, 의사결정 및 승인된 수단의 적용에 탈중앙화를 고무하는 것, 교육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관계자들의 참여를 발전시키는 것.

기능적 재조직화

기반을 탈중앙화는 꼭대기를 세분화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탈중앙화가

효과적이려면 하나의 단일한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교육과 고등교육, 기술교육에 대해 분리된 정부 관할청이나 행정 부처를 두는 관습은 교육적 진보를 돕기보다는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의 단일한 정부 당국이 교육 활동에 대한, 혹은 적어도 학교 체제 전체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질 것을 권고한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 학교 체제의 행정을 직업 훈련, 라디오 교육 및 문화적 교육과 완전히 통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도 이런 방식의 폭넓은 재조직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사회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농업, 교통, 투자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아마도 앞으로는 ‘교육’(혹은 ‘인적 자원’)의 전체 개념이 똑같이 폭넓게 적용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교육부와 함께, 혹은 교육부 대신에 정부 혹은 다부처간 교육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다.

참여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 정책의 개발이나 적용,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의사결정 및 책임과 자원에 대해 탈중앙화할 것을 권고하며, 더불어 모든 수준과 영역에서 교육 활동의 결정과 수행에 교육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참여와 공동운영 및 자체운영을 위한 무한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가 미리 국제 사회에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교육 재정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달해야 할 최저선’이나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 등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과거로부터 단순히 추정된 것에 바탕을 두어서는 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GNP나 국가총지출에서 교육에 배정하는

예산 비중이 증대한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일 때조차도, 교육 시스템의 개혁은 교육 투자로부터 생기는 산출 결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문제를 재정의 하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는 예산 지출과도 관련될 수 있고, 혹은 국가 경제 및 자원의 전체 위치와도 관련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교육 발전에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재정 정책을 3종의 목표, 즉 지출 증가와 자원 다양화, 단위 비용 감소라는 목표에 맞출 것을 권고한다.

지출 증가

지출 증가에 관한 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교육 예산을 현재보다 좀 더 지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세 수입을 보다 급속도로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보다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재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 적절한 조언을 하자면, 교육부와 교육 사업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다른 정부기관들(예를 들면 산업계, 농업계, 또는 사회 발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재정 부담을 나누어 지는 것이 좋다. 국세로 충당하는 교육비 지출분과 아울러, 지역사회가 교육에 대한 전체적 기여분을 높일 가능성도 상당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다양화

교육 재정의 재원과 수단을 다양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완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대중은 교육의 발전 방식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특별 교육세 납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 대중은 교육 프로젝트의 재정 충당을 위한 정부 대출금 신청에도 분명한 반대를 드러내지 않으며,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원칙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확립된 나라에서는 그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학부모와 성인 학생들이 교육의 일정 부분에서 자발적

으로 약간의 교육비를 내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직·간접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수단에는 ▲전문적 훈련 대학들이 자체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것 ▲일부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민간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 ▲민간교육 기관과 비영리 원칙으로 계약을 맺는 것 등이 있다.
- 또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로는 ▲기업들이 전문적이거나 일반적인 교육의 조직을 맡고 그 대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사회복지자금으로 특히 재적응 훈련 과정에 기여금을 내도록 요건화하는 것 ▲기술 장비 대금을 지원하도록 은행 융자를 마련하는 것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들, 즉 교재, 영사기, 시청각 장비, 운동용품 등에 세금 및 관세 면제 조치를 하는 것 등이 있다.

비용 절감

세 번째 목표인 손해 없는 비용 절감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제안됐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부제의 ‘시간차를 둔’ 출석, 학습에 최적화된 연령대로 학령기 조정, 기존 시설과 인력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다른 방안 등⁹⁾
- 정규 학교보다 비용이 덜 드는 ‘매체’의 채택
- 보다 급진적인 대안적 교육 방법 사용
- 준-자격의 교사들을 활용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단(워크숍, 통신학습과정 등)이나 방송과 TV 등을 이용¹⁰⁾

혁신의 주제나 실험에 관해 이용되는 정보는 아직 충분히 확신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보기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은 실행해 볼 만하며, 효과 면에서도 좀 더 믿음이 간다.

첫째, 우리는 일정한 학력 취득에 필요한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도록(단, 기준을 축소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수 방법을 완전

하게 만드는 것, 학습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 습득해야 할 지식을 세심하게 선별하는 것, 그리고 학습과 일을 직접적으로든 연속적 단계 방식으로든 결합시키는 것 등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보다 교육의 경제화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¹¹⁾

두 번째로 중요한 비용 절감의 방책은 사람들의 주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에는 학교 건축 작업, 임시 구조물 설치, 용지 정리 및 기타 교육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있다. 우리는 전체 인구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젊거나 나이든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갖도록 호소해야 한다.

일반적 방향성과 개별적 적용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로부터 사람들은 교육을 위한 일종의 핵심 전략적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나라든 자국의 경제와 이데올로기, 편리성에 따라 유용하게 여겨지는 것은 빌려 쓸 수 있을 것이다.¹²⁾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각 전략이 적용될 타이밍, 선택과 우선순위의 위계적 순서, 그리고 많은 변인 사이의 연관성은 오직 각 나라의 요구와 가능성에 달려 있다.

어떤 나라는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에게 교육에서든 다른 영역에서든 엄격하고 절제된 훈련을 부과할 수도 있다. 때로 그런 나라들은 — 본 보고서에 담긴 교육의 이념과는 여러모로 상반되는 — 개인의 자유 선택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제약이나 제한을 절대적 규율이나 가치가 아니라 변증법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변증법적 수단을 통해 머지않아 이러한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즉 문제가 되는 그 제약이나 제한이 소멸되는 객관적 조건이 달성될 수 있다.

목표로 추구하는 균형의 유형과 일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주요한 노력을 초등학교에 쏟아 부으면서, 그와 같은 관심을 중등 단계로 돌리기 전에 초등학교 체제의 완전한 발전을 이루겠다

는 확고한 결의를 가질 수도 있다. 다른 나라는 아동 대상 학교 교육과 성인 대상 문해 프로그램을 조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나라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체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많은 산업선진국 중에서도 유사한 대안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들은 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관심으로부터 우선순위가 선택된다. 그러한 불균형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어떤 나라는 초등교육은 미발달 상태인 데 반해 중등교육은 과도하게 발달했으며, 성인교육은 부적절하지만 기술교육은 필요한 수준에 와 있다. 다른 나라는 초등교육은 바라는 만큼 되었지만 중등교육이 미발달 상태며, 노동자 훈련 방안은 경시되는 반면 고등교육은 과도하게 발달되기도 했다. 또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취학이 완전히 달성되었고 성인 문해교육은 발전 중이지만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중등교육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등교육은 미발전 상태며 학교 밖 교육은 전무하다. 많은 나라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형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들과 이리저리한 전체적 교육 전략의 선택을 뛰어넘어,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교육의 미래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해 온 이념인, 전반적인 발전의 방향으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교육의 필수불가결한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교육의 모든 요소, 즉 이론과 실천, 구조와 방법, 관리와 조직을 하나의 동일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1970년대에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개혁과 변화의 본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령기’로) 시간 제한을 둔, 그리고 (학교 건물에) 공간적으로 한정된 교육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총체적 교육 활동의 기초 요소로 간주해야 하며, 전체 교육 활동은 제도화된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교육 활동의 일부를 탈형식화된 유연하고 다양

한 모델로 대체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교육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계속훈련의 확대를 통해 초기교육의 평균 지속 기간이 짧은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교육을 인생만큼 길게 가는 실존적 연속체로 여겨야 한다.

‘폐쇄형’ 교육시스템은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 후 교육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 교육의 흐름 속에 지름길과 갈래 간 접합지점(branch-articulation)을 도입해야 한다.

학령 전 아동 교육의 강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일에 가족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형태를 선정하고 육성해야 한다.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모든 가용 수단을 기초교육의 발전에 적용해야 한다.

일반계 교육과 직업계 기술훈련은 서로 협력적이어야 한다. 성격 발달과 지적 훈련은 조화로워야 한다. 교육과 일도 긴밀히 관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용면에서나 지도방법면에서나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드는 기술교육은 학교 밖 직업 훈련으로 보완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체해야 한다. 훈련이 잘 조직되어 취업 중에도 재진환이 촉진되고 최적의 직업 이동을 이루도록,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나 훈련생들의 관점에서나 가능한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 선택의 폭이 좁고 너무 이른 전문성 선택은 사라져야 한다.

더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대학교는 성인과 청년층 모두에 열려 있는 다목적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며, 전문성과 과학적 연구만큼이나 계속 훈련과 주기적인 역량 증진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은 최대한 개별화·개성화해야 하며, 자기 학습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수업과 학습의 과정은 그것이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인 모든 곳에서 가속화되어야 한다. 교육 자료들을 복제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기법들을, 예상되는 혁신에 대단히 잘 맞는 것들로 보다 빠른 속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기술은(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교육학적 방법의 원천으로, 그리고 교육 활동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교육의 운영은 민주화되어야 하며, 일반 대중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정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이 모든 세부사항을 다 탐색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 나타나는 요구와 가능성에 적합한 교육 활동의 포괄적 개요를 제공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석

- 1)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혁신’이란 용어는 최신 기법의 발명과 연구 및 적용에서의 변화, 그리고 교육적 실천 조정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교육 과정의 생산성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천에서의 어떤 개선이 반드시 혁신인 것은 아니며, 교육적 행동의 변화가 곧 혁신이라는 뜻도 아니다. 따라서 충분히 시도되었던 실천으로의 전환, 기법적 요소의 보급, 행정적 절차의 부분적 검토, 몇몇 교수 내용 및 방법 적용에서의 진보는 — 용어의 남용이나 혼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 혁신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들이다.
- 2) 1970년 제네바의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을 위해 준비한 작업 문헌에서 저자들은 비슷한 관심을 다음 구절과 같이 표명하였다. “가장 심각한 낭비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비록 당장은 일찍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다수를 학교에 남도록 하는 것에 성공하더라도, 학교에 취학하는 아동의 비율을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나라는 어려운 정책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는 현행 취학률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완전히 교육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비율의 아동들을 부분적으로 교육하는 정책을 취할지 선택하는 것이다.”(Wastage in Education: a World Problem, p.115, Geneva,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1971.)
- 3) A Structural View of Student Participation in University Governance: 13 Country Profiles, Paris, UNESCO, 1970.6.9.(doc. ED/CONF.19/4)
- 4) 본 국제교육발전위원회를 대신하여 최근에 르완다에서 대안 교육 전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 지금부터 1985년 사이에 실행될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에 대한 가능한 전략을 결정하고, 계량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다섯 가지 대안 교육 전략이 구상되고 비교되었다. 이 비교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현행 체제를 지속하는 대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이는 동시에 지나치게 비싼 교육 제공 방안이기도 하다. 이 시뮬레이션 및 가능한 대안들의 비교 방법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고 이로온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cf. Jan Auerhan, Alternative Educational Strategies (Rwanda),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18.
- 5) “교육적 혁신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혁신은 발명되고, 계획되고, 주도되고, 실행되면서, 교육적 실천들이 변화하는 수업 목표에 더 적절하게 맞춰지

고 변화하는 수업 표준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Torsten Husén, *Strategies of Educational Innovation*, p.5,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 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28.

- 6) 코스타리카에서 이러한 종류의 센터 건립이 예상되고 있다.
- 7) 소련 교육과학연구원(Soviet Academy of Pedagogic Sciences)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
- 8) 스웨덴에서 제도화된 ‘연동형 개혁(rolling reform)’의 원칙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페인의 교육 개혁의 한 가지 특징으로 적용에 대한 항구적인 평가를 들 수 있다. 교육장학실과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는 최소 연 회 의회(Cortès)에 교육법 적용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교육의 확대 및 학교 체제의 쇄신과 관련된 성취 결과들의 개요가 담긴다. 교육 개혁의 운영 방식에 대한 바람직한 조정은 이런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법에서는 1971년-1981년 전 기간 동안 개혁에 필요한 지출의 역동성을 허용하면서, 해당 10년 동안 매년 약 15%의 예산 증가를 보장했다.
- 9) 물론 단위 비용의 절감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어떤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학생/교사 비율을 달성하는 단순한 해법이 효과적이다. 잠비아에서는 대학교의 학생/교사 비율이 1968년부터 1969년까지 6:1에서 10:1로 높아졌다. 취학률이 40% 증가한 데 비해 경상비(recurrent costs)는 단지 28%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 1명당 단위 비용이 거의 10%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초등학교 텔레비전 수업의 도입과 이에 수반되는 교사의 자격 승급으로 인해 학생 1명 당 단위 비용이 연간 60달러에서 80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도 개혁에서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를 통해 현재 학생 1명당 초등교육 이수에 드는 교육기간(평균 15년 학년)을 8년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당 초등교육 이수 비용이 현재 $15 \times \$60 = \900 에서 $8 \times \$80 = \640 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 10) 한 가지 새로운 해결방안은, 교육을 시간으로 배분하여 그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각 시민이 평생 동안 일정한 ‘양’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혹은 사회가 시민에게 몇 해 동안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각 시민은 ‘순환교육은행(recurrent education banks)’에서 ‘교육 수표’를 인출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시민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어느 때나 자신의 계좌에서 일정한 교육 모듈 수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때 모듈은 일정한 양의 지식과 지적, 정서적 발달에 상응한다. Bertrand Schwartz는 그의 저서(L’Éducation Permanente en l’An 2000)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학점 교육(credit-education)’ 혹은 ‘학점 훈련(credit-trai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이를 적용하는 대

안적 방안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했다. (a)모든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갖는 몇 해 동안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 (b)초기교육의 지속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계속교육이나 나중에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 예컨대 정규 학교를 마친 뒤 3년간 더 공부할 수 있는 권리 (c)학교를 떠날 때 받는 학위 수준에 의해 교육 받을 권리,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간, 대학 1학년 때 그만둔 사람은 2년간 (d)직업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 가령 의사는 4년, 엔지니어는 3년 등.

- 11) 소련은 초등교육 프로그램에 쓰는 시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효과에 관해 실험을 수행했다. 시험은 50만 명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주요 결론은 새로운 3년 단위 초등교육 수업계획(syllabus)은 아동들의 학령 전 교육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발달한 모든 아동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개혁의 중요성은 학생들이 보다 짧은 시간에 더 높은 발달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아동들의 후속 교육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새로운 3년제 초등학교 수업계획 내용의 적합성은, 이 과정을 마치고 얻은 결과와 이전에 많은 러시아의 학교에서 사용한 4년제 과정의 수업계획에서 얻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입증됐다. 과정 수료 후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관련한 통계 수치(%)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수업계획 상의) 3학년 학생은 받아쓰기 95.2, 수학 문제 96.3, 산수 문제 96.3이었고, 이에 비해 (기존 초등학교 수업계획 상의) 4학년 학생은 받아쓰기 92.5, 수학 문제 79.1, 산수 문제 93.8이었다.

- 12) 부연 설명: 본 위원회의 페트로프스키 위원은, 보고서가 “명료하고 균형 잡힌”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의장이 능숙한 요령과 이해심으로 모든 위원들과 늘 친밀하게 교류하고, 창조적인 작업 정신과 상호간 선의의 분위기를 격려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의 발언에 따라 보고서에 여러 수정이 가해지긴 했으나,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내가 위원회 회의 중 여러 차례 표명한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내 관점은 보고서의 여러 장들에 대해 상세히 논평할 때 표명했고, 또한 마르코체비치(A. Markouchevitch) 교수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작성한 “교육은 어디로 가는가?(Where is Education Heading?)” 라는 제목의 글에도 나타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이한 사회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의 교육 발전 문제는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접근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의 교육 체제에 내재한 진정한 곤란함과 문제점들, 다른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추론으로 서로 연관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본 보고서가 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교육 개념과 교육 제도에 관해서는 체계적

으로 언급하면서도,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풍부한 교육 발전 경험에 관해서는 눈에 띄게 부적절하게 다룬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는 여러 사례들과 개발도상국들을 염두에 두고, 한때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교육 발전에서 최근 이루어진 역사적인 실험에 대해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회 경제 생활의 진정한 민주화, 교육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 구축, 교육 계획과 전문가 양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나의 노력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페트로프스키 위원은 국가 교육 분야에서 짧은 기간 내에 놀라운 진보를 이룩한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교육 발전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라고 각주에 들어갔을 뿐이다.”

“교육 발전의 중요한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내 관점을 이렇게 각주로 간단히 언급한 데 대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면,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데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본 보고서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

연대의 길

모든 나라의 연대

교육 발전은 근본적으로 각 국가 공동체가 교육에 쏟아붓는 자원에 달려 있다. 모든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세계 공동체 내에서 국제적 교환과 협력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사다. 산업선진국의 교육 자원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만약 이 나라들의 야심찬 교육 사업이 외부와 단절된 채 발전하게 된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여타 다른 나라들도 국제 협력을 통해 지원과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그 발전 수준과는 관계없이 국제적 연대를 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노력의 결합

무지에 대한 투쟁이 기아에 대한 투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데 점점 보편적 동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기아에 대한 투쟁이 성공하려면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나라에서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전 세계 식량 잉여분의 재분배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교육 발전 노력을 전 세계적인 가용 잠재력과 결합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조가 필요 없도록 만들기

원조의 실제적이고 특수한 내용은 원조의 양만큼이나 중요하다. 효과적인 원조는 원조가 더는 필요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 없이도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발전은 토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지원이 교육 발전을 위해 다소 장기간 필요할 수도 있다.

국제협력의 위기

지금의 교육 협력은 모든 국제 원조에서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전 세계에 걸쳐 원조 상황이 직면한 장애물에서 볼 수 있다. 세계 최고 선진국에서 교육에 배정하는 GNP 비중이 감소하는 것, 많은 개발도상국이 지금 막다른 지점에 봉착해 있는 것, 그리고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와 받는 나라에 가해지는 여러 갈래의 비판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 등이다. 공여국은 낭비와 비효율성을 공격하고, 수원국은 공여국이 정치적·전략적·상업적 이득을 얻으려 하며 외부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외국의 문화적 모델을 심으려 한다고 불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은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해야만 한다. 또한 재정은 문제의 특수한 한 측면에 불과하다. 오늘날 세계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연대의식이다. 교육에서 이 연대의식은 광범위한 활동, 즉 지적 협력, 경험의 교류, 새로운 해결방안의 공동 모색 등을 촉진한다.

1. 원인과 이유

우리는 양자 및 다자 국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세계 공동체가 지난 25년간 인지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납득해 왔던 이유에서만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현재 상황에 새롭게, 그리고 특별히 관련되는 다른 이유에서도 그렇다.

전통적 형태의 협력

교육에서 국제 협력은 주로 세 가지 형태를 취해 왔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형태는 서로 다른 나라들이 정보와 책과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지식 영역을 확대하고 교수 방법을 풍요롭게 해 온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최근의 형태로, 근본적으로 유네스코 헌장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가장 최근의 형태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관심을 두고 교육 원조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교육 체제에 교사와 교육전문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훈련 설비와 교육 장비, 학교 건립 등을 지원한다.

원조 범위의 확대

그런데 국제 협력의 새로운 차원이 생겨났다. 이는 교육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고, 교육 이론과 실천을 다면적으로 연구하고, 문제와 해결방안을 비교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선진국들도 서로간의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교육 개혁과 혁신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류를 함으로써 막대한 혜택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류는 국제 협력의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의 개념 자체를 구체화할 것이며, 이로써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의 여지를 넓혀줄 것이다.

국제 원조는 국가 자원을 보완한다

국제 원조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국가 예산을 교육에 완전히 소진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급증하는 요구가 가용 자원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집중해 온 노력을 지속할 예산조차 이미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투자 형태의 외부 재정 원조는 대단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중등단계 기술교육과 고등단계 폴리테크닉 교육 및 고등교육에서 그러할 것이다.

원조는 혁신을 촉진한다

두 번째이자 보다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는 국제 원조가 혁신을 대단히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불충분한 자원을 도박하듯 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모험을 주저한다. 설령 그렇게 해 보려고 마음먹은 다른 나라들도 외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민간 재단의 꾸준한 원조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역자 주: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농작물의 대량생산을 통해 달성한 비약적인 식량 생산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듯이, 해당 국가 내의 혁신적인 움직임과 제대로 조율된 원조는 그 나라의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원조가 정말로 결실을 거두려면 원조 책임자들이 투자와 혁신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에 보다 큰 규모로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2. 협력과 경험의 교류

우리가 제안한 경로를 따라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간의 국제 협력이 더욱 필수 조건이 된다.

지적 협력

교육 경험의 교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교육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유네스코는 교육부장관 회의나 국제교육국(IBE) 회의, 전문가 회의, 정기적 지역 회의 및 국제 회의, 그리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교류를 증진해 왔다. 유엔과 그 전문기구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획득된 경험은 세계 공동체에 대단히 유용한 것이며, 이러한 유형의 회합이 지속되면서 얻어지는 잠재적 혜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각의 회합을 더 잘 준

비하기 위해서라도 회합이 너무 자주 열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계자들 역시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이처럼 어느 정도 제도화된 기회 외에도 전문가 간 교류, 공동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간 교류, 과학 및 교육학 학회 간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교류는 협력의 실천적 형태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혁신에 대한 정보 보급과 경험 교류는 국제 협력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경험 교류의 기제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약 없이, 편견이나 침묵을 떨치고, 진정한 국제적 교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외관상으로 그럴듯한 정치적인 측면에 따라 움직이면서, 꼭 필요한 깊이와 전문성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양자 간 교육 및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신생독립국 간 교류보다는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와 그 식민 지배국 간의 교류가 더욱 많다. 양국 간 문화협력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협약의 목적은 교육 경험과 혁신의 교류보다는 예술과 과학 교류 증진에 있다. 안타깝게도 교육 경험 및 혁신의 교류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 그들이 비록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 그다지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 의미 있는 의제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
-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 간 회합을 더 많이 개최한다.
- 과거 식민 지배 하에서 서로 단절되었던 국가 간 지역 내 문화 교류를 증대한다.
- 지리적 권역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거나 유사한 발전 경로를 따르는 나라의 대표들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회의를 장려한다.

- 교육 혁신의 실험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폭넓게 공유하도록 촉진하고, 정부관료 및 교육전문가들이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실험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한다.
 - 유네스코 회원국 간 협력의 일환으로 현지 연구자 및 교육전문가 간 경험 교류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유네스코 예산을 늘린다.
-

학생과 교사의 이동

또 다른 협력 방안은 교사가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보다 진보된 연구 성과를 따라잡거나 특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특별한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각자의 훈련 수준을 높이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교사의 이동은 대체로 법적·행정적 걸림돌이나 정보 부족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자국의 규정으로 외국인의 교직 근무를 막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경력 문제(귀국 후 고용 보장, 승진 및 연금) 역시 중요하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근무 기간은 해당 교사 경력 기간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역시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적·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각자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주요한 문제로는 언어 장벽 외에 정보, 교육과정 적응, 그리고 졸업장의 동등한 인정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졸업장 인정 문제는 분명 가장 난감한 문제다.

졸업장의 동등성 인정

학생과 교사의 이동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서로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여한 학위 및 졸업장이 점차 서로에게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¹⁾ 하지만 졸업장의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학 프로그램들이 동질화되기

나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 프로그램의 동질화는 혁신 속도를 늦추고 고등교육이 지역별·국가별 여건에 스스로를 맞춰가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졸업장의 동등성 인정은 단계별로 서로 동등한 교육기관 간에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같은 지역권 내에서, 혹은 국가들의 그룹별 협약을 통해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동안에는 학위 및 졸업장 자체와 직업에서 이를 행사할 권리 사이에는 구별을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른 중요한 주제들, 즉 교육과정, 교수법과 장비, 교육학적 연구, 그리고 다수가 이용가능한 정보센터 및 데이터 은행의 구축 등도 국제 협력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하다.

국제이해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국가적 차원의 행동이다. 직접 해외를 여행하며 다른 사회에 친숙해질 수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은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단일성과 모든 사람이 가진 근본적으로 유사한 조건과 진실한 열망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인식을 성공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이 출판되고 번역돼야 한다. 또한 이 책들을 비롯해 고유한 가치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통해 다른 문화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보급하는 체계를 갖춰, 위대한 인류 공통의 대의에 대한 공유감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별 교육과정들이 거의 예외 없이 위협할 정도로 편협하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추구해야 한다.

- 교사와 학생 간 국제 이동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정부가 나서서 외국 국적자가 자국에서 교사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도

록 한다.

- 학생과 교사가 외국에서도 교육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 이런 종류의 이동에서 모든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별을 제거한다.
-

전문가 교류

외국을 방문하는 수만 명의 학생과 교사 외에,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기술 지원 전문가들은 국제 협력과 이해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그룹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훈련 인력은 약 80,000명에 달한다.

1968년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국가들은²⁾ 개발도상국에 56,183명(이 중 11,650명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 인력을 제공했는데, 그중 49,368명은 교사,³⁾ 4,345명은 행정가, 2,470명은 자문가였다.

같은 해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발도상국에 21,000명의 전문가를 보냈다.⁴⁾

1970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8,848명의 전문가를 고용했다. 이들 대부분은 산업선진국 출신이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 출신도 점차 늘어 1,823명으로 전체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출신 전문가는 총 396명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집트 출신은 161명으로 15위다.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에 의한 대학원생 및 대학생의 해외연수는 국제 협력 및 자격 소지자들의 국가 간 이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68년에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양자 원조로 학생 41,000명과 훈련생 36,000명의 훈련이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치로는 학생 15,750명과 훈련생 1,600명이 재정지원을 받은 통계가 있다.⁵⁾

소련에서는 1970-71년에 30,000명의 외국 국적 학생이 특수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다닌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은 1970년에 8,6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 중 7,120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이다. 장학금이 수여된 주요 분야는 기술 훈련, 산업 훈련, 농업 훈련, 중등교사 훈련, 통신, 교통 분야 훈련, 공공행정 및 개발계획 훈련 등이었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훈련을 실시한 현장 전문가들과 훈련 인력은 교육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는 국제 협력의 중요한 형태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협력이 언제나 매끄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초빙전문가들은 파견 지역에서 전문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문화적·인류학적 물질적 조건에 대해 상호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역 환경 적응에 실패하는 데 기인한다. 때로는 외국의 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선진국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도 일어난다. 최선의 지원은 곧 지원이 사라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은 종종 잊혀진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된 사례들 때문에 일부 개발도상국의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서는 외국 전문가를 꺼리는 태도가 생기기도 한다.

요약하면,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 우수해야 하고 더 적은 수로 스스로 현지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동료나 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현지 혹은 현지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

우리는 협력의 형태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그 절차가 단지 틀에 박힌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개발도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그 나라의 학생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이제 더는 가장 중요한 지원 제공 방식이 아니다. 이제는 직접 전문 인력을 훈련시킬 정도로 커다란 진보를 이룬 나라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해외연수

자체적으로 전문가와 관리 인력을 훈련시키는 문제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인접 국가에서 해외연수를 받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문직 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정책, 그리고 해외연수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한 가지 실속 있는 파견 방법은 외국의 투자⁶⁾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 세트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유용한 혁신적 방안이고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으로, 훈련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환경에 밀접하게 연관된 대규모의 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외연수가 분명하게 필요하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소수의 전문가 그룹만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훈련 비용을 지불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장학금 제도가 가장 선호된 방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과 교사, 학생, 행정가들의 교류를 포함한 다른 방안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능한 외국 학생들을 해외연수 기간 동안 국가가 보조 강사로 고용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고, 대학 및 훈련과 연구를 위한 교육 관련 기관들이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동료들과 짝을 이루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일종의 ‘명예규율(code of honour)’을 만들어 외국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행동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 외국인 전문 인력의 역할과 지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 진보를 잘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진보가 괄목할 만해서 초기의 일방적 지원이 이제는 상호적 지원에 이른 곳도 있고, 산업 선진국이 제3세계 전문 인력의 원조 속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획득한 경험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 개발도상국 간 상호 지원을 특히 같은 지리적 지역 내 국가 간에 반드시 증대해야 한다.

두뇌 유출

지적 협력과 인력의 해외 훈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여국의 이익을 위해 기획됐던 연구 프로젝트들이 일종의 지적 역량 고갈로 끝나는 것을 보아 왔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 교육을 받는 학생이 고국과의 연결을 끊거나, 그가 받은 훈련이 고국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거나, 학생이 공부가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해외 교육은 항상 그 출신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뇌 유출(brain drain)’은 지적 협력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표 7> 참조). 두뇌 유출은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와 해외 유학생의 귀국 실패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산업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로 이주한 과학자와 공학기술자들의 3/4이 다른 OECD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왔으며, 1967년에는 그 비중이 55%에 달했다. 반면 미국에 사는 외국인 과학자의 33%와 캐나다에 사는 외국인 과학자의 16%는 개발도상국에서 왔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오는 숫자는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⁷⁾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일부 국가는 이웃 국가로부터 인재를 끌어들이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때로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데, 특히 출신국에서는 적합한 연구실을 찾을 수 없는 고위급 연구자들이 포함된 경우에 그렇다. 이런 과학자들의 활동은 국제 과학 공동체 전체에 귀중한 것이지만 자신의 모국에서는 이를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다. 자격에 상응하는 마땅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도 해당된다. 결국 이런 나라들은 늘어나는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외화의 유입으로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두뇌 유출의 문제는 교육 발전을 위한 원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해외 이주 문제를 첫 번째로 설명해 주는 것은 분명 물질적인 원인이다. 사람들은 높은 급여, 보다 나은 생활과 일의 조건에 이끌린다. 본국의 실업 및 불안전 취업 상황, 연구 설비 부족, 부족한 전문성과 사회적 만족도, 여기에

<표 7> 최종 거주국별로 본 미국 이주 과학자와 공학자 수

(단위: 명)

출신 국가	1956	1962	1963	1964	1965	1966
유럽						
유럽 경제 공동체						
벨기에	18	18	24	25	33	37
프랑스	79	47	89	82	103	112
서독	339	277	353	425	370	346
이탈리아	72	62	53	38	58	107
네덜란드	105	113	72	60	80	71
계	613	517	591	630	644	673
스웨덴	144	53	81	90	106	95
영국	433	959	910	1,006	941	1,251
기타	489	388	503	551	540	696
계	1,679	1,617	2,085	2,277	2,231	2,715
캐나다	1,003	1,054	1,157	1,084	1,189	1,105
그 외 북·남미	718	819	858	940	922	843
일본	17	39	81	39	23	75
기타 아시아국	288	379	1,157	885	456	1,825
기타	121	146	288	176	183	210
계	3,826	4,054	5,626	5,401	5,004	6,773

* 출처: US Government(1967). The Brain Drain into the United States of Scientists, Engineers and Physician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정치적 신념까지 결합돼 지식인들이 조국을 떠나도록 부추기거나 강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여기든 두뇌 유출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물질적, 문화적 원인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정부 당국들은 행정적인 방안의 형태로 즉각적 처방을 강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경 폐쇄

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해외이주를 쿼터제로 제한하거나, 이주자로부터 이들의 훈련에 투자된 자본금 회수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국가 공동체가 입는 진정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⁸⁾ 이런 식의 강제 조치는 제한된 효과만 거둘 수 있다.

여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 해외 이주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환경보다는 유년기에 형성된 경향성에 의해서 내려진다. 여러 사회에서 인구 대이동(exodus)은 시골 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의 생활 패턴은 도시를 모방하고, 교육 시스템은 수입된 학교 모델을 따른다. 이 두 가지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통합되도록 돕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 대신 객관적으로 유용한 가치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그들의 환경과는 동떨어진 가치들을 불어넣어 주면서, 시골 환경에서는 점점 더 실현하기 어려운 지적이고 물질적인 야망들을 북돋운다. 그렇게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원천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후에 그들을 도시로 밀어낸다. 하지만 고유한 삶의 원천이야말로 청소년의 인격 발달과 민족 의식 형성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회적·문화적 사다리를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뿌리 없는 존재이자 잠재적 이방인으로 만들며, 그 길은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결국에는 해외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의 중심에는 교육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 환경에 안착하게 만드는 가치를 심어주는 데 실패하고 뿌리 없는 존재로 이민을 가도록 추동한 것만큼이나, 사회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한 언젠가는 훈련받은 사람 중 일정 부분이 해외 이주를 한다는 개념이 긍정적 표현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해외 이주가 더는 집단적 소외감과 거부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게 될 때, 이는 아이디어의 이동과 세계적 통합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⁹⁾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개인이 모든 수준에서 자신들의 환경에 더욱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통합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각국의 고유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필요 장비를 제공한다.
 - 풍부한 장학금이나 유급 휴가를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여행하고, 과학 혁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며, 해외 동료 과학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명시적으로 국가 과학정책을 정의하고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기획을 돕도록 한다. 과학자들이 가능한 많이 과학 행정에 연관되도록 해 관료 주의적 절차를 축소하고 행정가의 역할을 제한한다.
-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지난 25년간 국가 간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된 광범위한 국제적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 간 경험 교류와 지식 이전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유네스코 활동의 범위와 효과에 있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충족시켜야 할 엄청난 요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단들로서 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유네스코 활동의 틀 안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연구되지 않거나 명확해지지 않은 교육의 측면은 거의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이 없었다면 교육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 개념들이 그토록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없었다면 많은 개발도상국은 자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특히 강력하고 긴박하게 생겨난 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훨씬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축하하기보다는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점에

서 서로 대비되고 양쪽 다 결점이 있는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태도는 유네스코에 불합리한 희망을 걸면서 유네스코가 성격상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성취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유네스코가 과학적 진리에 대한 책임 외에는 다른 어떤 업무임도 없는 세계에서 진화하면서 국제적 세계관의 구현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들은 유네스코의 결정과 판단은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객관성, 공정성과 정의의 미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유네스코는 세계 정치의 복잡한 장치로부터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유네스코 같은 조직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 없다고 여기고, 서로 상충하며 행사되는 외부 압력과 운영을 마비시키는 제약 때문에 손상되는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는 태도다.

물론 유네스코 활동은 아무런 간섭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활동에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발되고 형성된 여러 방안에 회원국의 정치적 임무도 포함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 방안에 무게를 더해주며 그것들이 수용될 여지를 높여준다.

우리는 다음의 견해가 교육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 속에, 특히 본 보고서의 방향에 따라 마련되는 노력 속에 완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관련 국가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체제와,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요소이자 새로운 가치의 원천으로서 이러한 노력은 인간 조건의 필수적인 변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가오는 미래에 유네스코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국제 기구들은 각각이 맡은 분야에서 전쟁과 평화, 기아, 인종문제, 식민지배, 환경 등과 같은 국제적 사안들을 진정한 국제적 정신으로 다루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그 모범을 보이기에 적합하다. 즉, 우리가 보기에 교육 혁신은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반드시 세계적 규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지적 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다른 어떤 국제기구도 이 영역에서, 특히 교육 개혁의 분야에서 유네스코보다 더 잘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교육 개혁 분야야말로 광범위한 교육 쇄신을 불러일으킬 발효와 숙성의 원재료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유네스코는 교육 활동 전반에서 인종주의자와 국수주의자들의 주장과 행동에 맞서 싸우는 데 열의를 다해 참여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교육이 지역주의를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하고, 세상의 혜택받지 못한 자들이 교육을 마치 새로운 무엇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수입된 교육 모델을 모방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을 위해서나 유네스코 자체 활용을 위해 국제 원조의 새로운 개념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통상적인 프로젝트나 기존 형태의 전문가 파견은 떨쳐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몇 가지 유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활동은 너무 자주 현지의 주도성을 약화시키고 잘못 적용된 방안과 실천 관행을 이식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네스코 국제 지원의 많은 부분을 새로운 교육 방법의 연구와 실험에 집중함으로써 낡은 교육 실천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교육 혁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에 국제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네스코는 이 평가시스템으로 각 나라가 교육에서 성취한 결과를 심층분석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희망하는 바는, 이 보고서 전체에 걸쳐 우리의 지침이 된 그 판단에 바탕을 두고 유네스코 또한 교육혁신을 지향하며 사명을 수행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이론적 연구와 실천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교육기관과 교육 방법,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과했던 제약을 넘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무한한 교육적 요구들을 충족하도록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3. 지원의 재원과 양식

산업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원조는 교육에서의 국제 협력을 확고히 지지하고 지향하고 있다.

기술적·재정적 원조

양적인 측면에서 국제 기술 지원에 대한 세계 경비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단일 요소는 교육과 직업 훈련에 제공되는 원조다. 1968년에 이는 양자 간 기술 지원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이 1969년에 받은 원조¹⁰⁾는 약 88억 달러였는데, 이중 57억 달러는 자본주의 국가가, 19억 달러는 사회주의 국가¹¹⁾가, 12억 달러는 다자기구가 제공했다.

모든 재원별 교육 원조 총 지출에 대한 연도별 공식 수치는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았다. <표 8>은 기존 데이터와 추정치에 기반해 작성한 것이다. 차액은 사회주의 국가 제공 원조 관련 화폐가치 차이를 반영하고, 민간 원조 추정치의 신뢰성에서 가능한 변수를 고려해 작성했다.

<표 8> 교육 원조

(단위: 백만 달러)

원조 형태	1968-69(연간)	1970-71(연간)(추산)
양자 원조		
DAC 가입국	710	760*
사회주의 국가	150~200	150~200*
다자 원조	220	400
민간 원조	120~170	350~400
총계	1,200~1,300	1,660~1,760

* 1967-1968년 사이에 제공된 원조액에서 추산한 수치 혹은 동일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임.

* 출처: H. M. Phillips(1971).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p.4, Paris, UNESCO.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s Series), 49.

1968년 교육 원조 총액은 개발도상국 교육비 총지출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그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커서 일부 프랑스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40%에 달하기도 했다.

교육 훈련 및 연구에 대한 원조는 거의 대부분 국제연합(UN) 기구가 제공하고 있다. 이 원조에는 전문가 서비스 지원, 학생 장학금, 훈련 과정 제공, 국가 수준 및 지역 수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비 및 출판물의 제공 등이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공한 원조 총액은 1968-70년까지 3년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표 9>와 같다.

<표 9> 1968-70년 UN 개발기금 산업부문별 지원

(단위: 백만 달러)

부문	1968	1969	1970
농업	53.0	60.3	69.0
공업	35.6	34.4	31.2
공공서비스	24.4	34.4	31.2
주택과 건축	2.8	2.6	3.0
다부문 프로젝트	14.3	15.4	16.0
보건	9.1	6.6	7.2
교육과 과학	23.3	19.8	24.0
사회서비스	2.7	2.0	2.4
행정	10.4	10.7	12.6
소계	175.6	176.5	206.2
기관 고정 운영비	20.4	25.3	25.5
총계	196.0	201.8	231.7

교육 차관

이 총액에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제공한 차관 등을 더하면 1971년 6월까지 총액은

4억 2,400만 달러다. 이 총액의 절반 가량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가 제공했다. 국제개발협회(IDA)는 국민 일인당 연간소득이 300달러 이하인 나라들과 협약을 체결한다.

1971년 말까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약 600개의 고등교육기관과 기술 및 직업교육 기관에 총 1억 5,050만 달러를 대출해 건물 신축과 실험 장비 및 도서관에 사용토록 했으며, 그 밖에 600만 달러를 고급인력 훈련에 지원했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는 18개 아프리카 국가와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일부 나라의 해외 자국령을 지원했다.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EDF)을 통해 제공된 자본금 원조(1969년 말 1억 4,500만 달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및 훈련생 장학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국 자체에서 제공하는 훈련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1963년 10%에서 1968년 44%로).

개발도상국 내의 공교육비 지출이 원조 증가세보다 훨씬 빨리 높아지는 것과 비교할 때, 교육 원조의 증가 추세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원조를 받는 비중은 전체적 지출과 관련해서 볼 때 감소해 왔다. 이와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원조의 증가율은 공여국의 GNP 성장률보다 낮다. (예를 들어 1967-68년에 산업선진국의 평균 GNP는 9.3% 증가한 반면, 이 나라들의 교육 원조 증가는 단 6%에 그쳤다)

게다가 다자 원조는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한 상태다. 전반적 교육 개혁의 선결조건의 하나는 교육 경험과 혁신이라는 보편적 자금을 국제 사회가 공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양자 원조는 문호를 살짝 개방하는 것이고, 다자 원조는 정보와 경험을 세계적으로 순환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다자 원조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며, 정밀한 탐구에 열려 있고, 모든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해결방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으로,

- 우리는 교육 원조는 향후 증대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 투자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특수한 성질의 투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즉각적인 미래에 신속히 투자 증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액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양자 간 교육 원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양국 간 원조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국가들이 그 외 다른 형태의 원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다자간 원조의 발전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다자간 원조가 국제 연대의 요건에 더욱 잘 맞는다. 어떤 경우에도 다자간 원조는 양국 간 원조보다 충분히 높은 비중에도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 끝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원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하다.
-

국제 원조: 분배와 여건

교육 원조의 분배에는 지리적으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격차들이 나타나고 있다.

1967년에 프랑스 교육 원조의 80%는 아프리카로 갔고, 영국 원조의 50% 이상도 아프리카로 갔다. 미국 원조 총액 중 38%는 아시아로, 31%는 아프리카로, 그리고 20%는 라틴 아메리카로 갔다. 한편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정적 원조는(다른 저개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원조는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중동 및 남아시아 70%, 극동 지역 10%, 아프리카 15%, 라틴 아메리카 5%.

아프리카는 원조의 절대가치에서나 일인당 원조액에 있어서나 국제 원조의 최고 수혜지역이다. 양자 원조의 65%, 유엔개발계획(UNDP) 지출의

40%, 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회(IDA) 신용기금의 50%가 아프리카로 갔다. 아시아는 절대액수에서 그 다음이지만 방대한 인구 규모로 볼 때 일인당 지원액은 아랍 국가들이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적다.

<표 10>은 1968년의 일정한 통계수치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최근의 동향을 꽤 명확하게 그려 주고 있다.

<표 10> 1968년 범주별·수혜지역별·원조지원국별 원조 상황

(단위: 명)

범주	원조수혜		원조 지원국		
	지역	DAC 가입국	프랑스	영국	미국
학생	계	39,441	8,561	6,129	11,168
	아프리카	14,537	5,478	2,500	3,142
	아메리카	7,150	1,142	813	3,473
	아시아	14,372	1,412	2,383	3,683
훈련생	계	31,140	6,474	4,043	5,284
	아프리카	11,523	5,156	1,305	835
	아메리카	7,416	576	1,204	2,303
	아시아	9,214	494	1,057	1,750
직원*	계	56,183	30,115	7,143	10,273
	아프리카	42,344	27,015	6,180	3,904
	아메리카	4,552	916	392	1,892
	아시아	6,625	1,698	498	3,304

* DAC 가입국에서 지원한 교사, 행정가, 자문위원 및 자원봉사자 포함.

* 출처: OECD(1970). Aid to Educa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OECD. Paris.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67년에 19,400명(저개발 사회주의국가 국민은 포함하지 않음)의 훈련을 원조했는데, 이들 중 44%는 아시아, 46%는 아프리카, 10%는 남미 출신자였다.¹³⁾

이론적으로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원조가

제공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원조 계획을 작성할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외국인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많은 원조 프로젝트에는 공여국이 제안한 큰 규모의 방안들이 포함된다.

더욱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원조를 받고, 원조를 조정하고 국가 계획수립에 통합하는 데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노력의 중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진정한 무상 원조란 없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제 원조에 있어서도 원조의 기반이 되는 원칙 자체를 위반하는 요소들이 흔히 포함된다. 원조가 이론적으로 가져와야 할 혜택이 실제로는 대단히 줄어드는데, 이는 비용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재정처리비 및 간접비가 포함되는 등에 의한 것이다.

조건부 원조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외부 원조의 실제 액수가 일반적으로 서류상에 제시된 것보다 적은 화폐 가치로 환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에 제시된 수치들(<표 10> 참조)은 공여국이 해당 원조에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금액은 수원국에 실제로 가는 가치와 동등하지 않다(장학금처럼 직접 송금되는 경우 제외).

그 차이는 무엇보다도 일부 원조의 '조건부'에 기인한다. 즉, 원조금 수령이 원조 지원국이 정한 조건에 의해 규제를 받을 때 생긴다. 많은 경우 조건부 원조는 지원국의 화폐를 교환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들이 공여국으로부터 장비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서 개발도상국들에 불리한 점은 비용 지출(주로는 학교 건축을 위한)이 원조 지원국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조사 및 운송 장비 등을 쓰고 건축 현장에 전문가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 비싼 가격을 수원국이 지불하게 만든다. 간략히 말해 조건부 원조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물질적 원조를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동시에, 수원국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방안이다.

때로는 차관에 대한 이자율도 너무나 다양하다. 중국과 국제개발협회(IDA)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IDA는 명목상 수수료 0.75%만을 받는다), 세계은행은 1970년에 자체 이자율을 6.5%에서 7%로 인상했다.

끝으로 국제 원조가 원조를 매우 필요로 하는 나라들보다는 인적 자원이나 경제 수준 및 성장률면에서 비교적 혜택을 누리는 나라들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빈곤한 나라는 성장에서 더 앞서 있는 나라보다 대체로 원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고 개발 프로젝트의 수도 더 적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국가가 받는 국제 원조의 양이 그 나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면, 가장 동력이 있어 보이는 나라들에 원조를 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여기서 남는 사실은 이런 절차로 인해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제3세계 국가들과 그보다 나은 국가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모순적인 사태에 내재된 위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기구들이 국제 협력과 지원의 지리적 격차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원조는 양자 간이든 다자간이든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정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탈식민화 및 국가 간 진정한 국제 관계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조건부 원조의 관행은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공여국은 그들의 원조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국가적·지역적 기관의 훈련을 위해서, 이웃 국가 간의 장비 제공을 위해서 등) 쓰일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이는 분명히 관련된 국가들이 의견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발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국제적·지역적 재정기관들이 교육 및 훈련 차관에 대한 이자율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해결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a) 저개발 국가에 유리하도록 차등적인 이자율 적용 (b) 산업선진국 정부의 이자 혜택 부여 (c)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분담금 증대

교육 원조와 세계발전전략의 상호관련성

모든 형태의 국제 협력은 — 비록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 결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다. 국제 협력이 효과적이려면 그것이 국가 내 교육정책에 통합되어야 하고 국가 전략 및 우선과제가 반영 돼야 한다.

교육은 사회의 생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의 생산자라는 것,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구조 및 방안들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육 면에서의 국제 협력과 지원은 반드시 세계 발전 및 국제 원조의 일반 전략에 포괄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제공된 공공 및 민간 기금의 총액은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고, 액수는 77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올랐다(순지급액).¹⁴⁾

1968년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는 산업선진국들이 GNP의 1%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순재정 양여금(net financial transfers)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1970년 분담금 총액은 선진국들의 GNP의 0.78%로,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40억 달러가 부족한 액수였다. 사실 이 평균값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미국의 GNP가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국 총GNP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GNP의 (1%가 아닌) 0.55%를 분담금으로 냈다. 반면에 단 5개국(호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만이 1970년에 자국 GNP의 1% 이상을 냈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는 1969년에는 1% 목표를 달성했으나 1970년에는 실패했다.

공공 및 민간의 재정 양여금 총액은 제쳐두고 단지 공적 원조만 고려했을 때도, UN이 제안한 1975년도 GNP의 0.70%라는 목표는 달성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이 달성한 최고치는 1961년의 0.54%였다. 이후 그 수치는 꾸준히 떨어져 1969년에는 0.36%, 1970년에는 0.34%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액도 1966년 14억 달러에서 1968년에는 7억 2,4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저개발 사회주의 국가 원조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다자 기구를 통한 원조는 1960년 2억 8,400만 달러에서 1970년에는 15억 달러가 되었다.

민간 기관들의 원조 기여금액은 상당히 증가해 왔다.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민간 기관 원조액은 1960년 31억 5,000만 달러에서 1970년에는 76억 400만 달러가 되었다.

향후 몇 년간 우리는 새로운 지출의 경향에 대비해야만 한다. “국가 예산 내에서 설비 투자와 교육 투자 간 심각한 경쟁이 있을 것”¹⁵⁾이 분명하다면, 국제 지원의 자원 중에서 점점 요구가 늘어나는 농업, 공업, 사회 인프라,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출이 교육비 지출과 충돌할 것이 분명하다.

교육 원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계 발전에 배정되는 전체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¹⁶⁾

전체적으로 보아 국제 원조 증가에 대한 전망은 좀처럼 밝지 않다. 사실 개발도상국에 주는 지원과 국제 무역 체제에서 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모순관계에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불안정한 세계 원자재 시장과 환율 붕괴 때문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국제 무역은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 이 나라들은 차관 상환과 부채 수수료 지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자본을 산업선진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연대의식의 결여를 불러옴으로써 국제 교육 원조에 지나치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육 원조를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경제적 선진국들이 UN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늦어도 1975년부터는 매년 자국 GNP의 최소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양하는 것이다.

전체 원조 총액에서 교육 및 훈련에 배정되는 금액 비중을 점차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 방안들이 필요하다.

- 자국 내 프로그램을 참고해 개발 사업에 배정되는 재정자원에 대한 양도

금 총액에서 교육 원조가 차지하는 부분을 재조사한다.

- 모든 국가 발전 프로젝트에 패키지 프로젝트로서 교육적 요소를 포함시킨다.
 -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공공과 민간의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발전 프로젝트에 고용된 자국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체계적으로 요건화한다.
-

행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

만약 우리가 믿는 대로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교육계와 교육이 직면할 도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실제로 온다면, 만약 교육 활동을 통상적이기보다 더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인식한다면, 만약 기존 시스템의 단편적 개혁은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 시스템 구축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 교육 활동 역시 재검토를 해야만 할 것이다.

국제적 방안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주로 관여해왔던 영역, 즉 질적 향상, 교사 훈련, 성인 문해 캠페인 등과 같은 영역에 더는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방안들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무엇보다도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교육학적 실험을 탐색하고 혁신을 위한 공동 행동 등을 포괄해야 한다.

외국 원조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 해도, 이를 가장 긴급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맞춤화할 수 있다면 이런 원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원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 활동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표들을 수정하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파악하도록 세계 공동체가 독려해야 한다.

발명 정신

교육발전센터 및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이런 측면에서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교육적 요구들을 무시하지 않는 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유형의 기관 설립에 국제 지원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교육 원조는 연쇄 반응을 가져오기 가장 쉬운 ‘진입 지점’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을 동반하는 원조를 받을 경우, 그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함께 요청해야 할 것이다. 즉, 값비싼 실험 비용 분담, 새로운 대안 실행을 도울 최고 자격을 갖춘 다학문적 전문가 팀의 파견, 정교한 기술 장비 제공, 컴퓨터 지원 수업이나 고급 문서작성 기술 등 영역에서의 전문가 훈련, 새로운 타입의 교수 학습 센터 마련, 현대적인 행동 패턴 측정 기법, 교육과정 설계, 교수 보조 장비 마련 등이다.

이러한 국제 원조 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외국인 ‘전문가’와 그의 현지 동료와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할뿐만 아니라 비용과 사업의 위험 부담까지 나누어 지는 파트너십으로 전환돼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분야에서는 위험부담 없는 혁신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운영적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고와 이상의 수준에서도 크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되었다.

국제 협력과 지원은 개혁, 혁신, 발명, 창조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것만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활동할 미래의 위원회가 제2차 10개년 발전을 설명할 때, 제1차 10개년의 교육분야 성과를 종합했던 이전 위원회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들(제1차 10개년 발전)은 교육학이 알고 있는 최상의 것을 전파하고 낡은 모델들을 빠르게 발전시키고자 부지런히 노력했으나, 관습적인 지혜에 도전하는 것은 유난히 망설였다”고 말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희망한다.

- 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다자·양자 기관들은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 프로젝트는 각국이 교육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시스템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진입 지점’을 확정하도록할 것이다.

- 양자·다자 원조는 대안적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그리고 교육 개혁을 지속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 선진국은 기존의 국제 지원 방안 하에서도 새로운 방법과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위한 운영 비용과 산업사회에 도입된 고가의 현대적인 교육 기법과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데이터와 경험의 교류를 체계화해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모든 측면에서 혁신 단계에 필수적인 창조적 정신을 장려한다.
- 국제 사회는 틀에 박힌 활동을 반복하기보다는 더욱 많은 실험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해 세계가 새롭고 풍부한 경험의 저장고를 갖도록 하는 한편, 가능한 한 연구실 실험을 현장 실험으로, 예외적인 조건에서 수행되던 시범 프로젝트를 각국의 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영되는 실험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 국제 원조는 소비재 제공이 아닌 생산 잠재력을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립식 학교 제공이 아닌 국가적 건설 산업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이 공급이 아닌 국가적 종이 산업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국제 협력이 새로운 혁신을 기획하고 확산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해결방안의 탐색이 부적절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제 협력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단, 교류, 자원

우리는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현재와 미래 교육 문제의 해결방안들을 제안해 왔으며, 이들을 몽뚱그려 말하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라고 볼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

고자 애썼던 것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조차도 교육 문제의 심각성에서 예외가 아니며,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 결단과 대단한 상상력을 동원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육 저발전의 악순환을 깨겠다는 결의가 가장 큰 나라라 할지라도 새로운 해결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정치적·사회경제적 선택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이고, 이의 집행에서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교육의 혁신이 일어날지 여부는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성의 맥락 안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고려를 통해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적 의지 자체만으로는 현재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거나 교육 구조의 개혁 혹은 변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활용해야 하며, 국제적 교류를 증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원과 훈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적절한 외부 원조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각국의 결단과 내부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 덧붙여 세계적 규모의 협력과 연대가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제 지원을 위한 시설 — 양자 협력이든 다자 협력이든, 기존 기관들의 현행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들의 운영 범위에서든 — 은, 지금 보다시피, 개발도상국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해결방안에는 운영 과정에서의 부분적인 수리 방안이 아니라 해당 국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구조적 점검 방안과 교육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현행의 양자·다자 원조 형태와 그런 원조에 이용되는 자원, 심지어 그런 원조에 갖든 개념들까지도 오늘날 국제 사회가 맞닥뜨린 교육적 요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 상황이 드러나자 다양한 치유 처방을 모색했다.

우리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교육 혁신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환영하면서도,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센터, 특별 기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교육 혁신과 이미 실험되고 검증된 오늘날의 교육 모델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과 센터 및 기존의 수단들을 재조직하고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이라고 믿는다. 그런 방안들로 다가오는 미래의 교육적 요구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국제교육혁신 프로그램

이와 달리 일부 위원들은 주목할 만한 다른 방법을 고안했다. 이는 오직 새로운 교육 발전 경로를 탐색해 교육을 현대화는 것을 원하는 나라들을 위해 과학적,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프로그램¹⁷⁾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국제 프로그램의 대상은 새로운 교육 발전 경로를 탐색하여 교육을 현대화하고자 하지만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대안을 검토하며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조직적인 기구들이 부족한 나라들이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적절하고 특별한 재정 조항들이 따르는 이 국제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국제 프로그램은 필요한 기술적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기술을 도입하도록, 교육을 현대화하고 프로그램화된 교육안을 개발하도록, 그리고 시청불가 지역에 (중계위성과 기지국 설치, 각 지역공동체별 최소한의 TV 수신기 제공 등을 통해)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이 국제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나 내용,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과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 당국과 관계자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은 정상적일 경우 개발도상국의 초기 투자 비용을 상당히 경감할 것이며, 그 후에는 지나친 재정적 부담없이 설치된 장비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국제교육혁신 프로그램은 세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과제에 가장 잘 대응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우리들 중 몇 사람은 이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위한 가능한 재원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를 통해서 본 가능한 재원은 국제기구 및 기관들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재정의 일부를 통해, 그리고 각국에서 예산 삭감이나 민간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위원회의 몇몇 위원은 이 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재정 방안은 국방 예산을 고정비율로 절감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지지한다. 당연히, 꾸준하고 전반적인 군비 축소는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일뿐 아니라 방대한 자원을 인류 사회의 발전에 돌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비록 그러한 전망이 아득해 보이기는 하지만, 군사비 지출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교육 발전에 배정한다는 결정은 그 나라의 국민과 정부가 교육 혁신에 착수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확실하고도 고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한 국민과 정부는 세계적인 대책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을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하며, 인간 개개인의 발전을 증진하는 과제를 기꺼이 맡겠노라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제안한다.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은 그것이 국가적이든 국제적이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현재 교육에서의 ‘연구 개발’ 측면을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국은 현행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각국의 문화와 자원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고안하고, 기획하고, 검증해야 한다. 만약 각국 및 지역 기관과 원조 관련 기구들이 이러한 국가 역량 강화를 다음 10년간의 최우선 사업으로 둔다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진정한 ‘학습사회’ 실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중 몇몇은 ‘국제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부설이자 대표적인 국제 기구의 관리감독 하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상세 연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국이 교육 시스템 혁신을 향해 결정적인 걸음을 내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 1) 유네스코의 방안에 따라 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 졸업자격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이 작성됐고 이는 1973-74년 중에 조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은 해당 분야에서 이룬 최초의 긍정적인 성취가 될 것이다. 다른 지역(아프리카, 아랍 국가들, 유럽 공동체 국가들에서)의 협약도 준비 중에 있다.
- 2)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경제공동체 위원회(EEC's Commission).
- 3)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 초·중등교육 36,309명(73.5%), 고등교육 5,909명(12.0%), 교사 훈련 1,161명(2.3%), 기술 및 직업 훈련 3,739명(7.6%), 기타 2,250명(4.6%).
- 4) OECD, *Resources for the Developing World: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Less-developed Countries, 1962-1968*, p.305, Paris, 1970.
- 5) *Diplomatiya i Kadry*, p.86, Moscow, 1968.
- 6) 1968년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다.
- 7)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p.27, Paris, OECD, 1970.3.
- 8) 예를 들면, 영국에서 공학 학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6,000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만약 그가 해외로 이주하면 영국 경제의 손실(그의 직업 경력의 실제 가치)은 £30,000로 추산된다. 반면에, 그가 미국에 간다면 미국 경제에서 그의 가치는 약 £78,000가 될 것이다.(cf. Committee on Manpower Resourc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Brain Dra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Migration*, p.16, London, HMSO, Cmnd 3417, 1967.)
- 9) 여기서 우리는 고등교육기관의 네트워크로 형성될 '유엔대학' 설립 프로젝트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양쪽 모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 그룹이 그 문제를 토론했지만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트리에스테(Trieste)에 있는 국제이론물리학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는 이러한 종류의 사업의 확실한 사례다. 이 센터는 과학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과학자 훈련, 그리고 과학 분야의 국제 단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10) 우리는 무상 증여나 이자가 3% 이하인 차관만이 원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저자들은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더불어 모든 차관을 국제 원조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한 자본 흐름은 흔히 지원 동기가 아니라 사업적 동기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저자들은 산업선진국 간의 상호 원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11) 이 통계 수치에는 덜 개발된 사회주의 국가들, 즉 쿠바, 북한, 몽골, 북베트남에 대한 총액 11억 5,000만 달러의 지원이 포함된다. (OECD, *Resources for the Developing World: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Less-developed Countries 1962-1968*, p.392, Paris, 1970.)
- 12) 본 위원회 페트로프스키 위원의 의견은 한 가지 형태의 국제 원조가 다른 형태보다 더 낫다는 요약적 진술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 구체적인 역사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3) *Diplomatiya I Kadry*, p.86, Moscow, 1968.
- 14) 총지급액에서 초기 차관에 대한 상황을 뺀 것(하지만 이자는 차감되지 않았다).
- 15) R. Poignant, J. Hallak, Ta Ngoc Châu and C. Tibi, *The Financing of Educational Expenditure, 1970-1980*, Paris, UNESCO, 1971,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의견 시리즈(Opinion Series), 15.
- 16) 본 위원회의 페트로프스키 위원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GNP의 1%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착취를 통해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뽑아낸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그런 것이 요구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3세계 원조는 특정한 고정비율로 묶어 놓는 일종의 보상금 처럼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 17) 여기서 ‘국제 프로그램’은 기존의 국제기구에 부속된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제 프로그램의 임무는 특별하고 한정된 목표를 위해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기금을 동원하는 것, 그리고 정부와 비정부 부문 모두가 참여하는 특별 활동에 대한 요청이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이런 활동 형태의 타당성을 보여준 선례다.

부 록

1. 위원회 구성과 조사활동방법
2. 일반적 위임사항
3. 위원회의 방문 국가들
4. 국제기관 및 지역기관 방문과 회의 참석
5. 위원회 사용을 위해 사전준비된 문서
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인사들
7. 교육통계
8. 공교육비지출
9. 회원국들의 의무교육 실태
10. 오늘과 내일 세계에서 의 문해

* 부록은 다음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원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3222>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ed.team@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

번역 이현경
감수 및 윤문 한송희
교열 홍보강, 김보람, 권송, 유보람
디자인 정명진

ISBN 979-11-90615-30-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1-BK-4

원제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1972년 최초 발행 유네스코(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및
George G. Harrap & Co. Ltd. (182-184 High Holborn, London
WC1V7AX)

초판 발행 1972년 8월
ISBN 978-92-3-101017-0

2판 발행 2013년 10월
ISBN 978-92-3-104246-1

이 책에 표현된 생각과 의견은 저자들의 것으로 유네스코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이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에 사용된 명칭이나 제시된 자료는 국가, 영토, 도시, 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나 그 권한,
혹은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관한 유네스코 측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유네스코 2013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한국어판

“국제교육발전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인생의 모든 시기에 걸쳐 배울 수 있고 평화를 위한 진실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균형잡힌 인간의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 이리나 보코바 제10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포르 보고서는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출간한 어느 보고서보다도 의미 있고 혁신적인 선언을 담고 있다. (...) 여러분들께 묻는다. 포르 보고서가 제안한 ‘총체적 개혁’ 말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한국 교육문제의 난망함을 치유할 수 있을까?”

-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32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에 발간된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일명 ‘포르 보고서’의 국문본을 새로이 출간하고자 한다. 50여년이 지난 보고서를 재출간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 포르보고서가 발간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한경구 제21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